

---

5월, 15일의 쓰기로 연결되다

2024-1 라이팅챌린지3주프로젝트

---

**BAND**

**LOG OF  
2024/05/07-  
2024/05/28**



**2024-1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

**2024.05.07-2024.05.28**



2024/05/07  
tuesday, am 7:37 | 49읽음  
김암선

### #1일차 키워드 : 5월

오늘의 키워드는 5월입니다.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따뜻하고, 봄꽃이 활짝 피고, 여러 축제가 많은 달이지요. 대학축제도 늘 5월에 열리고요. 여러분은 기억나는 5월이 있는지요? 올해 5월(이번 달이군요.) 무엇을 할 계획인지요? 5월의 한복판을 생각하며 글을 남겨주세요.

😊 9    💬 0

나의 붉은 빛 흉조를 담았다.

감정을 존중하는 상쾌한 바람이 부는 날에,  
이유 모를 감정은 바람에 의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셋별만이 빛나고 있었다.

[5월은 새학기에 적응하고 마음이나  
생각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담은  
달이라 생각한다.]

😊 27    💬 11



2024/05/07  
tuesday, am 7:50 | 48읽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 #1일차 #5월

과정

주체할 수 없는, 이유 모를 감정에

톡톡-내리는 비에  
내 눈물을 담았고,

만개한 꽃들 사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나의 미소를 담았으며,

꼭꼭-눌러 쓴 편지에는



2024/05/07  
tuesday, am 7:54 | 45읽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 #1일차 #5월

오월

저에게 오월은 그대인가 봅니다. 파릇하게  
자라나는 새싹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생기  
넘치는 눈동자가 떠오르고, 옷깃을 일렁이는  
바람을 느낄 때면 수줍은 웃음소리가  
멤뎁니다. 당신은 나와 보낸 여러 오월들이  
어떠셨나요. 때론 제가 미웁기도 하셨나요.  
웁한 겨울과 과한 여름 그 짧은 사이를  
알려주는 책갈피같은 오월에게, 저는  
당신에게 마냥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월이 올  
때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당신과 나의

아무도 모르는 장면과 재회하곤 합니다. 시냇물 졸졸 흐르던 물가에 사뭇 검은 발과 밝은 발을 담구었던 건 멀룩해진 삶의 얼룩을 조금은 회미하게 해주었지요. 기억나지 않는다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월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내 욕심이라고도 말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찾아온 오월이니깐요. 더움이 찾아오고 수풀이 우거지는 5월에는요, 난 그대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오월은 그대이니깐요.

😊 25    💬 10



**2024/05/07**  
tuesday, am 9:42 | 38원음  
장지은(20212564/인론방송융합전공)

#1일차 이번 5월에는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먼저, 9월달에 가는 다낭 여행을 위해 맛집, 숙소 등을 예약하고 주변 볼거리와 놀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푹푹 검색 후 완벽한 계획표를 만들 예정이다. 남자친구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자 성인이 돼서 가는 첫 해외여행인만큼 완벽에 완벽을 더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혹시 최근에 다낭을 다녀오신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행 일정 관련해서 마구마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여행을 가서 부족함 없이 지내기 위해 3가지의 아트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건강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5월의 목표이기도 하다. (골프장, 영어학원,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규칙적인 운동 스케줄을 짜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실내 운동이든 야외 운동이든,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집 꾸미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집안을 조금씩 꾸며나가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어제 새벽에 리본과 부들부들한 털로 감싸져있는 전등을 주문해보았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만큼, 내 눈이 즐거웠으면 하기 때문이다.

😊 21    💬 10



**2024/05/07**  
tuesday, am 10:23 | 35원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1일차 #5월

어릴 땐 어린이날을 위해 고대하고, 시간이 흘러 부모가 되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5월의 세상이란 여름을 위해 태동하는 숲의 녹음과 산의 웅장함, 잡초의 끈기를 시험한다. 겨울을 이겨내며 봄의 옷을 벗어던지고 여름의 푸른 코트를 입으려는 대지의 모습이 경이롭다. 달마다 옷을 바꾸는 것은 인간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내리쬐는 날엔 한없이 덥고 비가 내린 다음에는 가을날처럼 차갑다. 반팔에서 긴팔로, 다시 긴팔에서 반팔로, 우리가 기대하는 5월이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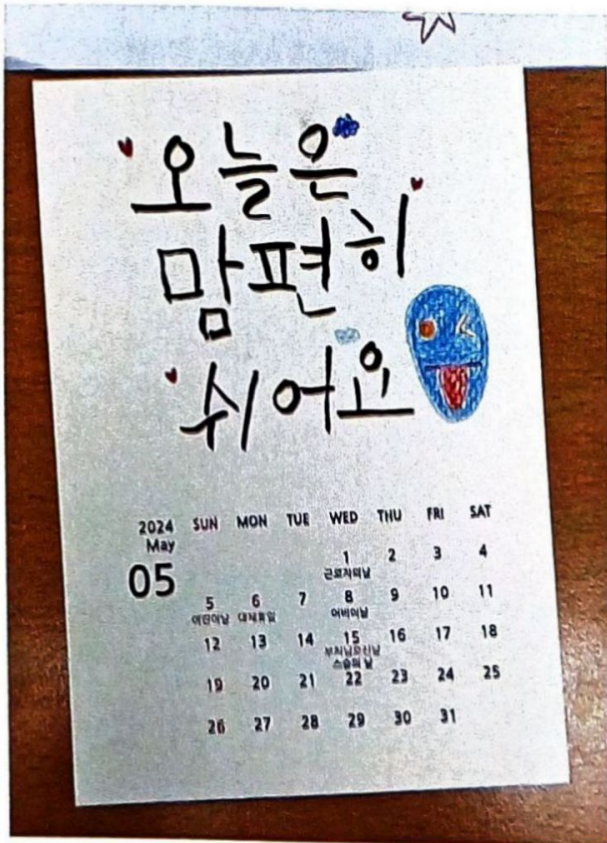
😊 20    💬 9



2024/05/07  
 tuesday, am 10:44 | 40원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1일차

5월은 항상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고등학생 때는 공휴일이 많아서 좋았다. 학교를 다닐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쉬는 날이 있어 좋았다. 특히 5월에 가족행사가 많아 좋았다. 현충일에 외가댁과 모여 항상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생각해 보면 5월은 나에게 휴식을 주는 달인 것 같다. 이런 안정감이 나에게 행복을 줬다. 안정감도 좋지만 요즘은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안정감을 바탕으로 산책이나 독서 등을 해보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누리게 해주는 5월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요즘따라 밖에 나가는 게 좋다. 꽃이 만개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날씨가 너무 맘에 든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5월은 나의 친한 친구다.



😊 21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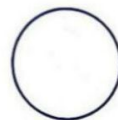


2024/05/07  
 tuesday, am 10:55 | 43원음  
 김수현(사회복지학, 20212316)

#1일차 #5월

5월 하면 '가정의 달'과 '행사'가 떠오른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사흘 차이가 나고 스승의날이면 카네이션을 들고, 오랜만에 선생님을 뵈러 가고는 했다.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미온수'의 계절이라 내게 있어 5월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 좋은 날'이었다. 치열한 일상 속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용기'와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해주는 휴식을 선사해주는, 고마운 달이다. 요즘은 바쁘게 살기보다 조금은 여유를 두려고 한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도 필요하나 재충전의 용기도 가져야 한다. 악보에도 심포가 있듯이 5월은 내게 '심'을 주는 고마운 선물이다.

😊 18    💬 8



2024/05/07  
 tuesday, am 11:14 | 34원음  
 박지호(식영,20213818)

#1일차

5월

5월은 조금은 쌀쌀하지만 참 따뜻한 달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인 만큼 가족과 함께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달달한 휴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따스함을 주는것 같네요.

한달이 금방지나 6월이되면 날이 다르게 더워지겠죠?

짧은 5월의 매일을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내보는건 어떨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조금 더 친절한 말을

😊 21    💬 7

건내보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날들이요:)

😊 18    💬 8



**2024/05/07**  
 tuesday, pm 12:09 | 37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1일차  
 #5월

< 보물 >

축축한 새벽 공기를 뚫고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잠자리에서 눈을 비비며 꿈지럭꿈지럭 일어난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구수한 된장 냄새에 저절로 코가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소맷자락을 걷어붙이고 아궁이에 불을 팔하게 지피고 계셨다. “우리 똥개 일어난게냐?” 조글조글한 주름이 할아버지의 눈가에 피어났다. 이윽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쓱 닦고,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똥개도 일어났겠다. 같이 보물 찾으러 가야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걸어간 곳은 다름 아닌 뒷산이었다. 산기슭에 있는 외딴집 뒤에 자리잡은 산은 참 조용했다. 지난해 공원에서 민지와와 보물찾기 게임을 생각한 나는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흙을 두 손으로 퍼다 구멍을 만들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요란하게 땅을 휘젓기도 했다. 반쯤 포기한 상태로 흙먼지를 풀썩거리며 탈래탈래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우물대더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보물이 궁금하제?” 나는 고개를 연방 끄덕였다. “요거가 5월 보물! 늦봄 쫄에 딸 수 있는데 까시가 많아서 쉽게 못따.” 할아버지는 흙이

묻은 두릅을 내보이며, 말쑥하셨다. 겉모양새도 특이하고, 향도 씩 맘에 들지 않았다. 물론 멋진 장난감이 있을 리 없었다. 예측 안 한 바는 아니지만,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실망은 컸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아버지는 껄껄 웃기만 했다. “어여 가자! 보물 맛 봐야지.” 배가 고프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다. 시원히 트여 있는 마당 풍경이 마음을 간지럽혔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불이 자작자작 타는 소리, 판잣집 너머에서는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마침 자글자글한 된장찌개와 두릅을 받쳐 들고 나오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두릅을 손에 돌돌 말아 초장에 콕 찍어 내 입으로 가져다주셨다. 나는 두 세번 우물우물거렸다. “맛있네..” 할아버지는 몇 번 더 두릅을 말아 초장에 찍어주셨다. 두릅 특유의 향은 낫지만, 씹살하면서 상콤하고도 시원한 두릅은 이내 나의 얼굴에도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그 해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밥상에 올라오는 두릅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가장 행복한 5월이었다.

😊 21    💬 9



**2024/05/07**  
 tuesday, pm 12:36 | 35읽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1일차  
 5월은 1년중에 그리 많지도 그리 적지도 않은 애매한 달이다.  
 그리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혹은 부처님오신날처럼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나는 5월은 6월보다는 덜 아쉬우면서도

팬스레 기념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달로 다가오는 것 같다.

5월하면 가장 생각나는게 어린이날인데, 나는 어린이날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부모님도 일을 하시지 않고 집에서 쉬셔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좋았다. 지금은 성인이지만 아직도 어린이 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어릴 때는 성인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성인이 되어보니 어린이일때가 좋았던 것 같다. 부모에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순수하게 놀 수 있는 나이여서 더 그런 것 같다. 무엇보다 질 만한 책임이 없어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어린이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어려워지고 싶다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나이가 되보니 그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과 그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보다.

이렇게 또 하나 깨달음을 얻는다.

😊 18    💬 6



**2024/05/07**  
tuesday, pm 12:46 | 32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1일차  
"벌써 5월이라고?" 달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다. tv로 새해 타종을 들은지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성인이 되고,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겨울방학 지나 새 학기가 시작되어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벌써 날짜가 획하니 지나버리곤 한다.

여러 사람들이 5월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르다. 가정의 달, 행사의 달, 혹은 축제의 달이라 하는 등 많은 수식을 붙인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변환점의 달' 이라고 할 수 있다. 계절, 날씨, 아님 스스로의 마음가짐 등등 많은 요소가 처음보다 달라지는 시기라고 느껴진다. 변화를 느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내가 매년 먹었던 마음가짐이 이 때 쫓이면 희미하게 되버린다는 것이다. 이번 학기에는 열심히 해보아야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은 이미 어딘가로 가버린지 오래다. 올해에도 못 지킬 약속일 수 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1년의 거의 절반이 지났지만 반대로 보면 아직도 절반 넘게 남은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처럼, 지금이라도 연초에 했던 나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실행해야겠다.

😊 19    💬 6



**2024/05/07**  
tuesday, pm 1:14 | 33읽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1일차  
벚꽃을 기다리던 우리는 어느새 다양한 봄꽃과 나무의 푸른 잎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도 조금씩 내리면서 하늘이 흐리지만 나무를 가득 채운 초록색 이파리와 함께 보니 이마저도 잔잔한 조화가 이루어지는듯 합니다. 5월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축제도 많고 꽃들도 많이 피는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 근처에 항상 개나리가 이쁘게 자랐는데 이 때문인지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4~5월쯤 피는 라일락 꽃을 좋아하는데 보라색 꽃잎과

항은 은은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주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라일락 향이 나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일락은 꽃말도 참 아름다운데 '젊은 날의 추억',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향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이번 5월 기쁘게 돌아볼 수 있는 추억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 17    💬 7



**2024/05/07**  
tuesday, pm 2:00 | 34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1일차 #5월

계획적이지 않은 내가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5월에는 하겠다고 신청한 공모전도 많고 행사도 많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작을 안했다. 사실 이런 공모전들과 행사의 공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마감이 5월 말이라는 이유로 미뤄왔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5월이 왔네, 마감일도 금방 오겠네' 하며 5월을 실감한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작 시작을 안 하는 모순적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답답하기도 한 것 같다. 굳이 안 해도 되는건데, 필수가 아닌데 왜 다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스스로도 의문이다.  
5월 한 달을 다시 계획해 보며, 팀플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게 된다. 원래 정말 계획 없이 살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왜 계획을 세울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요즘은 정리한 대로 내가 할 활동을 챙기게 되고 기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또 5월은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만났던 주변 사람들 모두를 생각해 본다.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때 이랬었지 하며

애기하기도 하고 각자 떨어져 지내는 현재 속에서도 마치 아직 같이 다니는 친구들처럼 어색하지 않아서 좋다. 늘 곁에 있어 주는 부모님도 새삼스레 생각해 보게 되고 할머니와 외할머니도 미리 뵈러 갔다 오며 부모님의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와 안부를 여쭙보게 된다. 또 내가 뺄뺄어지려고 할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잡아주신 선생님들이 생각나고 선생님이 있었기에 바르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  
항상 익숙함에 속아서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또 계획한대로 잘 풀리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 19    💬 7



**2024/05/07**  
tuesday, pm 3:12 | 29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일차 #5월

5월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입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도, 시기도 정말 좋아하죠. 2024년의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5월엔 제가 어떻게 지낼 지 궁금하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5월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달입니다. 5월엔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도 먹을 수 있어요.  
때마침 어제 먹었거든요.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강아지와 선선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 며칠간 비가 오고 나서 꽃가루도, 미세먼지도 사라졌으니 산책하기도 참 좋은 날이기도 하네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개린이인 저희 강아지를 위해 새로운

간식들과 롤매트를 선물해주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네요.  
저는 어깨가 아픈신 부모님께 안마기를  
선물해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세요!

😊 17    💬 6



**2024/05/07**  
tuesday, pm 4:55 | 32원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1일차 #가정의달 #5월

저는 부끄럽지만 작년까지 5월 달력을 넘기면 어린이날 휴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했던 거 같습니다. 어버이날은 으레 밥 한 끼 먹고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했죠. 올해 처음 대학에 오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날이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구요. 저는 저 하나만을 책임지고 가꾸는 데에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이 짊어지신 부담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휴를 맞아 본가에 갔습니다. 부모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시고 여유가 생기신 모습을 보니 막내인 제가 독립적으로 분리됨으로써 부모님께서 이제야 부모의 역할을 잠시 내려두시고 당신들의 삶을 살고 계신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제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 17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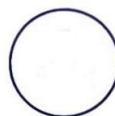
**2024/05/07**  
tuesday, pm 4:58 | 30원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1일차 #5월

나에게 5월은 날씨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달이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어릴 때 어린이날만 되면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선물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그때의 행복했던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린이날보다는 어버이날을 챙겼다. 좋기로 카네이션을 접어 건네드렸던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약간의 물질적인 선물과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건네드리면 부모님께서서는 감동을 받으셨다. 더불어 5월은 공휴일도 많아서 매년 이맘때쯤 가볍게 국내여행을 갔다 오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 이 글을 보시는 학우님들도 가정의 달인 5월만큼은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18    💬 7



**2024/05/07**  
tuesday, pm 5:33 | 31원음  
차유미(심리학과 20232139)

#1일차 #5월

저는 오월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색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출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와 밤공기가 제 마음을 더 안정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스레 꺼냈던 반팔을 다시 집어넣고 겹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발 밑창에

구멍이 나 발이 쫄딱 젖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끄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투덜대고 있던 저에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가 와서 불편하지만 저 시골에서는 이 비 덕분에 농작물이 자라날거야” 아, 오늘 이 비는 나무를 살리고 농작물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비의 끝자락에서 자라는구나. 흐려지는 하늘도 떨어지는 빗방울도 오월의 한 품으로 여기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월은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게 피어갑니다.

😊 18    💬 8



**2024/05/07**  
 tuesday, pm 6:44 | 29읽음  
 유명주(청각/20202550)

#1일차

〈여러분 덕분에 제가 참 기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있는 기념일들을 나열해 보면-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4일 로즈데이(비공식 연인의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 등등이 있다. 더불어서 노동절, 석가탄신일, 등등의 공휴일까지 있어서 날씨 좋은 봄날에 많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들뜨고 행복한 달인 5월에 나는 노래 '봄이 좋냐??'의 권정열적 사고를 잠시 시도해 본다. 다음은 '봄이 좋냐??' 가사의 일부이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불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요지는 나는 커플이 아닌데, 봄에 행복하게 연애하는 너희 커플들이 꿀 보기 싫다는 것이다. 가정의 달을 보내는 노동자도, 어린이도, 어버이도, 스승도, 부부도, 성년이 된 사람도, 불자도 아닌 사람들도 이런 기분일까?

실제로 노동자도, 어린이도, 어버이도, 스승도, 부부도, 성년이 된 사람도, 불자도 아닌 나는 사실, 모두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진 않고, 여러분 덕에 제가 여러 날 쉽니다^^ 하는 기분으로 군데군데 구멍 난 5월을 메꿀 15주 차 보강 주를 기다리는 신세일 뿐이다. 5월의 여유로움은 가정의 여러 구성원을 축하해준 덕분에 나도 한 뼘 쉬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마치 친구의 깜짝 생일파티를 위해 마련한 케이크를 결국에는 다 같이 나눠 먹게 되는 상황처럼 나 말고 남을 챙김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경험은 꽤 달콤한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적용되어서 '내가 못 한다면 너도 하지 마'와 같은 하향평준화적 세태보다는 서로의 편익을 챙겨주어 상향평준화를 도모하는 세태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

😊 18    💬 7



2024/05/07  
 tuesday, pm 6:58 | 30원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1일차

꽃이 만개해 날이 너무나 아름다울수록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마치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5월은 얼마나 독하다는 걸까.

정말로 평범하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셈과 진리를 알려주었던 선생님들이 있나? 분명 그것이 모두 있다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어쩌면 위의 이야기는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나도, 당신도, 다른 이들도 정말 완벽한 날에 한 번쯤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오월이 있나 싶다. 그 모든 이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의미로.

언젠가 사라질 오월을 생각하며, 조금은 귀찮게 느껴졌던 이번 오월을 다시 시작해본다.

😊 19    💬 7



2024/05/07  
 tuesday, pm 8:51 | 32원음  
 김명빈(미디어스쿨\_20202706)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아직 5월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중간고사 다음부터 의욕이 꺾이진 않았나요? 자체 휴강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은요? 저는 5월이 된 이후로는 매일 생각합니다. 종강이 언제였더라...

벌써 3월 개강 이후 67일이나 지났는데도, 이번 학기의 끝이 보이지 않네요. 과제가 많아서일까요, 교수님 목소리가 수면제 같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강의실 의자가 불편해서일까요.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학기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조느라 흔들리는 머리 말고, 음악에 심취해서 흔들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나고요?

요즘 꽃힌 노래가 있는데 글썄, 수록된 모든 곡이 취향인 거예요! 그 앨범만 통으로 듣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할 때, 이동할 때, 과제 할 때. 생활 전반에 걸쳐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밴드 음향 좋아하시나요? 청춘이 느껴지는 벅차오르는 노래는요? 저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겐 이번 학기를 버틸 힘이 되었어요.

그래요, 사실 진짜는 이겁니다. 노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5월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노래 소개와 별개로 왜 아직 5월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아요.

종감한테 빨리 오라고 졸라볼게요.

여러분이 요즘 꽃힌 노래는 무엇인가요?  
모쪼록 모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남은 5월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allas love field -DOYOUNG

#1일차 #5월

😊 19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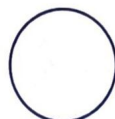
**2024/05/07**  
tuesday, pm 9:14 | 27읽음  
황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1일차  
벌써?

5월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얼마 시작한 지도 안된 것 같은 2024년도  
반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고 1학기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왔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내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참  
빠르고 쳇바퀴 돌 듯 바쁘게 흘러간 것 같다.  
추웠던 날씨가 엇그제 같았는데 날씨는  
여름에 가까워졌고 세상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피어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향긋한 꽃향기, 솔솔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은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다.  
한동안 칙칙한 곳에 있느라 오랜 기간 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본 여러 색깔의 꽃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지난 시간 동안  
쳇바퀴 돌아가듯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잠깐

여유를 부리며 봄을 즐기고 남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봐야겠다.

😊 16    💬 6



**2024/05/07**  
tuesday, pm 9:46 | 29읽음  
박해원 (생명과학과 20227081)

#1일차

그거 알아? 카지노에는 시계랑 창문, 거울이  
없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하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못 보게 해서  
도박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야 돈 많이  
벌려고. 무섭지.  
아니야. 너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지?

나 5월이 왔는지도 몰랐어. 아니 5월이 온  
건지, 내가 5월에 온 건지도 모르겠어  
어떤 꽃이 피고 졌는지 그 꽃잎을 바닥에서  
찾을 수도 없어  
낮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사람들의 옷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지난해는 지났다고 치자. 그럼 지난 넉  
달 동안의 나는 어땠어?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너는 알잖아  
거울 정도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너 내 얼굴에 뭐 묻으면 잘 안 알려주잖아

우리에게 5월은 특별해. 나는 한 달을 모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더 행복한 건 내년에도 5월이 있다는 거야

낮은 덥고 밤은 춥고, 짧은 소매 위에 긴  
소매를 덧대야 하는 이 계절의 경계를  
흥뻑 즐기고 우리 여름에 봐

😊 17    💬 14



2024/05/07  
tuesday, pm 9:56 | 24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일차 #5월

2023년 5월을 '숲'으로 표현한다면,  
2024년 5월은 '나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작년 5월은 누군가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에,  
안정적인 존재였다. 아무리 쓰러져도 곁에  
다른 이들이 있으니,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올해 5월은 괜히 혼자 남겨진 공허함에  
휩싸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존재가  
되었다. 한 번 쓰러지니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쉽지 않다. 애써 내게 놓인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고 눈을 가려봐도,  
가려진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내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그저  
과제의 달이다.  
나에게 주어진 대학 과제들,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제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과제들. 그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2024년 5월을  
보낸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어렸을 적 사진을 꺼내어,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올해 어린이날은 나도 모르는 세에 지나가  
버렸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남은 2024년  
5월을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식을 취하고자 노력해야겠다.  
나를 위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고, 가수  
선우정아 노래를 감상하며 지친 마음을  
달래줘야겠다.

😊 17    💬 12



2024/05/07  
tuesday, pm 10:01 | 29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일차 #5월

[ 첫 번째 집시 ]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12계단 중 5번째  
계단에 우리는 올라서게 되었네요. 결과가  
어떻든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창 즐길 때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달 중 하나가 바로 5월인데요.  
이유는 단순히 제 생일(5.4)이 끼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관련 공휴일도 많죠.  
날씨도 좋은 달인 5월은 사람들을 위한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년의 반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을  
챙겨주듯이 말입니다. 참 좋은 달이죠. 4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덜도말고 더도아닌,  
걸다가 뛸 수 있도록 멈추고 쉬게 해주는 5월.  
5월이 있기에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모난 곳 없이  
발음만큼이나 둥글둥글한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짧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 뽀뽀뽀, 오늘의 뽀 집시가 닦였습니다. ]

😊 17    💬 6



2024/05/07  
 tuesday, pm 10:02 | 28원음  
 방예빈(중국학과,2020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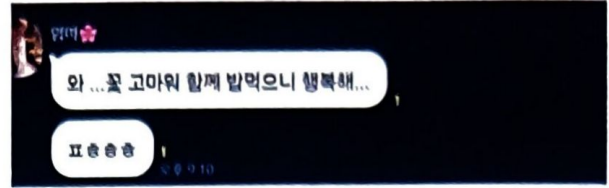
#1일차 #5월

싸늘한 공기와 기분좋은 나뭇잎의  
 샤워소리가 나에게 봄비가 왔음을  
 알려주었다. 본가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연휴가 끝나,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 날임을 알리기도  
 했다. 다시 한동안 집과 멀어질 생각에  
 아쉬워하며 빗소리를 음악삼아 학교로  
 향했다. '5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에 딱  
 좋은 날씨이기도 했다.

이번 연휴에는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구경도 가보고, 함께  
 외식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같이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한 켠에 설치된 해먹에  
 함께 누워 푸른 나무를 올려다보며 옛 추억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꽃을 닮아서인지 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에게 '칼리브라코아  
 밀레니엄 벨'이라는 보라색의 겹꽃 화분 두  
 개를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나의  
 친구 누구는 몇 십만원짜리 선물을  
 드린다면데, 화분 두 개를 내밀기도 전에 나  
 자신이 작아지는 선물이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나의  
 걱정과 다르게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사소한  
 것에 뿔뿔이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니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눈물이 나는듯했다. 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우리 엄마에겐 명품 지갑 하나,  
 호캉스 며칠보다, 나와 추억 하나, 나와  
 함께하는 며칠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무엇보다도 소중해서, 본가가  
 더욱 그리워지는것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5월은 '소녀'이다. 매년 5월에는  
 엄마와 꽃구경에 갔다. 꽃과 함께 있는 엄마는  
 마치 10대의 소녀같아서, 보기만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게 한다. 나는 일년 내내 엄마의  
 5월이 되고싶다.



자꾸 틈만나면 고맙다고 해주셔서, 나도 자꾸  
 고마워지는 요즘.

😊 17    💬 6

2024/05/07  
 tuesday, pm 10:37 | 23원음  
 한광성(사회학과,20182237)

#1일차 #5월

나에게 5월이란 생기 넘치는 달이다  
 학교 다닐 시절 3월은 학년이 바뀌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서서히 적응할때인  
 4월이되면 중간고사 준비로 책상앞에서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는 중간고사가 끝난 5월 시험도  
 끝나고 적응도 끝나서인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이 때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놀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 쌤들 선물도 준비하고  
 축제도 준비하는 등 날씨만큼이나  
 학생이었던 나의 삶에도 생기가 넘쳤다.  
 5월이 다가오길 기다리진 않았지만 기다렸던  
 순간을 돌아보면 5월이 많았던 것 같다.  
 졸업을 앞둔지라 생기넘치는 5월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글을 쓰며 다시 한  
 번 생기를 얻고 올해도 또 다른 모양으로 생기  
 넘치는 5월이 되고 싶다.

😊 14    💬 3



2024/05/07  
tuesday, pm 10:42 | 25읽음  
이채림(미디어스쿨/20242562)

#1일차 #5월

다들 봄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제는 입하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다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아무튼, 5월은 저에게 꽤나 소중한 달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에 소홀하게 그 사람을 대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기적임에 대해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었어요.  
어떤 관계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나머지  
받는 사람의 무게를 모르고 지나치는 거  
같아요.  
이번달도 건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5월 보내세요.  
굿럭~^\_~☆

%sunny days-wave to earth

😊 17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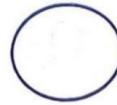
2024/05/07  
tuesday, pm 11:09 | 22읽음  
최연주(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1일차 #5월

5월 하면 초록색이 떠오른다. 칙칙하던  
겨울이 가고, 색이 가득해지는 계절의 시작인  
봄이 지나고, 푸른 빛이 진해지는 여름의  
초입이다. 사진으로 기록 남기기를  
좋아하는데 무채색이 많은 겨울보다 푸릇한  
풀빛과 파란 하늘이 예쁜 여름이, 색도  
선명하고 알록달록 썩하니 사진 찍는 재미가

있다.  
이번 여름도 덥고 습하다는 뉴스가 나온다.  
막상 한여름엔 얼른 겨울이 왔으면 하지만  
돌아보면 결국 좋았던 건 여름이었다.  
그러니 이번 여름은 미리 마중 나가려한다.  
땀을 지치게 하기 전, 지금 5월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 12 💬 3



2024/05/07  
tuesday, pm 11:44 | 19읽음  
박협아(언어병리학과,20233930)

#1일차 #5월

5월은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달이었다. 5일에  
어린이날부터, 다음날인 내 생일, 또 그  
모레인 8일에는 어버이날, 5월엔 또 코로나로  
3년동안 가진 못했지만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도 있었고, 15일인 스승의 날에  
이벤트를 하겠다고 학급 친구들과끼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케이크랑 꽃도 사서 선생님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등교 시간보다 삼십분  
일찍 학교에 가서 반을 꾸미거나, 몰래몰래  
롤링페이퍼를 돌려 하고픈 말을 적어 편지를  
드리는 등의 이벤트를 했다. 5월에는 즐거운  
추억들이 가득가득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5월에는 특별하게  
축제가 있긴 하지만, 난 이제는 달력을 보면서  
'아!!! 3주 연속으로 주 4일만 학교를 가면  
그만이라니!! 너무 좋다 빨리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이 왔으면 좋겠어' 하고 좋아한다.  
수학여행을 간다면 가는대로 '빨리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이 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12년 동안 학교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서 '5월이 왔으면  
 좋겠어~!' 했지만, 지금은 지쳐서 기념일을  
 빌미로 학교에 가고싶지 않다니.. 왜인지  
 5월과 학교에게 조금 미안해진다.

😊 12 💬 2



2024/05/07

tuesday, pm 11:48 | 15원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1일차 #5월

[ 생일 ]

우리 가족 모든 생일이 5월에 있다. 안 그래도 정해진 행사가 많은데, 1년의 모든 기념일을 휘몰아치듯 한 달에 해치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집은 가족 모임의 날짜, 선물, 먹을 것 등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간소하게 보낸다.

어렸을 때는 생일의 존재감이 컸다. 일상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행복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그래서 생일에 유독 일상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울했다. 생일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 적도 많았다.

감정이 넘칠 때마다 펜을 들고 일기를 썼다. 글을 쓰는 건 언제나 나와 가장 솔직한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 글을 쓰며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행복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생일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지은 밥 하나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는 가까운 행복을 다시 찾아보고 또 많이 전해봐야겠다.

😊 11    💬 1



2024/05/07

tuesday, pm 11:51 | 14원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1일차

작년 5월을 생각해보니 그다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서 핸드폰 달력을 찾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스터디, 동아리 연습, 팀플, 세브란스 병원 강연, 뮤지컬 시카고 관람, 심지어는 과팅도 있었습니다. 1학년의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 기간 때 잡은 과팅이었죠. 뮤지컬 '시카고'같은 경우에는 원작 배우분들이 내한해서 공연을 하신다길래 친구와 큰 마음 먹고 관람한 제 인생 첫 뮤지컬이었습니다. 아예 뮤지컬의 '뮤'자도 모르는 저에게는 그 당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배우분들이 영어를 써서 내가 내용을 아예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지나친 걱정이었습니다. 무대 측면에 프롬프터가 있어서 배우분들의 연기에 오롯이 집중하여 뮤지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고 태그를 달았었는데 주연 배우 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5월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올해의 5월을 가장 기억에 남는 5월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연 동아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는 저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대를 선 만큼, 올해 5월도 이 인연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4일에는 동아리 언니와 춘천시립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책축제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맡아서 진행한 체험 부스 활동이기도 했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했지만 같이 간 동아리 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동아리 사람들과 다같이 1박으로 풀빌라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가는 풀빌라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서 수영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비가 와서 바베큐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경치 좋은 곳에서 비가 오는 감성으로 더욱 맛있게 고기와 버섯, 비빔면, 쫄면 등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잡은 숙소에는 노래방 기계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만큼 크게 노래 부르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5월이 1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재밌는 일이 2개나 생겨서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년의 날 때 동아리 후배들 선물 챙겨줄 것도 너무 기대되고, 후배들과 하는 밥약도 긴장되긴 하지만 기다려집니다. 대망의 축제 때도 하루는 동아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하여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축제 때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간호학과와 경우 3학년부터는 실습을 나가 5월을 재밌게 즐기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이 맺지 않도록 이번 5월, 학점도 챙기긴 챙기지만, 신명나게 놀면서 저의 다이어리를 짹 짹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 11    💬 1



**2024/05/07**  
tuesday, pm 11:52 | 18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일차  
5월.

올해 5월은 중간 점검하기 좋은 달인 것 같다. 5월에 마감하는 일들도 있으며 반대로 새로 시작하는 일도 있다. 좋아하는 영화 중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영화에선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시작이란 건, 끝의 시작" 연애의 수명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의 대사였지만, 연애가 아니어도 우리가 새해에 다짐한 목표나 다른 모든 것에도 쓸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엔 위의 대사로 5월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새해에 내가 다짐한 단기 목표에 대한 끝, 동시에 올해의 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캡스톤, 논문, 학회, 등등 많고 많은 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다행히 5월엔 쉬는날도 많다. 올해 초 타로를 봤을 때도 5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들어서 괜스레 기대하게 되기도 한다.

여러분에게도 꽃다발 같은 사랑이 있기를.

😊 12    💬 5



**2024/05/08**  
wednesday, am 12:21 | 39읽음  
김양선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5월이면 중간고사를 끝내고 따뜻하고 여유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바쁘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군요. 행사도 해야 할 일도 많은 5월, 가족이나 어린 날의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5월, 녹색과 꽃내음과 살랑이는 바람이 T있는 5월을 만끽하기 바랍니다. 요 며칠 쉼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따뜻하게 하루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 2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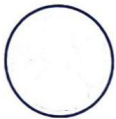
**2024/05/08**  
wednesday, am 8:06 | 49읽음  
김양선

#2일차 키워드 : 달걀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였죠. 또 라면에 달걀을 넣을까 말까 고민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달걀은

가성비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고, 자취생이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달걀의 모양은 또 어떤가요? 타원형의 둥근 달걀은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서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달걀, 하지만 그 생명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오랜세월 인간의 먹거리가 된 달걀. 오늘은 달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15    💬 0



**2024/05/08**  
wednesday, am 8:31 | 38읽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2일차 #달걀

겨울잠

꽃 위의 나비처럼

잠을 청하는 너를 위해

따뜻하고,

푸른 봄을 키워

너의 세상에 안겨 줄 테니

그저 평온하게

잠들기를.

😊 18    💬 9



**2024/05/08**  
wednesday, am 10:40 | 23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2일차 #달걀

달걀은 어느 음식에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 같아요.

달걀하면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쌍란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몇 달 전에 계란요리를 만들다가 쌍란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달걀 쌍란이 태어나는 이유는 먼저 쌍란은 두 개의 노른자에 흰자가 부착되어 태어나는 것인데, 닭의 난소에서는 원래 노른자가 1개만 배출됩니다. 즉, 배란이죠.

그런데 산란 리듬이 안정되지 않은 어린 닭의 산란 초기(처음 1개월~2개월 간)에는 노른자가 2개씩 계속 배출되고 여기에 흰자가 부착되어 계란이 형성되는 것이죠. 주로 산란을 막 시작한 어린 닭이 호르몬 분비와 산란 리듬이 불안정한 탓에 쌍란을 낳기 쉽다고 해요.

쌍란은 유전과도 관계가 있고 쌍란을 많이 낳는 닭도 존재한다고 해요. 또 이런 닭을 인공적으로 낳게 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쌍란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진 몰랐어요 정말 신비한 것 같네요.

😊 17    💬 8



**2024/05/08**  
wednesday, am 10:47 | 28읽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2일차 달걀

달걀하니 데미안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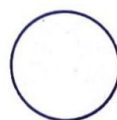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고등학생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일을 깨고 나온 새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지?" 근데 지금  
고작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조차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얼핏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게 나는 요즘따라 삶의  
의미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있다.  
'도대체 나는 무얼 위해 살아가는거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야 하는거지?'라고,  
그런데 마침 예전에 어떤 강연프로그램에서  
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던게 생각이 났다.  
'삶의 왜?라는 물음을 던지지 마세요. 삶은  
어떤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곧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납득할만한 혹은 그려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으면 행동하고  
순순히 따랐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삶이란 것은 이유를 찾을 수도 누가  
찾아줄 수도 없는 것이었다. 마치 인간이  
아직까지도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삶이란 것이 내  
인생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당연하다. 내 인생이 곧 삶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것도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한  
고찰은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다. 워낙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보다  
온전히 그 시간을 어린나이에 맞게 즐길 수  
없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도  
계속해서 삶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변 어른들은 나에게 말한다. 그 시간은  
돌아올 수 없다고. 마지막  
학생신분이니까.(대학원을 안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즐기고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었다. 나는 멀티가 안된다고.  
어떻게 대학생살을 즐기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공부하나에도 등록금을  
만회하기 위한 장학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그 사이에서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라니. 세상이 그런건지  
한국사회가 그런건지...사회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은 데에  
온전히 내 시간을 다 쏟고 싶은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말이다. 킥잡이라는 직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일을 선택해야 할지. 제발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싶다. 원래 20대가  
방황하면서 뭐든 해볼 수 있는 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든 해볼려고 하면 다른 일이  
나타나고,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얼핏 알 것  
같은 때의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현생을  
살아가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벌써  
학교를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을  
거의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여러가지 고민과 고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건  
왜일까? 왜 20대인데도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달릴  
힘조차 없는 걸까?

나는 데미안에서 나오는 새처럼 세계라는  
알을 깨 수 있을까? 두렵다.

😊 17    💬 8



**2024/05/08**  
wednesday, am 10:52 | 25읽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2일차  
달걀의 주된 목적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지만 하나의 표현 요소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활절 계란이나 이제는

거의 안보이는 졸업식 날이나, 비난 하고 싶은 대상에게 던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나지만 어릴 때 본 드라마에서도 학교에서 달걀 던지고 밀가루 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 던질 엄두도 못낼 것 같습니다. 달걀은 다양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키워드 제시에 나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기원과 관련한 논쟁도 있지만 콜럼버스의 달걀도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이 일화에서 모두에게 달걀을 세워보라고 권하고, 아무도 세우지 못하자 자신의 달걀을 살짝 깨서 세워두게 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하자 콜럼버스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쉬우나,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주제를 통해 새로운 글을 하나씩 써가는 과정,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 또한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힘내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6    💬 8



**2024/05/08**  
 wednesday, am 11:46 | 29읽음  
 장지은(20212564/언론방송융합전공)

#2일차 아침에 일어나서 밴드에 들어와 '달걀'의 키워드를 보고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달걀'이기 때문이다. 해당 단어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발음이 귀엽고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이모티콘 마저도 귀엽다고 생각한다. 또 달걀의 맛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 없거나 아플 때면 따뜻한 밥에 날계란을 풀어 간장, 참기름을 넣고 비벼먹기도 하였다. 아빠는 날계란을 풀면

비리지 않냐며, 그걸 어떻게 먹냐고 의아해하셨지만 내 입맛에는 하나도 비리지 않고 계란후라이를 해서 넣은 것보다 오히려 더 고소하였다. 엄마가 계란밥에다가 김치를 하나 없어서 먹여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계란밥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훈제란도 좋아하는데 어제도 훈제란과 라면을 점심으로 먹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주음식이 훈제란이었는데 훈제란을 먹으면 찜질방에 놀러온 것 같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다.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고 조금은 퍼석한 목막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달걀은 제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식재료 중 하나이다. 그 맛 뿐만 아니라, 달걀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의 따듯한 기억과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르곤 한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식재료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애정 있는 보물이다. 이 글을 읽는 학우분들은 유독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단어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 16    💬 8



**2024/05/08**  
 wednesday, am 11:46 | 27읽음  
 최업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2일차 #달걀  
 달걀을 생각하면 우쭐하시던 아빠가 생각한다. 달걀을 잘 까지게 먹으려면 달걀을 삶을 때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던 아빠다. 엄마는 달걀을 삶으실 때 달걀이 튼 냄비에 물을 담고 삶으신다. 엄마가 삶은 달걀은 깨끗하게 까지지 않아서 달걀을 먹기 힘들어지고 짜증도 나고 까기 귀찮아진다. 아빠가 달걀을 삶을 땀 물을 먼저 끓이고 그다음에 달걀을

널고 끓인 다음 찬물에 담가둔다. 그럼 달걀이 정말 잘 끼진다. 잘 삶아서 잘 끼지는 날에 아빠는 하루 종일 '달걀 잘 끼지지?' 하며 우물해하신다. 하긴 달걀이 잘 끼지면 먹기 편하고 더 끼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집에서 삶아먹는 달걀도 맛있지만 밖에서 파는 구운 달걀도 맛있다. 심지어 잘 끼진다. 얼마가 구운 달걀을 잔뜩 사와서 기숙사갈 때 챙겨가라고 잔뜩 싸주셔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준 기억도 떠오른다.

또 달걀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란도 생각난다. 처음엔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아마 난 문제의 원인보다는 시작이 어디인지, 시작하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더 큰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좇대 없이 닭이 먼저인가? 싶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답을 모르겠다.

😊 17    💬 8



2024/05/08

wednesday, am 11:53 | 30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 #2일차

계란과 경제의 밀접성을 아십니까? 미국의 고금리 지속 상황과 중동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경제에서 사용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법칙을 삼기하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뜻은 위기의 상황에 좋은자산을 패닉 매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인 돈을 잃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미국의 금리 변동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들 알 겁니다. 저금리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달러값이 급등할 것이라 예측하는 만큼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이른바 "계란의 법칙"을 삼기시켜 코스피보다는 해외증시에 분산투자를 하고 시반도체·자율주행·로봇 등 유망 주식투자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18    💬 8



2024/05/08

wednesday, pm 1:19 | 31읽음  
김명빈(미디어스쿨\_20202706)

깨지지 않는 달걀은 없다.

/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달걀 같습니다. 어제 먹은 학식에도 달걀 볶음밥이 나왔거든요.

달걀을 워낙 좋아하기도 합니다.

뭐 먹을 거 없나-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항상 보이는 녀석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재료니까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달걀 요리를 먹기 위해선 깨야 합니다.

어디 단단한 곳에 부딪혀 껍질에 금을 만들고,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 여러 번 내려치기도

합니다.

비로소 속을 드러낸 달같은  
프라이가 될 수도, 찌미 될 수도, 국이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세상에 의해 받는 고통과 시련, 상처로 깨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깨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껍데기를 깨고 나온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깨진다는 것이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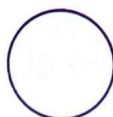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떤 달같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역시, 삶은 달걀 같습니다.

Egg is life

#2일차 #달걀

😊 19    💬 19



**2024/05/08**  
wednesday, pm 2:16 | 24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2일차

"계란으로 바위 깨기"

어떤 시도나 도전을 할 때 가능성이 낮거나

택도 없어 보일 때 비유하여 쓰는 흔한  
관용구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간에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바위 입장에서  
계란이 자신을 이기기 위해 남긴 흔적과  
행동들을 그 순간만큼은 인식할 것이다.  
졸업 이후 미래를 생각해보니 나와 같은 학생,  
취준생들의 심정도 계란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 심정일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를  
나와도 바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나 경력, 능력의 허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취업 연령도 과거보다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바위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그 바위에 각자의  
계란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지금은  
막연하고 어두울지 모르나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나를 알아줄 기업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서로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 15    💬 6



**2024/05/08**  
wednesday, pm 3:31 | 22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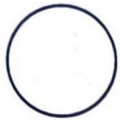
#2일차 #달걀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었고 닭장의 문이  
열렸다. 스스로를 주인이라 부르는 인간이  
나타나 당연하다는 듯 동지의 달걀을 꺼내어  
자신의 품에 넣었다. 닭장의 닭들은 인간을  
처음에 경계했지만 달걀을 주는 대신 기나긴  
삶을 선택했다.

우주에는 달걀처럼 타원형의 궤도를 도는  
수많은 행성이 존재한다. 주인 없는 그것들은  
자신의 본분을 스스로 찾아갔다. 동지에서  
쉽사리 벗어나는 법이 없었고, 인간을  
경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궤도(달걀)에서  
벗어나면 닭장의 닭보다 비참한 외로움을

겪다 망각된다. 자유로운 행성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 똑같은 달걀을 남지 않는다. 달걀이 닭장에서 벗어나는 운명은 서로 비슷하나 다르다.

😊 13    💬 4



2024/05/08  
wednesday, pm 4:05 | 22원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 #2일차 #달걀

어릴 적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택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풀비린내, 느긋한 여유로움이 가득있었습니다. 아침엔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할아버지께서 닭에게서 달걀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셔서 졸린 눈을 비비고 따라 나섰습니다. 닭장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말아보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통통한 닭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닭을 들추어 품고있던 달걀 서너개를 빼려고 하셨고, 닭은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쪼아보기도 하고 날개짓을 해보기도 하며 발버둥쳤습니다. 닭에게 그 달걀들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짧은 사투가 끝나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도와달라는 듯 쳐다보는 닭의 눈을 보자 도망치듯 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달걀을 먹었습니다. 가슴 한켠 올라오는 그때의 미안한 마음을 숨긴채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 15    💬 3



2024/05/08  
wednesday, pm 4:58 | 25원음  
함보습표(러시아학과 20211733)

### #2일차

니에게 달걀은 조리법과 익힘 정도에 따라 선호도가 극과 극을 오가는 음식 재료다. 치즈를 살짝 넣은 부드러운 오믈렛은 천상의 맛을 자랑하며 특히 여행 가서 조식으로 먹었던 오믈렛들은 여행의 즐거움까지 더해져 기억에 남는 최고의 달걀 요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믈렛을 좋아하지만, 오믈렛 만들기에는 소질이 없는 건지 항상 오믈렛을 만들 때마다 계란말이와 스프링클 사이의 이상한 달걀쿠이가 나온다. 여러번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지금은 그냥 후라이만 해 먹고 있다. 유튜브로 오믈렛 잘 만드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면서도 부럽다.

나는 달걀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특이하게 그냥 삶은 달걀, 에그마요, 반숙은 또 선호하지 않는다. 이 세 종류는 공통적으로 특유의 약하지만 비릿한 맛이 별로이며 에그마요는 비릿한 맛과 더불어 물컹하고 질은 식감 때문에 내 취향과는 멀어서 피하게 된다.

이번 주에 집에 가면 오랜만에 오믈렛 만들기나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 14    💬 7



2024/05/08  
 wednesday, pm 7:21 | 23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2일차

달걀을 어렸을 때는 알잡아봤다. 초등학교 때 질리게도 옥상에서 달걀 로켓 만들어서 안 깨지기 대회를 했다. 아빠와 함께 어떻게 하면 안 깨지게 만들지 고민했다. 어쩌다 한번 안 깨지면 그게 그렇게 신났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 계란찜을 해주셨다. 정말 매일 서브 반찬으로 해주셨다. 할머니 계란찜이 더 맛있어서 배웠던 기억이 있다.

지금 나는 23살이다. 혼자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달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짠 음식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어렸을 때 알잡아봤던 것들이 지금은 필수품이 됐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지켜왔던 것들이 추억이 되고 특별함이 되는 지금이 신기하고 소중하다.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란이 새삼 고맙다.



😊 11    💬 4



2024/05/08  
 wednesday, pm 7:39 | 25읽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2일차 #달걀

달걀은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국에 넣어먹거나, 볶음밥을 해 먹거나, 심지어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와 같이 달걀만 사용한 요리를 했을 때조차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달걀이 들어간 요리는 대체로 부드럽고 속을 편하게 해 준다. 나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그 요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달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동그란 것과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달걀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미 닮은 것 같지만). 내 성격이 내향적이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 못해서 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어색할 때가 많다.

모임이 쉬워진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편해지면  
괜찮아지지만, 초면인 사람에게 특히  
어색해한다. 따라서 누구랑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편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 17    💬 5



**2024/05/08**  
wednesday, pm 7:53 | 26읽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2일차 #탈칼

숨은 탈칼이다.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탄탄해진다.  
깨질 컷 칼타카토 쉽게 깨지지 않는  
외유내강칼다.  
무리라고 생각한 일들을 해내기로 하는 토통  
알 수 없는 장르는  
한 치 앞을 모르기에 기태태타카토 한없이  
몰입해졌다.

😊 14    💬 3



**2024/05/08**  
wednesday, pm 7:59 | 26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2일차  
#탈칼

<무언>

이윽고 기다리던 종이 울리자 복도는  
순식간에 발소리와 웃음소리, 책가방이  
덜그덕 부딪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택일이는  
입에서 헛내가 나도록 험레벌떡 놀이터로  
뛰어갔다.

차가운 흙더미 사이로 순백에 가까운

크림색의 달갈이 햇살에 비추어 반짝이고  
있었다. 택일이는 달갈에 작고 뾰얀 손을 대고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듯한 곡선.  
깊고 은밀한 광택,  
겉모습과는 달리 만져보면 약간의 탄탄함이  
느껴졌고, 견고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느낌을 주었다.

“어이~ 킵택일~”  
잡담기 가득한 얼굴로 어슬렁어슬렁  
진육이가 걸어왔다.

“어라라? 이게 뭐야 탈칼이잖아, 아야 뭐해!  
탈찰 깨봐야지.”  
진육이가 커칠케 탈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택일이는 급히 탈칼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다.  
“때가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거야 너도,  
그러니까 그만둬.”

진육이는 탄호한 택일이의 토숨에 흠칫  
놀라는 듯 하였으나 이내 냉랭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보물이라든 들었냐? 별것은  
아니고 탈칼인데 왜 유난이야 진짜.”  
진육이의 주먹이 순식간에 탈칼로 향했다.

탈칼이 주먹에 닿는 순간 “파박“ 하는 낮고  
울리는 소리가 놀이터에 퍼져 나갔다.  
사방으로 날아간 껌질 조각들 사이에서는  
뭔지 모를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며 흙에  
섞여들었다. 엉켜 붙은 흙과 먼지 속에 어린  
새의 미숙한 형체가 얼핏 보였다.

“...“

순간적으로 진육이의 입에서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고, 택일이의 파랗게 물든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는 듯 파르르 이빨 끝에서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은 점차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학교와 그  
주변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침내 놀이터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가슴이 뒤뜰릴  
정도의 짙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만이  
멤돌았다.

😊 16    💬 3



**2024/05/08**  
wednesday, pm 8:08 | 25위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2일차 #달걀

[ 두 번째 접시 ]

달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또 하나의 생명이 죽었구나

무정란과 유정란의 노란 노른자를 볼 때마다  
쓰라린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윤기나는 달걀 프라이,  
포슬포슬 달걀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병아리를 먹은 것일까요. 그들은 탄탄한  
껍데기에 싸여 눈물 흘릴까만 눈을  
기다립니다. 거대 쇠창살에 갇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깜깜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달걀판 속 몰래몰래 숨겨둔  
병아리의 형태를 갖춘 자신의 형제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서둘러 알을 깨고 나와  
먹히지 않기를.  
음식의 역설은 생명을 죽여서 또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이지만,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뽀득뽀득, 오늘의 뭇 접시가 뒤였습니다.  
]

😊 16    💬 6



**2024/05/08**  
wednesday, pm 8:57 | 22위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2일차 #달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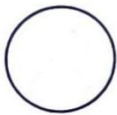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찝찝한 계란을  
생각해보니 마치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의 결여를 느끼게 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못나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  
유연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삶은 계란의 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속으로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마치 찝찝한 계란 노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기계적인 사람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계란처럼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어떤 시점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의  
저에게는 큰 타격으로 들어와 감정의 결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계같은 사람이 된 후 한동안은 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지?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쩌라는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내가 정상인건가? 했습니다. 저를 바꾸려고 노력해보았지만 한번 사라진 저의 풍부한 감정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강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번외로 '계란'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악류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멜로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후라이의 꿈' 한번 들어보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 14    💬 3



**2024/05/08**  
wednesday, pm 9:04 | 24원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2일차  
달걀

다 굶은 달걀  
굶은 지도 모른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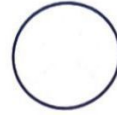
마주본 이에게  
넌지시 건네본다.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며  
윗부분에 콕콕 작은 구멍을 뚫고

눈 질끈 찡그린 채  
그대로 목에 들이붓는 걸 보며

굶아도 달걀은 달걀이구나  
칭아한 음색을 들으며 되새긴다.

😊 16    💬 3



**2024/05/08**  
wednesday, pm 9:12 | 27원음  
유영주(청각/20202550)

#2일차

콜럼버스는 달걀 끝을 깨뜨려 똑바로 세웠고, 에디슨은 달걀을 품어 부화를 시도했고, 아인슈타인은 매일 아침 달걀을 먹었고, 우리 아빠는 달걀 껍데기를 곱게 갈아 화분에 준다.

콜럼버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유영환 let's go

세상에서 제일가는 짠돌이인 우리 아빠는 소비기한 임박 마감 세일 우유를 잔뜩 쟁여놓고는,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의 프레쉬한 우유라고는 마셔본 적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는 성정의 연장선으로 우리 집 화분들은 노란색 영양주사 대신 가내수공업 칼슘을 담백 제공받곤 한다. 우리 집 화분은 칼슘을 듬뿍 듬뿍 받아먹지만.... 우리 가족은 소비기한 지난 우유, 유통기한 지난 계란, 통조림, 치즈, 마요네즈, 머스타드, 연유, 초장 등등을 먹어야 했다. 이걸 투철한 알뜰살뜰 정신으로 생각해야 할지, 음식물 쓰레기 호더라고 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구두쇠 가부장을 뺀 나머지 구성원들은 유영환씨의 음쓰처리기식 가족 운영법에 잔뜩 질려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후기를 남긴 채 등지를 떠났고, 이젠 나의 탈출만이 남아있다. 우리 집 자린고비의 절약으로 점철된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

삶은... 달걀.

😊 13    💬 3



2024/05/08  
 wednesday, pm 9:31 | 19원음  
 방예빈(중국학과,20201519)

#2일차 #달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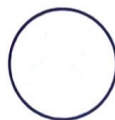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해 조사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달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는 말이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서민 음식으로 제격이던 달걀마저도 고물가 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었나보다. 어릴적 달걀이 맞느냐 계란이 맞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 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토론했다. 그런 이야기들보다 물가 이야기로 먼저 글을 시작하는것을 보아하니, 나도 참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달걀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한다. 또, 달걀은 새로운 시작과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축제나 기념일에는 달걀 요리가 많이 준비되며, 중국의 가장 큰 축제인 춘절에도 달걀을 빨강색 염색하여 행운을 기원한다. 생명력이 깃든 둥근 모양의 알에서 행운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본능적인 이끌림이 아닐까.

달걀이 품고 있는 생명, 병아리가 될 잠재력이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선 달걀의 껍질을 깨야한다. 나는 그런 점에서 바로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말이다. 우리도 우리의 달걀을 깨고 나오자. 내가 가진

부리로 껍질 박을 깨고 나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 순간 나의 부리를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 11    💬 4



2024/05/08  
 wednesday, pm 9:37 | 25원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2일차 #달걀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에 아침부터 당황한 하루였는데요. 어제부터 열심히 적으신 글들을 보고 올하는 다독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한 껍질 속에 고요히 숨어 있는 미지의 가능성에 집중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달걀은 다소 우리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치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나날들, 어떤 순간에는 부서지기 쉽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끝없는 기회 그리고 희망이 달걀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생명력 같지 않은가요. 수없이 많은 날들 중 알을 깨고 나올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쫌밤^\_☆

%알루미눔-브로큰발렌타인

😊 11    💬 3



2024/05/08  
 wednesday, pm 9:55 | 25읽음  
 빅현아 (언어병리학과, 20233930)

### #2일차 #달걀

달걀은 어디에 넣어도 참 멋있고 맛있는 요리가 된다. 라면을 살 때 계란이 올려진 멋진 이미지만 봐도 맛나 보이고, 까르보나라에 노른자가 하나 올려져 있으면 고급진 레스토랑같은 비주얼이 된다. 심지어 구운계란 카레도 단어만 봐도 생똥맛지만 정말 맛있다. 어디에 넣어도 금상첨화인 계란은 꿈꿈이 참 부럽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디에 들어가도 잘만 자기 맛을 내잖아? '나 고소해!' 라면서.

조별과제를 할 때, 처음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등 어디에 들어가도 조화롭게 한 팀을 분위기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부러웠다. 나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는 속으로 화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있기 때문이다. 또 집에 와서는 '아 역시 그 말은 하지 않았던게 나왔던 거 같아.' 하면서 후회도 한다.

지금 보면 조장, 리더라는 호칭을 일명받진 않았지만, 조화롭게 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달걀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딘가에 불어도 잘만 자기 맛을 내는 달걀처럼, 나도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싶다.

😊 12    💬 4



2024/05/08  
 wednesday, pm 10:36 | 19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 #2일차 #달걀

편식이 심했던 어렸을 때의 나는 할머니댁에 가면 달걀후라이를 꼭 먹곤 했다. 달걀 없이 식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릴 적 내게 달걀 요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 학창시절에는 자주 먹지 않다가, 대학 와서 자취를 하고 나서 달걀을 필수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달걀 요리가 가장 비용과 맛 부분에서 가성비 있는 편이다. 달걀 요리는 대부분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때 유용한 것 같다.

입맛 없을 때 자주 해 먹는 달걀 요리가 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걀을 깨서 20% 정도 익힌다. 간장 한 숟갈과 참기를 한 숟갈을 넣고, 바로 공기밥을 넣어 달걀이 80% 익을 정도로만 볶아준다. 본인은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도 조금 뿌려 함께 볶는다. 김이 있으면 볶은 밥을 김에 싸서 먹기도 한다. 자취하면서 입맛 없을 때 혹은 요리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는다. 뭔가 평소보다 맛있게 먹고 싶을 땐 집에 베이컨이 있으면 함께 볶아 먹기도 한다.

우리끼리, Band!



😊 11    💬 4



**2024/05/08**  
 wednesday, pm 10:51 | 13원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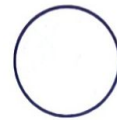
#2일차 #달걀  
 헬스인의 식단: 달걀 vs 닭가슴살

저는 삶은 달걀을 싫어합니다. 작년에 6개월정도 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웨이트와 식단을 병행했었는데 그때 단백질을 챙겨먹기 위해 질리도록 먹은 삶은 달걀이랑 닭가슴살이 생각나네요. 저는 운동의 고통이 싫어서 식단의 최대효과를 보기 위해 나를 열심히 정보탐색을 했었는데요. 달걀과 닭가슴살 둘 중 뭘 먹는 게 더 효율적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단백질의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완벽에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되는 단백질로 비교하면 달걀이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영양가 있다고 해요. 다만 다이어트나 근육 증진처럼 목적에 따라 달리 섭취하는 게 맞아서 큰 의미는 없다는 게 결론이라 결국 먹고싶은 걸 먹으면서 즐겁게

운동하는 게 장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재정비의 달인 5월인만큼 다시 또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

😊 9    💬 3



**2024/05/08**  
 wednesday, pm 10:58 | 15원음  
 김준호 (콘텐츠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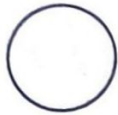
#2일차  
 달걀.  
 달걀을 비롯한 알들은 완벽한 구형과는 거리가 먼 형태를 하고 있다. 타원에 가까운 형태의 구조에 굴리거나 돌리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덕분에 구르게 되어도 한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돌기만 할 뿐 공처럼 빠르게 굴러가지 않는다.

완벽한 구형의 알이었다면 같은 힘에도 더 멀리 굴러가다 위협에 노출되었을테지만 달걀은 완벽하지 않은 덕분에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삶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누가봐도 완벽하고 아름답고 흠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목표하기도 어렵지만 우린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로 그 형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목표하는 바는 동일하기에 언젠가 그 달걀을 깨고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10    💬 3



2024/05/08  
wednesday, pm 11:23 | 22원음  
박혜원 (생명과학과 20227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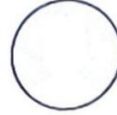
#2일차  
닭과 달걀

1  
달걀에 집중하고 달걀을 반복하면 '닭의  
알'은 무너지고 그곳을 이질감이 가득  
채운다. 달걀은 닭의 알.  
'달걀'은 '닭의 알'이라고 불러야 한다.  
'닭의 알'이 '달걀'로 불리는 순간, 세계의  
질서 또한 무너진다.  
생각하는 동물-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2  
무한한 굴레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생명의  
등장에 필요한 첫 번째 준비물은 기적이다.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원시대기에서  
기적으로 아미노산이 합성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오기를, 연약한 몸으로 맞이하여  
세상과의 싸움으로 삶을 시작했을까?  
혹은 무기염류에 둘러싸인 채로 눈을 떠  
나와의 싸움으로 삶을 시작했을까?

3  
입신을 하면 생존이 어려운 개체들이 알을  
낳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배 속에 아이를 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에  
알을 낳는다.  
나와 아이를 위해 껍데기 속에 아이를 넣는다.  
다 너를 위해서인데, 제 속에서 미처 품지  
못한 게 미안해 껍데기를 온몸으로 껴안는다.  
닭의 몸은 털로 뒤덮혀있다.

😊 9    💬 4



2024/05/08  
wednesday, pm 11:42 | 10원음  
한광성(사회학과,20182237)

#2일차 #달걀

나에게 있어 달걀은 꽤나 다재다능한  
음식이었다.  
반찬이 심심할 때면 계란후라이를 해주면  
제법 그럴듯한 식사가 되었고 찜질방에서의  
달걀과 식혜는 찜질방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었다.  
달걀은 굽는 방법도 방법에 따라 맥반석,  
완숙, 반숙으로 갈리는데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말 달걀의 쓰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나아가 달걀이 부화한 닭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끝도 없으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무튼 달걀이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질리지만 달걀은 같은 모습이 아닌 다양한  
음식과 모양으로 우리 눈 앞에 나타난다.  
그러기에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찾게되나 싫기도하다.

그런 것을 보면 나도 달걀처럼 하나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추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 7    💬 2



2024/05/08  
wednesday, pm 11:57 | 13원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2일차 #달걀

닭의 알, 달걀은 단백질 모임에 모범생이다.  
부모님은 항상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에는

달걀을 꺼내 삶거나 부치거나 국물이 있다면 풀어서 계란국으로 만드신다. 내가 처음으로 잘 할 수 있는 요리도 달걀말이다. 달걀은 냉장고에 안 보이는 날이 없다. 그만큼 흔한데,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나 지식은 거의 없어서 왠지 미안하다.

달걀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왜 타원일까? 찾아본 바로 몇 가지 가설이 존재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구형 모형의 알은 끝없이 굴러가 결국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되어 결국 타원형이 되었다는 진화론적 관점이다. 저절로 고개가 끄적였다. 냉장고에서 굴러가지 않아 다행이구나.

사실 요즘 달걀형 얼굴을 그리는 중이다. 얼굴의 유형을 나눌 때 달걀형은 모든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태이다. 달걀은 외형조차 사람들의 미학에 완벽한 것이다.

하지만 닭의 입장에서 완벽함은 칭찬이 아니다. 인간에게 철저히 이용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체 포유류 가운데 사육되는 동물이 60%라는 수치를 보고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모든 문장에 이런 생각이 스며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배층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조금 이해가 되는 하루입니다.

😊 9    💬 2



2024/05/08

wednesday, pm 11:58 | 15읽음  
박지호(식명,20213818)

## #2일차

달걀은 자취생에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죠

전 3년째 자취 중이라 계란요리를 질리도록 먹었던것 같아요

계란 한판을 사두면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고 저렴한 식재료죠ㅎ. 요즘 계란 값이 올라서 좋은 계란을 먹으려면 비용이 크긴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기에 조금 더 비싸도 몸에 좋은걸 선택하곤 해요. 하루에 계란

적정량이 있는거 아시나요?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귀찮아도 채소를 챙겨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 9    💬 2

우리끼리, Band!



2024/05/08  
 wednesday, pm 11:58 | 13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2일차 #달걀

집에 병아리가 태어났다. 막냇동생이 유정란을 부화시키는 영상을 보고는 따라해보고 싶다며 사왔다. 처음엔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21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정말 병아리가 태어났다. 4개의 알로 부화를 시도했는데 그 중 한 알에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 가족은 병아리에게 뽀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는 처음에 병아리 키우는 것을 반대했다. 심지어 이 녀석은 갈색 병아리라 정석적으로 예쁜 노란 병아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조그만한 털둥치를 보니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다. 손으로 잡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만져주니 편안한지 눈을 감았다. 내 손이 뚱지가 된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니 나도 더 잘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1년 정도 키우다가 보니 닭이 되었다. 아침마다 '꼬끼오~' 하며 우는 통에, 더이상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시는 분이 닭을 키우셔서 보내고 나서 우리는 종종 찾아가 인사를 전한다. 내 스무 살에 만난 특별한 달걀이었다.



😊 7    💬 4



2024/05/09  
 thursday, am 12:22 | 37읽음  
 김양선

#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달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저마다의 경험과 사유로 연결되고 뿔어나가는 걸 읽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달걀을 식재료로 한 요리에 깃든 추억들, 타원형의 달걀이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 여전히 난제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리고 <데미안>의 구절까지..작은 달걀 하나에 온우주가 깃들어

모임이 쉬워진다!

있고, 인생과 닮아 있음을 새삼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이제 막 성인으로 도약한 여러분들이 알을 깨고 나와 멋진 삶을 누리기를..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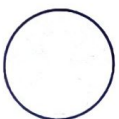
😊 14    💬 0



**2024/05/09**  
thursday, am 8:02 | 39읽음  
김양선

#3일차 키워드 : 최애  
'최애'는 유행어나 신조어로 알기 십상이나 엄연히 사전에 올라와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사랑함"이라는 뜻이지요. '최애'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특별한 사연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최애'는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최애'하는 장소나 순간이 있는지요? 오늘은 내가 최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 13    💬 0



**2024/05/09**  
thursday, am 9:03 | 24읽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3일차 #최애

다솜

별빛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널 아꼈기 때문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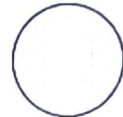
고요 속 달빛이 요동치는 이유는  
네가 나와 가까워지는 걸 느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를.  
위로하기 위해 성하가 흐르고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를 위해.

[최애의 콘서트에 처음 간 경험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시.]

😊 15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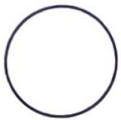


**2024/05/09**  
thursday, am 9:49 | 22읽음  
장지은(20212564/언론방송융합전공)

#3일차 지난 학기에 '최애' 키워드가 올라왔을 때는 본가에 위치한 나의 최애 서점을 소개했었다. 여전히 그 장소가 나의 최애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아닌 최애인 아르바이트, 즉 가장 좋아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말해보고자 한다. 왜 최애인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주말마다 장난감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곳에서 일을 할 때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주로 계산하기, 장난감 물건 찾아주기, 고객 응대하기 등인데 워낙 장난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기들을 예뻐하는 편이라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가끔 돌도 안 지난 아기가 부모님 품에 안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내가 하도 뚫어지게 쳐다봐서인지 부모님들이 '아기를 정말 좋아하시나봐요~'하고 말씀을 건네곤 하신다. 한 번은 아버님이 본인이 장난감을 둘러보는 동안 아기를 안고 있어도 된다고 하셔서 약 5분동안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순한 아기라서 그런지 울지도 않고 내 눈을 뚫망뚫망하게 쳐다보는데 아기를 지금 당장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면 손을 잡고 같이

장난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걸 찾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더 뿌듯하고 물건을 들여오신 사장님의 안목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근무를 한 지 1년 채 되지 않았지만 평생 하고 싶어지는 아르바이트이기도 하다.

😊 15    💬 2



2024/05/09  
thursday, am 9:56 | 32읽음  
유영주(청각/20202550)

### #3일차

[도전! 교수님 몰래 다른 과제 하기]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기기 조작 미숙으로 버벅거리며 수업 진행이 정체되어 강의실에 달콤한 정적이 흐를 때가 제일 좋다. 사실 지금 딱 그런 시간을 활용하여 라이팅 챌린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의욕이 넘쳐나셔서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다양한 동영상, 사진 자료들을 노트북을 뒤져 찾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실 때가 좋다. 보통 그런 자료들은 꽤나 흥미롭고... 나를 귀엽고... 정말 전공지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강의 시간에 합법적으로 명을 때릴 수 있다..!  
또 강의 수강 인원 전원이 발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좋다. 질의응답이 과제 점수에 포함되어서 집중해야 한다면 유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발표에 집중하여 필기하는 척 낙서를 할 수 있다. 낙서를 하다 하다 지루해지면 오히려 발표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인들이 요즘 번아웃 vs 도태 사이에서 죽음의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을 최근에 인터넷에서 접한 적이 있다. 나를

둘러싼 이런 뻘뻘한 상황 때문에 일상 중간중간에 잠깐씩 주어지는 타의적 휴식 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는가 보다.

😊 17    💬 3



2024/05/09  
thursday, am 10:59 | 22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 #3일차 #최애

친구들과 '넌 최애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한게 기억난다. 나는 블랙핑크라는 걸그룹 멤버 중 지수를 좋아했다. 개인적으로 지수는 무대에서도 예쁘지만 일상 사진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던 연예인 중 한명이다. 근데 난 최애의 열혈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 중 래퍼가 최애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최애가 참여하는 행사나 콘서트가 있으면 참여해서 최애를 보고 본다. 또 싸인도 받고 최애와 대화도 하고 최애의 팬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열혈팬인가보다 싫어진다. 또 친구 말로는 팬들 중에서 최애에게 커피차도 보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렇게까지 진심이구나,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부럽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최애는 가장 사랑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깊게 생각해보니 나에게겐 사랑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 같았다. '관심만 있다고 해서 최애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 중 한명을 골라서 좋아한다는게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저 '최애가 누구야?' 라는 질문에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애와 열혈팬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꼭 앨범을 사지않아도, 응원봉이 없어도 응원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는것만으로도

팬이 될 수 있는거고, 최애가 생길 수 있는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정리해보게 되었던 하루인 것 같다.

😊 14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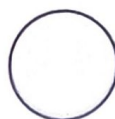


**2024/05/09**  
thursday, am 11:41 | 18읽음  
전충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 #3일차 #최애

각자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 있으리라 믿는다. 오래된 그림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그저 자신의 경험이든 말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최애 미술 작품은 귀스타브 쿠르베의 《화가의 아틀리에》(L'Atelier du peintre)이다.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쿠르베는 만국 박람회 당시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었고 이때 이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그림은 중앙의 쿠르베를 기준으로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나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밝고 대부분 고개를 들고 있다. 대중적이고 간단한 해석으론 좌측이 죽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 우측이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쿠르베의 편지에서 언급된다). 이는 우측의 '악의 꽃'을 집필한 시인 보들레르가 있다는 점, 좌측에는 거지와 어두운 분위기로 알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는 순수, 여인은 영감으로 추정된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며 늘 생각한다. 우리는 죽음과 생명 중 무엇을 먹고 사는 부류인가.

😊 12    💬 1



**2024/05/09**  
thursday, pm 12:58 | 18읽음  
김희빈(경제학과/20195112)

### #3일차

어떤 존재를 좋아한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를 찾았다는 것.

최애라는 단어로 많은 감정을 함축시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동경한다는 것, 혹은 이상향으로 삼았다는 것 등등 대상을 바라보는 것 모두 최애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어릴 때 명확하진 않지만 다들 어떤 것이 되고 싶다, 혹은 갖고 싶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경찰, 소방관들을 동경하거나 어떤 동물이 되고 싶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 음식 등을 좋아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총통. 전부 다 우리들의 첫 '최애'가 되었던 존재들이다. 그러면 나 스스로의 최애 중 최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결국 가족, 부모님으로 돌아온다. 표현이 서툴러서,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자주 말을 못 꺼내지만 우린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곁에서 자라고 배우며 그들의 삶을 바라본 입장이다. 동경, 사랑, 애정, 이상향 이 모든 감정을 고려해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닐까?

결국 우리 모두 누군가를 최애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최애가 되며 인생을 살아간다. 역시 모두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가 삶을 살아갈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느낀다.

😊 14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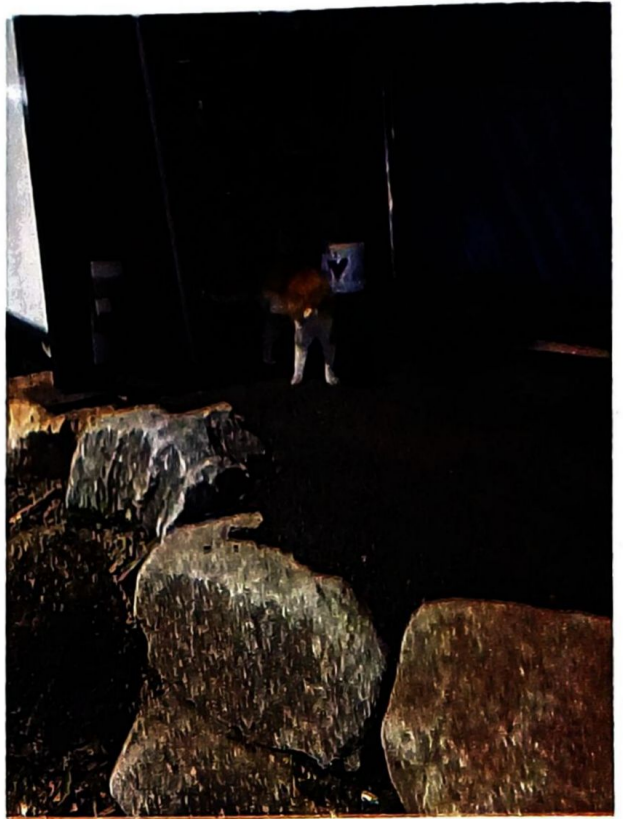
2024/05/09  
 thursday, pm 1:01 | 22위@  
 서준명(사회복지학과\_20192327)

### #3일자

최애라는 단어 하니민으로 오늘 정말 다정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며 본인만의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는게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오늘은 어떤 글을 쓸지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을 때 힘삼 글이 꼬이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푸바오와 관련한 뉴스영상의 댓글로 마지막 사진의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 키워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애기와 연결을 시키자면 주말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근길에 보이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요즘 이 친구와 출근길에 만나 5분~10분 노는걸 제일 좋아합니다. 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될 행동입니다. 꼬질꼬질한 고양이를 만지는 것부터 저 고양이가 날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저한테 다가오고 저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고양이랑 놀다가 출근 시간 늦지 않게 떠납니다. 저는 최애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게 맞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애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랑 노는 것보다 이렇게 글 쓰는 것이 최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변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은 우리 서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하고싶은 것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지 2019-05-09 23:46 신고

어떤 사람들은 고작 글씨로 채워져 있는 종이 문체에 꼭 빠져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고 심지어 창난감까지 수집합니다. 잔디밭에서 22명이 작은 공 하나를 차려고 발레를 치는 행위에 수십억 명이 열광하고, 매일 저녁 TV 앞에 모여 많이 눈물을 흘치기도 하죠.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시계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민합니다. 이 중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총합을 우리는 삶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원하는 곳에 애정을 쏟으세요. 그것이 삶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진 못해도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으니까요. < 출처: 부기영화 >

6701 58

14 2



2024/05/09  
thursday, pm 1:06 | 23읽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3일차 #최애시간대

저는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최애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중 오전 9-10시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일정이 없는날 9시가 되면 이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야지 하는 설렘을 느끼는데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텀블거리는 시간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하더라구요!!!! 똑같은 행동을 다른 시간에 할 때의 만족감이랑 비교가 안되게 9시에서 10시 사이의 행동이 하루의 질에 있어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밀린 일을 하고 밥을 먹는 아침형 습관을 만들었어요. 최근 독립해서 살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은 7시간 30분을 잤을 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구요. 별 거 아닌 듯한 작은 행동이지만 저의 컨디션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하루를 더 기분좋고 긍정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15 5



2024/05/09  
thursday, pm 1:16 | 25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3일차

최애란 내 일부다. 최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와 경험이 지금은 추억이 됐다. 소중한 많은 순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었다. 무엇을 하나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냐가 중요하단 걸 느낀다. 낮을 가려 어색했지만 스며들게 해준 그들에게 고맙다.

또 다른 최애 하나는 힙합이다. 힙합 음악 덕분에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힙합이 보여주는 솔직함이 내 갈등을 해소시켜줬다. 힙합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취향과 세계관을 만들었다. 여전히 힙합 음악가들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다들 각자만의 최애를 품고 산다. 그렇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행복하게 산다. 최애는 우리 자신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끼리, Bar



😊 18    💬 4



2024/05/09  
thursday, pm 1:28 | 19읽음  
조성빈(중국어학과, 20201534)

### #3일차 최애

분명 어릴때는 최애하는 게 많았고 찾기 쉬웠던 건 같은데 성장할수록 최애보다는 최협(최고로 싫어하다)이 더 많아지고 나의 최애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것이라도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려고 관찰하며 노력하고 있다. 가령 나의 한림대 최애 장소는 카페희랑이다. 2학년 때 우연히 이 카페를 알게 되어 가봤는데 커피맛은 다른 카페랑 비슷했지만 내가 앉은 자리,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창문이 크게 나있는 자리가 보이는 쪽에 앉았는데 마침 그때 사람도 없었고 흘러나오는 음악의 선율도 좋았으며, 화창하고 마치 바다같은 푸른하늘과 카페 앞에 있는 초록나무가

어우러지는 그 풍경이 너무 너무 좋았다. 마치 지브리속 한 장면에 내가 들어와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이 날 때면 그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고요하게 그 순간을 즐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런데 이 글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최애의 장소가 알려져서 그 자리에 못앉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생긴다. 또, 나의 최애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 무엇보다 나의 엄마이다.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가족말고는 잘 없다. 어릴 때의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가족에게 집중하고 가족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엄마를 무엇보다 더 최애하는 이유는 그냥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희생할 수 있을 정도에 소중한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가장 최애는 나의 엄마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옷핀?상상도 해봤었다. 엔드게임에서 노란색 스톤을 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하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가족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나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최애이다. 사실 이런 나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슬퍼하시는 반응을 보이셨다. 너는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좋아해야 하는게 너 자신이라고. 그런데 너 자신보다 너의 가족을 1순위로 두고 너를 2순위에 두면 어떡하냐고. 그 말을 듣고 웬지 모르게 울컥했다. 사실 나는 나를 좋아하기보다 나를 싫어하고 자존감도 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좋아하는게 더 당연했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방법이 뭔지도 몰랐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나를 좋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나는 차애(次愛)고 내 가족이  
최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를 좋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는 최애가 내가 되는 날이 올까...?  
뭔가 어색하다.

😊 16    💬 4



2024/05/09  
thursday, pm 1:56 | 19원음  
한주연(미디어스탈.20242586)

#3일차 #최애

나의 최애는

인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물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핸드폰이다.  
동물이라면 강아지고 색깔이라면 몽환적인  
보라색이다.

연예인이라면 배우 변우석과 안효섭이고  
음식이라면 입에서 살살 녹는 초밥이다.

장소라면 편안한 안식처인 집이다.

취미라면 음악 들기와 쇼핑이다.

최애와 차애를 나누기는 쉬운 것 같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최애. 그것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형태가 이렇게나 다양하게  
많이 존재해있다.

최애를 위해서, 최애 때문에, 최애로부터,  
최애만큼, 최애처럼...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느낀다.

😊 14    💬 3



2024/05/09  
thursday, pm 2:19 | 21원음  
한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3일차

내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자주 들게 되고  
최애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다.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인데 들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노래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처음 들게 되었다.

20대 초반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밤하늘  
아래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게 되었다. 이날의  
밤은 바람도 솔솔 불었고 공기도 상쾌했다.  
둥근달은 정말 크고 밝아서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게  
되었는데 이때의 느낌은 힘든 상황 거의 다  
버텨낸 나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 같았고  
그때의 상황 또한 완벽에 가깝다 보니 정말  
낭만적이었다. 그때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힘들고 지쳤던  
순간마다 그 노래가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좀 들고 어깨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맘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갇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노리조의 험 기사 중에서

😊 14 💬 2



2024/05/09  
thursday, pm 3:06 | 25원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3일차 #최애

비쁜 일상에 치여사느라 좁은 '나'라는  
사람을 쉽게 잃어버리고는 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언니'라고 불리거나,  
수업에 나가면 '선배'나 '후배' 라는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다보니 직장에 나가면  
직급으로 불리며 더 쉽게 나를 망각하겠구나  
라는 압박이 들었다.

나는 무얼 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 세삼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막상  
생각하려니 모쪼록 '나'를 고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느끼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노래고, 음식은  
순대국과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상형은 키가  
크고 쌍꺼풀이 진한,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의 취미는 카페 투어로 주로 자주 마시는  
음료는 '아이스바닐라라떼'이다. 이하 아바라  
도장깨기를 꽤 좋아한다. 흑시라도 함께  
카페를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에 환영한다

나를 고찰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나의  
기록이 어딘가에 읽힌다고 생각하니 감사히  
느껴진다.



😊 15 💬 2



2024/05/09  
thursday, pm 3:36 | 22원음  
한광성(사회학과, 20182237)

#3일차 #최애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나에게 너의  
"최애케"는 뭐냐고 물었고 그때 처음으로  
최애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최애라는 말을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나에게 최애라는 말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때에 따라 좋아하는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애를 한 번 정한 후에 나중에 바뀌면 바뀌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게 정말 자주 바뀌는 사람이었다.

뭔가 시시때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내 자신도 좋지 않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싫었기 때문이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다. 그렇게 어른이 되다보니 느꼈던 것은 단순히 최애 만을 정하지 못 하는게 아닌 결정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살에는 이전과 다르게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해야했기에 과제 주제선정, 밥매뉴, 자취를 할지 기숙사를 살지 등등 하나하나 결정하는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조별과제도 많이 하고 대외활동을 해가며 어쩔 수 없이 무언가 하나를 꼭 정해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겪어나가다보니 조금씩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사실 지금도 뭐 하나 고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20살에 비하면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삶을 겪으며 느낀 것은 최애는 한 번에 찾아가는게 아닌 여러번의 선택을 겪어가며 최애를 찾는 것 같다.

😊 16    💬 1



2024/05/09  
thursday, pm 4:44 | 27읽음  
박지호(식영,20213818)

#3일차

최애. 난 최애가 딱히 없다. 어렸을때부터 좋아하는 가수 하나 없었다. 내 최애는 사람 보단 동물과 음식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것은 내 반려견이다ㅎㅎ 이름은 꿈지이고 8살이다. 너무 귀여워서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다ㅎ.. 내 최애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최애 반려견은 내 인생에 있어 너무 큰 행복을 안겨주고 내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최애를 갖는다는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좋아하는걸 갖는다는 것 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것 같다.



😊 19    💬 4

모임이 쉬워진다!



2024/05/09  
thursday, pm 5:07 | 21위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3일차 #최애

올해 들어 새로 알게 된 가수가 있다. 'wave to earth'.

처음 접한 노래는 '사랑으로'라는 노래이다. 이 가수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다.

"사람 사이 사랑  
모두 함께 모여서  
영원을 바라고  
몸 마음 물어내면  
비로소 우리의 세상이 완벽해"  
라는 가사를 좋아한다. 5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 긴 시간에 비해 가사가 적음에도 멜로디가 좋아서 자주 듣게 된다.

이 가수의 음악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멜론에 음악 서랍을 따로 만들어 두고 모든 노래를 넣어 들을 정도이다. 봄과 여름의 사이인 현재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다. 특히 오전 8~9시에 등교하면서 듣는 이 가수의 노래들은 아침 햇살과 조화롭다.

<https://youtu.be/Q49pnA4jsp8?si=ITD3it0BEK2tycLf>



wave to earth -love. (Official Lyric Video)

😊 16    💬 2



2024/05/09  
thursday, pm 5:07 | 24위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3일차  
#최애

"주희야 너는 최애가 뭐야?"

"나? 음.. 나는...."

<기억 한 조각>

자개 빛깔의 벽지, 옥색 물딩과 좁은 창문. 오리엔탈 감성으로 한껏 물든 곳. 마당에는 둥글둥글한 자갈이 펼쳐져 있고, 따뜻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지금은 부서지고 없어졌다. 낡은 오크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찌그러진 농작 서랍에서 반 토막짜리 사탕을 종종 발견하고는 했다.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녹아 녹진거리는 것들 사이로 골라내는 묘미도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발록발록 쥐었다 폄다 하며 찌득해진 사탕을 입안 이리저리 굴러먹었다. 입안에 가득히 감도는 단내가 싫지 않았다. 사탕이 작아지고 얇아질 때 짙 속옷 차림 그대로 방바닥에 그들먹하게 드러누운 채 세월아 네월아 하고 마냥 농땡이를 피우기도 했다.

할머니 집에서 기억은 나에게 있어 '최애'다. 어슴푸레한 많은 기억들 중 가장 선명하고도 아름답다.

😊 17    💬 2



2024/05/09  
thursday, pm 5:46 | 26원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3일차 #최애

TO. 최애에게  
최애야 안녕 나는 널 응원하는 팬이자 한국에 사는 대학생이야.  
우선 너의 존재가 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고 행복이야.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내게 나타나준 것도 감사하고 있어. 나는 너의 갑인함과 어범스러운 면을 좋아해. 내가 욕심이 많아서 너를 가장 애정한다 말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오래 너를 응원하고 싶어. 내 생활 공간에는 굿즈가 엄청 많아. 더 이상 공간을 쓸 수 없을 때 비로소 너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지. 최근 얼굴을 많이 못 봐서 아쉬운 마음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릴게. 잘 먹고 몸 조심히 다니길 바라.

😊 17    💬 6



2024/05/09  
thursday, pm 9:05 | 24원음  
방예빈(중국학과,20201519)

#3일차 #최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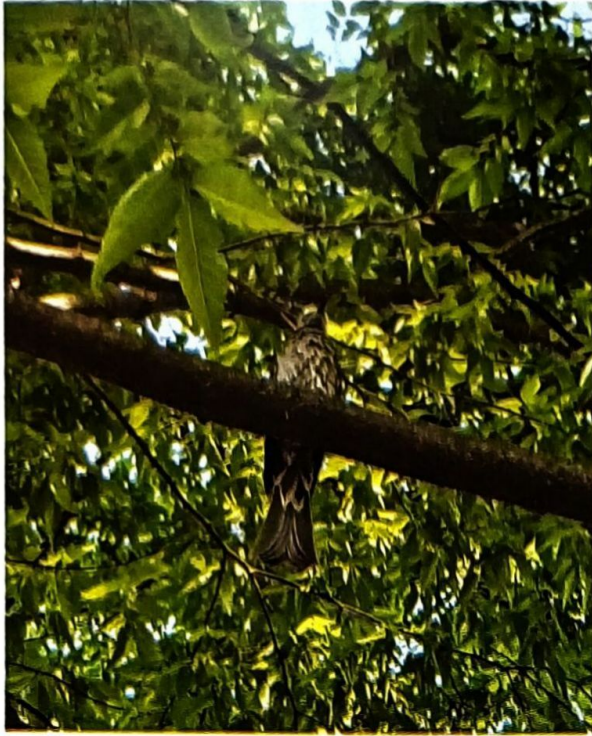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나에게 한 가지를 결정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단 하나를 고르면 선택 받지 못한 나머지가 섭섭해 할 것만 같다.

그래서 나의 최애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레드햇칠리페퍼스(RHCP)와 함요한의 노래, 우리 오빠가 해주는 콜뱅이 소면, 우리집 귀여운 하늘이와 보리, 언니와 함께 먹는 소주, 엄마와의 꽃놀이, 콧에서 만나는 아빠, 퇴근 후 물 받아 놓은 욕조, 친구들과의 게임, 교수님의 칭찬, 또 이렇게 울리는 클에 달리는 여러 댓글까지, 모든 것이 최애다. 단 한가지만 꼽기에는 욕심이 너무 많은 나지만, 이런 내가 탐탐하지만은 않다.

오늘의 최애는 기분 좋은 날씨에 만난 직박구리.

우리끼리, Band!



다들 오늘은 어떤 최애를 만나 행복했는지 궁금해지는 밤이다. 나도 누군가의 최애에 포함되어 있을까?

😊 16 💬 4



**2024/05/09**  
thursday, pm 9:21 | 22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 #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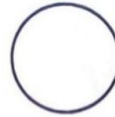
사실 최애라는 단어도 정말 오랜만에 본 듯 하다. 내가 최애라고 부르는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최애란 좋아하는 연예인 정도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최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은 신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모든 걸 줄 수 있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대단하다고 느끼며, 나 또한 최애가 생긴다면 꼭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15 💬 2



**2024/05/09**  
thursday, pm 10:03 | 21읽음  
박현아(언어병리학과,20233930)

### #3일차 #최애

항상 어디가면 최애맛, 최애 메뉴, 좋아하는 연예인을 물을 때 긴장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의 취함에 안 맞을까봐.' 인데, 뽀뽀 물어 말하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취함이 아니면 내 마음이 전전긍긍하게된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걸 같이 할 때, 고맙기도하고 전파한 거 같아 뿌듯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치를 너무 높이고, 생각보다 취함이 아니거나 그냥저냥 어디서도 본.. 그런 느낌이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다. 내 최애 여러가지들.. 보석함에 꼼꼼 숨겨두고 자물쇠도 걸어버려야지. 어릴적 미미인형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처럼, 내 최애들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구경시켜 주어야겠다.

😊 14 💬 3



**2024/05/09**  
thursday, pm 10:17 | 20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 #3일차 #최애

[ 세 번째 접시 ]

오늘 교양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판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분필로 물든

지신의 하인 손가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교수님의 최애는 열정이구나

리고 생각했습니다. 최애가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이나 사람이 되리란 법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최애가 있다면 아무래도 삶을 실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이라면 좌우명처럼 생각하며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목표를 향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애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나의 모든 기준들을 통과하고 취향의 범위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면으로는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애라는 게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이라 한 번 최애가 생기면 오랫동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애들을 찾으며 재밌는 여행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 뽀뽀,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 15    💬 2



**2024/05/09**  
thursday, pm 10:50 | 19위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3일차 #최애

최애를 위해 고뇌하며 시간을 쓰는 당신께

처음으로 최애에 관하여 생각해봤다. 내가 가장 애정하는 것은, 사람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보통 싫어하는 것들만 생각하며 거르고 컬러 살아왔기 때문일까, 도무지 고르자니 어려웠다. 그렇게 떠돌던 와중 내려진 결론은 시간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애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시간이다. 최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초치도 흘러가는 지금 말이다. 최애가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웃기기 그지 없지만, 나의 시간을 사랑한다. 그것만이 나를 나 자체로 가치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든, 사람과의 시간을 가지든, 효율적인 시간을 가지든 낭비하는 시간을 가지든 그것은 그것대로 나를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게 도와준다. 시간만이 나의 최애이고, 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나는 그 무엇보다 보람있다고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시간을 애정하라, 이가 당신을 증명해줄테니 말이다.

😊 13    💬 2



**2024/05/09**  
thursday, pm 10:56 | 18위음  
김명빈(미디어스쿨\_20202706)

사랑하는 게 없는 세상은 방학 없는 학교이다.

/

세상에, 방학 없는 학교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 아닌가요?  
적어도 제게는 끔찍한 세상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없는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올해 녹색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 캘러리와 배경 화면, 핸드폰 케이스와  
열쇠고리도  
모두 녹색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도 시원해요,  
녹음이 트리운 캠퍼스는 -학교가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바리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되는,  
짱하고 예쁜 녹색이에요.

오늘 낮처럼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당히  
부는 날에는  
연두색 돛지리를 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등을 टे고 누우면  
머리 위로 나뭇잎 그늘이 드리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삼삼을 하면 어느 순간 광태가 썰룩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의 광태를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도 사람 가득한 하루 보냈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3일차 #최애

😊 13 💬 4



2024/05/09

thursday, pm 11:04 | 22위음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3일차 #최애

최애를 고르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래,  
운동, 게임, 좋아하는 사람, 내 반려견  
호투까지!!! 아주 많아서 최애를 딱 하나  
고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최애를 꼽으라면  
나에게 한없이 많은 사랑을 주는 내  
남자친구이다. 이렇게 최애를 딱 정하고 보니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남자친구를 거의 2년 동안 만나면서 자주  
해주는 애정표현에 자존감이 높아졌다. 또한  
취미도 잘 맞고, 둘 다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맞아 싸우지  
않고 잘 사귀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일일이 쓰다 보면 클이 너무  
킬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다.  
어렵게 만난 인연이 연인사이까지  
발전되면서 여러 이점을 많이 주고 받게됐다.  
이 글을 읽는 학우분들도 좋은 인연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잘 잡길 바랍니다.

😊 13 💬 5



2024/0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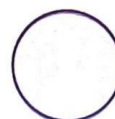
thursday, pm 11:04 | 18위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0255)

#3일차

최애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저에게 최애라는게 생길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더군요. 저의 최애는 바로 세븐틴입니다. 특정 한 명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룹을 좋아합니다. 굿즈를 사거나 콘서트를 가고 팬미팅을 가는 등의 여정을 하지는 않지만 세븐틴이 주는 활발한 에너지가 좋아서 노래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세븐틴을 알게 된 계기는 고잉세븐틴이라는 세븐틴의 자체컨텐츠였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남거나 삶이 지루하다 싶으면 고잉세븐틴 보면서 힐링해보세요

😊 13    💬 3



2024/05/09

thursday, pm 11:05 | 19위음

박해원 (생명과학과 20227081)

#3일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가장 좋아하는 옷, 노래, 음식, 꽃  
그 모든 범주 위에 네가 있어

봄에서 여름의 바람이 느껴지는 시기, 흐리지도 해가 찜찜하지도 않은 날 오후 6시에 너와 같이 공원에 가고 싶다. 우리 둘 다 봄에 불지 않게 느슨한 옷을 입고 나오자. 좋아하는 밴드의 앨범을 '전곡 재생'으로 들고, 절대 셔플은 하면 안 돼. 노래 순서의 의도를 우리끼리 생각해 보는 거야. 근처에서 닭꼬치를 사 오자. 너는 매운 걸 못 먹어서 나도 이젠 맛있는 맛을 가장 좋아한다. 뛰지는 않지만 빠르게 걷는다. 그러다 우리가 처음

보는 꽃이 보이면 멈춰서서 가리킨다.

내가 1등의 증표로 금메달을 걸어줄 수 있는 내 삶에 분야들에 합살 너는 걸쳐있다. 아니 그 위에 올라 서있다. 나는 전부 너랑 함께하고 싶어.

내 생애 가장 밝은 하얗 나는 너를 최애한다. 나는 나보다 너를 사랑해



😊 13    💬 8



2024/05/09  
thursday, pm 11:06 | 19원음  
이채린(미디어스쿨/20242562)

#3일자 #최애

'가장 사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무거운 말을 사람들은 참 쉽고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좋은데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곱씹어 생각하고 되새기도록 만드는 힘, 이런 힘들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닐까요. 마치 두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햇빛의 온기처럼 점점 더 멀어지는 우주 속에서도 영원을 잃지 않는 별처럼 무언가를 사랑할 때 생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최애를 두고 살아가세요~!^\_^☆

%좋지 아니한가-유다빈밴드

😊 13    💬 2



2024/05/09  
thursday, pm 11:19 | 17원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3일자 #최애

저의 최애는 봄과 여름의 풍경입니다. 푸르게 채워진 바다와 숲과 나무와 꽃, 넓은 들판과 햇살을 좋아합니다. 온몸에 닿는 따스한 햇살의 느낌과 초록으로 가득찬 거리들, 그리고 예쁘게 색을 밝히는 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의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버스에 몸을 싣고 바다로, 안정을 취하고싶을 땐 초록이 펼쳐진 들판이나 숲으로 향했던 고등학생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누군가 제게 물을때면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우물쭈물하며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최애는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풍경은 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저는 매일이 우울하고 힘들어 고개를 꼭 숙이고 땅만 보며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림같은 하늘을 보게 되었고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시선은 주변 풍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깊고 진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 11    💬 4



**2024/05/09**

thursday, pm 11:51 | 13원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 #3일차 #최애

요즘 나의 최애는 토리다. 토리는 우리집 토끼다. 아는 분이 키우려 데려온 아이지만 하도 다른 녀석들에게 싸움을 걸고 다니는 바람에 태어난지 2개월만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이전엔 토끼에 대해 잘 몰랐다.

초등학생 때쯤 토끼 키우기 붐이 일었을 때 아는 언니가 토끼를 키워서 구경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의 나는 미래에 토끼를 키우게 될 줄 알았을까.

이 녀석과 함께 살면서 이전에 알던 토끼에 대한 상식 중에 잘못된 사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다.

첫째, '토끼는 죽을 때만 소리를 낸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토끼가 다른 동물에 비해 소리가

없는 편은 맞다. 하지만 짹소리 인내는 것은 아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맘에 안드는 일이 있으면 "쿵!" 하고 소리를 크게 내  
 김정표현을 한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흔하게 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한두번은 참아주다가 소리지르는 느낌이다.) 또 기분이 좋을 땐 '오도독, 오도독' 하고 이 가는 소리를 낸다. 둘째, '토끼는 당근이 주식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다. 토끼의 주식은 건초이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소화 잘 되지않아 병을 일으키기 쉬워 당근이나 생채소는 소량만 급여해야한다. 셋째, '토끼는 가두어 키워도 된다.' 키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가둔다는 개념은 작은 케이지를 말하는 것이다. 토끼하면 떠오르는 것은 큰 귀와 잘 뛰는 것이다. 토끼는 긴 뒷발로 바닥을 차면서 단 몇 초만에 거실 끝에서 끝으로 달릴 만큼 빠르고 집싸다. 신날 땐 공중에서 머리를 빠르게 흔들면서 달린다. 저렇게 잘 달리는 아이가 작은 공간에만 살아가야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나서면서 도리 이름부터 부른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도 도리의 이름부터 부른다. 무언가를 아끼고 사랑하면 이름만 불러도 좋다는 말이 있다. 2024년 5월에서 나의 최애는 도리다.



😊 9    💬 3



2024/05/09  
 thursday, pm 11:58 | 12읽음  
 김준호 (콘텐츠IT)

#3일차

최애.  
 최애가 원래 쓰이던 단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다. 워낙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시대이다보니 많은 신조어, 외래어, 유행어에 휩쓸려 줄임말 중 하나겠거니 했지만 옛날부터 쓰이던 단어라는 사실을 알고선 괜찮아 보이게 됐다.

찾아보면 순우리말 중에서도 애뜻하고 좋은 의미의 단어가 많은데 요즘엔 그러한 단어들을 다시 발굴해서 카페의 이름이나 제품명 등으로 써서 좋은 것 같다. 요즘 사투리가 유행하는 것도 그런 분위기의 일종인 것 같다.

😊 8    💬 1



2024/05/10  
 friday, am 12:20 | 27읽음  
 김양선

#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나요? 최애가 너무 많은 친구도, 최애라는 단어가 덩 덩하게 다가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와 관계맺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나의 최애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반려견이든, 아이들이든, 아니면 어떤 장소나 계절이든, 최애들에 대해 쓰면서 행복감을 느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오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 12    💬 0



2024/05/10

friday, am 8:05 | 36읽음

김영선

#4일차 키워드 : 카페

'카페'는 더이상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죠. 누군가를 만나는 친교의 장소이기도 하고, 과제나 팀플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카공족'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카페문화가 발달하다보니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스터디카페, 인터넷카페 등 파생어도 있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카페에 가나요?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요? 추천해줄 카페가 있는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14    💬 0



2024/05/10

friday, am 9:56 | 24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날씨 좋은 날, 약속은 없는데 막연히 나가고 싶을 때.

/

원래 혼자 다니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좋은 전형적인 외향형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3월쯤이었을까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약속이 없는 날이었어요. 다들 바빠서 절 놀아줄 수 없었어요. 사실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것도

한몫했죠...

남춘천역 사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항상 시끄러운 거리에요.

-그 근처에 카페라곤 테이크아웃 전문점 뿐일 거예요.-

님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상이죠.

그래도 이런 날에는 나가야지-싶었습니다. 주섬주섬 공부 거리를 몇 가지 챙겨 집을 나섰어요.

따스한 햇볕을 만끽하며 술술 걸으니, 조용한 주택가에 예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춘천역 근처라곤 밀기 힘들 만큼 조용한 곳이었어요.

시원한 통창과 나무 입칸판이 일찍이 절 사로잡았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제는 날이 따뜻해져서

밖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안고 카페로 들어서니 손님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나 봐요. 이런 큰사한 곳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즉 단골이 되었을 텐데!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와 소금 빵을 주문하고 카페 내부를 둘러봤어요.

큰 초록색 식물이 카페 종양을 차지하고 나무 스피커에선 감각적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나무 테이블이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쁜 잔과 접시에 담긴 달달한 커피와 짭조름한 소금 빵.

옆 테이블 손님들의 조곤조곤한 말소리,  
카페 내부에 퍼진 향긋한 원두 냄새.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약속은 없는데 막연히 나가고  
싶을 때,  
카페는 어떠신가요?



#4일차 #카페

😊 13    💬 9



2024/05/10

friday, am 10:28 | 23원음

손지민(김호학과\_20236255)

#4일차 #카페

4일차 키워드가 '카페'인 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카페에 혼자 갈 때는 주로 공부를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갑니다.

가끔씩 너무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날, 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백색  
소음으로 있는 카페에 들리곤 합니다.

프렌차이즈 카페보다는 개인 카페에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감성적인 재즈나  
팝송은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겨주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공부 말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날에는 학교  
근처가 아닌 학교를 벗어나 조금 더 먼 곳의  
카페를 갑니다. 주로 출전 안에 있는 대형카페  
위주로 찾아다니는데, 아는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바람도 쉴 겸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먼 카페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렌차이즈 카페보다  
개인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카페 메뉴판에  
'시그니처 메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시그니처 메뉴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카페의 특색이 담겨져 있는  
음료를 한 잔 들이키면 그때 "이 카페 더 자주  
와야겠다"하고는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개발하시고 자신 있어 하는 메뉴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시그니처 메뉴가 참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두 개의 카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곳은 학교  
근처에 있는 '그라시아 커피로스터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인생 라떼를 만났습니다. 메뉴명은 '교통라떼'인데, 처음에 마실 때는 달달한 커피의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고, 조금 더 마시고 나서는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우유와 함께 어우러지며 현실의 맛을 자아냅니다. 다른 한 곳은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대형 카페인데, '카페 더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커피도 커피지만 디저트로 있는 크로플이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반죽이 쫄쫄하고 달달한 시럽이 함께 뿌려져 있어서 아메리카노와 마시면 극강의 조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카페 추천을 하고나니 저도 킵자기 또 다른 대형 카페를 찾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카페를 가볼까요? 여러분의 최애 카페를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 12    💬 5

2024/05/10  
 friday, am 10:36 | 26원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4일차 #카페

cafe

창가에 앉아 실랑이는 햇살을 받으며,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곳.

싱그러운 커피 향이 퍼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곳.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마주하는 꽃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음악은 아름답게 흐르고,  
 마음에 미소가 번지는 곳.

카페는 마치 작은 우주

별이 빛을 내다 잠시 휴식을 갖는,  
그리고 다시 빛나기 시작할 때,  
그 곳에서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

😊 13    💬 4



2024/05/10  
friday, pm 12:34 | 22위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4일차 #카페

카페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것 같다.

카페에도 다양한 카페가 존재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음료카페를 제일 좋아한다.

나에게 "카페" 하면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작년에 나는

친구와 같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날이었다.

당시 나는 아자 시간에 몰래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어두워지고 있던 때였다.

갑자기 카페 입구 밖에서 중년의 남성 두 분이

소리를 껍뻍 지르며 서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너무 무서워서 담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입구 앞에서 싸우셔서 바로 나가지도  
못했었던 기억이 있다.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중 하나인 것  
같다.

😊 13    💬 3



2024/05/10  
friday, pm 12:51 | 20위음  
정흥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4일차 #카페

고즈넉한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에게 말을 걸기란 쉽지 않은 법이었다.  
카페의 점원이 방금 가져다 놓은 커피잔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으니 향긋한  
냄새가 급방 옷과 머리에 스며들었다.

일상에서 탈출구를 찾는 직장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점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19세기에 태어난 젊은 남자라면 누구나  
입어야 할 양복 차림으로 창가의 좌석으로  
접근했다. 창박을 힘 없이 응시하는 여인은  
남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레이디, 저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요.]

[저를 치근덕대는 부랑자로 믿고 있을까,  
걱정입니다만 저는 36번지의 옥탑방에서  
이젤과 동거하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젤이요? 그게 누구죠?]

[눈에 생기가 돌아왔군요. 이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틀이죠. 밤마다 여느 예술가들처럼 그림을  
그리러 이 카페에 자주 들르죠.]

[재밌네요. 제 연인도 화가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요.]

[예술이란 고달픈 거잖아요. 알아주기보다  
스스로 만족하기가 더 쉽죠. 비싼 물감을 사지

못하는 주머니 사정에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한답니다. 제가 존경하는 쿠르베 씨는  
만국박람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개인  
전시회를 열었죠. 대중의 눈이란 차갑고,  
예술가의 가슴은 뜨겁죠.]

[용무가 뭐예요? 문학 살롱에서 저를 본  
적이라도 있나요?]

[그래요, 얼마 안 됐죠. 당신은 저를 보지  
못했겠지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연인이시여,  
저는 그와 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적 있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을 전해 들었단.

대신해서 제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대의 작품은 후손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할 것을 제 전 재산을 걸고  
확신합니다!]

월세를 내는데 급급한 그의 잔고를 아무도  
나무라진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 무렵  
카페에는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는  
예술가들이 가득했더라.

\* 이 글은 실제 역사와 무관합니다.

😊 11    💬 2



2024/05/10

friday, pm 1:00 | 22원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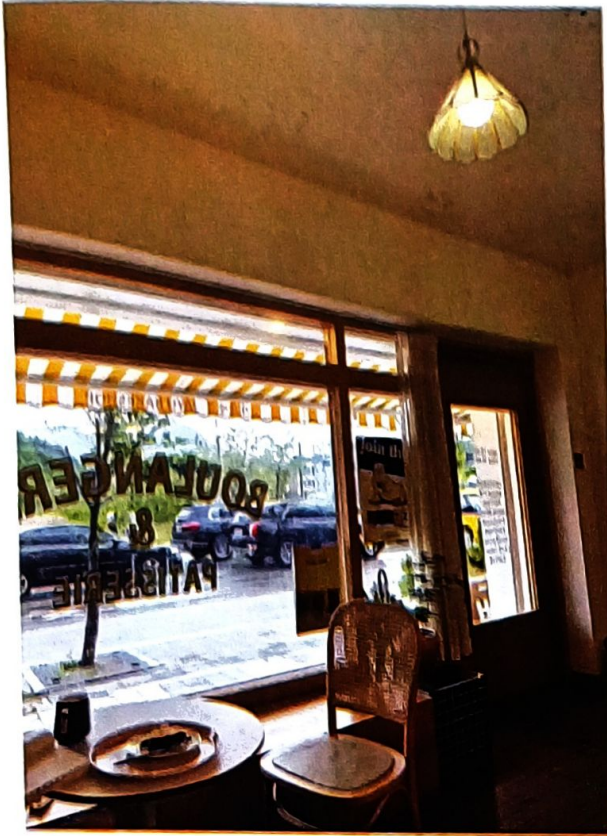
카페는 항상 나에겐 따분하고 어색한  
장소였다. 밥을 먹고 항상 카페를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하다. 혼자서는 잘 안가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항상 간다. 커피를 못 먹기에  
에이드나 티, 초코 라떼를 먹는다. 디저트의  
맛도 알게 됐다. 크로플이 내 취향이더라.

저번주에 난생처음 혼자 카페를 갔다.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빵도 맛있었고 분위기가  
좋았다. 원래 카페에 혼자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는 혼자서 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리고 보니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친구들의 성향과 취향을  
공유하다 보니 나도 내 취향이 생겼다. 취향을  
공유할 줄 아는 사이만큼 편하고 재밌는  
사람이 없다.

최근에 갔다 온 카페 이름은 자유 빵집이다.  
아무나 알려줄 수 없지만 빵이 너무 맛있어서  
추천한다. 모든 빵이 내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었다. 2호점은 테이블이 별로  
없어서 포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 13    💬 5



2024/05/10  
 friday, pm 1:48 | 16원음  
 박지호(식영,20213818)

#4일차

'카페'

내 안식처는 우리동네 카페이다  
 어렸을때부터 가던 카페인데. 그곳을 가면  
 동네친구들, 오다가다 마주친 동네이웃들을  
 만나곤 한다.  
 맛있는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그곳에 가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가끔은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가서 과제를  
 하기도 한다.  
 카페는 정말 좋은 만남의 장,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 같다  
 쓰다보니 다른 학우들에게 카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진다ㅎ르



😊 12    💬 3



2024/05/10

friday, pm 2:01 | 18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4일차

커피를 안 마시는 나로서는 카페가 그렇게 친한 장소가 아니다.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만이 카페를 가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혼자 갈 수도 있지만 홀로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카페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러 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만남과 이야기꽃의 장소, 혹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까지 현대사회의 다목적실 역할을 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 3월 중순, 대략 6년 만에 잊고 있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사실 pc방, 노래방 등 이전에 자주 놀았던 곳을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내 의지로는 처음 카페를 와봤다. 바람을 맞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순간들, 옆 자리에서 웃는 소리들. 그 공간과 그 시간만큼은 최근에 느낀 가장 즐거운 기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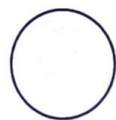
누군가에겐 휴식의 공간, 채움의 공간이겠지만 나에게선 다른 사람들보단 좀 특별한 시간과 기억을 가지는 장소. 카페는 우리에게 부족한 여유와 행복을 충전해주는 공간이다.



12



3



2024/05/10

friday, pm 2:13 | 19읽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4일차

카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커피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만 봐도 커피잔 그림인 것을 보면 저를 제외하고도 카페에 대한 이미지는 커피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컨셉을 다룬 장소의 이미지로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방탈출 카페, 감아지나 고양이 카페, 프린트 카페 등등 커피가 아닌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장소에 카페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색카페에 대한 경험이 적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파리바게트 갔었을 때입니다. 당시 중3정도였는데 빵을 고르고 계산하면 옆에서 어떤 빵은 데워주기도 하고 시키면 샌드위치같은거 바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고급 식당을 간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그거 빼면 지금은 없어진 학교 근처 보드게임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서로 질때마다 세상 잃은 것처럼 아쉬워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다들 카페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13



4

우리끼리, Band!



2024/05/10  
 friday, pm 5:35 | 21위음  
 핏보습표(러시아학과 20211733)

#4일차

나는 카페를 주로 2가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하나는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 하나는 카페인 충전소의 목적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내기 시는 곳을 변화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지방이다 보니 교통이 불편해 항상 약속 시간보다 30~40분 정도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게 된다.

이 30~40분이라는 시간이 킬다고 하기도 썰다고 하기도 어쩔정한 시간이다 보니 항상 카페를 찾게 된다. 그렇게 가게 된 카페에서 보통은 긴박한 과제와 같은 긴박하지만,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들을 주로 그때 하는 것 같다.

또 다른 목적을 이번 학기에 들어서 카페를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이유인데 바로 카페인 충전소이다. 이번 학기는 9시부터 18시까지 모두 수업으로 가득 찬 날이 있다. 이날 16시까지는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으나 16시부터는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도 축축 처지기 시작한다.

쉬는 시간에 바로 카페로 달려가 카페인을 보충하면 정신이 확 들면서 몸의 세포가 활성화되는 느낌을 주며 그날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는 나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통장 잔고를 야금야금 갠아먹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다.



😊 12    💬 5



2024/05/10  
 friday, pm 5:41 | 22위음  
 최염진(임상의학통계, 20233256)

#4일차 #카페

대학생활을 하며 집중이 안되거나 장소를 바꿔 공부해보고싶을때 카페에 간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고등학생 때 카페에서 공부를 자주했다. '카페에서 공부해야지' 하고 갔다가보단 학원에 가기 전에 숙제를 못 해서 급하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숙제를 마쳐 끝내려고 카페에 간게 95%다. 열심히 과제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미루다가 꾸역꾸역 숙제를 했다. 혼자 공부하기 싫으면 같이 숙제하다가 학원 가자고 전화로 친구를 불러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음료도 많이 주는 골목 카페를 찾아 항상 거기에서 과제를 했다. 불러낸 친구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 숙제를 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 또 그 카페에서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면 스탬프를 찍어주었고 10개를 모으면 음료를 시킬 때 할인을 해주셨다. 거의 매일 가다 보니 금방 10개씩 쌓였고 할인받을 수 있는 날에는 소소하게 기분도 좋아졌다. 그땐 그 카페가 거의 집인 것처럼 익숙했다. 대학에 오고 나서는 그 카페에 자주 갈 수 없었다. 또 그때 같이 숙제하던 친구도 자주

볼 수 없었다. 매일 가던 학원 근처 카페가 이젠 1년에 1번 길까 말까 해진 게 신기하면서도 쓸쓸하다. 최근 그때 숙제를 같이하던 친구와 언제 한번 보자고 연락을 한 후 다시 그 카페를 찾아가 봤다. 예전에 이 카페 자주 왔었는데 하며 추억을 회상해 보니 숙제 하느라 바쁘고 힘들게 지냈던 그 시절과 그 카페였는데 이젠 그 카페에서 여유롭게 친구를 만나니 새롭게 느껴졌다. 열심히 숙제하던 추억의 카페가 있다는 게 좋고 다른 친구들과도 가보고 싶고, 소개해 주고 싶다.

😊 14    💬 4



2024/05/10  
 friday, pm 5:51 | 23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4일차 #카페

[ 네 번째 접시 ]

카페에 가면 저는 꼭 먹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녹차(말차) 라떼입니다. 녹차랑 말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빼먹을 수 없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페를 간다고 하면 이 음료를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면 그날 하루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들도 많이 남길 수 있고 말입니다. 저는 주로 뭔가 캡컷적인 느낌의 사진들을 찍으려 노력하는데 예쁜 카페들은 노력 대비 잘 나오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할 테니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창밖의 날씨를 즐기고 소소한 내 일거리를 하는 것이 힐링일 것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작은 뜨개질거리를 하며 친구와 소소한 탑소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지 않으신까? 여러 카페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카페와 카페를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뽏뽏, 오늘의 뽏 접시가 뒤였습니다. ]



😊 14    💬 5



2024/05/10  
 friday, pm 6:18 | 21읽음  
 김지은(20212564/언론방송융합전공)

#4일차 카페' 키워드를 보자마자 잠학리에 위치한 '에이블투 스터디카페'가 생각이 났다. 해당 장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기간마다 방문하는 스터디카페이다. 처음에는 거주하는 곳인 두산위브아파트와 가까운 곳이어서 가보았는데 스터디카페의 환경이 마음에 들어 정액권을 결제 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외부에서는 화장실 가기를 꺼려해서 늘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해당 스터디카페의 화장실은 굉장히 쾌적하고 안전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또 다른 장점은 커피, 티(녹차, 홍차, 보리차 등) 종류가 무한리필이라는 점이다. 시험기간이면 어쩔 수 없이 짭을 물리치기 위해 커피를 섭취해야 하는데 따로 커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부도 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일석이조를 느낄 수 있는 카페이다.

또, 불편한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하면 되는데 항상 사장님의 답변이 빠르고 불편한 점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주셔서 좋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강력 추천하였고 추천 받은 친구들 역시 한림대학교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다닌다고 한다.

😊 13    💬 2



2024/05/10  
 friday, pm 6:52 | 25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4일차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 때문일까. 이상하게 카페를 생각하면 어른들이 떠오른다. 최저시급의 인상과 기술의 발전으로

키오스크가 매장에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한창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기계가 들어선 많은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어른신이 많다.

바쁜 젊은이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찢찢매는 어른신들이 안타깝지만 괜히 도와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도와주기를 꺼리고, 어른신들은 길게 늘어선 줄들에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는 듯 하다.

카페는 헛터이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카페는 토전이다. 마치 사각지대처럼 누군가는 꼭 소외되는.

한번쯤은 내 앞에 서 있는 어른신을 귀찮아만 하지 말고 도와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쯤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것은 어떨까. 카페가 모두에게 편히 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 16    💬 5



2024/05/10  
 friday, pm 9:10 | 23읽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4일차 #카페 #커피 #원두  
 저는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마시는데요. 제가 카페 알바를 1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건 원두가 생각보다 섬세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사실 카페는 너무나 많고 저가형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금액대가 분포되어 있죠. 비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업체라도 점포별로 맛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원두의 생산부터 관리, 추출, 보관까지 과정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가 맛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실 때는 원두 생산지의 차이, 볶는 방식의 차이 정도가 커피의 맛을 결정한다고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그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기계에서 추출될 때 굵은 입자를 타고 추출될  
 때와 미세한 입자일때의 추출이 달라서  
 원두의 분쇄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래서 비 오는 습한 날 원두의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원두의 양에  
 따른 추출시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져서  
 커피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더라구요!!

저는 각 카페만의 시그니처 커피들을  
 마셔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셔보고 입맛에  
 맞으면 기분좋은 일주일이 되더라구요! 또  
 예쁜 인테리어를 갖추었거나 테마가 있거나  
 층고가 높고 뷰가 좋은 대형카페 가는 걸  
 즐기는데 춘천에는 북한강이 보이는  
 대형카페가 여럿 있어서 시간을 두고 곳곳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혹시 추천하시는 카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앞으로 스페셜티 커피나  
 추출 방식이 다른 터키식 커피, 모카포트로  
 이용한커피, 해외의 이색 커피 등 다양하게  
 도전해보려구요!

😊 19    💬 4



**2024/05/10**  
 friday, pm 9:25 | 24원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4일차

그곳에선

카페는 제게 영감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고됐던 고등학교 때,  
 가끔씩은 노트북과 시집, 이어폰만을 손에  
 쥐고 카페로 달려가고는 했습니다.  
 무엇이랄도 적어내림으로 인해 꼬이고 꼬인  
 저의 생각을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시집을 꺼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이나  
 모습들을  
 생각지도 못한 생소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보고 감탄할 때, 저는 그 때가 가장  
 짜릿한 것 같습니다

시집을 차차 읽다보면 가끔 그 시에서 나온 한  
 단어에 꽃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켜 그 단어를 한 번 커다랗게 적어봅니다.  
 오늘 카페처럼요.

그러고서는 막 한 번 적어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는 중이에요. 그저 막  
 적어봅니다.  
 첨가와 삭제를 거치고 반복하면 그제서야  
 꼬여진 제 머릿속을 풀어낸 난잡한 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의 카페입니다.  
 카페 내에서 카페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도  
 힘들고 지칠 때면 제 카페를 형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18    💬 4



**2024/05/10**  
 friday, pm 9:30 | 23원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4일차

#카페

<시선>

싱그러운 허브, 조금은 습한 공기  
 잔잔한 재즈 선율  
 천장에서 늘어진 낡은 상들리에

크림이 풍성하게 올라간 티라미수, 베리들이  
쫄쫄히 박힌 프레즐 타르트, 특별할 것 없는  
비닐라 스펀지 케이크, 겉이 바삭하게 잘  
구워진 휘낭시에

달콤한 설탕의 향기가 공기 중에 녹아들어,  
카페 안의 모든 것을 잡시나마 캡싸 안는  
듯하다.

한 여자는 알없는 안경을 쓰고 커피가 나오는  
동안 잡지를 뒤적거렸다. 옆 자리 중년남성은  
겉소하지만 깔끔한 차림으로 말없이  
홀쭉홀쭉 소리를 내며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건너편에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케이크 위 생크림을 서로 떠먹여주는 커플도  
보였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겠지? 잠시 세상의 번잡함을 잊는  
그들의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이네. 카페  
밖으로 나가면 뚝 보기 드물거야.... 그리고 '

트르륵 트르륵

이윽고 진동벨이 연속으로 울리고 나서야  
효진의 생각이 멍쳤다. 효진은 별떡 일어나  
홍차와 버터케이크를 자리에 가져왔다.

마지막까지 바닥의 낮은 나무 패널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채로 삐걱거렸다.

😊 17    💬 5



2024/05/10

friday, pm 9:35 | 25원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4일차 #카페

나는 카페를 좋아하는 자칭 '카페 덕후'다.  
열람실과 카페공부라는 한림학보의  
콜로세움이 올라왔을 때도 가장 많은 공감  
받을 정도이자 인스타그램에도 카페를 줄곧  
올린다. 카페는 내게 있어 '일상의  
활력소'였다.

바쁜 일상에 여행을 못가더라도, 새로 생긴  
카페나 인스타 추천 카페가 생기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고는 했다. 시험 기간에  
자연스럽게 생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며 내가 다녀간 예쁜 공간을 누군가  
소개해주고 만족할 때 큰 행복을 얻었다.

아직도 나는 카페가 너무 좋다, 바쁜 와중에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느낀다는 것. 소소하면서도 별 탈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한다.

음료가 깨질까봐 조심하듯 신에게 있어 나도  
커피같이 지켜진 사람이겠구나



😊 17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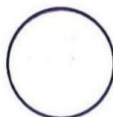
**2024/05/10**  
friday, pm 9:41 | 23원음  
밤에빈(중국학과,20201519)

#4일차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으로 카페만한 곳이 또 있을까. 향기로운 커피내음, 웃고 떠드는 사람들, 기분 좋은 음악이 어우러져 마음을 한껏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곳. 친구와 함께여도, 혼자여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행복해지는 곳, 카페.  
카페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낯은 과제, 공부, 업무를 끝마치기 위해 오기도 하고 연인이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책을 읽는 사람, 핸드폰 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모두 그 공간을 찾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카페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고 있음은 모두가 같다. 그래서 카페는 하나의 큰 정원과도 같아 보인다. 카페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들은 마치 다양한 꽃들이 한 정원 안에서 만나는 듯하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꽃들이지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카페라는 정원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나에게도 단골 카페가 있다. 본가인 양평에 있는 개인 카페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생각나면 들리는 곳이 되었다. 바(bar)테이블이 놓여져 있어 사장님과 스몰토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작고 아늑한 카페라 사장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다.  
저번에는 어릴적에 너무 써서 입에 대지도 않던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줄곧 찾는 나를 보시곤 세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나의 단골 카페처럼 소소한 소통을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많아지길 바라며, 조만간 또 힐링하러 찾아가야겠다.

😊 16    💬 7



**2024/05/10**  
friday, pm 9:51 | 24원음  
유영주(청각/20202550)

#4일차

[집이 좋아]

내게 카페는 관념적으로 익숙한 공간이다. 음료나 음식을 팔지 않아도 (제공하는 서비스+카페)의 형식으로 이름지어진 수많은 업장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카페와는 친하지 않다. 팀플도, 카공도, 친구와의 수다도 카페에서

해본 적이 트물다. 텀플은 스터디룸에서, 공부는 도서관에서, 친한 친구와는 주로 박물관(...)에서 논다.

흔치 않은 기회로 음료를 시켜 카페에  
있어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심담히 어색한  
기분이 든다. 이 공간의 목적성이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테이크아웃 후 집에서 편하게 마시면 될 일  
아닌가?

카페린 본디 시간이 떠 쥘 곳이 없을 때  
음료라는 명분을 빌려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는 것입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대여한 공간이기에 원하는 시간  
민큼 -나의 경우엔 7시간 정도는 앉아있고  
싫어한다-편히 쥘 수 없으니 낯의 집 거실에  
불편하게 앉아있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별떡  
일어나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네가  
외출을 꺼리는 집순이가 된 이유이다.  
카페마저 편하지 않으니,

...사실 음료들이 당뇨 유발 액상과당 주제에  
너무 비싸 알미운 탓이 큰 것 같기도?

😊 15    💬 3



2024/05/10  
friday, pm 10:20 | 21위음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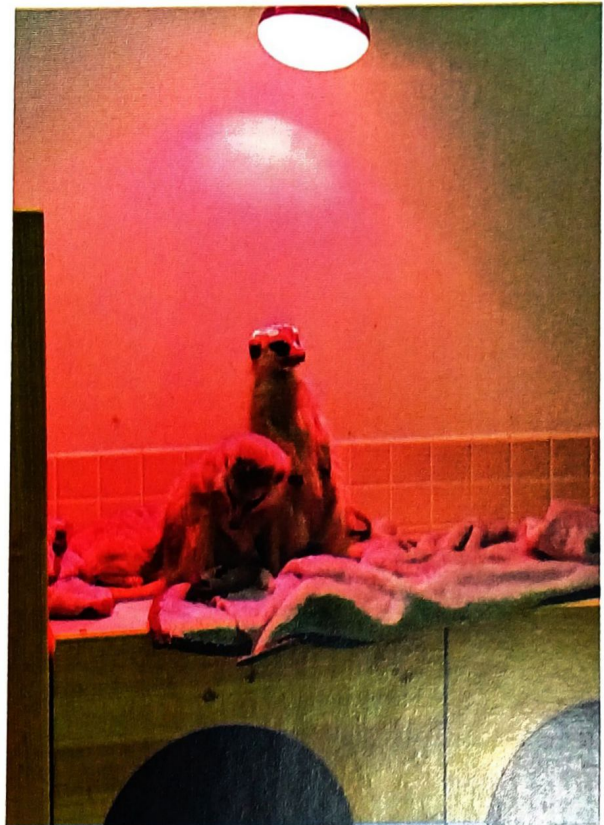
#### #4일차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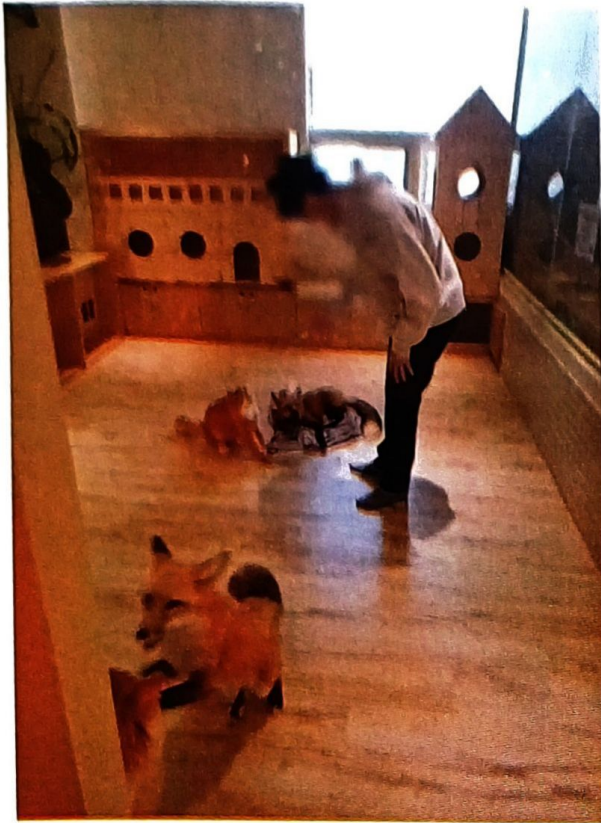
이전의 카페랑 지금의 카페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예전에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기 위한 장소에만 카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 카페, 스터디  
카페, 북 카페, 방탈출 카페,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 다방면으로 카페라는 단어가 쓰인다.  
즉, 오늘날의 카페는 사람이 만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카페들 중 동물 카페를 가장  
좋아한다. 동물은 조건없이 사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있으면 힐링이 된다. 제일 최근에 갔던  
동물카페는 말이 동물 카페지, 여러 종류의  
커피를 팔고 있는 동물원 급이었다. 여기에는  
갑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미어켓, 토끼,  
여우 등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그 카페에서  
여우에게 사료도 줘 보고, 따로 있던 새끼  
고양이와 새끼 여우랑 같이 놀아볼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좋았다. 다다음주에 다시 갈  
계획인데 그때도 여우가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 15    💬 4



**2024/05/10**  
 friday, pm 10:53 | 21읽음  
 한지현 (데이터테크, 20203260)

#### #4일차 #카페

문을 열면 실려 오는 향긋한 커피향, 탈그락 접시와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어우러져 음표가 된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고 창 밖 햇빛의 따사함이 내 뺨을 깨운다. 일탄 푹신해보이는 소파 자리에 앉고 달달한 디저트와 아메리카노를 접수하고 미리 챙겨온 한 권의 책을 펼쳐본다.

나에게 카페는 힐링의 상징이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홀로 취미를 즐길 때가 많다. 가깝 과제도 하러 가지만 대부분 여유가 있을 때 카페에 간다. 최근 한동안은 못갔는데, 곧 위에 살상처럼 여유있는 독서를 즐기러 가보고 싶다. 토론도 해보고 싶다

😊 16    💬 5



**2024/05/10**  
 friday, pm 11:09 | 20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 #4일차 #카페

카페를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카페의 규모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카페의 시그니처 커피를 주문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대체로 새로 나온 메뉴나 매일 마시던 음료를 마시지만, 개인 카페에 가면 꼭 시그니처 음료를 마신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개인 카페를 더 선호한다. 그 카페에서만 마셔볼 수 있는 음료, 그 카페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분위기 등 카페마다 가진 고유성을 좋아한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과제나 공부하러 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아이패드 혹은 강의 자료를 꺼낸다. 오늘 마쳐야 할 일들을 확인한 뒤, 마감일이 빠른 과제부터 혹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례로 끝낸다. 한참 과제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할 때쯤, 음료나 디저트 하나를 더 시켜 먹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 번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꼭 다 끝내야만 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구석이지만 답답하지는 않은, 나에게 잘 맞는 자리를 찾아 앉는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2~3시간 동안 대화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카페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다. 과제나 공부 목적이 아닌 친구들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카페에 갔던 그 시절,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했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립다.



😊 16 💬 4



**2024/05/10**  
 friday, pm 11:10 | 21원음  
 이채원(미티어스쿨/20242562)

#4일차 #카페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최적의 장소 아닌가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적이 있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상대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는 질문에 '반트시와 졸졸 알고 있다면 올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꼈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흔들리는 나무들을 지켜보다 보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약속 시간에 너무 늦지 않는 주말 보내세요. 상대가 멀리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

%Far away-라쿠나

😊 18 💬 5



**2024/05/10**  
 friday, pm 11:39 | 19원음  
 박혜림(셀명과학과 20227081)

#4일차  
 <카페의 조건>

내게 가장 이상적인 카페는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만 이상적이다) 다음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위치: 2층에 존재할 것  
 나는 창가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차와 사람을 멀찍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건 싫다. 나 혼자 내려다볼 수 있는 일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나의 이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마음을 카페들은 이해해 줘야 한다!

메뉴: 맛있고 커다란 디저트가 있을 것  
 아는 사람들을 만다. 카페의 웬만한 음료(커피 제외, 에이드나 스무디류)는 주재료로 시제품을 사용하기에 사실상 커켜서 커키이다. 그중에서도 '아이스티'는 가장 지루한 메뉴가 아닐 수 없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나는 네 주별 모든 카페의 복숭아 맛 아이스티를 사 먹고 그 맛을 비교해 보았다. 아니길 바랐던 가설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고만 나는 회의감에 빠졌다. 같은 회사의 가루를 쓰기에 아이스티는 맛이 다 똑같다(프렌차이즈 제외 -가장 맛있는 프렌차이즈 아이스티는 롯데시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카페에는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야 한다. 케이크나 와플, 다양한 구움과자도 좋다. 굵이 표기하진 않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제여야 한다. 카페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나야 한다. 크기는 클수록 좋다!

인테리어: 엔틱하거나 포근한 분위기일 것  
컬렉션 카페가 좋다. 내가 카페를 가는 이유는  
특유의 세련되거나 특이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집이 아닌 공간이  
필요하거나, 집시 머물다 갈 공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내가 음료를 먹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내뿜어야 한다. 때문에 마치 오래된  
카페 같은 인접감이 가득한(사장님에게  
언론이 느끼질수록 분위기는 효과적이다.)  
카페여야 한다. 소파와 쿠션이 있고, 벽에는  
넉넉하지 않은 그림들이 걸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각해 보자. 이러한 카페에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다. 이곳에서 먹는  
커피가 얼마나 편안한가!

노래: 기요가 나오지 않을 것  
카페에서는 주로 대화를하거나 공부를 한다.  
때문에 유행하거나 유행했거나, 최신의  
가요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팝송은 괜찮다(들어도 가사를 잘 모르니까).  
잔잔한 재즈나, 영화 OST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오르골 소리가 좋다. 절대 볼륨이  
커서는 안 된다. 나는 시끄러운 곳이 싫다!

😊 15    💬 10

 **2024/05/10**  
friday, pm 11:46 | 23읽음  
박현아 (인이병리학과, 20233930)

#### #4일차 #카페

누군가를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는 바로  
카페다. 우리동네 시네를 가족들과 함께  
가면서도 '아~ 여긴 카페가 너무 많아.'라는  
말을 몇번 한 적이 있다.  
편하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카공하기 괜찮은 고가  
프랜차이즈도 좋기도 하지만, 나는 주로  
약속있을 때 개인카페를 찾아 떠난다.  
실지어, 내 카카오톡에는 다음에 가보려고

저질한 카페가 300개는 된다.  
분위기 좋고 사람이 적당히 있는 개인 카페가  
좋다. 그냥 사장의 취향이 담긴 인테리어,  
히니하나 특색있는 시그니처 메뉴도 정말  
좋다. 또, 그 가게를 나처럼 찾아오는  
손님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 구경하기도 참  
좋다. 그럴 때는 카페 전기보다 값진 요즘  
유행 트렌드를 더 얻고가는 기분이다.

😊 15    💬 5

 **2024/05/10**  
friday, pm 11:56 | 20읽음  
김준호 (콘텐츠IT)

#### #4일차 카페.

솔직히 예전엔 카페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딱히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자주  
마시지도 않는데다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타임도 아니었기에 그저 시간을 때운다던가  
누군가를 기다릴때나 잠깐 있는 그런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커피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추천  
주변의 좋은 카페들을 소개받아  
다니면서부터는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새롭게 알게된 커피는 그저 잠을  
깨기 위해 마셨던 것에서 향과 맛을 느끼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전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카페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항상 많은 사람,  
커피보다 많은 디저트,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생각했던 카페는 사실 한 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스스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작한 커피와 카페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도  
넓어지고 있다. F1, 야구 등등 앞으로 더

많은 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16    💬 4



2024/05/10  
friday, pm 11:59 | 21원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4일차 #카페

"안녕하세요, ㅇㅇ카페입니다."  
종이 딸랑-울리고 손님이 문을 열자마자 인사를 건넌다. 이 인사가 입에 붙은지도 이제 1년이 넘었다. 카페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온다. 데이트를 하러 오는 커플, 혼자 공부하는 학생, 옆 식당에서 한 잔하고 오시는 어른들, 오랜 친구와 만담을 나누러 오는 아주머니까지. 내 생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 때가 있었던가. 그래서인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녀석이 좋거나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 좋은 성격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답할 선택지가 여러 개 생겼지만 초반엔 그런 경험이 없어 말문이 막히고 그저 멧쩍게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뭐든 경험해야한다 했던가.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나보다는 녀석 좋게 반응하고 있다. 아니 사실은 녀석 좋게 보이도록 부단히 노력중이다. 나는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내향적인 성격이라 말하기에 두려움이 컸다. 카페 일을 하며 강제로 말하기 능력이 길러져 이젠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휴식을 취하려 또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러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비록 난 일로서 이 공간에 있지만 찰나같은 소중한 그들의 시간을 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4    💬 4



2024/05/10  
friday, pm 11:59 | 25원음  
치유미 (심리학과 20232139)

#4일차 #카페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공간이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엔 목을 축이고 땀을 식히기 위해, 겨울엔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기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또 생각이 많을 땐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심심할 때 카페에 와 사람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페는 정답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상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와 나만의 작은 공간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쩔텐 북적북적 소란스럽기도 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한숨 내쉬고 자리에 앉아 여유를 부리면 한순간에 마음은 찰찰해집니다.

😊 17    💬 5

우리끼리, Band!



2024/05/10  
 friday, pm 11:59 | 20원음  
 한필섭(사회학과, 20182237)

#4일차 #카페

20살이 되기전 커피를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친구들이 커피를 먹더라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나는 술을 마셔도 커피는 쓰기만 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안 먹었었다. 그러다가 1학년 2학기가 되서 처음으로 우연하게 바닐라 라떼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시켰다. 핫초코와 울무치만 먹었던 나의 20년 인생에서 다른 맛이 느껴져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로 다양한 커피들을 먹게 되었는데 21살까지는 다른 것을 다 먹어도 아메리카노는 도저히 써서 못 먹었었다.... 그러다 쿤데에서 후일중에 바리스타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에게 몇번을 권해 조금씩 아메리카노를 먹게 하였고 지금은 매일 최소 한 잔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같다. 오늘도 마셨다!

그리고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하는데 이유는 바닐라 라떼나 아이스티 같은 것은 너무 맛있어서 급방 마시지만 이상한 표현일수도 있겠지만 아메리카노는 쓰기 때문에 천천히 마실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한다.

뭔가 카페에 오래있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꺼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투서는 없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려한다. 뭔가 이 인증글에 점점 내 비밀이 쌓이는 듯한 기분이다. 가장 좋아하는 카페는 춘천 mbc 근처 그타방이다.

😊 15    💬 5



2024/05/11  
 saturday, am 12:04 | 24원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4일차 카페

카페는 역시 한적한 게 최고다. 복잡복잡이든 흔히 인스타에 나오는 유명한 카페보다는 한~적하니 음악도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여유롭게 카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좋아하는 편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음료는 아이스아메리카노이다.

팝송인듯 재즈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창가자리에 앉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고 바깥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커피가 추출되면서 나오는 그 씩씩하고도 고소한

힘기가 너무 좋다.카페직원이 나를 향해 시원해보이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들고 온다. 아이스아메리카노. 얼음이 가득인 물에 진한 에스프레소 맛이 들어가있어 그라데이션으로 되어있는 층을 빨대로 잘 섞어주면 드디어 마시기 좋은 그런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짹 들이키면 고소하지만 씹쓸하고도 풍미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 카페에서는 그 카페의 시그니처음료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부분 모든 카페의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셔보는 편이다. 각각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미묘하게 다른 맛을 입을 즐기는 것 같다.

😊 17    💬 3



**2024/05/11**  
saturday, am 12:18 | 40원음  
김양선

#4일차 클쓰키 마감합니다. 성인이 되어 커피에 입문하고 즐기게 된 사연, 선호하는 카페, 학교 근처나 출천 곳곳의 카페 소개, 카페 알바 등 다양한 이야기카 오갔네요. 네카 아끼고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를 하나쯤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이제 주말입니다. 밀린 일 마무리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 보내기 바랄게요. 클쓰키 챌린지는 다음주 월요일 열립니다.

😊 23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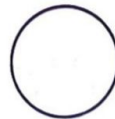


**2024/05/13**  
monday, am 7:54 | 38원음  
김양선

#5일차 키워드 : 시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의 시계는 어떻습니까? 처음 시계를 찾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벽에 걸린 과중시계, 책상 위 탁상시계. 시계의 종류도 많죠. 시계에 얽힌 추억, 시계의 쓰임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혹은 시계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 18    💬 0



**2024/05/13**  
monday, am 10:03 | 24원음  
김채림(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5일차 #시계

시계

나뭇잎이 떨어지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공허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감을 느낀다.

시간은 세쌍을 성장시키고  
그 영화는 영원히 마음 속 깊이 남아.

시계 소리가 들릴 때마다  
피어나는 그 순간을 추억하며,

[삶을 살다보면 성장통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그 성장통이 추억이 되어 나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를 담은 시이다.]

😊 16    💬 4



2024/05/13

monday, am 10:37 | 19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 #5일차 #시계

#### 시계

시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일상에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시계는 필요한 존재다.

어렸을 적엔 시계 보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었다.

살아가면서 시계를 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작년 고등학생 이었을 때만 해도

쉬는 시간을 기다리느라, 점심 시간을 기다리느라, 종례 시간을 기다리느라... 시계를 뿔뿔로 보았었다.

또 시험을 볼 때에도 시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게 된다.

😊 14 💬 3



2024/05/13

monday, am 11:34 | 19읽음  
장지은(20212564/언론방송융합전공)

#5일차 시간은 말없이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헤어진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시간의 종소리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시계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의 큰 괘종시계 소리는 가족 모두가 시간을 공유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울리는 그 소리는 집안의 리듬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괘종시계의 울림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찬 기억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성장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는 시계를 착용하고 다니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OST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은 발전하여 이제는 스마트 워치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일정을 정리하며,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 알림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때로는 그 많은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계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계의 바늘이 빠르게 움직여 급박한 생활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느리게 움직여 여유로운 삶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내 시계가 어느 바늘에 머물러있든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 16 💬 3



2024/05/13

monday, am 11:45 | 23°C

조성빈(중국어과, 20201534)

## #5일차 시계

어릴 때의 나는 시계를 보고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초,중,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수업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뭔가 30분이 지난 느낌이 들 때 획 하고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보면 시계는 그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5분밖에 지나지 않아 있었다. 근데 유독 시계바늘의 초침이 빨리 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주말과 방학이었다. 평일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을 바쁘게 다니다가 주말이 되면 곧바로 놀이터에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놀거나 혹은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놀았는데 내가 더 재미있어 할수록 그 시간은 더 빨리 갔던 것 같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바로 방학이 시간이 제일 빨리 흐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설레이는 때가 방학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것 같다. 방학전에는 무수히 많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놓았었는데 어느새 방학이 일주일만 남았을 때는 계획의 반도 실행해놓지 않은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빠르게 흐른다고 느꼈을 때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애들아, 너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밖에 안되었지만 급방 3학년 되서 졸업할 때가 다가올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된다." 나는 이 말을 내심 잘 믿지 않았었는데, 그도 그렇게 이제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고 고등학교도 무려 3년이나 다녀야했기에 잘 믿지 않았었다. 근데 정말로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간이 무슨 우사인볼트마냥

쏟아질듯이 흘러 어느덧 점심을 차려보니 내가 그 고3이 되어있었고, 다시 눈을 깜빡하고 킁킁하다 뜨니 어느새 졸업식에 와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시간은 정말로 비유를 하자면 시계 초침이 어릴 때부터 순서대로 거북이었다가 갑자기 자전거가 되더니 우사인볼트가 되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20살 이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시기로 인해서 더욱 집에만 있게 되면서 스포츠카가 고속으로 속도를 올려 도로위를 달리는 것처럼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가만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는 하루의 1분 1초가 지나가는게 마치 한 세월이 흐르는 것 마냥 확 느껴져서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깝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생겼나보다.

"시간아~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카주켰니~~" -이집아-

이게 요즘따라 더욱 공감이가는 게 어느덧 벌써 새해가 지나고 1학기를 맞이하면서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하고 고민했었는데 그게 불과 몇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벌써 중간고사를 마치고 기말고사와 종강만을 앞두고 있다는 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가는 것 같아 슬퍼하면서도 하나 유일하게(?) 좋은 점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종강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도 시계 초침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슬픈 건 어쩔 수 없나보다. 그래서 그런 상상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었다. 내가 초능력이 생겨서 시계바늘의 초침을 거꾸로 돌리면 시간을 반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상 말이다. 만약 그런 상상이 현실로 된다면 나는 현재의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겠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다.

시간아 잠시동안만 멈춰줘~~~ 아니면 더 천천히 흘러줘~~~제발~~~

😊 16 💬 3



2024/05/13  
monday, am 11:48 | 22원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5일차

#시계

< 달리기 >

시칩과 분칩이 앞다투어 내달린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하루의 끝에서 두 바늘은 마침내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가까이 만났다.

"매번 너를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아. 길고  
고달픈 여정과도 같달까..? 그냥 그렇다고.."  
시칩이 느리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칩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남 언제냐 너를 지나치지마, 함께할 때가  
가장 좋아. 그 순간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잖아."

시칩이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네가 빠르게 돌 때마다 나는 여기서 널  
지켜볼 수 밖에 없어."

"네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고 있는거지." 분칩이 발그레 붉히며  
웃었다.

"그럼쿠나..." 시칩이 고요히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거듭해서 끄덕거렸다.

두 바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각자의 길을 다시 걸기  
시작했다.

분칩은 빠르게 세상을 훑고, 시칩은 느린  
걸음으로 깊이를 더한다. 서로 다른 속도로  
이야기를 엮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다른 길을  
가는 듯 해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중심을  
향해 돌고 또 돈다.

😊 17 💬 3



2024/05/13  
monday, pm 12:42 | 21원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5일차 #시계

우리는 현대에 현대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  
손목시계, 알람시계, 감의실의 벽걸이 시계  
등 어디서나 시계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를  
간단히 풀겠다.

그리니치 전문대를 기준으로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에 살아가기 시작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스스로 시간을 파악해야 했고 오늘날처럼 취침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 새벽에 깨어나 글을 쓰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나 다시 자기도 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 산업혁명의 여파였을까, 영국의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시간이 분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제 사회와 약속한 시간 속에 살아야 했고 이를 알기 위해 시간을 사야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천문대에는 시간을 기록해 전하는 직업이 존재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시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레이 시간과 시계의 오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시계의 보편적인 보급 전까지 그러했으리라.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 속에 현실을 살아간다.

😊 13    💬 3



**2024/05/13**  
 monday, pm 1:16 | 24읽음  
 박치호(식영,20213818)

#5일차  
 시계

날 오늘 교생실습을 왔다  
 매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던 시간이 오늘을 함없이 느끼게만 카는것만 같다. 학창시절로 돌아간듯한 이 기분 ♡ 새들이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바람의 촉각 아이들 웃음 소리 급식 소리 모르게 새롭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엔 시간이 참 느리게 간것 같다. 매일 하교시간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것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절반은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보면 어립없었다 ♡ ♡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 해여할일 들에 책임져야하는 일들에 치여 사느라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살았다.

아이들에게도 쉬는 시간이 있는것 처럼 우리 삶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



😊 14    💬 2



**2024/05/13**  
 monday, pm 2:09 | 18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5일차

지금 나의 인생시계는 몇 시인가?  
 하루 24시간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자면, 이제 20대를 넘은지 얼마 안된 우리는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아침 6~7시일 것이다. 어쩌면 아직 일출이 시작되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시간이 안 지나갔을수도 있다. 각자 느끼는 시간대는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일반 시계와 인생 시계의 큰 차이점은 우리의 인생 시계는 1회용, 즉 자정이 되면 그 수명이 다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고 그 흐름도 동일하게 지나간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실질적 하루는 24시간보다 적거나 많다. 이 점이 시간의 가장 묘한 매력이다. 절대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대적이다. 니이가 든 어르신들의 말씀 중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나는 벌써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동안 낭비한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닐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관계가 이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을 찾는 것이 지금의 시간을 가장 가치있게 쓰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13    💬 1



2024/05/13  
 monday, pm 2:15 | 17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5일차 #시계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동요가 생각났다. 이 동요를 초등학교 때 리코더로도 연주해보고,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며 배웠다. 노래를 배우고 직접 연주해본 것보다 이 노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노래를 개사해서 초등학교 졸업식 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우리 손잡고 걸었던 이길에 추억 이렇게 가득한데  
 아쉬움 설레임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 향해가네  
 운동장 가득한 우리 웃음소리들 귓가에 아직 맴돌면서  
 우리 꿈에 날개를 달고 함께 높이 날아오르자]

졸업식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연습할 땐 별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졸업식 날 감당에 모두 모여 노래를 부르니 아쉽고 슬프게 느껴졌다. 지금까지도 기억 남는 가사는 '우리는 자라서 과연 무엇이 될까. 서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다.

우리는 자라서 과연 무엇이 될까.  
 20살이 되면 정말 하고싶은걸 하고 여유롭고 MT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지낼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럴 돈도 없고 하고싶은것도 아직도 못찾았고 그저 학교, 기숙사, 집만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난 뭘 할걸까 싶기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유롭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것 같다.

서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때 친했던 친구들이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친했던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특히 10년지기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친구가 나의 절친이라는 것에 감사하다. 다른 친구들과도 초등학교때 친했는데 그 뒤로 만남적이 없어 어색해졌다가 고등학교 가서 다시 만난 친구들도 있다.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우리 10년뒤에 만나자' 라고 하며 먼 미래를 약속했을 때 10년 뒤가 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갔음에 놀란다. 대학교 4년도 금방이라던데 얼마나 더 빨리갈지 두려운 것 같다.

난 아직도 어렸을 때 장난감 시계를 가지고 시계 보는 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분 단위를 보기 어려워하던 내가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런지 20살이 넘었다는 사실도 지금까지도 실감이 안나고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을수록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후회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계를 못보던 내가 이제는 시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언젠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길 바란다.

😊 13    💬 0



2024/05/13

monday, pm 4:28 | 18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5일차 #시계

'우울시계'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아이유 분홍신 앨범 속 수록곡입니다. 당시엔 가사보다 분위기나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어린 나이로 가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노래들을 재생목록에 담을 때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첫째, 멜로디가 마음에 들 때. 멜로디가 맘에 들면 가사가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된답니다. 둘째, 좋아하는 가수가 불렀을 때. 이렇다보니 저에게 가사는 차순위였어요. 멜로디나 가수가 좋으면 저절로 가사가 좋아지는 편이랄까요. 시계라는 주제에 이 곡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다시 한번 우울시계의 가사를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리 우울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 힘들다 징징했던 것도 한때란다 한때야 날카로운 감정의 기억이 무더진다 무더져 네모가 닳아져 원이 돼”

우리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과 기억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치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오래지나면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다 가끔 옛날 사진을 뒤적거리고 일기장을 들춰볼 때면 그때의 시간과 기억들 모두 생생히 되살아나요. 부끄러운 일도 기뻐했던 일도

슬펐던 일도, 시간이 있어 우리는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실아가요. 언젠가 나의 시간도 멈출 걸 알지만 그 시간이 멈추기 전까지 또 살아가겠죠. 우울시계의 가사처럼, 지금 우울한 것도 날카로운 감정도 모두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기억을 들춰볼 때는 모두 한때의 기억으로 남을 뿐이니까요. 소소하거나 확실한 나의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가는 행복시계의 태엽을 움직이며 살아가면 되니까요.

😊 12    💬 4



2024/05/13

monday, pm 5:09 | 14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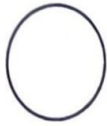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5일차 #시계

한정된 시간, 야속한 시곱바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개인마다 주어진 시간은 다르지만, 그 주어진 시간이 소모되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건 같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인지 모른 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간다. 주어진 시간이 많다면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적다면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찰나의 시간 차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일상에서 '타이밍'이라고 말한다. 타이밍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현재를 위한 선택, 미래를 위한 선택, 둘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위해 선택하는가?” 선택에 관한 생각은 꽤 걸리지만, 선택은 한 순간에 결정된다.

😊 9    💬 2



2024/05/13

monday, pm 5:09 | 18읽음

유명주(철각/20202550)

#5일자

INTERVIEW

시간의 세월을 담은 손목: ㅎㅎ군의 새로운 출발

한림대학교 학생 ㅎㅎ군 일상 인터뷰  
2024.05.13

ㅎㅎ는 스무 살이다. 그리고 시계가 새로 사고 싶다.

방금 손목시계를 풀며 "시계 새로 사고 싶어!"라고 했어요. 시계가 있는데 새 시계를 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ㅎㅎ: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많이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컬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제 기능도 여전히 잘하는 것 같고요.

ㅎㅎ: 자세히 보면 잔뜩 기스가 났고, 틈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지금 그 시계를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ㅎㅎ: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ㅎㅎ: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중간고사 보기 전... 아니 후에 엄마가 얼마 것과 함께 사다 주었습니다.

약 3년 정도 사용하셨군요.

ㅎㅎ: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박수를 두 번 치며)이 시계를 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간고사를 응시하는 도중에,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 교실 전면에 비치된 시계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기만 하면, 시험 감독 선생님께서 오임알 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청인 줄 알고 움찔하는 것이 불편해서 개인용 시계를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부터 마음 편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겠어요. 시계 가격은 얼마였나요?

ㅎㅎ: 엄마가 겸사겸사 같이 사 온 거라 잘 모르겠어요.

OST 공식 홈페이지에 비슷한 시계가 5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이네요.

손목시계 줄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체인이 아니라 밴드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체인들이 가로세로로 엮여있어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ㅎㅎ: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 결과 메쉬 시계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

시계를 착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손목 안쪽에 시계가 오도록 한 후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ㅎㅎ: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어? 시계를 군대식으로 차네?'라고 반응하는 통에 저는 군대식으로 시계를 착용하는 방식이라곤 알지도 못하지만 잔뜩 질려버렸어요 (절레절레).

😊 11    💬 2



2024/05/13

monday, pm 5:17 | 16원음  
김수팀(사회복지학, 20212316)

#5일차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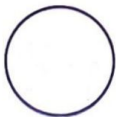
아무리 잡으려 해도 너는 떠나간다  
뿌리치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다

분명 1월 1일 새해 첫 날 조은세님의 '그  
소녀가 꾸 꿈은'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올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5월  
중순이다

"내가 너를 가로질러 볼 수는 없는 걸까?"  
하물며 달 역시 해를 가리는, 일식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시간을 앞지를 수는 없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를 보낸다.

😊 11    💬 2



2024/05/13

monday, pm 5:24 | 16원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5일차 #시계

"너는 항상 그런식이야. 너 생각만 해. 날 좀  
생각해줄 수 없어?" 이 긴 갑정싸움은 언제  
끝이 날까요?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씩씩 거리다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오늘 똑바로 서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물고 있는 그녀를  
마주합니다.

뒤로 보이는 시곗바늘이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2시

30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시 30분처럼  
서로의 반대편에 서서 나아가려는 방향과 그  
종착지를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려오는 것이 감당하기  
벅찰만큼 올라올 때쯤 더 이상 함께 하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느낍니다.

두어시간쯤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멈추겠지만, 추억의 시간은 고스란히  
남겨두기로 약속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녀를 터질 듯 안은 채 눈물을  
간신히 참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 10    💬 2



2024/05/13

monday, pm 5:36 | 14원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5일차 #시계 #나의시간

제 시계는 항상 20살, 갓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이 많은 시기에  
멈춰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삶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은 많은데 그 목표들  
이루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다보니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어느 날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려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저의 꿈만을  
쫓다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간도 훌쩍  
흘러있을 것만 같아서, 또 10년, 20년 후 지레  
현실에 부딪혀 포기하는 스스로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목표를 당장 모두 이루겠다는 건 욕심이고  
우선순위를 세우기보다도 추구하는 가치  
여러개의 중간지점을 잘 잡는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냥 돈을 아끼기보다도 과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에게 쓰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꿈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만큼이나 1학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고택들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도전하길 겁먹지 않는 현재의 마음가짐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 11    💬 2



**2024/05/13**  
monday, pm 5:45 | 16읽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888)

### #5일차 #시계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고장 난 시계는 가만히 멈춰있다. 그리고 시계는 12시까지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보낸다. 즉 고장난 시계의 분침과 시침은 가만히 멈춰있기에, 하루에 두 번은 고장난 시계가 표시하고 있는 시간이 두 번은 맞는다. 이 속담을 항상 틀린 말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번 옳은 말을 했을 때 쓰는 비유적 표현으로, 옳은 말조차 그냥 아무 말이나 뱉었는데 우연히 맞은 것 뿐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속담을 타르케 해석한다. 가만히 멈춰 있는 시계는 24시간 중 두 번은 맞는다. 그러나 시간 설정이 조금이라도 잘못 되어 있는 시계는 24시간 중 단 한 번도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것은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잠깐 멈추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르지 않은 운동 자세로 운동을 계속 하다보면 몸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잠깐 운동을 쉬고 올바른 자세를 찾는 것이

몸이 좋아지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나는 위의 속담에 잘못된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잠깐 멈추는게 좋다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

😊 11    💬 2



**2024/05/13**  
monday, pm 6:44 | 16읽음  
황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 #5일차

시계는 네가 의도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쫓겨다니처럼 흘러가는 물건 같다. 네가 힘들거나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정말 천천히 흘러가지만, 또 네가 좋아하거나 바쁠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다. 나는 힘든 환경에 있을 때는 점심 먹을 때까지만 버티자, 저녁때까지만 버티자면서 버텼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삼탕히 많이 쌓였고 그렇게 흘러보낸 시간이 후회되긴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네가 최선을 다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알차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겠다.

😊 10    💬 3



**2024/05/13**  
monday, pm 6:51 | 17읽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 #5일차

시계 하나로 우리는 다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놀러가기 전날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설레임, 시험보는 중 10분 남았다고 했을 때 혁하고 당황하는 모습, 알람을 못들었다 생각하고 놀라 시계를 보니 알람 울리기 5분 전이라 안심하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 입장에서 세상을

지켜본다면 그것도 나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모습을 바라본다면 아침 수업에 지쳐 눈이 반쯤 풀린 모습과 조금 일찍 끝내주셨을 때 또렷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으로 시계를 보는지 심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계라는 단어를 보고 달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계랑 같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리다보면 어느새 달력을 넘길 때가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는 언제 가나 싶다가도 언제 이번 달이 이렇게 왔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이 얼마 안남았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리드에서 몇 주차 감의 확인할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 학번을 쓰거나 조별활동에서 자기소개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게 느껴집니다. 분명 나토 1학년이었는데,,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나간 시간에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앞으로의 모습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11    💬 3



**2024/05/13**  
 monday, pm 9:53 | 12위음  
 방애빈(중국어학과,20201519)

#5일차 #시계  
 급식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만 기다리던 어릴적의 4교시가 떠오른다. 시계만 바라보며 분침이 12시를 가리키길 기다리던 그 순간, 느려터진 초침을 원망하며 노력보았던 그날. 그날 이후로 시계는 수천수백번 돌아가 오늘이 되었겠다.

이제는 오히려 시계가 조금 빠르게 맞춰진 것이 아닐까, 시계가 고장이 난것은 아닐까 바라게 된다. 4학년이 되고서는 몇 배로

빨리진 것 같은 이 시간속에서, 시간은 급이리는 말의 무게를 뚝소 느끼고 있다. 12시에서 시작해 12시로 무한히 돌아가는 시계를 보면서,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성장하고, 하루의 끝인 자정이 있듯이, 우리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역시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임에 김탄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서 돌아가는 시계다. 시침에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이 담겨있다. 분침에는 우리가 힘들어 울었던 경험, 행복하게 웃던 경험, 화가 나던 경험, 자랑스럽던 경험과 같이 다양한 경험들이 담겨있다. 초침에는 우리의 일상이 담겨있다. 일상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인생을 만들듯,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계의 똑똑똑 소리, 우리의 발걸음 소리라고 생각하며, 분침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

😊 10    💬 1



**2024/05/13**  
 monday, pm 9:57 | 14위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5일차  
 나는 디지털 전자시계보다 아날로그 시계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날로그가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가끔 너무 지쳤을 때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벌렁 누곤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각종 전자기기 소리와 시계소리가 안정감을 주고, 자기 전 들리는 시계 바늘 소리는 마치

최면효과라도 있는 것 같다.

글을 쪽 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계를 시간을 보는 도구 이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깨달았다. 라이팅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생각의 확장을 얻어가는 것 같다.

😊 12    💬 1



2024/05/13

monday, pm 10:00 | 20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전설의 10318

미디어 전공생이라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가야 하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지옥의 의자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일주일 네네 이 강의실에서 삽니다. 엉덩이와 허리가 부서질 듯한 인공의 시간 때문일까요?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하열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손목시계도 봤다가  
휴대전화 시계도 봤다가  
태블릿 시계도 확인해 봅니다.  
제발 빨리 가라....  
-오늘도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강도 기다립니다. 도대체 종강은 언제 오는 걸까요?

오늘도 시계를 확인합니다....



#5일차 #시계

😊 13    💬 5



2024/05/13

monday, pm 10:09 | 17읽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5일차

시계

우리는 시계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시계의 키워드를 보고서는 해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계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알던 원래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계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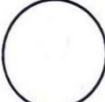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래 시계가 없었던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며 살고 있었을까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잠이 올 때 잠들며

본능에 충실한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몇 날 몇 시에 누굴 만나는 것이 아닌,  
밖이 어두워지면 만나기로 한다던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만나던가 등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것 같지 않나요?

시계의 소중함을 알고자 하는 의도로 쓴  
글이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원래 없었다면 또 그것대로  
재밌고 똑똑하게 살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끝내봅니다.

😊 13    💬 2


 **2024/05/13**  
monday, pm 10:20 | 18읽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5일차 #시계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하루는 비가 오고 또 하루는 햇빛이 짹짹한  
날이었죠.  
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아까운 주말을 보내주었어요..  
아마 지금 제 인생의 시계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기시감도 느끼지 못한 채 날 덮치는  
듯한 미묘한 느낌들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만들 것 같아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초침의  
끝을 붙잡고 하루를 늘려달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 속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민첩한 하루 보내세요~^ \_ ☆

%BORED-원아유

😊 13    💬 2

 **2024/05/13**  
monday, pm 10:40 | 19읽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5일차 #시계

존재감

무심한 듯하면서  
항상 나의 곁에 있는,  
나를 챙겨주는 그런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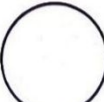
너가 없던 옛 시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

반짝이고 맨들맨들한 공간에 있기도 하고  
동그란 원형 물체로 있기도 하면서  
가끔씩 세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존재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흘러보낸다

😊 13    💬 2

 **2024/05/13**  
monday, pm 11:02 | 15읽음  
박해원 (생명과학과 20227081)

#5일차

나는 내 방 안에도 손목 위에도 시계가  
없었다.  
나와 떨어지지 않는 작은 기계는  
들어올리기만 해도 시간을 크게 비춰주기에,  
시계의 필요를 느낀 적이 없다.  
핸드폰이 없어도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쉽다.  
시간은 모두와 새끼 건 약속이자 가장 수월한  
숫자이다.

어느 장소에서도 이 정보를 일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식당에서 주문은 질 못하지만,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쉽다.

조금씩 지나고 손목시계가 가진 특이한 맛을 알았다.  
나는 맛을 부리고 싶어질 때, 손목시계를 샀다.  
얇은 가죽 밴드의 분홍색 아날로그 시계, 초침도 직아 잘 보이지 않았다.  
에초에 잘 보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저 팔찌였다.

조금 더 지나고 손목시계가 가진 부의 대한 상징성을 알았다.  
나는 그 증명 혹은 사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지금은 많이 지나서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지 7년이 더 넘었다.  
나는 나의 편의를 위해 애플워치를 샀다.  
손목시계 없이도 잘 지내왔고, 있어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손목시계가 필요한 순간엔 집에 두고 와 손목 위에 손가락을 세워 해시계라며 우겼다.  
이런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는 말리셨지만, 지금 네 왼쪽 손목에는 한 달도 안 된 애플워치가 걸려있다.

삶이 달라졌는가?  
충분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알람을 설정할 수도, 실험 중 여러 번의 타이머를 설정할 수도, 녹음을 할 수도, 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애플워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저 일 분 남짓한, 사실 몇십초도 되지 않을 과정을 생략하고 손목 위 작은 화면 안에서 해결하는 것뿐이다.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는다.  
더욱 내 몸이 가까이 붙어 나를 더 바쁘게 제촉하는 이 시계가 마음에 든다.  
나를 더 계획적으로, 더 효율적이게 만든다.  
너의 모든 능력을 내가 익혀 너를 뽐낼 테니 너는 내 작은 시간을 아껴 모으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너의 손목에 모르는 조건.  
우리는 삼십 관계에 있다.

😊 11    💬 4



2024/05/13

monday, pm 11:07 | 14읽음

김준호 (콘텐츠IT)

#5일차  
시계.

기술의 발전으로 우린 핸드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원한다면 다른 나라의 시간은 몇시인지, 지금으로부터 한참 과거와 미래의 년월일은 어땠는지 모두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계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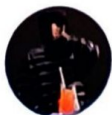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지만 오늘날에 있어 시계는 정확한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알림을 알려주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가는 것 같다.

스마트 워치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것 보다 사용자에게 더 중요한 알림,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적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했던 만큼 이제는 정확한 알림과 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새롭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날로그 시계에서 스마트 워치로 바뀌면서 그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면

언젠가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도 있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11    💬 3



2024/05/13  
monday, pm 11:09 | 15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5일차

내 첫 시계는 학교 시계였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도 종소리가 울리면 들어가야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방송부를 핑계로 늦게 들어간 적은 많아도. 중학생 때까지는 시간이 무한인 줄 알았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계속해서 시간이 내 자유자재로 흘러가는 줄 알았다. 그만큼 노는 게 재밌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점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이가 되자 시간이 그만 갔으면 했다. 시간이 갈수록 책임질게 많아졌고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다. 요즘은 그냥 계속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싫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하는 나 자신이 좋다. 시간이 흐르고 돌아켜보면 참 많이 부족했구나 느낀다. 그만큼 잘 성장했구나를 배웠다.

지금의 나로서는 아무리 겸손한 척하려 해도 내가 좋다. 그럼에도 내년엔 지금을 돌아볼 때 바보 같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결국 아무리 완벽할 때까지 시간을 되돌려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 정우현이라는 걸 배운 성인 정우현이 마음에 든다.

ps.영화 추천 하나 드리자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적이고 슬퍼요 이만..!!



😊 10    💬 2



2024/05/13  
monday, pm 11:09 | 15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5일차 #시계

[ 다섯 번째 접시 ]

시계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시각화하여 나타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모른다면 사는 게 굉장히 무기력해지지 않을까요? 공부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땐 시간이 무척 안 가는 것처럼,

하염없이 멍하니 있게 될 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정의한 것이다보니 사실 일주일이 '하루'라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빙글빙글 도는 것에 따라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기에, 이 관점에서 보면 '밤'이라는 때에 자야 키가 큰다는 이론은 정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을 시계가 알려주고 그에 맞춰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연결된 톱니바퀴들에 맞물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뽀득뽀득, 오늘의 뉘 점시가 튀었습니다. ]

😊 10 💬 1



**2024/05/13**  
monday, pm 11:48 | 15일음  
한지현 (테이터테크,20203260)

#5일차 #시계

지금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먼저 쌓인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언뜻 인생 시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건갈 수명 기준에 맞추어보니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우린 아직 밥을 세 번 먹을 수 있고, 긴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아침에 서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이루지 않기엔 너무 길지만, 무언가 이루기에는 너무 짧다'  
길다와 짧다는 분명 상대적인 단어인데 전부 이해되어서 무슨 뜻인지 한참 고민했던 문장입니다.  
제 결론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목표를 이루기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먼 목표는 반드시 지금의 작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라이팅 챌린지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매일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가가 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주말에 잠깐 글을 써볼까 했는데,  
주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쉽게 써지지 않더군요. 이번 주제를 정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실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 11 💬 1



**2024/05/13**  
monday, pm 11:54 | 16일음  
박희하 (언어병리학과,20233930)

#5일차 #시계

세상에 많은 발명품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다.  
과거 조상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찾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혁신, 편리해 초점을 맞춰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멋, 감성 등 자신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자신을 표현하기에 좋게 다양한 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고3 때부터 애플워치를 착용했다.  
휴대폰도 계속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시간에 늦을까 조마조마하며 다니는 성격 탓에 휴대폰 액정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 보다는 휴대폰도 찾을 수 있고 운동기록도 되는 스마트 워치 하나를 사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워치가 없으면 조마조마하면서 다닌다. 일어날 시간 알림, 셔틀버스 타기 전

알림 등등 정말 편리하고 좋은 시계다. 오늘 라이팅챌린지도 잠깐 시계를 봤는데 하루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휴대폰 액정안에 있는 시계 덕분이다. 정말 시간, 시계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13    💬 1



**2024/05/13**  
monday, pm 11:56 | 15읽음  
한광섭(사회학과,20182237)

#5일차 #시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었는데 할머니 집 거실에는 커다란 괘종시계가 있었다. 평소에는 시계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공포영화나 친구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괘종시계가 무서웠다. 정확히는 잠이 들기 전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그 때 울리는 괘종시계가 좋이었다. 새벽 1시에는 어떤 귀신이 나오고, 새벽 2시에는 뭐가 나온다는 등 친구들에게 새벽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시간 전에는 꼭 자야한다는 생각 쫓겨 더 잠은 안 와 미칠 노릇이었다. 지난 시절이라 지금은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귀신이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잠자리에 트는 시간이 싫었던 것 같다. 그치만 괘종소리가 울리기 전 잠들어야했던 시절과 지금 시기와 공통점도 있는데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참 빨리간다. 시간은 정말 내컷인듯 네컷아닌 것 같다는 어느 노래 가서처럼 엄청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니 너무나 시간은 더 빨리가는 것 같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라는 학생의 울타리에 벗어나기 직전인지라 또 두려운 마음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더 이상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 11    💬 2



**2024/05/14**  
tuesday, am 12:18 | 28읽음  
김암선

#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번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했을까요? 글 올린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어느날보다 시계에 대해서 자주, 오래 생각한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 챌린저들의 글에 많이 나온 이야기가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시간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문학에서는 시계시간과 다른 심리적 시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이 말차게 흘러가기 바라 봅니다.

😊 13    💬 0



**2024/05/14**  
tuesday, am 8:02 | 37읽음  
김암선

#6일차 키워드 : 3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간과 관련된 글을 써볼까요? 글쓰기 훈련을 할 때 10분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쉬지 않고 마음내키는대로 써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3분은 어떨까요?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시간 3분, 통화시간 3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3분, 3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오늘 하루 나에게 3분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시간인지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 14    💬 0



2024/05/14  
 tuesday, am 9:48 | 27읽음  
 합재민(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6일차 #3분

-3분의 흐름

세게는 끝없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헤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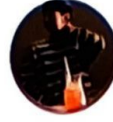
그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3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3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그 안에는 벅차오르는 열정과,  
 소소한 행복이 함께한다.

세게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쫓추고,  
 우리의 꿈을 향해 노래한다.

3분 속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고,  
 강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

😊 15    💬 4



2024/05/14  
 tuesday, pm 12:10 | 23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6일차

3분의 시간이란 정말 상대적이다. 3분이 아니라 10초의 광고도 보기 싫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쓴다. 영화 광고를 볼 때도 3분 광고는 매우 따분하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는 3분이 아니라 2시간을 버린다. 또 나는 발라드를 1년에 1시간도 안 듣는다. 반면에 힙합은 하루에도 몇 시간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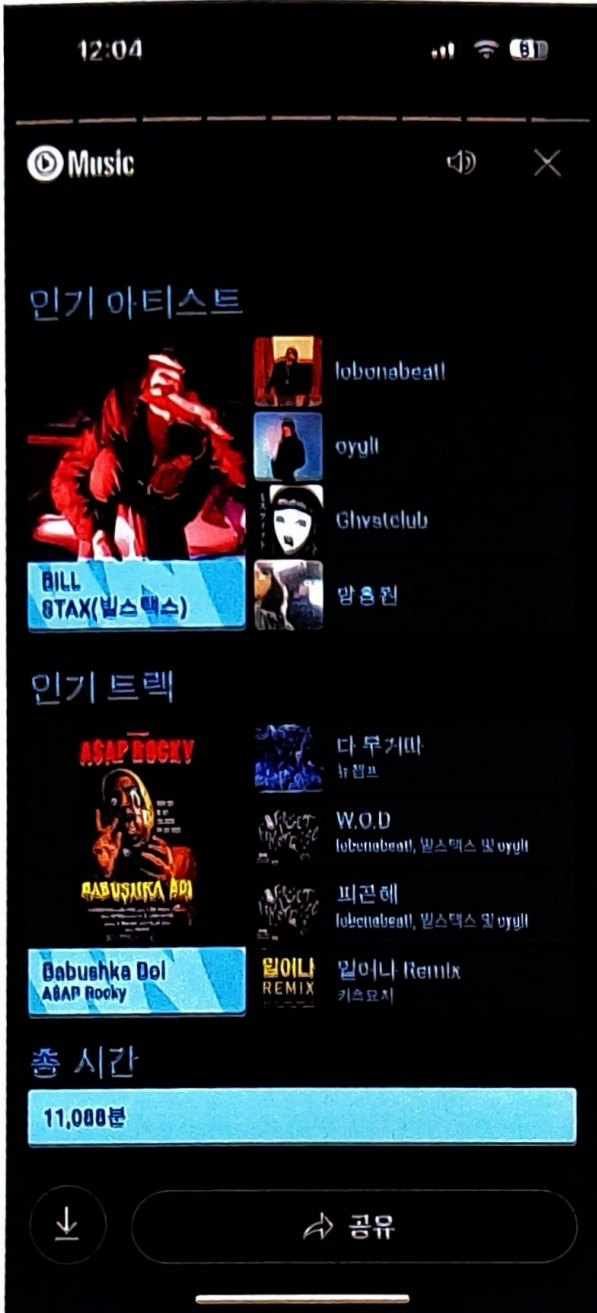
무엇을 하나에 따라 3분이 긴지 짧은지를 정한다. 전에는 책을 읽을 때 3초만 읽어도 따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30분도 읽을 때가 많다. 재미의 유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뭐든지 처음엔 재미가 없다. 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도 처음엔 지루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내 삶에 스며들었고 내 일상이 됐다. 결국 중요한 건 3분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 적응과 몰입이 핵심이다. 적응만 하면 어떤 것이든 집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처음부터 뭐든지 완벽하려는 습관은 좋지 않다는 걸 배운다.

ps. 12~2월달 유튜브 뮤직 감상 기록입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 17    💬 3

**2024/05/14**  
 tuesday, pm 12:55 | 19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6일차

3분의 시간은 짧다.  
 양치질 하는 시간 3분, 머리 말리는 시간 3분,  
 옷입고 나갈 준비 하는 시간 3분.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다 듣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3분이다.  
 하지만 3분의 시간은 길다.  
 수업 끝나기 3분전, 버스 도착 시간 3분전,  
 좋아하는 애인과 만나기 3분전, 내가 좋아하는 방송 시작 3분전.  
 천천히 생각해보면, 3분이 짧을 때와 길어질 때의 공통점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 준비하고 모든 일이 끝나 여유로운 때는 3분은 정말 바람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나의 일을 다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릴때, 혹은 좋아하는 것들을 기다릴 때는 3분은 지금 보낸 세월만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3분을 초로 나타내면 180초가 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3에서 180,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3분의 시간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 짧다면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지만, 길게 이용하면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나도 미래의 변화를 위해 지금 글을 쓰는 3분, 혹은 그 이상을 값지게 써야겠다.

😊 16    💬 4

**2024/05/14**  
 tuesday, pm 1:02 | 19읽음  
 정승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6일차 #3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멍을 때리든 라면을 끓이든 햇볕 아래 노래를 하든 철학자가 사색에 잠기든 대화를 하든 연인을 만나든 3분이란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코앞에 드리누운 폭탄의 타이머에 3분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면 말이 달라진다. 찰나의 순간이 거대한 공백으로 채워지듯 길게 느껴졌고, 1분이 100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폭탄서리요원은 늘 이러한 심황에 놓여야 했었고, 폭탄과의 폭대 속에서 침묵의 3분을 보냈다. 마집내 삼대의 혈류를 끊음으로써 폭탄은 숨이 멎어 집은 화염으로 바뀌었다. 동료들이 요원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3분이 아닌 30년을 죽히 산 것 같았다.

😊 15 💬 4



2024/05/14  
tuesday, pm 1:06 | 19위음  
김나연(의약신소재, 20226006)

### #6일차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늘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재שמ목록을 틀고 간다. 약 3분 네외의 곡들이 집에가는 시간을 다채롭게 꾸미준다.

약 3분 동안 노래만 이어지는 것 뿐인데 창 밖의 풍경이 새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감정이나 상황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3분이 짧지않은 많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다.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노래에 덧입혀 쌓이는 기억들은 후에 거대한 힘이 되어 나의 가슴에 남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3분은 노래와 기억으로 기억된 수많은 시간이고, 그것들이 모여 나의 평생이 될 감각과 기억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 14 💬 4



2024/05/14  
tuesday, pm 1:10 | 21위음  
박지효(식품, 20213018)

### #6일차

#### 3분

3분이라는 단어를 듣고선 제일 먼저 생각난건 3분카메  
3분키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빠름으로 각인을 시켜준다. 이 식품은 정말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한다. 3분카메 라는 네이밍이 우리 머리속에 각인이 되었다는건 성공적인 네이밍이다. 홍보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러한 심황 이름들이 머리속에 각인될 때 그 이름을 만든 창조자에대한 존경심이 느껴진다. 나를 한마디로 각인시킬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거민도 해보게 되는것 같다. 여러분을 표현하는 한마디의 네이밍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과 모든걸 말할수 있는 한마디. 가볍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 14 💬 4



2024/05/14  
tuesday, pm 1:29 | 21위음  
조성빈(종목학과, 20201534)

### #6일차 3분

나에게 3분이란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긴장이 되어질 때가 많다. 가령 수강신청 하기까지 3분전, 수업시작하기 3분전 등 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3분이란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다. 기차역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늦게 나와버려서 다음버스를 기다려야 했을 때였다. 기차시간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버스가 오기까지 3분전이라는 스크린에 보이는 문구를 보고 그렇게 그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다. 결국 느지막하게 택시를 탔지만 기차를 놓쳐버렸다.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난게 시험시간에서의 3분도 짧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시험지를 정신없이 풀고 있을 때 고개를 들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3분밖에 시간이 안남은 걸 보고는 손에 땀이나고 실질박동수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 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3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1분 1초를 소중히 값어치 있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그 1분 1초를 가치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쉽게 지칠때도 생기는 것 같다.

특히 외국보다 한국인이 더 모든 시간을 알차고 바쁘게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체코였는지 덴마크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는 '휴게'라는 휴식시간이 필수로 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습관화 되어있다고 한다. 나는 이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나에게 집중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다음에 할 일에 대한 힘(체력)을 충전하지 못하여 금방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 3분(3분을 조금 넘기는 했지만)을 커피한잔을 하면서 가볍게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으로 가졌다. 밥을 먹고 나서 수업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시며 천천히 걸어보면서 그동안 못봤던 주변 풍경을 하나하나 보며 잠시동안이라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엄청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복잡했던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였다.

그와중에 문득문득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서 빨리 종강하는 날이 오기를



2024/05/14  
tuesday, pm 1:31 | 22818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6일차 #3분

3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묘한 시간인 것 같다. 이 짧은 순간에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면서 3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웹툰 한 편을 보거나 노래 한 곡을 듣거나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볼 수도 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모님이나 할머니께 짧게 안부 전화를 할 수도 있다.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3분이 꽤 길게 느껴지며, 3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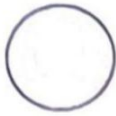
반면, 과제 제출 3분 전이나 수강 신청 3분 전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는 3분이 아주 짧게 느껴진다.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서 시계만 바라보며 시간이 더디게 가길 바라지만, 정작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이럴 때 3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여유로울 때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심리적 상태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3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숨을 쉬고 내쉬는 것도 100번은 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며 중요한 3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다.

😊 14    💬 4

😊 14    💬 4



2024/05/14

tuesday, pm 1:47 | 24위@

김지은(20212864/인본방송을합시다)

#6일차 제목: 3분의 기적

그날 저녁, 그녀는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늦은 퇴근길이 더욱 지치고 길게만 느껴졌죠. 무신을 쓴 채, 무거운 가방을 멘 그녀는 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주춧 등업상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은 달술했습니다: "3분 밀상."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등업상을 재생했습니다. 업상 속 목소리는 부드럽게 밀렸죠. "편리한 자세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제이는 지시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도시의 짐승들이 서서히 밀어져 갔습니다.

그 3분 동안 그녀는 마음을 기다듬었고,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상이 끝날 무렵,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을 종료하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그녀는 차가 자리에 앉아 다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마음 한편이 편안해진 덕분에, 비가 내리는 저녁의 풍경이 슬프고 고단함을 씻겨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저녁,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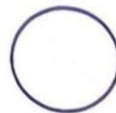
그 속에서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빈틈이 일상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줄지, 아직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13



4



2024/05/14

tuesday, pm 2:00 | 24위@

유영주(정리/20202850)

#6일차

[내 3분은 보법이 달라]

레스토랑 식품이 생각나는 주제이다. 지금도 먹고 있다. 네 오랜 취미는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음식 시도인데, 놀랍게도 고민하는 시간이 3분보다 더 길다. 빨리빨리 먹을 수 있어 선호되는 간편 즉석식품을 먹는 의미가 무색해지는 일이다. 한 5분을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필요한 컵보다 많은 메뉴를 골라내는 데 1분, 개신하는 데 30초, 돌아리 밥에 올라가는 데 2분, 기득 쌓여있는 먹거리 정리해 집어넣는 데 1분, 그 중 지금 텀잡 먹을 음식 하나 고르는 데 2분, 고른 음식 뜯어서 먹을 준비 2분 - 컵라면일 경우에 5분-, 먹기 전에 핸드폰 하느라 땀 들이는 시간 1분 30초, 누역누역 먹기 시작해 음식을 죄다 해치우는 데 20분, 산더미처럼 새로 쌓인 쓰레기 정리 2분, 도합 40분가량을 먹는 데 쓰곤 한다. 밥을 정성 들여 준비해 천천히 즐기며 먹을 여유가 부족한 현대사회에게 남겨진 3분짜리 즉석식품이라는 하나의 선택지 -굉장한 모순-에서도 40분이라는 여유를 착잡해내 즐기는 스스로의 대단함에 칭찬을 보낸다.



16



6



2024/05/14  
tuesday, pm 3:31 | 21위음  
한주연(미디어스쿨, 20242586)

#6일차 #3분

3분

3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분 보다는 5분을 더 선호하는데요 ㅎㅎ

3분이라는 시간은 180초입니다.

그리고 180초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보자는 거죠.

담장 오늘 하루의 나에게 수고했다 라는 칭찬 한마디 라던지

오늘 스스로 잘했던 일, 뿌듯했던 일, 틴틈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생각할 시간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12    💬 4



2024/05/14  
tuesday, pm 5:05 | 19위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6일차 #3분

저는 예전에 3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작

180초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3분동안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오고 나서 3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감일 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빠르게 달려가며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늦게 끝내주시는 날에는 3분동안 저 멀리 있는 건물까지 가야했는데 빠르게 걸으니 도착하고도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을 짧다고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180초로 쪼개어 속으로 세어보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 검색하는 곳에 3분이라고만 검색해도 3분의 기적, 인생을 바꾼 3분 등 3분에 대한 위대한 효과에 대해 수두룩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3분요리도 넘칩니다.

처음에는 '왜 다들 3분을 좋아할까'라고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못 찾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3분의 기적을 알 것도 같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3분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그 3분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겠습니다.

😊 14    💬 3



2024/05/14  
tuesday, pm 5:31 | 19위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6일차

#3분

<3분 발표>

손에서 계속 배어나오는 땀, 축축한 땀으로  
젖은 등짝, 그리고 눈치없이 나오는  
발은기침.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작고 도톰한 영우의 입술이 움직였다.

"...안녕. 나는 선암초 2학년 최영우야.

나는 작은 집에 살고 싶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대신 회색 고양이를 키울거야.

나는 돈을 조금만 벌고 싶어.

조용하게 살고 싶어.

회사에서 번 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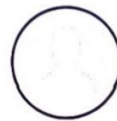
조금씩 쓰면서 살고 싶어."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로 영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작지만 정말 짝 찬 집이구나"  
반달모양 눈웃음을 지으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애정 어린 목소리로 선생님이 말했다.

영우의 눈가에 눈물이 팽 돌았다.  
주책스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 14    💬 2



2024/05/14

tuesday, pm 5:43 | 17읽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6일차

3분이라는 시간을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시간이 나에게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게 있는데  
딴짓을 하면 3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을 펴는데 옆에서 친구들이랑  
카톡 조금 보내면 3분 같은 30분이 지나갈  
때가 있고는 합니다. 반대로 강의실 밖에서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3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대기하는 동안 언제  
끝이날지 하염없이 기다리면 1시간 같은  
3분이 지나고 강의 전부터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상황에 따라 3분이  
아니더라도 애매하게 시간이 왔다갔다 하는  
느낌은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무언가를 하는  
활동의 막이 다가올수록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마감 3분 전, 경기 종료 전

3분의 추가 시간, 인증글 쓰기 마감 3분 전 등 3분이라는 시간은 끝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짜릿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3분도 기다림의 끝이라는 점에서도 3분의 가치는 끝나가는 상황과 잘 어울리는듯 합니다.

시간 관련해서는 5분 정도의 영상을 다루는 지식채널e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무언가를 끝마치고 새로운 것을 하기 좋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저는 3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 11    💬 3



**2024/05/14**  
tuesday, pm 6:10 | 20읽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6일차 #3분

딱 3분이라는 시간만 들었을 때는 누구나 짧은 시간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느끼는 3분은 상황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베고플 때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 3분,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3분 같이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 3분의 시간은 굉장히 길다. 그러나 3분 동안 발표를 하거나 노래 한 곡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내가 무언갈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간다.

나는 여기서 집중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다. 집중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하나에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바로 자신이 특정 행동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 가기 10분 전의 수업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간다. 이는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어떤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금방

간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이것을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지금보다 더 긴 집중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12    💬 4



**2024/05/14**  
tuesday, pm 7:32 | 19읽음  
김선유(간호학과/20246202)

#6일차 #3분 #습관

3분이라고 하니 저는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저만의 3분 습관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지친 나머지 의자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한 두시간 지나고 나서야 움직이곤 했었는데요. 훌쩍 의미없이 보낸 시간에 늘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행동이 잘 안 바뀌더라구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저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 3분 타이머를 맞춰서 가방정리, 옷 갈아입기, 방정리, 이불정리까지 마치도록 부지런히 움직인 후 손을 씻고 자리에 앉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데 이 시간만 되면 3분이 생각보다 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구요. 작년쯤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 습관인데 시간을 의미있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기에 작은 단위의 시간들, 자투리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냐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작은 단위의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는 게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이 되고 이런 하루들이 모여 발전적인 미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투리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습관이 있나요?

😊 13    💬 4



2024/05/14  
 tuesday, pm 9:24 | 13읽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6일차 #3분

3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가장 먼저 카레랑 컵라면이 떠올랐다.  
 조리를 하거나 물을 붓고 나서의 기대감, 딱 3분인가보다.  
 일상생활에서 3분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비스를 타러 정류장에 오니 3분 전이라면 엄청난 오에다! 어떤 날은 급히 왔는데 3분 전에 떠나버리니 허무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달리 하는 아주 큰 존재다.

나는 오늘 3분의 기적을 맛보았다. 수업을 가는데 인파가 몰려버린 것이다. 아뿔사... 수업 시작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모바일 아이디를 열심히 키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길 간절히 바랐다. 3분이 지나자 '줍식' 이라고 뜬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지각도 결석도 아니야.  
 그렇게 나는 3분이라도 더 일찍 강의실을 나서기로 했다.

😊 10    💬 1



2024/05/14  
 tuesday, pm 10:13 | 14읽음  
 이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6일차 #3분

[ 여섯 번째 접시 ]

저는 지금 3분 타이머를 맞추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많이 다급하네요. 다들 3분에 대해 이미 많이 쓰신 바람에 제가 쓸 말이 하나도 없어서 특이한 방법으로 3분을 활용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잘 듣고 간식을 먹으며 그냥저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입들이 많았거나 평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40초가 남았네요. 마음이 급해서 뭐라도 쓰려는 제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10초 남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뽀뽀뽀,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 9    💬 1



2024/05/14  
 tuesday, pm 10:16 | 15읽음  
 김명빈(미디어스쿨\_20202706)

노래 길이는 3분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옛날(?)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쇼츠를 노리고 나오는 중독성 강한 노래보다는 2-3세대 아이돌들의 기승전결 있는 노래, 메인 보컬이 고음 차력쇼하고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와 폭풍 랩이 휘몰아치는 노래를 더 좋아해요.

그 시절 스위트튠st 노래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스위트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랑 함께 케이팝 하시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물론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중독성, 쇼츠,  
챌린지를  
노리고 노골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반복되는 특정 구간만 기억하고  
노래 전체를 들어본 기억이 오래된듯합니다.

옛날엔 친구들이랑 파트 분배하고  
가사를 달달 외워가며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전 2-3세대 사람이라 그때 노래들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노래 추천하고  
몰러가겠습니다

3분이 넘어가는 노래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명곡이죠.

Last Romeo -인피니트

<https://youtu.be/L7kaScuQ0KM?si=04nn8l6lujoplqe>

INFINITE "Last Romeo"  
Official MV

#6일차 #3분

😊 10    💬 4



2024/05/14  
tuesday, pm 10:21 | 14위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6일차 #3분

3분 차로 버스를 놓쳤다.

3분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늦지 않게  
도착해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다음 버스를  
탈 생각으로 여유롭게 식사했다. 3분 뒤 오는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늦게 뛰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보는 순간, 버스는 출발하고 말았다. 그냥  
3분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1분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에 왔다.

그러나 버스를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오히려 3분 뒤 오는 버스보다 1시간 3분 뒤에  
오는 버스를 타고 싶었다. 소중한 사람과  
10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다.

나의 60분을 의미 없이 보내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10분은 내게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었다.

😊 9    💬 3



2024/05/14  
tuesday, pm 10:43 | 12위음  
방에빈(중국학과, 20201519)

#6일차 #3분

'3분'을 보자마자 '3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 매료되었다. 탐신은  
3분이라는 시간을 500만원에 살 수 있고,  
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탐 한 번 3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탐신은 3분을 살  
것인가?

공상하기를 취미로 하는 나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3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에, 대부분이 껌꾸는 복권 당첨과 같은 일은 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3분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3분을 500만원보다 더 가치있게 쓸 수 있을까?

나는 사지 않겠다. 내가 변경한 과거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3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택권이 존재한 이후로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할 것 같다. 현재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기에, 돌아가고자 하는 3분을 만들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것이다. 차라리 500만원으로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휴일을 보내는 편이 더 값질 수 있지 않을까.

일상속에서 겪는 3분은 어떨때는 고맙기도하고 어떨때는 짜증나기도 하다. 고작 3분 차이로 타야할 버스를 놓쳤다가, 늦을까봐 갑의실에 힘껏 달려 도착했는데 아직 3분이나 남았다거나, '고작'이 될 수도, '아직'이 될 수도 있는 3분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탈길 수 있다. 이젠 '3분'이 보이면 반가울 것 같다. 일게모르게 정겨워진 '3분'과의 인사를 마치는, 10시 4'3분'.

😊 10    💬 2



**2024/05/14**  
tuesday, pm 10:58 | 16원음  
박현아 (언어병리학과,20233930)

#6일차 #3분  
요즘 노래는 이지리스닝이라고 3분 미만이더라... 짹짹 놀랐다. 난 옛날 케이팝 전성기 (내 기준 2013-2020)노래를 잘

좋아한다. 3분 안에 서사와 기승전결과 클라이막스, 죽어도 안 줄 법한 눈물나는 클래식이 섞인 Inst, 이게 된다고? 싶은 피쳐림까지 그 시대에 계속 머물러있는 것 같은 노래들이다.

그 노래 추억의 부른 가수들 뭐하면서 실끼? 3분 몇십 초 동안 검색을 해본다. 아이돌 그룹의 파워 메인보컬의 근황을 찾아본다.

'음 잘 살고 있군... 연예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겠지, 역시!' 하며 다시 다음 곡 다른 가수가 나오면 다음 3분 동안 다른 가수의 근황을 찾아본다. 이어폰을 뺄 때까지 계속 끊이지 않게 반복된다.

등긱, 난 이어폰을 끼면 내 머릿속에 연애가중계가 켜진다.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3분동안만 근황을 알려준다! 3분...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회상하고, 그 가수의 근황을 알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이다.

😊 11    💬 2



**2024/05/14**  
tuesday, pm 11:15 | 13원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6일차

3분도 바빠 틈을 못 낼 때가 있다. 삶에 이리저리 치여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로 바빠 한 몸 움직이는 때가 있다. 그대들은 그 와중에도 보고 싶은, 보아야 하는 상대가 있던 적이 있는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는가?

그 때에는 당신은 무참히 사랑에 빠진 것일 테이다.

아리고 시린 가슴앓이를 하면서, 상상도 못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망상으로 인한 소설을 쓰며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다.

3분 동안 그대들의 그 이를 생각해보라.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의 미래든 상관없다.

3분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며,  
사람의 정의에 대해 되새겨보길 기원한다.

😊 10    💬 2



2024/05/14  
tuesday, pm 11:19 | 13위음  
황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6일차

일상에서 3분은 아차 하면 지나가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컵라면과 전자레인지의 3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전자레인지와 컵라면 앞에서의 3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휴대폰을 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의 3분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휘리릭 지나가 버리는 티끌 같은 시간이지만 전자레인지의 3분과 컵라면의 3분은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것처럼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 3분 초로 환산하면 180초의 시간은 체감상 5분이 넘어가는 것 같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배고파서 그런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모임이 쉬워진다!



😊 11    💬 2



2024/05/14  
tuesday, pm 11:20 | 13위음  
김준호 (콘텐츠IT)

#6일차

3분.  
뭔가 일이 잘 안풀리거나 계속 같은 곳에서 탁힐 때, 졸리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 나는 보통 하던 일을 멈추고 나만의 루틴을 하곤 한다.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간단한 행동들이다.

겨우 3분, 짧고 큰 의미가 있는 행동들은 아니지만 그 3분으로 나는 다시 해야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곤 한다. 또는, 뭔가 다른 관점의 생각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필요할 때도 3분 동안의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잠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그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3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3분인 것 같다.

😊 11    💬 2



2024/05/14  
tuesday, pm 11:21 | 16위임  
이재원(미디어스쿨/20242562)

#6일차 #3분

정말이지 오늘은 바쁜 하루였습니다..  
3분이 정말 소중한고 또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3분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가령 라면을 만들어 먹는다면, 노래 한 곡을  
듣는다면..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별 일이 없는거 같기도  
하네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3분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건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마치 다른 책 한 편을 풀레 꺼내어 읽는 느낌  
아닐까요.  
3분의 여유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내일의 나에게☆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위수

😊 11    💬 2



2024/05/14  
tuesday, pm 11:34 | 14위임  
최연주(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6일차 #3분

한국인들은 찰 숫자 3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시간을 3분에 맞추는 것들이  
실생활에 꽤나 많다. 그 수많은 3분 중 난 이  
타는 시간 3분이 떠올랐다.  
작년 하반기 종치 치료에 거금을 쓴 이후로

치아 관리 방법에 저질로 눈이 가게 됐다.  
의사마다 말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꼭 3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꼼꼼하고 더 오래 닦는 것이  
이를 청결하게 하는 데에는 더 좋다고 한다.  
이럴 적 엄마가 3분짜리 모레시계를  
가져오셔서 이 모레를 다 내려갈 때까지 이를  
닦으라 하셨다. 그때는 얼마나 그 3분이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3분이라는 시간 자체는 길다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건감한 치아를 위한 시간으로는  
짧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 10    💬 2



2024/05/14  
tuesday, pm 11:35 | 16위임  
한지현(데이터테크,20203260)

#6일차 #3분

저에게 3분은 무언가 실행하기엔 짧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3분을 체감 하기 위해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눈을 감고 3분이라고 생각할 때  
멈춰봤습니다.  
결과는 2분 13초였습니다. 정신 없이  
지나가는 생각이 많았지만  
그동안 자연스럽게 노래 가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보니 요즘 노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분은 아직 노래 한곡에  
머물러있는데 아쉬워요.  
언젠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 10    💬 2



2024/05/14  
tuesday, pm 11:42 | 14위8  
손지민(김호학과\_20230255)

### #6일차 #3분

3분 보자마자 어려운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3' 입술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심지어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니  
얼굴 표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분이라는 시간은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3분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며 긴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과제 제출 마감 3분 전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3분 안에 할 수 있는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만드는 것부터  
누군가는 3분 안에 자신의 대학을  
결정할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고  
3분 동안 노래를 들으며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3분이 모인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짧다고 느껴질 3분을 투자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건 어떨까요?  
고작 3분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분의 가치를 열고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해보세요



0



2



2024/05/14  
tuesday, pm 11:47 | 15위8  
박혜현 (생명과학과 20227081)

### #6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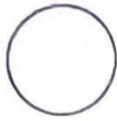
시간은 절대적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대적이다.  
180초의 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것을  
여러 각도로 본다.  
그러고는 그때마다 3분을 다르게 묘사한다.  
7시에 알람을 맞춘 날 바깥 소음 때문에 6시  
57분에 일어나면 아까운 내 3분, 사람은  
깨어나기 3분 전까지의 꿈을 기억한다는데,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느긋한 아침, 엄마가 나를 일찍 깨우시면  
잠결에 3분을 요청하고 징직한 3분을  
더해주셔도 내게는 스치는 순간에 불과하다.  
과제 제출이 10분 남은 상황에서 3분은  
찰나와 같다.  
나에게 3분이 언제 가장 무거울까? 나는 언제  
180초를 커다랗다고 표현하는가?  
어떤 때를, 어떤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 본 사람은 쉽게 알겠지  
기다리는 일은 허공을 하염없이 굽는 일  
겨울에 꽃을 기다리고 여름에 눈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다.  
내가 기다릴 때 180초는 길어진다  
시간은 멈춰있고 나의 목은 길어져 차라리  
이대로 180초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이 홀로 앉아 기다리는 이유는 날아가는 게  
소용 없기 때문이겠지.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느 것도 효과  
없기에  
그저 시계를 노려보며 초침에게 눈치나 준다.



12



5



2024/05/15

wednesday, am 12:00 | 22읽음  
한필섭(사회학과,20182237)

#6일차 #3분

어제에 있어 시간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데 3분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역할을 해주는 시간과 같았다.

라면이 익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3분은 정말 길게 느껴지고 군대 훈련소에서 전화 통화를 위한 3분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그외에도 3분카레 등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3분은 많은 개입이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과제를 제출하기까지 시험을 제출하기까지의 3분은 모든 것을 정리했던 시간들이다. 이 글을 적는 10분에서도 7분을 제외한 3분은 검토를 하는데 오늘도 틀린게 없는지 내용상 어색한 것은 없는지 잘 검토해야겠다

😊 15    💬 3



2024/05/15

wednesday, am 12:21 | 44읽음  
한필섭

#6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3분, 180초. 오늘도 때로는 짧고, 때로는 너무 긴 시간에 대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이다 보니 수강신청, 과제, 출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요. 3분짜리 인스턴트 식품, 3분짜리 음악.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3분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 자리에 누워 3분의 음악감상, 3분의 명상, 3분의 멍때리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은 휴일입니다. 7일차 글쓰기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열립니다.)

😊 16    💬 0



2024/05/16

thursday, am 7:46 | 34읽음  
김안선

#7일차 키워드 : 다이소

'국민가게, 다이소'.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우스갯말로 '다잇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000원숍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없는 게 없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T이용하는 생활용품 가게가 되었죠. 학기초가 되면 문방용품을 사러 이제는 문방구가 아닌 다이소를 가고, 대학가 근처에는 개강 무렵이면 자취용품을 사러 온 대학생들로 붐비죠. 요즘은 화장품, 옷, 식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이소 추천템과 같은 글이 자주 올라올 정도로 인기 품목도 많습니다. 편의점처럼 서민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 다이소일겁니다. 하지만 다이소가 모든 상품을 흡수하면서 동네의 소소한 가게들이 장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주범으로 다이소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이소를 찾는지요? 주로 무슨 상품을 사는지요? 다이소에 얽힌 일화는 없는지요?

😊 13    💬 0



2024/05/16

thursday, am 9:14 | 22읽음  
장지은(20212564/인문방송융합전공)

#7일차 평소 귀차니즘(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이것은 '귀찮-'이라는 어간에 '행위, 상태, 특징, ~주의'라는 뜻의 추상 명사로 만드는 영어 접미사 -ism을 붙인 신조어)이 심한 편이라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다이소를 가기보다는 쿠팡 로켓배송을 애용한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필요하거나 로켓배송 최소비용을 채우기 어려워 배송이 불가피한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다이소로 향한다.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다이소는 후평동에 위치해있는데 그 옆에는 바로 생활의 달인에 나온 만두가게가 있다. 다이소에서 우리 집을 다시 되돌아 가기 위해서는 그 만두가게를 지나야 하는데 항상 뿌연 연기에 매료되어 새우만두 한 판과 고기만두 한 판을 사곤 한다. 즉, 내가 다이소에 가는 날은 만두를 먹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 글을 읽는 학우들이 후평동 다이소에 갈 일이 생긴다면 꼭 그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최근에 다이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제와 관련된 일화이다. 집에 걸어가다가 거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다이소를 들리려고 했지만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인터넷으로 거울 하나를 사기에는 배송비가 아깝고, 지갑을 들고 다시 나오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어쩔法子-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다이소에도 카카오페이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부디 카카오페이가 가능하기를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예상 외로 다이소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하여 많은 결제수단이 가능했다. 속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카카오페이로 거울을 구매할 기억이 남아있다.

😊 16    💬 1



**2024/05/16**  
thursday, am 10:03 | 23위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7일차 #다이소

다이소와는 추억이 많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게.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다이소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할까? 학생때는 마냥 싸다고 좋아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의 자본으로 대량 유통을 전략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가격보다도 판매량을 우선 한 다이소는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빈대로 소매업자들에게 있어 대기업 자본으로 인한 힘포였을 겁니다. 저도 한 소비자로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다이소가 고마운 한편 제가 창업을 하거나 소매업자의 입장이 된다면 마냥 고맙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단일화 되고 통일화 된 물품을 파는 다이소와는 달리 개성이 뚜렷하고 특색있는 상품 판매가 이루어 저야 시장 경쟁력이 생기겠죠. 고물가 시대에 대기업이 점점 더 유리한 시장이 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이 보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값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주변 가게에 가서 사는 것. 사회적 약자끼리 돕는 게 멀리 보면 이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16    💬 2



**2024/05/16**  
thursday, am 10:06 | 23위음  
한주현(미티어스쿨.20242586)

#7일차 #다이소

제 볼카는 시골이라 다이소 한 번 카력면 차 타고 시내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원래 6년 전에 집 앞에 작케 다이소가 있었는데요.

없어져서 매우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뜨끈 뜨끈한 대형 다이소가 집 앞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저는 기속시 생활 중이라 정말 모든 생활용품을 다이소에서 샀다고 할 정도로 다이소를 정말 좋아하고 방문 할 때마다 거의 큰 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ㅎㅎ

그런데 저는 안 좋은 소비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충동소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이소를 가면 항상 쓸데없는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귀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싼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 모르게 충동소비를 하더라고요.

이번 글을 읽아 앞으로 다시는 충동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겠습니다

😊 16 💬 2



2024/05/16  
thursday, am 10:53 | 20위음  
합채민(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7일차 #다이소

다이소

저렴한 가격으로 진열된 소망들이 다이소 매장 곳곳에 가득 찬다. 천원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오천원으로 완성되는 소소한 행복

작은 방 한구석을 채우는 인형 하나, 내 손에 꼭 맞는 필기구와 노트 한 권. 다이소의 진열대에는 소박한 소망들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이곳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이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삶의 작은 틈새를 채우는 어둠과 같은 공간.

😊 13 💬 2



2024/05/16  
thursday, am 11:04 | 21위음  
유영주(철학/20202550)

#7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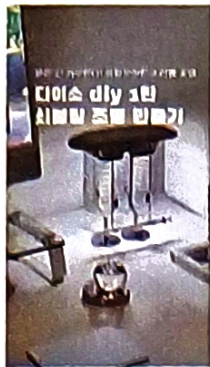
최근 트릭스토어의 역할마저 다이소가 잡아먹고 있다. 준수한 브랜드의 확장품들이 다이소에 입점했고, 품질 대란까지 일어났다는 기사를 봤다. 다이소가 국민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이소는 내게 그저 바쿠니 맛집일 뿐인데, 친구들은 다이소 리틀?샷?을 품을 들여 공동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소가 연진연승 중이다.

이런 지표보다 더 내 눈에 띄는 것은 다이소의 서로 다른 몇 가지 제품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내는 쇼츠의 성공이다. 포인트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천원짜리 잡동사니들로 아예 다른 용도의 물건을 탄생시키는 것인데, 조잡하지 않아 보이게끔 하는 영상 연출 덕에 혹해서 다이소에 달려가고 싶어진다. 다이소의 특징점인 부담 없는 가격대가 사람들의 창의성을 거침없이 발휘하게 해주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부담 없는 가격이 오히려 쓸데없는 소비와 낭비를 부추기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좀 망가져도 금방 다시 사면 되니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플라스틱 제품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땐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지금은 임시로 잠시 쓰다 조금만 낡아도 버릴 수 있는

값싼 재료가 되어버렸다. 이 집을 다이소가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다. 튼튼하고 제값  
하는 제품 하나로 오래 쓰는 것과 다이소  
제품을 짧게 짧게 쓰는 것에 비슷한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아무래도 좋은 건 신 걸 애지중지 오래 쓰는  
것일 테다.

<https://youtube.com/shorts/h17Utu0wO7E?si=NtHwK33dfMTB7JnX>



다이소 dly 1탄 최블링조밍 만들기  
#데스크테리이 #다이소 #다이소댄  
#다이소dly #dly #조밍추천  
#조밍만들기  
www.youtube.com

😊 15    💬 3



2024/05/16

thursday, pm 12:25 | 20원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 #7일차 #다이소

부담 없는 가격, 가성비 좋은 제품, 없는 게  
없는 곳.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통합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성비'는 대부분 사람의 최고  
이익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디자인과 성능의  
제품의 경우에 1천원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고른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한  
가게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화장품,  
취미생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이 있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한 번이라도 꼭  
가봤을 것이다. 가장 비싼 제품이

5천원이므로 부담 없이 몰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다. 칫솔이나 치약, 수납함, 식기 등  
필요한 것들이 모두 있다. 가격이 저렴하여  
부담 없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이소는 온라인 쇼핑물 익함을  
하는 오프라인 쇼핑물이 아닐까?  
전자기기 하나로 여러 온라인 쇼핑물을 쉽게  
구경하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이소라는 하나의 가게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급하게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다이소를 찾곤  
한다. 다이소에는 대부분 자신이 찾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성비 좋은 온라인 쇼핑물을 한 번에  
모아둔 오프라인 쇼핑물을 다이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16    💬 4



2024/05/16

thursday, pm 12:29 | 20원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 #7일차 #다이소

다이소에서 찾는 것이 없을 확률보다 찾을  
확률이 더 높을 터다. 우리의 생활에 침투한  
다이소의 위력은 가히 대단하다. 누군가의  
수납장, 누군가의 지퍼백, 누군가의 편지지,  
누군가의 간식까지도 같은 곳에서 나왔다니  
놀랍게 편리한 셈이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고객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는 곧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금은 다이소가 웬만한  
도시에는 존재한다. 규모가 제각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생필품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당일  
급하게 구할 필수품이 있다면 다이소로  
가라고 말이다. 이젠 다이소를 가격 면에서  
이기긴 어려워졌다.

😊 15    💬 2



2024/05/16  
thursday, pm 1:01 | 22원음  
컬렉빈(경제학과/20195112)

### #7일차

현대사회의 만물상.

가게 이름 그대로 우리가 찾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다 판매한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사실 소비가 많지 않은 나는 다이소를 갈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다이소에 대한 경험보다는 어렸을 적 구멍가게 같은 동네 문구점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하다.

요즘은 e커미스나 다른 체인 문구점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학교 앞에 작은 문구점들이 거의 없어졌다. 한 단계 넘어서 아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전부 제공해 문구점 갈 일이 더 적어지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문구점의 모습을 못 볼 수도 있겠다.

초등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나란히 붙은 두 문방구가 있었다. 문방구 출입문 앞에 붙인 학년별 준비물 명단, 학교시간에 몰려든 아이들과 친구들끼리 사먹는 100원 200원짜리 불량식품, 좋은게 나올까 기대하면서 샀던 카드와 딱지상자, 그리고 비싼 학용품들 사면 항상 연필이나 지우개를 하나씩 덩으로 주시던 아주머니까지 지금은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들이다. 미래로 향해가며 과거보다 더욱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편의를 위해 여러 추억이나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16    💬 5



2024/05/16  
thursday, pm 1:05 | 22원음  
박지호(식영,20213818)

### #7일차

다이소

다이소는 정말 혁신적이었다. 값싼 물건들과 좋은 퀄리티의 마케팅은 정말 나에겐 신선했다. 예전에는 물건의 질이 안좋았지만 요즘은 물건의 질도 좋아서 아주 많이 애용하고있다. 나만의 다이소 꿀템을 추천하려 한다! 과자, 간식류, 지퍼백, 화장품 퍼프, 소분통, 노트가 있다! 다른 학우들의 다이소 꿀템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16    💬 2



2024/05/16  
thursday, pm 1:39 | 20원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 #7일차 #다이소

다이소는 없는 게 없는 현대의 만물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다이소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다 있다. 또한 싼 값에 살 수 있었기에 중고등 학생 때부터 애용하던 장소였다. 때로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야지'라며 다짐하고 갔지만, 싼 가격에 정신줄을 놓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과소비도 했지만 말이다. 나는 가끔 다이소를 생각하면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모든 물건을 갖고 있던 친구가 생각난다. 그 친구는 머리끈, 생리대, 필기구, 물티슈와 같은 물건과 더불어 심지어 간식까지 친구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다 빌려주거나 나눠주었던 친구였다.

엄청 착했던 친구라서 반에서 그 친구를 싫어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했던 아이 같다. 어릴 때는 필요하다는 모든 물건이 그 친구의 가방에 있어서 신기하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철저한 준비성으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학우님들도 중고등학생 때 반에서 모든 물건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지 않으셨나요? 있었다면 댓글로 추억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 16    💬 2



2024/05/16

thursday, pm 2:52 | 22원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 #7일차 다이소

나에게 다이소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큰 가게로 다가왔었다. 어릴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물건을 다 팔고 있음에도 다이소를 가기가 꺼려졌었다. 왜냐하면, 큰 공간안에 흰색으로 밝게 비추는 형광등과 그 아래에 형형색색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물건들을 10분 이상보면서 쇼핑을 하니 눈이 어지럽고 금방 피로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이 어지러운 공간을 나가고 싶어했었다. 근데 요즘에는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소에 가면 내가 사야할 물건들을 먼저보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물건들만 보면서 쇼핑하곤 한다. 필요한 것만 보니까 이전보다는 눈이 덜 피로하고 구매할 물건도 찬찬히 자세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다이소에서 가장 많이 사는 물건은 바로 스티커이다.

어릴 적부터 이쁜 스티커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나의 취향에 맞는 그런 스티커를 보면 지나치지 않고 1개라도 구매하고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소확행을 느낀다. 이전에는 문빙구나 페이퍼문구, 일파문구같은 곳에서만 스티커를 구매했었고 또 구매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이소에도 스티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퀄리티도 좋고 무엇보다 여러장의 스티커가 천원 밖에 안해서 스티커는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있다. 다이어리에 막 쓰는 스티커도 구매하기 좋고 무엇보다 시즌에만 나오는 스티커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면 이 스티커들을 구매할 수가 없어 시즌일 때 웬만하면 빨리 구매하는 편이다.

근데 한 때는 다이소에 가지 않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일본기업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했고, 몇 년전에는 불매운동도 일어나면서 자연스레 나도 '일본기업이니까 구매하면 안돼'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박히면서 다이소에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있는 다이소의 지분을 한국이 점유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다시 다이소를 이용하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매운동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도 무인양품이나 이케아, 다이소 같은 가성비 좋은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 16    💬 1

우리끼리, Band!



2024/05/16  
thursday, pm 3:29 | 21위  
정우현(철학과/20231084)

## #7일지

[다이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다이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나는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는 것들을 많이 시곤 했다. 돗자리, 자물쇠, 신발 깔창 같은 것들이었다.

한번은 너무 이쁜 디자인으로 빙합화가 나와서 5개나 산 적이 있다. 서울에서는 품질이 되어 못 사는 데 여기엔 정말 많이 있었다. 사고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아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한 기억이 난다. 낱들을 갖지 못하는 것을 5개나 시다니, 네가 제일 트렌트하고 유행의 선두주자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착용감이 편하진 않았다. 사이즈도 한 사이즈밖에 없었기에 딱 맞지 않았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좋다는 2천원 메모리폼 깔창, 5천원 수납 보관함 등 샀었지만 다 버렸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수납 보관함을 설치하지마자 비틀거리면서 망기졌다.

많은 쇼핑을 통해 결국 가격은 품질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다. 낱들이 아무리 이쁘고 가격도 괜찮다고 해도 이제는 썩찍토 인한다. 네가 직접 써보고 괜찮은 물건들만 사기 때문.

다이소는 값싼 가격으로 나의 쇼핑 방식을 알려준 고마운 장소다.

사실 다이소라는 게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파는 곳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 다이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굳이 다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모두 안다. 절대 그 결핍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다이소의 모든 것들을 기저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면.



😊 14    💬 3



2024/05/16  
thursday, pm 3:36 | 18위음  
손지민(김호학과\_20236255)

### #7일차 #다이소

다이소, 빨간 간판에 두꺼운 흰 글씨하면 딱 떠오르는 곳인데요, 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더욱 많이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없는 게 거의 없죠? 싼 가격에 어느정도 품질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저같은 돈 없는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생활 용품을 사러가기 제격인 곳입니다. 저는 1학년 학기초에 춘천 명동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옷걸이와 빨래바구니, 욕실용 슬리퍼 등을 샀습니다. 심지어 계절이 바뀌면서 옷이 늘어나자 다이소에 다시 방문하여 옷걸이를 더 구매하였습니다.(기숙사에 있는 옷들을 집으로 가져가면 됐었지만, 귀찮아서 그러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해가며 옷걸이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샀던 물건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기숙사 생활의 질을 잘 유지해주며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산 물건들은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자신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이소에 발길을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소에서도 제가 비추천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테이프와 충전기인데요. 우선 저는 흔히들 부르는 '다꾸', 즉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여 마스크테이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싼 가격에 여러 개의 마스크테이프를 묶어서 팔기 때문에 한 번 사본 적이 있었는데, 디자인은 예뻐지만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은 물건들도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이소에 계속 가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싼 가격에 품질이 보장된 물건들이 있고, 없는 물건을 찾기도 어려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멍뚱으로 나뭇잎을 가려고 했는데 이참에 다이소에 들러서 생활용품을 구매해 가야겠습니다.

😊 13    💬 2



2024/05/16  
thursday, pm 3:58 | 22위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 #7일차 #다이소

다이소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가게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제품이 있다, 없는게 없다, 저렴하다 등 좋은 조건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기도 많다. 다이소 물품이 질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도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다이소를 선택해 가는 것 같다. 중학생 때 본가에서 10분정도의 거리에 다이소가 있었다. 그때 난 한창 까르보불닭이라는 라면에 빠져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편의점에서 1600원을 내야 살 수 있었던 까르보불닭 컵라면을 다이소에서는 1000원에 팔았었다. 다이소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알고나니 600원의 차이가 크게 느껴져서 까르보불닭이 먹고 싶을 때 다이소에 가서 천원주고 사서 집에 가서 먹었었다. 그래서 한동안 편의집에 잘 가지 않았었던 것 같다. 마치 나 혼자만 아는 컵라면 싸게 사는 법을 발견한 느낌이 들어 더 자주 갔던 것 같기도 하다.

그때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파는 물건 덕분에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근처 소소한 가게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싸게 살수 있어서 좋은데 근처

작은 가게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크게 생각해 보면 동네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진다. 더 깊게 생각해 보니 요즘은 다이소처럼 저렴하게 뭐든지 팔고 심지어 배달도 무료인 중국앱이 있다. 나는 그 앱을 한번도 이용해본 적은 없지만 나라에서 그 앱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소도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동네가 아니라 나라로 따져보니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제품을 잘 보고 돈을 더 내더라도 질 좋은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소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보고 다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13    💬 2



**2024/05/16**  
thursday, pm 5:14 | 23위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 #7일차 #다이소

신기하다. 오늘 마침 다이소에 가려고 했는데 제시어가 다이소라는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우연이 주는 행복, 텔레파시의 행복인 것 같다.

어떤 날은 살 것이 없더라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사기도 한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에 친구를 기다리면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며 기다리기 딱 좋은 공간이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가성비가 있나보다

주로 무엇을 사는지 생각해 보면 옥스포드 공책을 산다. 수업에 사용하는 공책 중 가장 잘 맞고, 필기감이 좋다. 오늘도 기록을 마무리하며

### 구매한 공책을 펼쳐본다

😊 16    💬 4



**2024/05/16**  
thursday, pm 6:18 | 16위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 #7일차

다이소에 대한 기억으로 예전에 보조배터리나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샀던 거 같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필요할 때만 급수 쓰고 쉽게 버려도 인이까운 저렴한 편의점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을 한 건 스티커 이름표 만드는 기계가 들어오면서입니다. 품질 좋은 물건들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은 다이소 추천템과 같은 영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이 있는데 사라사 볼펜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가 좋은 점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과 한가득 사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천원 2천원짜리 물건 한가득 살 때면 알뜰하게 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끔 급하게 충전기, 이어폰, 마우스 등을 사러 갈 때 5천원인 것을 보면 또 다이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불평을 하고는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욕심이 꽤나 많은 거 같습니다.

글로 쓸 때는 뭘 쓰지 고민 하고 있었는데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다이소에서도 재밌는 경험이 꽤나 있었던 거 같습니다.

😊 10    💬 3



2024/05/16  
thursday, pm 7:36 | 16일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7일차

다이소는 한 두번 사용해도 싼 가격이니깐 괜찮다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화장품의 등장으로 그 생각이 사라졌다.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이 전년대비 80% 가량이 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통상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의류나 화장품 업체가 침체되기 마련인데 다이소는 오히려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다이소의 가성비 이미지에 맞게 최고가 화장품은 5000원에 그쳤고, VT 리들샷 대란 등 품질과 기능에 대한 이슈가 치고 올라와 다이소의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 보증 이미지까지 심어준 것이다.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스토어가 사라지고 독과점 상태가 되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다이소 화장품이 크게 이슈가 된 덕에 화장품 업계에서 다시 공정경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이소의 다양한 카테고리 중 하나라 화장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올리브영에 비해 그 크기는 작지만 착한 가격과 보장된 품질은 충분히 그 간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기대가 된다.

😊 11    💬 1



2024/05/16  
thursday, pm 8:25 | 19일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7일차

#다이소

<가치>

매번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 단편 소설을 써왔던 나는 이번 7일차 키워드인 #다이소를 보고 멈췄다. 오늘은 소설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는 다이소 알바를 2년 동안 했었다. 흔히 '꿀알바'라고 불리는 공공 기관 아르바이트나 사람이 드문 개인 카페 알바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눈 깜짝할 사이 마감이 되고는 했다. 당시 나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던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다이소 알바가 딱히 반갑지만은 않았다.

다이소는 마트 쪽 길 건너편 건물 2층에 자리했다. 매장은 그닥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수였고,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다이소로고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가끔씩 등근 모서리에 달린 소형 전구가 반짝거리기도 했다. 다이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머니와 같은 나이대로 보였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나를 반겨주시지는 않았다.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아저씨께 얼핏 들은 얘기로는 생각보다 일이 힘든지 젊은 애들이 일주일도 안돼서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했다. 어차피 얼마 안 하다가 다들 관투니, 여기 사람들은 쉽게 정을 인준다고 그러셨다. 이해가 됐다. 가지마자 상품을 정리하고 진열하는 방법, 매대 관리, 고객 응대 방법을 배웠다. 이모늬는 감정 없는 표정이지만,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일 한지 몇 달이 지났을까.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하루는 초코우유를, 그 다음날에는 뽕을, 나도 모르는 사이 옆에 슬쩍슬쩍 두고 가셨다. 때는 마감하는 날이었다.  
"이거 가져가. 맛 좋더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엄 이모님과 처음 대화한 그 날이다. 뽕글뽕글 잘 익은 수박을 마감 때 남몰래 챙겨주신 것이다. 평소 먹었던 수박보다 왠지 모르게 더 달달했던 이유는 뭘까.

그 이후 미엄 이모님과, 다른 이모님들, 그리고 반장님과 우정은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 되었다. 바쁜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겪은 스트레스, 가깝기다 오는 집안 손님 등 힘든 고민을 털어놓으면 지식처럼 화를 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마, 저렇게 해마 방법을 제시해주시기도 하셨다. 그곳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과 지혜는 어디서도 경험 못할 값진 것이었다.

그렇게 다이소에서 일하는 단순한 직업 경험을 넘어서 인생의 소중한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 알바를 그만둔 지금도 가끔씩 도와드리러 가고, 이모님들과 카톡도 간간히 주고받는다.

나에게 있어 다이소는 가장 의미있는 알바였다.

😊 13    💬 3



2024/05/16  
thursday, pm 8:36 | 17918  
이지원(사회복지학부 20242387)

#7일차 #다이소

[ 일곱 번째 접시 ]

뽕간 색과 히안 색의 조화, 다이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가게입니다. 주변에 자주 보이면서 가격도 싸고, 대부분의 물건들과 신박한 것들도 죄다 거기에 모여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층까지 확장된 지점인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눈도 즐거워서 심심할 때 주로 한 번씩 들리는, 부담 없는 카페같다고 해야 할까?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 구경하기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시중에 파는 과자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을 알고 주로 과자나 사탕류를 삽니다. 다들 무엇을 주로 사시나요?

[ 뽕뽕뽕, 오늘의 뽕 접시가 튀었습니다. ]

😊 12    💬 3



2024/05/16  
thursday, pm 9:03 | 20818  
이재원(미디어스쿨/20242502)

#7일차 #다이소

다이소는 제가 처음 출전에 내려왔을 때 혼자 간 장소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혼자서 지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간질거리고 실실생생 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생필품들을 내가 직접 사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내 방을

잘 치우고 정리하겠다는 초심을 지금도 잃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  
 생각해 보면 이곳에 처음 온 날이 까마득히 멀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눈앞이 깜깜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수많은 날들을 보낸 것 같네요.  
 초심 잃지 말고 처음 다짐 그대로 유지하는 하루 보내요. ^\_ = ☆

%Mark-200

😊 14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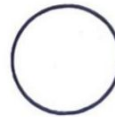
2024/05/16  
 thursday, pm 9:17 | 17원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981)

#7일차 #다이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다이소의 유혹은 탈롭하다. 고물가 시대의 가격이 싸다는 것 하나로 메리트가 크다. 여유롭게 킴을 켜다 칩근쳐 다이소가 보일 때면 꼭 들러 찬찬히 구경하곤 한다. 칩 근처에 컨를 통째 다이소가 있는데 다른 지점엔 빨리 나가고 없는 신상 물품이나 인기 상품들이 있어 든든하게 느껴진다.

이젠 내 생활속에서 빠질 수 없는 다이소. 가격과 함께 품질이 올라가서 오래오래 함께하는 국민 기업이 되기를 (이미 이루어진 것도 같지만.)

😊 11    💬 2



2024/05/16  
 thursday, pm 9:42 | 16원음  
 박혜원 (생명과학과 20227081)

#7일차

고물가 시대가 오며 지속되면서 '저가'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다이소는 이제 대한민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전반적인 생활용품 모두 다이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화장품이나 식품들도 이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광범위한 종류의 물건들이 최대 5,000원 안에서 그 금액이 측정된다. 모두 균일가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다이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하철역이나 주택가 등, 사람이 많은 곳에는 다이소가 있다.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매장도 많아 매우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를 팔고 있기에 타 업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마트나 생활용품점, 문구점이나 화장품 가게, 심지어는 SPA 브랜드까지 모두 다이소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다이소의 영향에서 운 좋게 빗겨나간 주변 상권들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다이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세 학기의 시작이나 각종 기념일의 근처에 다이소 매대는 비어 골격이 드러난다. 한국의 모든 연령대가 이곳에서 한 번쯤은 만족한 쇼핑을 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쉬린이나 테루,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제대로 확립된 배송 체계(해외 직구도 간편하다)를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저가'를 넘어 '초저가'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모습만 사람인 철개쿠리었던 탓일지, 나는 사실 이 흐름에 같이 흘러가고 싶지 않다. 여러 초저가 업체가 판을 치지만 내가 사용하는 물건으로 '초저가'를 원하지 않는다. 다이소의 경우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 및 유통하기 때문에 그 값이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평범한 품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다이소는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이다. 저렴함이 앞서 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 특히 특이한 상품,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한 번쯤은 시도해 봐도 괜찮을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가 경쟁의 결론이 전체적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과 동시에, 비러지는 값싼 플라스틱 물건들로 환경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저렴한 만큼 쉽게 비려질 수 있다. 이것들은 대용량으로 생산되니, 비러지는 양은 몇 배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튼튼한 물건을 오래 쓰고 싶다. 킥잡한 소모품은 다이소도 좋지만, 식기나 필기도구 등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것들은 저가의 빈대밭에서 서 있는 프리미엄으로 구매하는 편이다(그래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어유롭지 않다). 나를 내가 가장 생각해 주고 위해주는 기분이 들어 사용할 때마다 기분도 좋고, 물건 역시 튼튼해서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시작은 나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소비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것이 세상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지금, 나의 소비 패턴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거들이 '대용량'으로 존재한다.

😊 12 💬 8



**2024/05/16**  
thursday, pm 9:48 | 15읽음  
지유미 (심리학과 20232130)

### #7일차 #다이소

다이소는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작은 돈으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연령층의 관심사에 중점을

주고있어서도 있습니다.

제가 다이소에게 가장 놀랐던 점은 유행에 민감하고 피트백에 빠르다는 점입니다. 유행이 시작하는 동시에 다이소에도 관련 상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빌빠른 민감성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이소는 카드 결제 시 본인이 결제할 수 있도록 계신대를 어렵게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줄을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극도의 효율성 또한 잡았습니다.

다이소는 '국민키케'라고 불립니다. 크 말처럼 다이소는 없는 곳이 없고 모두가 찾는 공간입니다. 다이소 창업주께서 내신 책의 제목은 '천 원을 경영하라'입니다. 작은 돈이라고만 여겨졌던 천원이 가치있게 여긴다는 창업정신이 지금의 다이소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 11 💬 2



**2024/05/16**  
thursday, pm 10:03 | 17읽음  
황보승표(리시아학과 20211733)

### #7일차

다이소는 한국기업인가? 일본기업인가? 다이소의 국적 논란은 한때 큰 화두였다. 현재 국내 다이소의 국적은 어디일까? 본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지분 100%의 국내 기업이 맞다. 다이소의 역사는 창업자인 박정부가 1992년 2월에 아성산업으로 설립한 뒤 일본 100엔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97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아스코 이븐플라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2001년 일본 다이소인 대창(大創)산업이 약 40억 원을 투자해 다이소아성산업 지분

34.21%를 확보했으며 이때 일본의 다이소라는 상표권을 로열티 없이 들여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다이소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국내 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운영됐으나 30% 이상 되는 일본 주식 지분율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국적 논란이 불거졌다. 다이소의 국적 논란은 2023년 12월에 아성다이소가 2대 주주인 일본 다이소산교(대창산업)의 지분 전량을 5,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국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요약하자면 다이소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으나 일본의 개입 없이 경영을 이어왔고 2023년에 일본 지분의 전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다이소는 얼얼한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10    💬 4



**2024/05/16**  
thursday, pm 10:22 | 15읽음  
방에빔(중국어과,20201519)

#7일차 #다이소

심부름값으로 받은 천원, 이천원을 모아 쇼핑을 가던 초등학생때의 마음을 요즘에도 느낄 수 있는 곳은 다이소 뿐인 것 같다. 샴쌍돈을 바치 주머니에 쿠키넣은 채로 투명한 유리문을 열면 느껴지던 에어컨 바람, 필요없지만 갖고 싶던 통그란 비즈, 스프링, 샤프, 지우개. 계산할 때 적잖이 느끼던 긴장감, 꼬깃꼬깃한 천원. 옛날의 그 모든게 하나의 통화책처럼 떠오른다.

천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좀처럼 없는 요즘, 다이소는 그런 우리 시대에서 약간의 숨 쉴 틈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다이소는 우리에게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이소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감정과 연결된 가치까지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내 어릴적 백화점이었던 다이소가 이제는 나의 생활 속 쉼터이듯이.

내가 다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이 곧 나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듯 하다. 나는 뜨개실과 편지지를 산 기억이 많다. 나는 몇 명에게 편지를 전해왔을까? 내가 뜯 목도리와 가방은 다들 잘 갖고 있을까?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글을 쓰며 깨달아간다. 조만간 오렌민에 편지지를 사러 가야겠다.

😊 10    💬 3



**2024/05/16**  
thursday, pm 10:52 | 11읽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7일차 #다이소

마침 어제의 일입니다. 다이소에 칼 일이 있냐는 물음표가 왔죠. 음.. 다이소란 다양한 생활용품 문구류, 홈데코, 의류, 화장품, 식품 거의 모든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명 소매점입니다. 딱히 필요한 물건은 없었지만, 워낙 상품이 많아서 낯은 시간에 구경을 자주 해요.. 어제도 영화 시작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물품을 찾으려, 저는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규모가 작은 매장이라 찾는 물품 2가지는 없었지만, 집에 가는 길 다른 지점의 다이소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거리가 엄청 멀진 않았는데 지점이 여러 군데 많아요. 물론 편의점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제품을 파는 곳이니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아 찻, 그리고보니 케신 할 때 구경하며 고른  
 제 물건 금액이 더 높게 나왔어요.  
 출동 구매하기 쉬운 곳이니 정말  
 조심하세요.. 금액에 살짝 놀랐지만 그래도  
 제 콧의 조각을 사서 정말 기뻐요.  
 인젠가 당신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곧 불이 꺼질 거 같네요,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길.

P.S. 콧의 조각이 무엇인지는 비밀이에요



2024/05/16  
 thursday, pm 10:53 | 19읽음  
 박현아 (인이병리학과, 20233030)

#7일차 #다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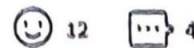
우리 동네 시내에서 민남의 광장을 농협은행,  
 올리브영, 롯데리아, 그리고 다이소였다.  
 몇년 전까지는 산리오와 콜라보 했다는  
 공책을 사고 다녔지만, 지금은 화장품을 사러  
 간다. 지난주에 본가에 가서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자그마치 23000원이나 쓰고  
 왔다...

코로나로 롬스, 말라블라가 철수하게 되며  
 올리브영이 H&B 업종 오프라인 독과점을  
 하게 되면서 '올리브영의 새로운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보니 다이소가 쟁쟁한 클리오, 탁터지,  
 VT, 투쿨포스쿨, 더셀 등의 국내 화장품  
 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 올리브영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가격 거품을  
 없애고 5000원에 수분크림, 모공애플,  
 하이라이터와 쉐딩...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다. 솔직히 올해에 리들샷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때 리들샷이 없는지 매대를  
 한번씩 힐끔거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아직도 손엔박

컬러밤을 찾아다니다.)

색조와 기초 뿐만이 아니다. 잡에인과 같이  
 협업하는 비누 브랜드 동쿠발 또한 다이소와  
 콜라보하여 새로운 신하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쿠발 비누 가격은  
 7000-10,000원대였다면 다이소에서는  
 5000원 이하일테니, 동쿠발을 이용하려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다이소는 정말.. 카기 편해졌다. 이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시킬 수 있다. 물론 아직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적립도 계속 안하고  
 있지만 이제 2024년 지금의 다이소라면  
 올리브영의 적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024/05/16  
thursday, pm 10:55 | 16위음  
김준호 (컨텐츠IT)

#7일차

다이소.

없는게 없는 다이소, 간단한 분리수거용 봉투부터 공구세트, 여행용 세면백, 청소용품등 다양한 물건이 많아서 덕분에 부담가지지 않고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다녀오곤 한다.

싼 가격대, 많은 물품, 깔끔한 인테리어 덕분에 큰 부담 없이 갔다올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덕분에 다이소는 나에게 많은 핑계로 쓰이기도 했다. 지금 사지 않아도 되는데도, 다이소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데도 굳이 다이소 핑계를 대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보고싶은 사람에게 가기도 했다.

"그냥 뭐.. 다이소 가려고", "다이소에 살게 있어서" 같은 능청맞은 연기는 멀이다. 다이소 없었으면 무슨 핑계를 댈까 싶지만 솔직하기 어려운 마음에 다이소가 부담없는 방패인건 사실이다.

오늘은 또 어떤 핑계를 댈까.  
"그냥... 보고싶은건 아니고 다이소 가는길에 들릴거야."

😊 12    💬 3



2024/05/16  
thursday, pm 11:03 | 21위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7일차

다이소

저에겐 난해한 키워드였습니다. 매번 추상적인 글만 썼던 저는 이러한 명확한 키워드에 대해 어떻게 써야할 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화 하나를 끄집어 써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다이소에 가 아이쇼핑을 하는 것이 제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였습니다... 유치하죠? 아기자기하고 신기한 것들을 둘러보면 난잡했던 머릿속이 금방 풀어져서, 조금이나마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땐 다이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 결과 충동구매가 좀 있긴 했지만요)

읽고 계신 몇몇 분들도 다이소에서 아이쇼핑 좀 즐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만큼 시간 잘 가는 일 없거든요 ㅋㅋ

다들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꼭 있길 바라며...! 힘찬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 13    💬 4



2024/05/16  
thursday, pm 11:09 | 17위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고물가 사막 속 한 줄기 가성비 🌧️

/

콩깃밥이 2,000원  
김밥이 3,400원  
국밥 한 그릇이 1만원을 넘는 시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딱히 실감은 나지 않는 요즘이네요.

지갑 닫고, 허리띠 풀라매고  
커피도 사지라 여기고 인 먹은 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외식은 끝도 못 꾸고  
집밥 해 먹으려고 집을 봐도  
몇 가지 답가지 않은 카트가 텅텅 비어있어도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뜨거운 고물가 사막 속에서  
한 줄기 가성비가 내리는 다이소를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이소 없이 못 사는 사람,  
가성비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 그런지  
다이소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라고  
선크림이랑 마스크 팩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또 쟁이러 가봐야겠습니다.

#7일차 #다이소

😊 12 💬 8



2024/05/16  
thursday, pm 11:28 | 15읽음  
합평성(사회학과,20182237)

#7일차 #다이소

내 기억상으로 중고등학교 때 다이소를  
처음봤을때 1000원, 2000원 가격이 딱  
떨어져 신기했고 그 당시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기에 개인적인 다이소의 이미지는  
잔돈없이 편리한 곳 이라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문구를 살 때는 문구절을 갖고

부모님과 함께 살이 생필품을 살 필요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다이소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기어 기숙사를 갖고  
간소화된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성비 제품을 찾아보고 있던 도중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 물건을 추천해주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다이소에서 내가 부족한  
물건들을 사주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  
사실 글을 쓰다보니 느껴졌지만 다이소는  
정말 어느순간 내 삶에 있어서 자주 가는  
장소가 되었다. 지금도 집에 물건이 떨어지면  
인터넷 구매를 할 때도 있지만 약속시간이  
납거나 외출이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를 간다.

막상 가서 사는게 없더라도 방문하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는  
즐거운 시간이 든다.

물론 그렇게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없다가도  
꼭 1-2000원은 쓰고 오게하니 다이소가 참  
장사를 잘 한다는 생각도 든다...ㅎㅎ  
아무튼 다이소가 이렇게 현재에는 많은  
골목상권들의 차지하고 있어 많은  
골목상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다이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개인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긴하지만 그건 프렌차이즈 커피가  
골목상권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 같고  
다이소가 잘못 했다고보다는 개인가게는  
개인가게만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이렇게 다이소가 주름을 잡고 있지만  
언제 또 추억의 장소가 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 12 💬 3



2024/05/17  
friday, am 12:23 | 30위음  
김안선

#7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예상했던대로 다이소 이용자들이 많군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만, 동네 상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소비를 하려는 여러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정 기업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이 소비에 대해, 여러 쇼핑 플랫폼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13    💬 0



2024/05/17  
friday, am 8:03 | 37위음  
김안선

#8일차 키워드 : 게임  
여러분을 게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LOL이나 컵은 사막칼은 온라인 게임, 올해  
시즌2가 나온다는 <오징어게임>, 칸타할  
가위바위보 게임 등 게임의 종류와 영역은  
넓고도 많습니다. 경제학이나 정치에서  
말하는 게임이론도 생각이 나는군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간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인생 자체가 게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게임을  
했나요? 최근에 몰두했던 온라인 게임이  
있나요?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이나 눈치  
게임에 능숙한가요? 오늘을 게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죠.

😊 17    💬 0



2024/05/17  
friday, am 9:07 | 23위음  
김주연(미디어스쿨.20242580)

#8일차 #게임

게임을 반대하다.

초등학생 시절에 나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마다  
루미큐브, 발리칼리, 우노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다.

고학년 뎀 게임보단 놀이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맥고놀이, 얼음땀, 경찰과 도둑?

중학생 시절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모바일  
게임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캡자키 유행했던  
어뎅어스라는 온라인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어떠한 한 게임을 생각하면  
그 게임을 했었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에 네가 뭐 하고 살았더라? 아 나  
크려고 살았지 ㅎ"

하며 추억을 곱씹어 되돌아보기도 한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 순간들이  
나에겐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 15    💬 6



2024/05/17  
 friday, am 9:37 | 22워음  
 합재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8일차 #게임

-연

연이 피어나고

어여쁜 꽃,

어여쁜 녹색 열매를 품은 나무,

푸르른 달의 다정함이

따뜻하게 불어올 때,

비료소 붉은 열매가 피어나

아름다움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티어도 많이 올랐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는데 정말 많이 친해진 걸힘이 있어 연을 주제로 시를 썼다.]

😊 14    💬 4



2024/05/17  
 friday, pm 12:15 | 21워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8일차 #게임

폰 게임을 좋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바운스볼, 텡플런, 서브웨이스퍼, 쿠키런, 도망가친구들, 꿈의정원, 캔디크러쉬사가, 피아노타일, Rider, 프렌즈레이싱, 줌비고,

제오인격 등 엄청 많은 것 같다.

예전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하고있는 게임을 따라서 했다. 같이 게임하며 서로 경쟁하거나, 팀을 해서 단체를 깨나가는게 좋았다.

그 중 최근까지도 하던 게임은 줌비고랑 제오인격이다. 특히 줌비고는 아직도 게임이 있다.

줌비고라는 게임을 시작한건 중3 겨울방학때부터였다.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수업보다는 영화를 틀어주는 시간이 많았다. 그때 친구들이 폰으로 줌비고 게임을 하고있었다. 그 친구들이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모인 친구가 7명이었다. 많은 친구들과 줌비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 6명이서 할 수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에피소드만 했었다.

지금 줌비고를 한다고하면 사람들은 쟁민이 게임, 아오오니 라는 말을 많이한다. 쟁작 난 아오오니때 줌비고라는 게임을 몰랐어서 더 얘기할수가 없던 기억이 있다.

제5인격은 같이 줌비고를 하던 친구들 중 3명이 하고있던 게임이라 궁금해서 해봤다. 그 게임은 고등학교 올라가고나서 처음 했던 것 같다. 입문하기 어려웠는데 막상 알고나니 정말 재미있는 pvp게임이었다. 지금 내 밴드 프사도 제오인격에 조함사라는 캐릭터를 어떤 사람이 예쁘게 그린 그림이다. 사람들은 제오인격도.. 쟁민이 게임이라고 하거나 입문이 어려운 공포게임이라는 말을 많이한다.

'나는 왜 게임을 할까?'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들과의 추억, 키워둔 게임이 아까워서, 게임하며 만난 좋은 지인들 때문인 것 같다. 혼자 게임을 하면 아예 모르는사람들과 게임을 해야되는데 못하거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략을 따르지 않으면 욕을 먹거나 감퇴당한다. 그럴때마다 좀 상처를 받게된다.

그래서 공개방에 가서 게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게임을 다 접는다면 나도 게임을 접게 되지 않을까 싶다.

가끔씩 에타에 내가 하는 게임에 대한 글이 뜨면 반가운 것 같다. 내가 하는 게임을 알고있는 친구들이 '너 아니야?' 하고 연락이 오는데... 내가 쓴거 아니야 애들아....

😊 15    💬 0



2024/05/17  
friday, pm 1:02 | 20원음  
박지호(식명,20213018)

#8일차

게임

남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즐겨하던 게임은 어렸을적 친구들과 하던 게임이다.  
신발던지기, 경찰과 도둑,, 게임을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곤했다  
가끔 그 게임을 하던 친구들은 잘 사나 궁금해진다  
그땐 참 영원할것만 같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연락이 끊긴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인연이라는 것 인것 같다. 낯을 인연을 낳고 떠날인연을 떠나는것.  
게임이라는 단어에 그때 그 추억과 함께 그때의 친구들의 향기가 스쳐갔다.

😊 14    💬 4



2024/05/17  
friday, pm 2:53 | 21원음  
정한민(음합신소제공학/20206639)

#8일차 #게임

죽음의 게임이 시작되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무능한 지휘관의 명령, 적에 대한 어리석은 동정심, 서서히 흐트러지는 집중력, 인개처럼 피어나는 공포와 무지 등이 병사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장에 오래 남은 노병들조차 용기를 잃고 패전을 거듭했다. 적의 기동과 충격에 활과 칼을 쥔 조선이 쉽게 무너질 듯했다. 실제로 육지에서는 그러했고 임금이 외주까지 피신하기에 이르렀다. 카토 키요마사와 코니시 유키나카의 칼날이 앞다투어 왕의 용인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물길을 거머쥔 것은 조선의 수군이였다.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의 지휘 아래 단합한 수군은 결코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수군에게는 왜군을 무찌를 게임 체인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거북이를 본떠 만든 '거북선'이였다. 바닷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돌격선이 나타나면 혼란 속에서 왜군이 전의를 상실했다. 백병전을 불가한 선체와 화염을 내뿜는 화포에 적선이 불타고 부서졌다. 심지어 거북이의 머리는 선체 안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수도 있으니 압도적인 기술력이였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 체인저가 그러하듯 전투가 치러질 때마다 적이 영리하게 대처하고 가뭇이 녹록지 않아 서서히 출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린 자부할 수 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꾼 괴물을 말이다.



😊 12 💬 4



**2024/05/17**  
friday, pm 3:16 | 17일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02327)

#8일차

내가 처음 접했던 게임은 스타크레프트였다. 당시에 7살이었는데 TV중계를 통해 경쟁을 하고 이겼을 때 누군가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주인공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아버지께 스타를 배웠다. 이럴 때 조그마한 손은 키보드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고, 드래그 할 힘도 잘 안들어갔지만 네 의지대로 움직이는 유닛들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문득 드는 생각으로 나를 재능도 있었던거 같은데 한창 흥할 때는 네가 너무 이렸고, 조작 사건 이후로 리그가 사라지면서 이제 나한테는 추억의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옛날에는 게임을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스타를 하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교과서 눈에는 들어오나, 진짜 사람도 공격해보고 싶나 등 친구들한테는 그냥 어려운 게임을 잘하는 친구였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범죄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애로 보였던거 같다.

나는 지금도 게임을 꽤 즐겨하는 편이다. 특히 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러왔는데 되려 받으니깐 입 밖으로 욕이 많이 나왔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말투가 인건관계 속에서도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느끼고 고치는 중이다. 요즘은 게임에서 시비

톡톡 걸리면 그냥 못이넘기는 중이다. 이미 오늘 다양한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올텐데 어떤 종류의 게임이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서로 스트레스 인받고 재밌게 게임했으면 좋겠다.

😊 1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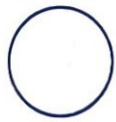


**2024/05/17**  
friday, pm 3:44 | 24일음  
박현아 (인어법리학과,20233030)

#8일차 #게임

시대가 좋아지면서 3D를 자주 접하게 되며 알았다. 나 게임 밀미 있구나!!! 그때부터는 안타깝게도.. 나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왜? 라고 말하면.. 그냥? 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게임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는게 더 재미있다. 그리고 나는 한번 빠지면 깊게 파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게임중독이 무서워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PC방 또한 거의 가지 않는다. 티케팅, 수강신청 외에 게임을 목적으로 가본 적이 없다. PC방에 가면 오히려 더 힘들다. 듣지 못한 욕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 때문이다. 게임은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자꾸 욕을 하고 짜증을 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시도하고싶지 않다...

😊 13 💬 2



**2024/05/17**  
friday, pm 5:47 | 19일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8일차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방과후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한글, ppt를 가르쳐주시던 선생님은

입상 수입 후 남은 시간에 cd를 통해 설치해주신 이름모를 게임을 하게 해주셨다. 그때까지만해도 tv로 보는 화면밖에 몰랐던 나는 crt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새로운 세상에 매력을 느꼈다.

온라인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미지의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다고 기억한다. 그 당시 친구들이 좋아하는 분야는 제각각 다양했지만, 게임만큼은 모두의 공통분모로써 관계를 가까이 좁혀주는 구심점 역할을 다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다같이 모여 pc방에서 수다를 떨면서 지낸 추억은 지금은 다시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뛰놀며 한 술레잡기 혹은 구슬치기, 현재는 컴퓨터, 콘솔,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미래에는 지구가 아닌 먼 행성에서도 서로의 모습을 원격으로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 13    💬 2



**2024/05/17**  
friday, pm 5:59 | 16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 #8일차

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 까지 게임애니아였다. 친척 형의 닌텐도를 보고 얼마에게 졸라서 이마트를 가서 샀다. 닌텐도를 가진 초등학교생인 나는 게임에 눈을 떠버렸다. 나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쓰고 게임을 했다. 정말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언젠서든 친척 형과 닌텐도를 하는 데이트가 행복했으니까.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였던 내가 게임을 안 하게 됐다.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밖에 없더라. 즐길 만큼 즐겼기에 게임을 이제는 멀리한다. 대신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니만 너무 인생을 못 즐기는 거 같았다, 하지만 내 인생이런 게임에서 필요한 건 독서한 걸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서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내 삶을 돌아봤다. 인생이라는 건 게임과 비슷하다는걸 느꼈다. 결국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인생의 난이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에서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은 나만이 할 수 있다. 결국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 맞인 것이다.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 나아가기 위해 금지와 의지를 갖고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

😊 11    💬 3



**2024/05/17**  
friday, pm 6:14 | 17읽음  
정지은(20212564/인문방송융합전공)

#8일차 게임은 나와 친숙하지 않는 단어라고 느낀다. 이렸을 때 한 휴대폰 게임이라고는 '바운스볼'밖에 없고 컴퓨터 게임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는 사촌동생이 'LOL'에 한창 빠져있었을 무렵, 나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하기를 원했지만 뿌듯고 매케한 담배연기와 어두운 공간에 돈을 내고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 완강히 거절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주변 친구들의 PC방 아르바이트 일화를 들어보면 그곳은 매케하고 자욕한 담배연기가 가득차 있지 않고 어둡고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은 PC방에 메뉴가 하도 많아서 김밥천국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느낀다. 앞서 언급한 '바운스볼' 게임을 자세히

애기해보지만, 그 게임을 알게 된 계기도 사촌동생 때문이었다. 입마와 함께 추석날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이미 외있는 사촌동생이 휴대폰으로 무인가 일종히 하고 있길래 슬쩍 봐보있더니 그 게임이었다. '공튀기기' 방식과 비슷하미 어러가지 맵이 있어 은근히 승부욕을 유발하기도 했다. 너무 재밌어보여 나도 휴대폰에 '바운스볼'을 깔게 되었고 어려운 레벨에 도전하게 될 때는 인터넷에 해당 레벨에서 통과하기 위한 꿀팁 등을 검색해보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니미 더 새로운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토티리 등) '바운스볼'이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갔지만 최근에 '바운스볼'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 유일한 추억의 게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요요했다.

😊 10 💬 2



2024/05/17  
friday, pm 7:00 | 17일음  
김선유(김효학과/20240202)

### #8일차 #게임

저희 가족은 명절이나 휴일에 4명이 모이면 '코스튬' 게임이랑, '홀라'라는 카드게임을 5판씩 합니다. 휴일 중 하루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 모여서 안주랑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토라토라 마친 후 코스튬이랑 홀라 게임을 하고 각자 자러가는 거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저희 가족만의 게임인데 긴만에 서로 열쿨을 봐서 좋고, 업된 분위기에서 떨어져 사는 동안 가라앉아있던 가족간의 유대를 다시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태화하고 회포를 푸는 것도 즐겁지만 술을 빌려 신이 난 상태로 게임하는 건 그 나름의 생동감이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4명이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작은 단위의 돈을 걸어서 게임하고 끝난 즉시 정신해서 각자 이체를 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오빠도, 저도 같이 모이는 날이 많지 않은데다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족 넷'이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저는 저서 돈을 잃는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 12 💬 3



2024/05/17  
friday, pm 7:31 | 16일음  
자유미(심미학과 20232130)

### #8일차 #게임

게임은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 중학생 때 했던 게임, 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이 다 달라서 그 당시에 했던 게임을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때는 루키업,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씨인데 당시 유행했던 게임이 '다함께 차차차'여서 남자들이 많이 놀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중학생 때는 폼게임보다 배구게임에 푹 빠졌었습니다. 당시 저희 중학교에는 배구를 할만한 체육관이 없어서 밖에 그려진 작은 코트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매일 배구게임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와도 등꽃길, 학교 후에 몇시간을 하고 이를 핑계로 쫓메나 수업시간에 조금씩 늦게 들어갔던 추억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때는 꿈의 집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 게임이 대유행을 해서 다들 아이패드로 그 게임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게임을 보면 입시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요즘은 즐거하는 게임이 없는데, 나중에 추억할 게임 히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1    💬 4



2024/05/17  
friday, pm 8:05 | 16원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0000)

#8일자

사실 게임이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pc로 즐기는 인터넷 게임을 생각하고, 이는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에 도달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무작정 급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 게임의 이면에 대해 보고자 한다.

태초의 게임은 교육과 훈련이 목적이었다. 전쟁이나 전쟁을 예비하는 군사훈련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과 종교적 제의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물론 놀이만을 위해 고안된 것들도 있으나, 태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둑은 중국 요순시대에 자식의 머리석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게임이란 무엇인가?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오락의 보편적 형태" 등 다양한 학자들이 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핵심 개념은 "게임이란 플레이어가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여,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스템"이다. 즉, 단순한 오락거리라는 정의는 게임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게임을 마냥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물론 게임의 부정적 요소인 중독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게임의 참의나 게임을 함유하는 몸만 미미에 저립되는 규칙, 대처 방식은 이렇기 지 사고를 도와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12    💬 3



2024/05/17  
friday, pm 9:04 | 16원B  
황보승표(다시이학과 20211733)

#8일자

나는 PC게임을 남들보다 아주 늦은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처음 시작했다. 그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욕망을 쏟아내듯 게임에 미쳐있었고 학업과 게임 오직 2가지에만 열중했다. 친구를 포함 나의 레벨을 빨리 올려주기 위해 버스를 자주 태워 주었고 그 결과 답시간 만에 상당한 레벨에 도달했다. 그 이후 종잡 때까지는 미친 듯이 게임을 하긴 했으나 종잡 이후에는 PC방이 밀어서 게임을 거의 안 하고 유튜브와 OTT지옥에 빠져 살았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된 시점은 군대에서였다. 아간교대근무를 반복하는 보직 특성상 다른 사람보다 비번 시간이 많았는데 이때 학생 때 즐겨하던 마크를 주로 하기 시작했다. 18개월 넘게 비번 시간에 마크를 즐기하면서 지루했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수많은 건축물을 완성하고 파괴하기를 반복하면서 군 생활을 보냈으며 복학을 몇 주 앞두고 전역했다. 하지만 운도 지지리 없었는데 전역 며칠 뒤 코로나에 걸려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다시 유튜브와 OTT 지옥에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잠깐 게임과 멀어졌다. 복학한 이후 종종 PC게임을

하기는 하지만 1시간 이상 하면 3D 밀미기  
 심해져 지주는 못 하지만 종종 한 번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합삼 게임을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1학년 때는 몇 시씩 밀미  
 없이 게임을 한 건지 신기할 따름이다.

😊 0 💬 2



2024/05/17  
 friday, pm 9:22 | 17위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0)

### #8일차 #게임

이웃은 합삼 나를 빈거준다.

오랜만에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면  
 이웃은 그동안 바빴나미, 반갑다고  
 인사해준다. 나의 취미나 음식 취향을  
 물어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며 내가 이기면  
 선물을 주곤 한다. 가끔은 오렌지나 옷을  
 선물해주기도 하고,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는  
 이웃들이다.

자신이 낚시를 잘 못한다며 혹은 곤충을 잡고  
 싶는데 잘 못 잡아서 속상하다며, 나에게 대신  
 잡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기도 한다. 착하고  
 귀여운 이웃들의 부탁에 나는 흔쾌히  
 수락하며 열심히 이웃을 위해 어설픈  
 실력으로 낚시와 곤충 채집을 한다.

카니발과 같은 페스티벌 혹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모든 마을 주민이  
 모여 축하 행사를 간단하게 하기도 한다.  
 심심하면 서로의 집에 방문하며 집 구경을  
 하기도 하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가끔 몇몇 이웃들이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정이 깊은 이웃에게는  
 가지 말라며 붙잡기도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이웃에게는 마을을 떠나도 괜찮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넨다.

요즘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그  
 마을에 안 간지 꽤 됐다. 바쁜 생활을 마치고  
 일론 그 마을에 가서 이웃들과 대화하고 싶다.



😊 12 💬 4



2024/05/17  
 friday, pm 9:38 | 18위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초등학생 때는 하교 후 투니버스를 들고  
 코난을 즐겨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서부터 추리물에 눈을 떠서일까요?  
 중학생이 되어서는  
 -남들 다 심장 떨리는 인터넷 소설 볼 때  
 다른 의미로 심장이 떨리는-  
 추리 소설에 눈을 땀습니다.

우타노 쇼고의 <밀실 살인 게임>  
 다니엘 롤의 <봉제 인형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들....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추리물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크라임씬>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좋아진 것이죠

범죄 현장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구현한 것도  
모자라  
모두가 용의자가 되어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니?

'국내 최초 몰플레이 추리 게임'  
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아주 잘 짜인 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자 과몰입시키는 출연진들의 연기력,  
치밀하게 계산된 증거들과 세트장 등등  
제가 광팬이 되는 건, 어찌먼 정해진 순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시즌 3까지 어찌저찌 왔지만,  
당시 시청률과 제작비 문제가 있어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심야시간대에 방송하기도 했고  
추리물이라는 진입장벽 높은 장르 특성상  
그런 것이겠지요.  
저는 애써 납득하며 눈물을 머금고  
<크라임씬>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크라임씬 리턴즈>라는 이름으로  
루려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마상에  
추리물이 주목 받기 시작하고  
<대탈출>, <여고추리반> 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걸 즐거이 지켜보던 추리  
오타쿠로서  
반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라임씬 리턴즈>는 현재 막을 내렸지만,  
지금은 <여고추리반 3>가 공개되고 있어서  
행복한 추리 오타쿠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제 나름의 증거들을 토대로 추리하고,  
정답에 가까워진 순간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제게는 이 프로그램들이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추리 게임 try 해보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추리 프로그램들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8일차 #게임

😊 12 💬 4



2024/05/17  
friday, pm 9:45 | 17읽음  
유영주(형리/20202550)

#8일차

스머프 빌리지는 내기 유일하게 하는 게임인 스머프 빌리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10살 때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하던 것이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20년도 1월에 바꾼 휴대폰을 스머프 빌리지 하나 때문에 액정까지 갈아가며 아직까지 쓰고있으니 말 다했다. 인생에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는 정도의 터닝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평생 스머프 빌리지를 그만두지 않고 할 것 같다. 사실 요즘 마을 방문이 시들해졌는데, 진짜 현실했던 메몰비용 때문에 놓아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진짜 내 마음은 뭘까?

😊 13    💬 4



2024/05/17  
friday, pm 9:46 | 18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8일차 #게임

[ 여덟 번째 접시 ]

게임은 재밌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공감하거나 주말에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하며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참 정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지만 오래 하면 눈 건강도 나빠지고 시간 감각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임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도 있지만 험한 말을 들을 수도, 싸울 수도 있죠. 또 게임 속 친구와

실제로 만나는 오프, 게임에 돈을 쓰는 현실이라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립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스트레스를 푸는 것? 게임을 할 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뒤엎었습니다. ]

😊 14    💬 3



2024/05/17  
friday, pm 10:04 | 19읽음  
이재현(미디어스쿨/20242562)

#8일차 #게임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듣는 수업 중에 게임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좀비를 죽이는 게임인데 캐릭터의 무기를 성장시키며 제한 시간을 버티면 우승하는 게임이에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게임 중 왜 유독 이 게임이 재미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한 시간이 주는 짜릿함과 무언가를 격파하는 쾌감에 흥미를 느낀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인생 자체가 게임이라는 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과 부딪히며 눈치를 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짜리는 마음을 안고 있으면서도 한계를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는 쾌감이 인생이라는 게임이 주는 의미 아닐까요? 모두모두 빅토리만 하세요!☆

%red hot chilli peppers-higher ground

😊 13    💬 2



2024/05/17  
friday, pm 10:05 | 19위님  
희영우(미디어스튜디오\_20242581)

#8일차

게임

삶은 크고 작은 게임들의 연속 같습니다. 때론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RPG게임이 되기도, 때로는 경쟁을 통하여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PVP게임이 되기도 하죠. 또 인제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팀 게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로 인해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보상이며 명예입니다. 허나 저는 보상이 아닌 삶 속에 일하는 경험치에 주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유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을 올린다면, 우린 그로 인해 성장한 것이니까요. 차근차근 스스로를 스텝업한다면, 보상과 명예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지 않을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 얻는 경험치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퇴킬 기원합니다!

😊 14    💬 3



2024/05/17  
friday, pm 10:18 | 17위님  
순지민(김효희과\_20230255)

#8일차 #게임

게임, 누군기에게는 단순한 온라인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스포츠 경기 중 배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 제가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이큐'라는 배구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배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한번 봐 본 것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배구 경기를 보러가고 싶을 정도로 배구라는 게임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구에서는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팀원들과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삶에서 열정이 사라진 상태였었는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의 배구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열의를 보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배구는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서로를 믿고 공을 이어줘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도 무척 중요합니다.

비록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삶이 지루하다 혹은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이큐'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13 🗨️ 2



2024/05/17  
friday, pm 10:40 | 15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8일차

#개입

<질문>

육중한 질문이 절꺼텅 떨어졌다.  
앞이 둥글뻘뻘하게 생긴 쿠투를 신고, 큼큼  
헛기침을 하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죽은 임민영이 당신과 꽤 친했나보네요."  
약간의 떨시에 찬 어투로 수연을 바라보며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임민영은  
이미 죽었지만, 그 아이가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죽음보다 더 수준 높은, 가슴이  
칼가리 찢기는 아픔을 경험했으면 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연씨의 생각은  
어때요?"

눈앞에 죽음을 두고 수연은 온몸을  
요동기렸다.

노인의 흐릿해진 걸 씹기꼴이 위 아래로 힘 빈  
움직이더니 말했다. "참신한 대답을 주세요,  
그러면 살머트리죠."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손가락을 머리카락에  
끼워 빙빙 돌리면서 수연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냈다.

"개한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뺏는거요."  
수연이 말했다.

노인은 수연의 말을 듣고 조소를 터트렸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계속해봐요."

"민영이한테 남은 가족이라곤 개 얼마밖에  
없어요, 죽이세요.그럼 깔끔하잖아요. 저토  
살아야죠."수연의 입술이 피르르 떨렸다.

잠시 후 건너편에서 검은 실루엣과 함께  
질문이 썰렁이는 소리가 났다. 도무지  
밀어지지 않았다.

"수연씨.. 참 안타깝네요.. 게임이렇게  
말이죠. 지면 기분이 참 그래요. 맞죠?"  
노인이 말했다.

😊 13    💬 3



2024/05/17  
friday, pm 11:00 | 18위음  
밤에빈(중국학과,20201510)

#8일차 #게임

게임은 내 과열된 머릿속을 식혀주는  
아이스크림 같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게임의 재미가 나를 위로해준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탈이 나는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LOL, FPS, 스토리 게임, 전략 게임 등  
가리는 것 없이 모든 종류를 좋아하고 즐긴다.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게임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으나, 쉽사리 그 유혹을  
뿌리치기엔 아직 어렵다.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었던 20년도, 21년도엔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어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지냈다. 약  
2년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려보낸 것에  
후회하고, 뒤늦게 걱정했다. 하지만 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니 내  
또래들 대부분이 나처럼 비슷하게 살았음을  
알게되었다. 게임 회사들은 코로나가  
립지만은 많았을 것 같다.

영화나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는것보다  
영화같은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가만히 정해진 이야기 흐름을 보는 영화와  
달리, 내가 직접 인물들을 움직이고, 내가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게임은, 주인공을  
넘어서 게임 그 자체에 감정이 이입되게  
만든다. 초현실적인 그래픽에 황홀함을

느끼기도 한다. 게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에겐, 실아가는데 주어진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 14    💬 3



2024/05/17  
friday, pm 11:04 | 17위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8일차 #게임

요즘 게임은 e스포츠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에게 게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즐거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 게임을 맨 처음에  
했던 건 7살 때 사촌언니의 계정으로  
크레이지아케이드라는 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게임이 뭔지 알게 됐다. 초등학생 때는 많이  
놀러 다녀서 잘 인 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롤, 료아, 요버워치 등 여러 게임을  
하고 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여자애들은  
아이돌을 좋아했고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많이 없어서 여자애들과 빨리 친해지기는  
힘들었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게임을 많이  
했었고 노래 듣는 건 좋아했지만 아이돌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자애들과 빨리 친해지고 잘 놀았었다.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게임하는  
여자애들도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같이 잘  
어울려 다녔던 것 같다.

나한테 있어서 게임은 스트레스를 푸는  
해결책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즐기며 놀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게임을 남자친구랑 같이한다. 남자친구랑  
만나게 된 것도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친해져서 만나게 된 거라 나는 게임이  
더 좋다.

예전의 사회는 게임을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다르다. 따라서 게임을 안  
하던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 13 💬 3



2024/05/17  
friday, pm 11:09 | 17읽음  
김준호 (준호IT)

#8일자  
게임.

어릴 때 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너무나 좋아했고 게임과의 추억 때문에 게임 개발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취미도 직업이 되면 힘들다 했던가, 게임 개발은 게임을 하는 것과 천지차이였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에 만족한다.

게임만큼 사람과 가까운 프로그램도 없다. 우리 게임에 사람과 애정을 쏟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도 하고 분노와 증오를 얻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러한 그 세계를 만든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노력을, 내가 어렸을 때 개발자들로부터 받은 추억을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유저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나는 오늘도 게임을 만든다.

😊 14 💬 4



2024/05/17  
friday, pm 11:16 | 17읽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8일자 #게임

"지하철 게임" "지하철 게임"  
5월, 코로나 시기로 입학하고 2년이 지나 첫 엠티를 갖을 때 했던 게임이다. 내가 신입생이던 당시 코로나 19 사태가 심하기도

했고, 5인 이십 집합 금지 시대였던 터라 23살에 기게 되는 엠티가 무척 설레고 기대돼 술게임을 이리저리 찾아봤다.

'지하철 게임'이란 몇 호선을 밀하면 포함돼 있는 역을 하나 이십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 하지 않은 사람은 벌칙으로 술을 한 잔 마신다.

준천 소재의 대학이다 보니 주요 문제는 '겸춘선'이 있다. "너 준천 사람 맞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겸춘선에 있는 역들에 대해 무지했던 나였다.

이기고 싶다는 술부욕에 겸춘선 노선도를 이리 저리 찾아보기 시작했다. 준천역부터 삼봉역까지 있던 호선은 이제 침탈리까지 생겼다.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음이 생긴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하나의 기차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과도 같은 존재다. 나를 통해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히치집에서 내리곤 한다.

그러니, 내게 있어 '고객'과도 같은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 준다면 원하는 사람들에 한 해 힘께 볼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집념'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법. 아무리 길고 노선이 많다고 해도 수도권과 춘천을 이어주는 겸춘선은 나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와 주었다.

박스 한 채씩 무거워도 무릎에 올리며 길고 긴 지하철에서 함께이기에 피로를 잊는다. 여전히 깔깔거리며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청춘. 또 다시 외쳐본다

"지하철 게임" "지하철 게임"

그렇게 우리는 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며 여전히 성장 중이다.

😊 12 💬 3



2024/05/17  
friday, pm 11:26 | 18위8  
한지현 (데이터테크, 20203260)

### #8일차 #게임

"너 그 게임 아직도 해?" 그렇게 오래된 일인가 생각해봤다.  
"오래 되긴 했지만" 몇 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재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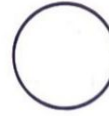
글쎄, 남들이 말하는 재미는 없다. 새로운 퀘스트와 보상, 친구와 같이 게임하는 재미들은 이미 시기가 지나갔다. 그런데 게임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변 보상으로 인한 습관 같다. 가변 보상이란,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게임에서 승리를 매번 할 수 없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승리의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점과 비슷하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실제 많은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상황 자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좋아한다고 명명하기도 한다. 찾아보니 '예측 불가능'은 보상이 반복될수록 만족감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아주고 꾸준히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날에는 새로 게임을 시작한 친구가, 내 플레이 시간만 보고 엄청난 고수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내 입장은 대회 선수로 될 만큼의 실력도 아니고 랭킹권에 속해있지 않아서 살짝 억울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몇천 시간이었으니까. 거의 매일 꾸준히 접속했다. 이 시간에 다른 무언가에 투자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의 감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어차피 되돌리지 못한다. 이미 내 삶에 일부가 되었고 게임 서버가 닫힐 그 날까지 식제를 못할 거 같다. 그동안 즐거움과 재미도 많았고, 같이 게임 했던 사람들, 일본어도

배우고, 그리고 내기 무언가 꾸준히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퀘적을 긍정하고 싶다.

😊 14    💬 0



2024/05/17  
friday, pm 11:47 | 16위8  
박혜원 (생명과학과 20227081)

### #8일차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최대 단점.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모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만 같다가도, 눈을 새로 깜빡이면 그저 나의 경쟁자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이 경쟁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기준을 두고 상대와 나는 경쟁하고 있다. 만약 승부가 가려지기 힘들 만큼 둘의 힘이 비슷해도 나는 어떻게든 상대보다 부족한 나를 찾아 비교하고, 낙담하며, 절망한다.

경쟁은 불가피하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 이러한 현실에 도움이 될 방안을 하나 건네고 싶다.

게임만큼 가벼운 게 없다. 게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어차피 경쟁해야 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게임은 반복할 수 있다. 얼마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든, 게임기 안에는 그저 데이터로 저장된다. 허무할 수도 있겠지만, 그 허무함을 이용해 볼 때 우리는 한 게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이 들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게임은 내가 졌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 이유를 알고, 공략법을 찾아 다음  
게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딱 그 정도까지이다.  
낙담하는 나를 끌어올리는(혹은 예방하는)  
방안으로만 사용할 것. 만약 '게임'의 의미를  
붙이는 것이 선행되고 습관화된다면 이것은  
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떠 의미로 '게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을 것.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  
내 친구들이 '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 14    💬 0



2024/05/17  
friday, pm 11:50 | 18읽음  
최현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 #8일차 #게임

평화롭거나 잔잔한, 힐링이 되는 게임을 주로  
해왔다. 끈질기게 오래 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였다. 유일하게 구매한  
게임이기도 하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갑옷을 맞추고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난 그 기능보다 집을 예쁘게 짓거나,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알록달록하고  
네로난 세상 속이 마음에 들었다.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때도 경쟁 게임보다 함께  
생존하고 협동하는 방식의 게임을 했다.  
아무리 게임 안이지만 싸우고 지게 되면 누구  
하나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싫기도 하고,  
습부욕이 깊해 지기 싫어서 경쟁 게임에  
흥미가 더더욱 가지 않았다.  
그 힐링되던 게임도 이젠 질려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요즘엔 게임을 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게임에 푹 빠졌을 땐 해도해도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말이다. 한동안 하지 않던  
게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오랜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추억을 되살려 게임 즐  
해야겠다.

😊 12    💬 3



2024/05/17  
friday, pm 11:53 | 17읽음  
조성빈(중국어학과, 20201534)

### #8일차 게임

내가 가장 최근에 한 게임은 바야흐로  
2년전...바로 '베를그라운드'라는 서바이벌  
총 게임이다. 이 게임을 알게 된건 통생이  
모바일게임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호기심에  
나도 같이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루, 이를 하다보니 어느새 종 기종 이름도  
게임 용어도 익숙하게 말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변해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근데 여느 게임들이 그렇듯 계속하다보니  
시간을 여기에 쏟게되고 중독처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되어서 나는  
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위해서 눈 딱감고  
갑제로 끊어버렸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딱히  
게임은 안하고 있다. 몰두하다못해 중독처럼  
집중을 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릴 때 가장 재미있게  
했던 '템플런'이라는 게임도 있었다. 이  
게임은 정글을 배경으로 사람 캐릭터가 뒤에  
따라오는 원숭이? 킹콩들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게임이다. 여러 장애물을 잘 피해서  
달아나야하고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려워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단순하면서도 그래픽이 리얼해서 나도  
모르게 몰두하면서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게임이다.  
예전에는 배워보고 싶었던게 베를그라운드  
게임을 컴퓨터로 해보는 거였다. 모바일  
게임은 핸드폰으로 하는거라 조작법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컴퓨터는 키보드 단축키를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 많이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내가 PC로 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으로 대신하고 있다. 게임은 어찌보면 단순하면서도 또 어찌보면 어려운 그런 분야 같다. 특히 머리싸움으로 게임을 해야하는 협동게임이 많은 요즘 나는 이런 게임을 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그것에서 뜻밖의 성과도 내는 사람이다. 지금의 나는 그렇게 딱히 없어서 마음 한켠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 들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부럽다.

나도 꿈을 가지고 싶다.

아니 나도 무언가에 몰두하고 마음껏 좋아하고 싶다.  
마치 게임을 할 때 아이 마냥 즐거워 했던 것처럼.

😊 13    💬 4



**2024/05/17**  
friday, pm 11:58 | 18원음  
한광성(사회학과,20182237)

#8일차 #게임

어렸을 때 게임이라는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오락 컴퓨터 게임, 오락실 게임이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다가 걸려서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고 싶은 것이 게임이었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게임과 전혀 관련없지만 게임에서 쓰여지는 용어가 있다.

"너 오늘 숙제 했니?" 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갔을 때 나는 덩연히 대학교과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학교과제 관련 이야기가 아닌 게임 이야기를 했었다. 더 물어보니 알고보니 친구들이 말하는 숙제는 게임에서 매일 같이 헤이하는 퀘스트였고 그걸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뭔가 싶었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숙제를 해야 게임을 시켜줬던 나의 생활을 돌아보니 더욱 게임에서 쓰여지는 숙제라는 말이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어이없어서 웃었다.

근데 가만히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까지 게임을 쬐은 시간이라도 집속을 하는 내 자신을 보았다.

이 글을 작성하다보니 든 생각인데 게임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집속시키는 것이 목표일 수 있기에 재미있게 만들든 숙제를 하게하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집속하게 하는 게임사들이 대단해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 13    💬 3



**2024/05/18**  
saturday, am 12:25 | 36원음  
김안선

#8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게임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어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이 다수이지만 스포츠 경기도 게임이고, 보드 게임도 게임이지요. 게임중독과 시간낭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스토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산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게임을 대체할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부담입니다. 잘 쉬고 우리는 필요일에  
민니요.



2024/05/20

monday, am 7:46 | 37위음

김합선

### #9일차 키워드 : 열심히

'열심히', 시집에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히'는  
부사이니 목적이와 동사와 같이 쓰이겠죠?  
열심히 공부하타, 운동하타, 청소하타, 살타  
등등..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제일 열심히  
살아보았는지요? 최선을 열심히 몰두해서 한  
일은 무엇인지요? 오늘 혹은 어제 열심히 한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과와  
성취감을 얻는다고 생각하느지요? 오늘은  
부사 '열심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024/05/20

monday, am 9:58 | 19위음

김새린(테이타서이인스탁부/20243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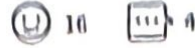
### #9일차 #열심히

열심히

그리움에 젖어 달빛을 걸으면  
유성이 속삭이네.  
힘든 밤은 지나가니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땀에 젖은 이마  
묵묵히 땀을 일구며  
가슴 속 불씨를 꺼지지 않게  
그렇게.

때땀이 불고  
기센 비가 내려도  
일심히 그리고 굳건히 나아가는 너무  
그 길의 끝은 이쁨이 기다린다.



2024/05/20

monday, am 10:28 | 22위음

유영주(힐리/20202550)

### #9일차

네가 100세 시대 1분기를 살아가며 기를  
쓰고 열심히 해본 컵 급식 식판 설거지 하키  
짬토다, 포인트는 국물 한 방울도 인 남기고  
식판 바닥을 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 빈잔  
양념 밥으로 튀아먹기, 떡국에 밥 말아먹기  
등등 수턴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2시칸  
넓게 교실에 앉아있어야 했던 급식 시절에  
급식판 발우공양으로 요를 뒤웠던 쫓임지,  
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바로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쉬운 일이 공부기 아니라  
급식판 깔끔하게 비우기 같은 일 뿐이라서  
크렸던 것인지 나토 잘 모르겠지만... 밥 다  
먹기 같은 일 말고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싶지 않다. 너무 힘들데 사람이 꼭 열심히  
뭔가를 해야하나? 인류가 자꾸 들도 보도  
못한 신기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열심히 안  
살아도 편하고 행복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가? 인류라는 태의를 위한 기술  
발전이라고 급철하지만 사실 정말로 공익이  
실험된 기술 개발 사례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도 아닌 게 열심히 살기 싫어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살아도 베이비 캣거루로 잘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머니 밖으로 나가려면  
열심을 부려야겠다.





2024/05/20  
 monday, am 10:53 | 23위  
 희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9일차 #열심히

[ 아홉 번째 집시 ]

저는 취미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한 시기에요 취미를 먼저 하고 좋아했습니다.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데 시험기간에도 그림을 그릴 정도로 취미만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생도 아니고 그저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꼭 빠질 정도로 열중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라 이 취미를 정말 열심히 즐겼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주로 아이패드로 그리는데 몇 시간 동안 그릇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쏟아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 이어나가겠다는 쿤센 의지라고 생각하기에 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 뽀뽀뽀, 오늘의 몫 집시가 튀었습니다. ]

👍 14    💬 2



2024/05/20  
 monday, am 11:14 | 19위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9일차 열심히

내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을 때를 하나 꼽아보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말하고 싶다. 원하는 대학교 전공에 가기 위한 언어 자격증을 한 달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의 내 실력으로는 시도해볼 수

조차 없었던 급수를 단기간에 공부하여 수시 신청 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때가 고3이어서 수능공부하다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공부도 같이 하고 있었을 때었는데 쉬는 시간과 자유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는 데에 몰두했었다.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자격증을 단기간에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학년의 마지막 시점에서 11일이라는 기간을 남짓하러 졸업 발표하는 큰 신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보다 니이를 조금 더 막아서인지 아니면 세력이 줄어서인지 웬일인지 도무지 열심히,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정성을 쏟을 자신과 힘이 없다는게 참 슬프다.

그래도 다시 정신을 똑바로 잡고 멘탈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이등바등 중국어 발표문을 외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지...교수님들 앞에서 외운 중국어 발표문을 다 말할 수 있을지 너무나 무겁고 막막하다.

전공 교수님은 내게 자신감만 가지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자신감만으로 이 긴 잠문의 중국어를 그것도 내가? 외출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남주에는 정말로 힘들었다.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중국어를 다 외워서 교수님들 앞에서 질 얘기할 수 있을까? 등등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고 심적으로 많이 지쳤었다.

크도 그렇게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 대부분이 시험보다는 과제수업이 많아서 매주 큰 과제를 수행해야하면서도 동시에 졸업발표문도 외워야 하는게 너무 충분히 힘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누구보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 간절했던 고등학교 3학년 그때처럼 다시한번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기짐을  
 바꾸면서 이제 11일이라는 기간동안 (물론 그  
 기간에 축제가 있지만ㅠ)이 졸업  
 발표문에만 몰두하여 열심히 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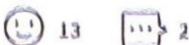
너는 할 수 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2024/05/20  
 monday, am 11:26 | 19위  
 정홍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9일차 #열심히

이십하리까지 과제가 많은 주일이 있다,  
 그때마다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진  
 않았을까 생각하곤 하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간다. 긴속 길은 곧경에 빠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독려한다. 먼  
 과거 탐험가들이 그러했듯 문제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그곳이 정글처럼 풍부하다면  
 정글도를 휘둘러 헤치고, 그곳이 남극과  
 모래사막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얼음을  
 부수고 모래를 날린다.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뿐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다.  
 백 년 전의 과학자들만 하더라도 일생을 걸고  
 실험을 진행했었다. 열심히 실험하면 자신의  
 가설이나 이론이 증명됨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진 않으나  
 성공할 자는 열심히 실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24/05/20  
 monday, am 11:28 | 25위  
 임지훈(20212864/인공발송융합전공)

#9일차

내가 열심히 실었던 순간은 곱씹기를 하기  
 위해 애를 쓰던 때가 이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던 때도 이년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살에 기침  
 열심히 신디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적년까지의  
 너는 나태하게 살았다. 그 흔한 근로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도 없이 학교 수업만  
 갔다가 기숙사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쪼기쪼업을 앞두고 있으며 21학점을 들으며  
 막하기를 보내는 중이다. 또 아르바이트  
 3개를 병행하고 합림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직책을 맡으며 글을 쓰고 있다.  
 이렇듯 너의 일상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영어학원에 가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직후에는 펄프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밴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주말에는 징남캠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빠짐없이 일을 하고  
 있다보니 가끔 가다 하루동안 집에서 잠만  
 자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또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다.  
 고작 1년 사이에 열심히 살게끔 변화된  
 계기는 SNS에서 우연히 여행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22년동안 실면서 딱히  
 목표도 없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없었던 내가  
 여행 계획에서 몽골 밤하늘을 보고 나서는  
 '몽골 밤하늘도 못 보고 생을 마감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얼마나 내가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내 힘으로 돈을 모아 몽골 여행을  
 떠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현재 몽골  
 여행을 목표로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4/05/20  
monday, pm 12:31 | 21주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9일차 #열심히

성인이 되고 완벽주의자, 감박이 심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좋은 결과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도 있다. 여러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거 하나를 놓치는 일이 다수 있다. 내가 제일 놓치고 있는 부분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최근 카운슬링센터에서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 상담을 받았다. 행복멘토링 멘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멘토는 심리검사 및 상담이 필수여서 하게 되었다. 상담 선생님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 계획적인 특성이 높게 나왔다고 감박이 심하지 않냐고 물으셨다. 너무나 정확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두려움,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불안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면서도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곤 한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붙잡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다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마치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있는 것 같다.

오늘 실수를 했다. 그릇을 떨어뜨려 그릇이 깨졌고, 충분히 그릇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칠칠치 못한 나 자신이 미웠다. 자책하던 순간,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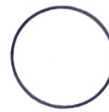
“생각이 많으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나는 몇 분 동안만 생각을 할 거야’ 몇 시간이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생각해요. 대신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걸로.”

에어팟을 끼고 노래 한 곡을 들었다. ‘이 곡이

끝날 때까지만 자책하고, 급방 잊고 할 일 하지.’ 생각하며, 애써 나를 위로해보았다. 실수는 누구나 하고, 나에게 그 실수는 여러 번이지만 오늘의 경험을 통해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면 된다고,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열심히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15    💬 5



2024/05/20  
monday, pm 1:09 | 21주  
박지호(식영, 20213018)

#9일차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란 정도는 다르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사람도 일을 하며 하루에 2시간 공부한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이다.

넌 나를 열심히 실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일바, 교생, 그리고 공부까지. 남들만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준에서 열심히에 도달했는지 잣대를 하루하루 대보며 살아가는것이 중요한것 같다. 나의 열심히 사는 것에는 단 한가지의 원칙이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고 꾸준히. 이다 정말 너무 하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한장이라도 공부하는것이다. 대학에 오며 정말 크게 느낀 한가지는 조금이 모여 엄청난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17    💬 4



2024/05/20  
 monday, pm 1:27 | 20원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9일차 #열심히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미신처럼 믿는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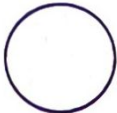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얻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어린 시절의 내가 꾸었던 꿈들을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0대가 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무치게 미안하기도 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린다  
 시간과 노력을 정직하게 투자했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업거꾸 생겼다

그럴수록 나는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나를 지켜줄거라 믿는다  
 오늘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보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본다.

😊 14    💬 5



2024/05/20  
 monday, pm 1:37 | 19원음  
 김택빈(경제학과/20195112)

#9일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라는 단어가  
 가장 잘 들어맞는 시기가 언제인지  
 생각해봤다. 입시의 최전선에 서있던 고3?  
 아니면 매 시험기간 직전? 다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였던 순간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들이었을 시기였다.  
 사람들은 모두 성직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간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이성을 유지하려고 감정이나 본능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  
 아직 완전히 발달하고 사회성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 시기에는 항상 자신의 욕구,  
 본능에 열심히 살아간다. 나는 '열심히'의  
 사전적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때가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일을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무언가에 열심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열정과  
 강한 정신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길 소망한다.

😊 15    💬 3



2024/05/20  
 monday, pm 1:45 | 20원음  
 최연진(임상의학특계, 20233256)

#9일차 #열심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서당'이라는 학원을 다녔다. 1층에는  
 영어학원, 2층에는 서당, 3층에는 수학학원이  
 있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세 학원을 모두 다녔다. 그 당시 나는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서당을 다니며 한국 한자 능력 검정회라는  
 어문회에 시험을 신청해서 시험볼 준비도  
 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서당에서 8급부터 2급까지  
 한자가 나열된 A4용지를 코팅하고 그  
 코팅지를 보며 한자를 외웠다. 선생님께 그  
 코팅지를 들고나가면 코팅지에서 한자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 한자가 무엇인지  
 맞추는 시험을 봤다. 그 다음 한자 노트에

한자 1000자에 대한 음과 뜻을 쓰고 한자를 외운다음 한자를 쓰는 시험을 봤다. 오답까지 다 시험보고나면 어문회 관련 문제집을 풀었다. '자꾸 공부 하고픈 책'이라는 문제집이었다. 문제집에는 훈음, 한자, 독음, 반대어, 유의어, 약자, 부수, 장단음, 고사성어 등의 문제들이 나열되어있다. 한자노트에 번호를 옮겨적고 문제집을 풀고, 외우고, 다시 시험보며 공부했다. 끝나면 문제집의 문제와 별개로 다른 책에 정리되어있는 반대어 유의어 시험과 약자 부수시험을 보고 한자를 이용해 짧은글도 쓰고 한자를 섞어서 일기도 쓰고 선생님께서 매일 바꿔서 붙여두시는 고사성어를 쓰며 공부를 마무리했다.

지금 돌아보면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고 시험볼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인 것 같다. 학교 방학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밥도 서당 근처에서 사먹고 밤 늦게 집에 왔었다. 하루 공부량을 채우지 못하면 선생님께서 끝내주시지 않으셔서 다 못끝낸 날에는 영어, 수학학원을 시간맞춰 다녀온 후 다시 서당에 와서 한자 공부를 했었다. 그땐 너무 하기 싫었고 힘들었다. 한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2급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당을 다니며 공부하는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급수 시험을 볼때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볼 수 있었던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열심히 해서 후회가 없고 다시 돌아가면 그때처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14    💬 2



2024/05/20

monday, pm 1:54 | 15평음

인주연(미디어스쿨.20242386)

#9일차 #열심히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 후에 돌아오는 그 뿌듯함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최고로 행복하다.

갑히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에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과연 언제쯤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있을까?

그 날만을 빨리 오기를 기대하미 오늘도 나는 노력할 것이다.

😊 13    💬 2



2024/05/20

monday, pm 2:05 | 17평음

강신유(간호학과/20240202)

#9일차 #열심히 #제대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 저는 '열심히'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걸 단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임으로 이는 순간부터 실패에 대한 번영으로 쓰고있는 저를 보면서 자기혐오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넘기는 게 문제였음을 모른 채 계속 제자리걸음, 노력탓, 제자리걸음, 노력탓을 반복했죠, 이게 반복되니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가 꽤나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하기만 해서 될 거라는 기대를 비렸고 소위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하는 것에 집중했고 방법론적인 내용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매번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나는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의심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결과가 좋지 못해도 문제원인을 스스로에서 찾기보다 방법을 바꿔보면서 극복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 14 💬 3



**2024/05/20**  
monday, pm 3:26 | 18읽음  
황보승표(리시아학과 20211733)

#9일차 #폭망

최근에 네가 가장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노력은 모두 부정당한 일이 있다. 나는 1학기 개강을 앞두고 11박 12일의 일본 도쿄, 오사카 여행을 계획했었다. 여행 몇 달 전부터 나는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 항공권, 호텔, 교통편까지 모두 예약하고 일정 또한 분단위의 계획을 세워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사카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었고 간사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번개를 맞는

소소한 이벤트도 있었지만 나는 즐겁게 툴루탈라 일본여행을 시작했다. 여행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오후까지도 해도 괜찮았다. 둘째 날 저녁에 몸이 살짝 처지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셋째 날부터 가벼운 기침과, 두통 몸살기운이 올라왔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서 계속 여행을 툴루탈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헉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어지럽기 시작했으며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비터보자 하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텼지만 함께에 토탈하자 남은 일정들을 모두 포기한 뒤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씩씩하게 귀국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는 그렇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한 일본여행은 허망하게 마무리되고 만다.

슬프게도 오사카 가서 타코야끼, 오코노모이끼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토론토리와 아시히 공장만 보고 왔으며 교통카드에는 수만 원의 잔액을 남겨두고 돌아왔다.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쓰라린 손해도 발생했지만 해외에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출발을 몇 시간 앞둔 항공권을 급하게 예매하는 한 번도 하기 힘든(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 15 💬 4



**2024/05/20**  
monday, pm 5:26 | 21읽음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9일차 #열심히

"열심히"를 의인화하면 딱 내 친구일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내 기준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친구인 애가 한 명이 있다. 애는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친구인데, 그중 하나가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참여한다는 점이었다. 시험기간에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교내 활동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참여하고, 심지어 교외 봉사활동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다. 친구를 따라 활동도 해보고 시험기간에 도서관도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의 열함으로 내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게 된 것이다. '근목자혹'이라는 사자성이 있는데, 먹물 가까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걸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나와 내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이었던 것 같다. 좋은 친구를 곁에 품으로써 나까지 좋게 변했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 16    💬 4



2024/05/20  
monday, pm 7:40 | 19읽음  
킵벌빈 (미티어스쿨\_20202706)

△ 6 전공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전과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요.

차라리 쉽지 않았다면 나왔을까요...?  
저는 추천공을 두 번 바꾸고, 복수 전공도 두 번 바꿨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전과가 자유롭고, 복수전공이 필수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9점)

정답은, 주전도 복수 전공도 학점이 모자르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번 학기는 6 전공, 1 졸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후회합니다.

거기에 큰료장학생 일과 2개의 팀플,  
1 팀장, 5 실습수업에  
가끔 주말 알바, 라이팅 셀링지까지....  
꽤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학번인지라,  
동아리도 올해 들어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자주 못 나가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나도 동아리 할 수 있는데

벤트 글을 보니, 다른 분들도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가 더 열심히 살고 그런 것에 순위를 매길 순 없겠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과제가 쌓여 있어서 ... 이민  
좋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즐거운 축제기간 보내세요

그리고 G 전공은 절대 하지마세요....

#9일차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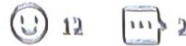



 **2024/05/20**  
monday, pm 7:49 | 16읽음  
서준엽(사회복지학과\_20192327)

#9일차

열심히라는 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 모두 어떤  
분야이던 열심히 해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열심히는 참 잔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노력했던  
모습에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한 어떤 일이 결과에 상관없이 추억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저 높아보이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한테 열심히 했던 기억들은 가끔 소름 돋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큰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때 투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예민해지는게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결과가 바닥을  
기어다녀도 저한테는 추억인거 같습니다.  
결과가 진짜 기대보다 험한 못미치면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시체처럼 뻣뻣해서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라는 말의 의미를  
과정에 두면서 그동안 하나 둘 진보를 찾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소소한  
만족감으로 이겨내고 금세 다른거 일 벌리러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합니다. 만약 시간내서  
열심히 도전했는데 얻어내는데 하나도  
없어서 다시 도전하기 꺼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지르고 봐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그 과정이 훨씬  
값어치 있고, 노력을 통해 완성시킨건 어딘  
다시 쓸 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2024/05/20**  
monday, pm 8:35 | 15읽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0255)

#9일차 #열심히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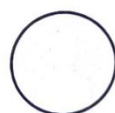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필요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필요하며, 목표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멋진 어른의 바쁜 삶을 보낼 줄  
알았지만 학생 때와 똑같이 그저  
흘러가는대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제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큰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의욕을 잃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과제나 팀플 활동 같은 당장에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차근차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게는 없는 의지와 실천력, 성실함을 갖춘 사람들을 학교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이분들께 찾아가 자문하고 힘을 얻어 제가 계속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1    💬 2



2024/05/20  
monday, pm 8:57 | 15읽음  
박현아 (언어병리학과, 20233930)

#9일차 #열심히

꾸준히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주부터 시간이 될 때 도서관에 가서 밀린 공부를 한다. 밀린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짜셔틀 타고 집에 간다.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공부는 별 거 안 한다. 그냥 오디세이 특강 들기, 온라인 강의 들기, 전공 필기하기, 주말까지 제출해야하는 과제하기 등등 간단한 것들을 하고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아나 심각한 ADHD였지 참...', '오늘 하루에 다 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밖에 못 했잖아?' 내가 매일 도서관에 오면서 하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나올 때는 뿌듯하다. 매일 집에 와서 풀썩 침대에 드러누워 낮잠을 자고 늦게 저녁을 먹었는데 그 시간을 아낀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척 뿌듯하다. 기분탓이지만 밥도 더 맛있고, 노을도 더 예쁘고,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집중력도 묘하게 늘어난 것 같고, 불편한

의지를 얻을 때 내가 비밀 수 있는 시간도 늘었다. 휴대폰을 하는 시간도 부쩍 줄어들더니 충동구매도 적어지고, 짧은 뉴스를 스포츠를 보며 쉽게 판단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줄어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무척이나 어려워 보였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신다는 것, 생각보다 쉽잖아?

😊 13    💬 2



2024/05/20  
monday, pm 10:12 | 16읽음  
밤에민(중국학과, 20201519)

#9일차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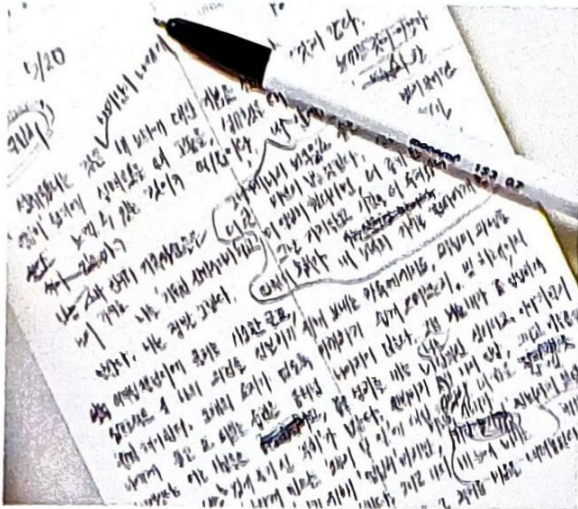
성취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노력에 대한 기쁨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 '열심히' 했기에 실패했을 때 고통을, 성공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면 더 큰 미련이 남는 것 같다.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게 만들었다면', '그 날 밤을 새고 시간을 더 투자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내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게 된다.

나의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은 나를 '지독한 완벽주의자'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도, 나는 정말 그렇다. 라이팅 챗린지에 올리는 사소한 글도, 팀프로젝트 중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는 카톡메세지도, 교수님의 과제도 '완벽'해야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지 및 차례 다시 나에게 묻고, 또 되묻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는 바람직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런 내가 정말 답답해서 쉽사리 칭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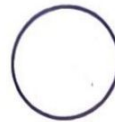
매일 자기 전에 내 머릿 속을 꼭 채운것은 '후회'였다. 완벽하지 못했던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완벽하게 끝마치기 위해  
 함삼 머릿속으로 잔소리를 하던 나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았나?"라는 질문의 대답은 늘 "아니"였다.  
 '완벽'하기 위해 '열심히'하지만, 내 눈에  
 비치는 '완벽하지 못함'이 나의 '열심히'했던  
 그 노력을 부정했다. 그리고 나의 '열심히'는  
 거짓이었구나 하며 씁쓸해했다.

이제는 조금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다.  
 나는 참 늦게 깨달아버린것 같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덜 열심히 해도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했고, 그  
 결과의 유무는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훨 가벼워진 머릿속이  
 더이상 이불 위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도, 당신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 11    💬 3



2024/05/20  
 monday, pm 10:23 | 14위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9일차 #열심히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말자'가  
 무의식 속에 제 주문이 되어 하루하루를 죽은  
 사람처럼 혹독하게 보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행복과 직결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시때 가장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항상 불안과 우울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산다는건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열심히  
 노력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을 때의 이점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후회가 아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 10    💬 1



2024/05/20  
monday, pm 10:28 | 13읽음  
김니업(의약신소재,20220006)

#9일차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만큼 '열심히'한 순간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에 속한다. 자는 시간도 아껴서 몰두한 곳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 것임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건 실패가 정해진 결과보다 참혹한 것이지 않을까.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며 어찌면 나의 부정적 생각이 지레 겁을 먹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를 겁내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 9    💬 1



2024/05/20  
monday, pm 10:29 | 13읽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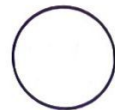
#9일차 #열심히

저랑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전 오늘도 매우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리조리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쓰는 글은 항상 어딘가 바쁘고...지쳐있는 느낌이 드네요. 하루 정도는 어깨 위에 올라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머리 위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는 날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잠깐 멈춰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거보세요. 이걸 제가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다들 힘을 얻는 방법 하나쯤은 속에 품고 살아가시죠? ☆ 즐거운 축제 보내세요.

%뽕종-손애플

😊 10    💬 1



2024/05/20  
monday, pm 10:31 | 13읽음  
김준호 (콘텐츠IT)

#9일차

열심히.  
난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불안해서 스스로 일을 만드는 타입이다. 도움이 될만한 것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힘들지만 열심히 이뤄나가곤 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하듯,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고 최고의 기회가 최악의 방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분명 쉬지않고 열심히 달려온 지금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험사리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묵묵히 다시 열심히 해야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 10    💬 1



2024/05/20  
monday, pm 11:07 | 16위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801)

#9일차 #열심히

지렁이

열심히 기었습니다,  
내 맨 배가 끼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움직이며  
기었습니다.

열심히 바랬습니다,  
내 물이 찾아오는 그날엔  
바깥으로 나가보리라  
열심히 바라오고 바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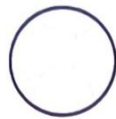
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던 물들은  
제 생각과는 달리  
턱전을 파괴하며 제 숨통을 쪼여왔습니다.

열심히 기었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조차 없는 채로  
실자, 나가면 살 수 있어, 하며  
열심히 좌우로 기었습니다.

메마른 땅  
차가운 아스팔트  
이끼 낀 보도블럭 위로는

열심히 기었던  
열심히 바꿨던  
열심히 밟았던  
열심을 문신처럼 새겨줄  
제가 그 위에 있을 겁니다.

😊 10    💬 2



2024/05/20  
monday, pm 11:23 | 18위음  
박혜원 (생명과과학 20227001)

#9일차

뭐든 열심히 하려는 태도는 사람을 급박  
지치게 만든다, 때문에 우리는 더 질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가볍게 살아야 한다,  
사실 나는 이 말을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적어도 나에게 만큼은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뭐 하나 열심히 해 본 기억이 없다,  
대한민국 학생치고는 탐황스럽지만  
19살이로 그랬다, 돌아보면 나는 모든 일을  
흐지부지 끝냈다, 이것을 나는 역시 운이  
좋다며 내 삶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성공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내가 일을 열렁뿔렁 '아무튼' 해결하는 것을  
나에게 성공 경험으로 다카왔다, 그 때문에  
나는 별 노력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된다는 이상한 인식을 가졌다,  
그렇게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하며 막연한 꿈 하나를 날로  
먹으려 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그 꿈의  
이름이 백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에게 (사회적으로도) 큰 짐 덩어리일  
것이다, 반면 나는 살아가는 데에 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멋진 꿈을 바랐다, 나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이제 와서 보면 거저먹으려고 한 거지만,  
그때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그  
꿈을 이룰 거 같았다, 절이 없었다,  
한두 번의 게으름이 나에게 성공 경험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의 삶이 망가졌다,  
나는 무엇이든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작년 여름쯤이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은 몸이 무거워서, 우선 닥치는 대로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점차 세분된 목표는  
 지금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나는 올해  
 편입학했다. 한림대에 온 것도 그 목표의  
 일부이다.

논문 발표를 준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거  
 원래 그런 거라고 한다.  
 원래 알면 알 수록, 하면 할수록 잘하고 있나  
 싶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전체적인 삶도 그렇다.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네게 그 사람보다 맛있고  
 쫄쫄스러운 사람이 없다.  
 전력을 다한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국 돌아올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  
 올려놓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크게 앞서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 눈앞의 모든 일들에  
 열심히 임하려고 한다. 작은 과제도, 청소도,  
 심지어는 걷는 것까지도 바른 자세로  
 '열심히' 걸으려고 한다.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그것을 내  
 힘으로 정당한게 이루겠다.

😊 14    💬 5



2024/05/20  
 monday, pm 11:27 | 162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9일자

#열심히

<정신>

젊은 시절부터 손끝에 묻은 흙과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있었다.

침뒹으로 부는 바람과 흙내음이 섞인 공기가  
 잠입의 깊은 숨결과 섞였다.

투박하고 탄탄한 흙 덩어리가 그의 손을 거쳐,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된 토자가  
 고운 색의 유약으로 마무리 되자 잠입이  
 무릎을 털고 일어섰다.

평생을 통틀어 가장 열심히 완성한 작품 중  
 하나였다. 빛을 받으며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섬세한 패턴이 제법이었다.

“이만하면, 됐지....”  
 말과 함께 그는 토자기를 바닥으로 던졌다.  
 파편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잠입은 부서진 토자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절히 아름다움은 완성된 형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존재가 끝나는 그 순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위한 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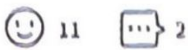


2024/05/20  
monday, pm 11:37 | 15읽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9일차 #열심히

미루던 운동의 열심,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체력이 좋다고 자부하던 나였다. 작년에 휴학하고 일을 하면서부터 꺼져버린 루틴에 더이상 이전의 체력을 찾기 힘들어졌다. 체력이 없으니 자꾸 눕고싶고 무기력했다. 심각성은 느꼈지만 이미 흐트러져버린 운동에 대한 열정을 다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30일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책상 앞 눈길에 칼 수 밖에 없는 곳에 붙여두었다. 한달이라도 땀 흘려 운동해서 건겉과 체력, 단단한 마음을 되찾으려 한다.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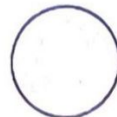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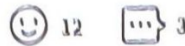
2024/05/20  
monday, pm 11:56 | 16읽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9일차  
#열심히

나는 못쓰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했다.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웬지 입 밖으로 내뱌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다른 누군기의 뛰어난 정신과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두고 싶다. 이제보다 더 노력하는지, 나아진 점이 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이느새 초심까지 도달한다. 뭐든 신중히 고민하는 성향이 시작할 때 나름의 기대와 각오가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어제의 나를 생각하며 열심히 했다고 말하다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2024/05/20  
monday, pm 11:57 | 17읽음  
함원섭(사회학과,20102237)

#9일차 #열심히

살아가며 너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많았지만 스스로가 열심히 살았다 인정하진 않았던 것 같다. 매일 잠이 들기 전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그러고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 들었었다.

최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대외활동과 보드게임이 있다. 원래 보드게임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지내며 명절 때 사촌동생들과 하게되면서 서서히 했던 기억이 있다.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한 번 빠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빠지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보드게임도 그렇고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취미를 하면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 이기려고 했고 승리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지라 더욱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남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였지만 나에게는 노력하는게 재미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문화기획 관련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나 기획서, 발표 ppt 등을 많이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스스로가 봤을 때 미적 감각도 부족하여 차라리 자료조사나 발표를 하고 데이터분석을 하지 ppt는 절대 피하려고 했던 나에게 자꾸 ppt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다보니 이럴 때는 이 기능을 쓰고 저릴 때는 저 기능을 쓰고 하나하나 터득을 해서 이제는 누군가 물어봤을 때도 종종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뭔가 이 글을 적으며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낀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를 나의 성장의 발걸음으로 생각하면 열심히하게되고 그러다보면 성장하는 나를 보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내일도 이 생각을 하며 힘들지만 이겨내봐야겠다.

😊 13    💬 2



2024/05/21  
 tuesday, am 12:07 | 20원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9일차

나는 평생 열심히 산 적이 없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놀기만 했다. 저번 학기에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다. 정말 방황했었다. 그러다가 나만의 길을 찾고자 나와 소통을 했다. 어떤 방법이 옳을까? 내 책임을 다할 나이가 됐고 상황이 되자 책임을 져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나는 수업도 잘 가고 불안했던 문제들도 해결했다. 이렇게 나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결코 어떤 것도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일들이 잘 안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니씩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이다.

😊 12    💬 2



2024/05/21  
 tuesday, am 12:20 | 28원음  
 김양선

#9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8번째 글을 쓴 것, 오늘도 12시 전에 글을 쓴 것. 이 역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원래 성격이, 아니면 어떤 계기로 열심히 살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글들이 많네요. 응원합니다. 단, 속도를 조절하면서, 번아웃 오지 않게 조심하면서 지금의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기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 우

😊 10    💬 1



2024/05/21  
 tuesday, am 7:54 | 36원음  
 김양선

#10일차 키워드 : 시리다  
 동사 '시리다'는 여러 뜻이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 "빛이 강하여 바로 보기 어렵다" 등등. 눈이 시리다, 무릎이 시리다 등을 떠올리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이별의 아픔을 겪고나서 "가슴이 시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문득 몸 한 쪽이 시리거나 마음이 아프다 못해 시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요?  
어떤 상태에서 '시리다'라고 느낄까요?

😊 11    💬 0



2024/05/21  
tuesday, am 8:22 | 16위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10일차 #시리다

이별로 가슴이 시린 정도는 그 사람과의  
주억에 비례한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고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한 2주 정도는 자취방에만  
있었던 것 같다. 정말 이때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시렸다. 나는 좋은 감정이 아닌 이상,  
슬프거나 화나는 등의 나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 않았는데,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다. 반년 조금  
넘게 지나 지금은 그때보다 괜찮아졌지만,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면 아직도 힘들긴 하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놀러 가면서  
외할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서  
그만큼 슬픈 거라고 생각한다.  
아기는 사람과 이별은 정말 힘든 일이다. 하다  
못해 몇 달 사귄 애인과의 이별도 힘든데,  
몇십 년 같이 있었던 사람과의 이별은 말할 수  
없이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별을 통해  
비 온 뒤 땅이 더 탄탄하게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저 슬퍼하기만  
하기보다 슬픔을 이겨내고 이 사건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이별을 겪기 싫지만 언젠간 다시  
겪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떠나기 전에 사랑해 줄 것이다.

😊 9    💬 3



2024/05/21  
tuesday, am 8:57 | 12위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0일차 #시리다

이별의 마지막

푸른 하늘에는  
수많은 그림이 있고,

푸른 밤바다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으며,

푸른 세상에는  
사람을 닮은 네가 존재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별을 품고, 달을 담고 있다고.

나지막이 바람에게 속삭였다.

😊 0    💬 2



2024/05/21  
tuesday, am 9:44 | 33위음  
김양선

'월-글까지 매일 글쓰기' 미션 15일 차  
리포트가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인증한 멤버를 공개합니다!  
자신감 뽐뽐 충전하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힘내보아요

인증글 많이 쓴 멤버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10일 인증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0일  
인증  
정우현(철학과/20231084): 9일 인증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9일 인증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9일 인증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지혜 이덕영 김양선

모든 멤버의 인증순위를 확인하려면



멤버들의 인증 순위 보기  
월-금, 30일 간 (2024.05.7 ~ 2024.06.5)

😊 5    💬 0



2024/05/21  
tuesday, am 10:25 | 16원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10일차 #시리다

시리다는 것은 아쉬움이 신체로 나타난다. 아쉬운 마음이 가슴이 시릴 정도로 퍼진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간에 말이다. 과거의 난 시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 계속해서 감정과 고통에 집중하게 됐다. 성장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맞서 싸우기로 했다. 시려서 아픈 마음을 내가 돌봐주고 지키기로 다짐했다. 어떤 상황이든 마주하기 싫은 고통을 이겨내려면 받아들여야만 하더라. 주사를 맞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맞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처럼 모든 시림도 똑같았다. 기간만 다를 뿐. 처음엔 두렵지만 계속 마주하다 보면 그것 역시 삽일 뿐이었다.

가슴 아팠던 이별, 존경하는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것, 소중했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결국 나를 알게 해주는 시림이었다. 타인과 상황을 바꿀 순 없으니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 시림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가장 시렸던 순간도 나는 그들과 함께였다. 행복이란 뭔가 알려준 시림은 나에게 성장하게 해줬다. 덕분에 나는 김시힘을 느끼며 현재를 살아간다.



😊 11    💬 2



2024/05/21  
tuesday, am 10:56 | 16원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0일차 #시리다

과거의 결핍이 떠오를때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시려온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생각할수록 괴로워지는 일들  
분명 현재가 만족스러운만큼, 대비되는 날이

있다.

어떤 날은 뼈가 시리도록 아파오고  
마음이 사무치게 아려온다

그럼에도 곳곳이 비터본다  
천천히 지나가보자

나의 기집 예쁜 오늘이, 슬픔으로만 지세우지  
않길 바라며

😊 12    💬 3



**2024/05/21**  
tuesday, pm 12:20 | 19위님  
김선우(김호학과/2024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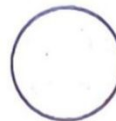
### #10일차 #시리다

김정을 말하는 '시리다'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본 적도, 이별이 슬픔만큼 사랑한  
이성이 있었던 적도 없어서 이 형용사는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시리다'를 느꼈던 적이 있나? 고민을 계속  
했는데 시리다는 감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잠의차를  
마중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인 친구였는데 저와는 이름도  
모르고, 인사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투병을 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학교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왔고 한 학년 전체가  
운동장에 나열해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배웅을 했습니다. 잠의차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가족분들이 서럽게 오열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데 그 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무거운 감정이 느껴졌던 거  
같습니다. 그 친구와 친분이 있던 친구들도  
울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친구들도

울면서 슬픔의 감정이 전이된 건지 저도 그  
순간 무거운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감정이  
들더군요. 그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시리다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로 읽고  
이야기로만 봤던 이별의 무게를 정말 무겁게  
실감했던 순간이었고 그 날 하루는 울적한  
감정이 오매 같던 기억이 나네요.

😊 14    💬 3



**2024/05/21**  
tuesday, pm 12:40 | 18위님  
김지은(20212564/인문방송융합전공)

### #10일차

사람에 데이고 시리게 아픈 날들이 있었다.  
그런 날에는 함삼 일기잡이나 메모잡 혹은  
아무 종이에 삼태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고적입니다. 물론 절대 삼태밤에게 보여주거나  
보내지는 않는다. 이게 나의 아픈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020년 12월 29일, 아래는 내가 메모잡에  
써놓고 삼태밤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  
집문이다.

잘 지내고 있니?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 환자처럼 지내고 있어. 손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쉽게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걸 느껴. 네가 내게 달려주기  
귀찮으니까 그만 올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  
바쁘니까 찾아오지 말라고도 얘기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어. 주변에 예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탑을 쌓아 올렸지. 큰 돌로 자리를 잡고,  
쓰러지지 않게 작은 돌을 구석구석 채워  
넣었어.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게 만들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작은 돌이 하나씩 굴러떨어지더니  
몇 시간을 걸쳐 만든 돌탑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어. 눈앞에서 쓰러지는 돌탑을 보는  
기분을 넌 알까? 네가 내게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딱 이런  
기분이었어.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몰려오더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네가 나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한 건  
아니었어. 갑의 왕관을 씌어준 것도  
아니었던단다.

사실 네가 여러 소리를 내며 서서히 짐을  
챙기고 거리를 뒀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  
연락이 온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는 소리,  
나를 향한 입술이 입꼬리를 내리는 소리, 일상  
곳곳에서 내 이름을 떠올리지 않는 소리,  
하루를 채우던 대화를 줄이는 소리, 이제는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소리 말이야.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경썼어. 예전의 네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

우리가 헤어지면 날, 집으로 곧장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 시간을 울었어. 그  
와중에 밖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세어  
나갈까봐 목에 힘을 주고 울었다? 웃기지.  
처음으로 사랑다운 사랑을 한 거 같아서  
울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졌는데도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서 울었어.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내 몸에서 전화기를 한시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어. 샤워를 하다가 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물을 끄기도 하고, TV  
소리는 언제나 작게, 그래놓고도 몇 번씩  
전화기를 확인해 봐. 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을까 봐.

이별 통보할 때 “내가 널 배신했어.” “내가  
사랑을 버렸어.” 이렇게 말해주지 그랬니.  
실연도 슬픈데 이별의 책임까지 져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 자책하지 않아도 될 만한 큰거를  
만들어 주고 가지 그랬어. 내가 쉽게 자책하는  
사람인 거 알았잖아, 너는.

잘 잊는다는 건 추억에서 너무 많은 걸 들고  
오지 않는다는 말이래. 그리움과 미련은 과거  
행복했던 내게 잘 맡겨두고 올게. 오늘 우리는  
그때와 우리가 아니라서 좋았던 날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해 줘. 무엇을 놓아야 너를 더 꼭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진 것을 모두 손에  
올려놓고 내가 얼마나 버렸는지. 마음의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내가 너를 꺼안기  
위해 얼마나 팔을 뻗었는지. 널 바라볼 때 내  
눈빛이 어땠으며 말투는 또 어땠으며 마음은  
어떤 채도였는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소리 내  
말해볼게.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러니 날 버린 네가 잘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 11    💬 1



2024/05/21

tuesday, pm 12:54 | 14일음

정충민(용합신소재공학/20206639)

#10일차 #시리다

시리도록 하얀 눈발 위로 붉은 적삼이  
거닐었다. 흐느끼는 눈바람 속에서 살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털 달린 군모를 쓰고 긴  
외투를 걸친 적병이 할시위를 펑펑히  
탕기었다. 산 자는 보이는 대로 모조리  
죽이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었다. 원한  
없는 화살이 얼어붙은 강 위를 날아 공허하게  
여인의 등을 찔렀다.

소리 없이 다음 화살로 매우고 다시 한번  
손에서 시위가 놓였다. 그러나 이번엔 화살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막혔다. 세찬  
눈보라가 도운 것도 있었으나 잠시 시야를  
가린 하얀 눈발 속에서 등페수 하나가  
튀어나와 적병을 쓰러트렸다. 그 역시 사적인  
원한 없는 칼날이었으니 더 이상 피를 원치  
않았다. 고향의 소식이 뜬하여 아버이 보고자  
홀로 탈영한 몸이었으니 마음도 급했다.

[남자, 네가 어찌면 좋단 말이오. 여긴  
허허벌판이니 금방 적의 기병이 우릴 발견할  
겁니다.]

등페수는 여인의 숨이 가까스로 붙어있는  
것을 깨달았다. 건장한 사내도 버티기 힘든

고통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올꼬, 비참한 현실에 이를 감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행히도 멀리 신 아래 겁은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한 전투에서 단련된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꺾힌 공포가 들끓었다. [이아, 험경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단 말인가.]

멜리는 손으로 등패를 쥐고 밤어의 세를 취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드리웠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데다, 가련한 인간이 굶센 군마의 말발굽을 피할 수는 없었다. 끼미귀가 찾아온 날에 비가 몹시도 내려 하얗던 데지는 젖빛이 되었다. 가슴 시린 이야기 누가 기억하라.

😊 11    💬 2



2024/05/21  
tuesday, pm 12:54 | 17읽음  
박지호(식염,20213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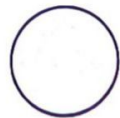
#10일차

시리다.

이딴어를 보고 딱 떠오르는 말은 이가 시리다. 였다 ㅎㅎ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날가 점점 들며 몸이 하나씩 빼겨댄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영양제를 챙겨먹고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정말 살기위해서다..ㅎ  
세월이 참 아속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냐가 더 중요한것 같다. 차피 흐르는 인생 조금 더 멋지게 남들보다 알차게 살아가고싶다. ㅎ



😊 12    💬 2



2024/05/21  
tuesday, pm 12:57 | 19읽음  
김희빈(컴제학과/20105112)

#10일차

비업 활자로서 나는 1년 네네 숨을 삼켜하게 내쉬는 날이 사실삼 없다. 봄, 가을은 꽃가루와 환절기, 여름은 에어컨때문에 일어나는 냉방병, 겨울은 추위 때문에 날이 굉장히 쫄지 않으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에 더해 추위도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조건 내복은 필수다. 목도리에 장갑까지 더해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지 비로소 바깥의 매서움과 맞설 수 있다. 겨울은 나에게 몸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게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움츠러든다. 그에 따라서 내가 실천하고자 했던 목표를 하기 싫게끔 마음도 움츠러든다. 이렇게 시리다는 것은 나에겐 의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니에게 더 깊게쳐야 한다는 충고이기도 하다.  
시리다는 것은 누구에겐 상처이지  
고통이지만, 하나의 신호이자 동반자이다.  
니도 겨울이 주는 시름을 견딜 수 있게 내  
몸을 더 챙겨야겠다.

😊 12    💬 3



2024/05/21  
tuesday, pm 1:45 | 15읽음  
희연진(입상의학통계,20233256)

#10일차 #시리다

시리다는 단어를 보고 윤희의 Winter  
flower(雪中梅) 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시린 겨울바람 깊은 발자국 아래 홀로 피어나  
네가 태어나고 널 만난 이유를 찾아서 헤매어  
하얗게 번지는 한숨은 얼어붙은 눈물  
버려진 꿈들은 다른 상처를 남고  
이 계절의 끝이 어딜까 영원히 있다면

윤희-Winter flower(雪中梅) 가사 일부분

아무래도 노래의 시작이 '시린' 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났던 것 같다. 설중화  
노래는 고난과 역경에 아파하지만, 절곡엔  
꽃을 피운다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은 노래다.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된 계기는 두 번째  
세계라는 프로그램에서 클라씨라는 그룹에  
김선유라는 멤버가 빌리라는 그룹의  
문수아와 대결할 때 불렀던 곡이다. 방과후  
설렘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김선유가  
최애였는데 어린 나이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후 두 번째 세계라는 서바이벌에서  
선배님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멋지고 대단해  
보였다. 김선유가 부른 Winter  
flower(雪中梅)는 탄탄한 보컬과 깔끔한  
고음 때문에 한참 빠져서 이 프로그램의

열심만 돌려봤었다. 원래 김선유는  
그룹에서는 랩 포지션인데 춤과 노래 모두  
정말 잘해서 올라운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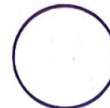
설중화는 거울에 피는 꽃을 의미한다. 시리고  
추울 겨울 속에서도 건디미 결국 꽃을 피우는  
설중화는 자기에, 자존심, 고결, 신비,  
외로움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고독  
속에서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이 인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https://youtu.be/TBqKvpcw1tg?si=lfNeM7GyXKh-n86H>



기침력으로 꽃을 피운 김선유의  
<WINTER

😊 11    💬 1



2024/05/21  
tuesday, pm 2:29 | 17읽음  
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10일차

가슴 시리게 아프다. 매우 슬프거나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저는 슬픔에 대해 공감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굳이 이러한 슬픔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픔, 후회, 안타까운 경험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가슴 시린 아픔 겪어사전 에문으로는  
'아버지를 대신 볼 수 없어 가슴이  
시리다.'라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터에서 집을  
 보시다가 너무 근처에 있던 부엌가스기  
 터지면서 화상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생각보다 밀짚하니 면회 오지 밀리고  
 하셨었는데 더 늙은 사람이 화상으로  
 입원했다는 소리에 가족 전부 급하게 면회 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얼굴에 붓대 킂고  
 할머니 일월 흉허니?라고 저한테 묻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기 같습니다. 이 감정을 지금도  
 무슨 느낌인지 이게 슬픈건지 모르겠고 그 때  
 당시에도 그날 서로 농담이나 주고 받으며  
 놀타기 나왔습니다. 분명 웃긴애기, 평소  
 주고받던 애기들인데 입원실을 나서며 거울  
 속 비춰진 제 모습은 한 없이 굵어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를 비롯해 저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한다면 이겨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겪지 않으면  
 이해조차 힘든 일임을 알고 억지로 공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있어 아픔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있어 아픈 경험을 이겨낸 사람,  
 이겨내고 있는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쓰기 전,  
 쓰면서 정말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클로 잡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속으로 얼마나 쓰라리고  
 힘들었을지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을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저  
 비슷하게 보였던 여러분들이 그저 데탑하다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나아키는 완벽한  
 어른이 되지 못한 겉계 어티카에서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화상 겪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흉진 것도 따로 없이 멀쩡하시고  
 전보다 더 저랑 투닥대면서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 12    💬 2



2024/05/21  
 tuesday, pm 2:36 | 1921음  
 립투업(미디어스쿨\_20242580)

#10일차 #시리다

솔직히 니에게 시린 표현? 경험이라곤 아직  
 솔 시리다 라는 표현밖에 입 해볼 것 같다.

시린 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던 때가 엇그제  
 같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눈을 밟고  
 무방비의 맨손 상태로 눈을 모으고 구르고  
 던지고..

어찌다 눈을 먹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놀기도 했었다.

그리고 탐엽하겠지만 시린 손 보탬 따뜻한  
 손이 더 좋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들 만큼은 시린  
 손이 더 좋다.

마치 시린 손으로 따뜻한 붕어빵과 호빵을  
 잡을 그 순간 처럼

나에게도 시린 손이라는 예외가 있는 듯 하다.

😊 18    💬 4



2024/05/21  
 tuesday, pm 4:35 | 171음  
 립투업 (미디어스쿨\_20202706)

별을 따겠다면 사다리를 만든다.

/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저는 ENTJ(이하 엔티제), 대담한  
통솔자입니다.

위의 글은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엔티제를 비롯한 MBTI별 잡점을 기록한  
글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어요.

(하트에 글귀 출처 및 링크 걸어둘 테니,  
여러분의  
MBTI 잡점도 읽어보시고 카세요!)

엔티제인 저는 별빛에 눈이 시려  
눈물을 줄줄 흘려도 결국엔  
사다리를 만들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엔티제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지만  
가끔 털려, 어딘가 시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몸 어딘가가 아파야 '나 힘들구나.'를 깨닫는  
둔한 사람입니다.

엔티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요염 스스로를 더 쿡지로  
몰아세웁니다.  
'번아웃'이 온 것 자체가 네가 나약해서-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번아웃이 온 엔티제는 눈물샘도 고장 납니다.  
뭐 슬픈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들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툭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티제는 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정신력으로 최대한 버티고,

유류브로 명인, 자기개발 영상 등을  
찾아봅니다.

절대, 힘든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을 텐데-뭐 그런  
생각을 하며,  
나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지, 대수롭지 않아  
합니다.

그리다 정말 이턴기 크게 고집이 나 바이  
크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가슴에 꾸밈이 크게 나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거울바람이 살을 에듯,  
가슴이 시렸던 것이구나 -하구요.

사실, 엔티제로 그리 대단한 게 아닐 겁니다.  
요히려 문하고 첨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심태에 대해서 말이죠.  
-이곳에 엔티제 분이 케신다면 심심한 시과의  
말씀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시렸던 경험이 있는지요?  
다들 어떻게 이겨냈고, 컸는지 궁금하네요.

모쪼록 시리지 않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https://m.blog.naver.com/rkakszhd42/222327539255>



[MBTI] 당신이 잊었던 찰집에  
대하여  
m.blog.naver.com

#10일차 #시리다

😊 11 🗨️ 2



2024/05/21  
tuesday, pm 4:37 | 17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0일차 #시리다

[ 열 번째 접시 ]

눈이 메밀라 뻑뻑할 때  
빔수를 힌 키득 입에 담을 때  
눈밭에서 맨 손으로 눈을 굴릴 때  
계곡에서 맨 발 침범침범 탐글 때

카집 시린 때는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없을 때

[ 뽀득뽀득, 오늘의 뭉 접시가 튀었습니다. ]

😊 11 🗨️ 2



2024/05/21  
tuesday, pm 6:44 | 16읽음  
유영주(철학/20202550)

#10일차

내가 시러본 경험의 언제 있었나 곱씹어보면

배때지 등딱지가 따시다 못해 뜨거워서  
뒹굴다가 화상을 입어도 모자랐을 시절에

양치하는 게 귀찮아 미루다가 기어이 쫄치를  
키워  
치과에 끌려 들어가 어금니를 레진으로 때울  
때

아프면 왼손 들라지만 들어도 별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때

시러본 덕에 오늘 이직이직 곱씹을 수 있었다

😊 11 🗨️ 3



2024/05/21  
tuesday, pm 9:22 | 14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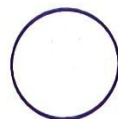
#10일차 #시리다

매우 차가운 물로 양치를 할 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  
아침 햇살을 바라볼 때,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눈을 만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했을 때,  
타시는 못 보는 사람을 생각할 때,  
과거 행복했던 날이 그리워질 때,

'이', '눈', '손', '마음'.

시린 마음을 언제나 고통스럽다,  
이, 눈, 손이 시릴 때는 잠깐의 고통이코,  
고통의 크기가 가늠이 낫다, 그러나 마음을 좀  
잡을 수 없이 항상 고통스럽다.

😊 11 🗨️ 3



2024/05/21  
tuesday, pm 10:18 | 12읽음  
차유미(심리학과 20232139)

#10일차 #시리다

저는 눈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 길이 미끄러워지고, 춥고, 우산을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눈 내리는걸 보는 것은 좋아해도  
만지거나 트러눅는 행동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눈이 펄펄 온 다음날 남자친구가 눈오리를 만들어보지면서 눈오리 집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손 시린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던 저여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작고 귀여운 오리를 한개 두개 세개 만들다보니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손이 시린 것도 잊은채 어떻게 하면 눈오리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함께 눈오리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꼭 움켜잡고 먼지기도 해보고 남자친구한테 뿌리기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나중에 몰려오는 손 시림이 조금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눈 오는 날이 좋습니다. 새하얀 눈을 두 손 가득히 잡았을 때 시린 느낌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올겨울도 함께 눈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 10 💬 2



2024/05/21  
tuesday, pm 10:29 | 16읽음  
한지현 (태이터테크,20203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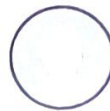
#10일차  
#시리다

시림 갑작  
작은 울림의 시작

살아있기에  
연결된 통증

기억하기에  
영원한 존재

😊 10 💬 2



2024/05/21  
tuesday, pm 10:33 | 16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10일차  
시렸을 때의 강렬한 기억은 단언컨대 렌즈 삽입술 이후의 눈이다. 눈이 워낙 나빴던터라 라식과 라섹이 모두 안되어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만 할 수 있었다.

수술 전 동공이 커지는 인약을 10분 간격으로 넣었는데 눈을 뜨기가 벅할 정도로 시렸다. 선글라스를 끼고 최대한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렸던 것은 처음이었고 정말 눈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이 적절했던 때였다.

수술 이후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그 때만 생각하면 눈 수술하는 것이 고민 될 정도이다. 나에게 시리다는 것은 고통이다.

😊 12 💬 3



2024/05/21  
tuesday, pm 11:01 | 11읽음  
박헌아 (임이병리학과,20233930)

#10일차 #시리다  
추운 겨울에 코가 시리 손을 효호 불미 집에 왔던 날을 기억한다. 귀는 헤드폰이 있어 따뜻했지만, 손과 코는 시릴 수밖에 없었다. 손을 투के 다 주머니에 넣으려 위험하니 한쪽은 꼭 이상하게 빼두고, 마스크를 씨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생기는 마스크에 생기는 물로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내에서 10시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주택가로 이어지는 길에 반짝거리는 편의점 몇몇 군데가 보인다. 골목골목을 가다보면 참 나무뿌리처럼

쉽고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 근처 슈퍼 앞을 지나가게되면 이제 마스크의 김 때문에 속눈썹에도 물이 맺힌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코가 빨갛게 되고 엄마한테 말한다. "밖에 입~처럼 주워!!!!!!!"

😊 10 💬 1



2024/05/21  
tuesday, pm 11:11 | 14위음  
순지민(간호학과\_20230285)

### #10일차 #시리다

가슴이 시릴 정도로 슬픈 이별은 누구나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도 흐르고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한 친구, 혹은 연인과 이별을 마주하는 날이 오기도 하죠. 저는 아직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가슴 시린 이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독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이별을 자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네네 붙어다니며 '애랑은 평생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며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지내며 너무나도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들과도 지금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홀해지는 그 당시에는 가슴 시리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문득 그 친구들이 떠올 때, 사진첩을 훑쳐볼 때, 친구들의 소식을 건너건너 들을 때면 가슴 시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 당시에는 모를까요? 항상 친구들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막상 연락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보고싶은데, 그리고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큰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감정도 가슴이 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오늘도 하업없이 그리워만 할 뿐입니다.

😊 10 💬 3



2024/05/21  
tuesday, pm 11:14 | 14위음  
밤에빈(중국학과,20201510)

### #10일차 #시리다

입 안 가득 채운 하얀 빙수료 이가 시린 여름, 세상이 하나의 하얀 빙수가 되어 우리를 시렵게 만드는 겨울이 몇 번이고 지나 오늘이 되었다. '시리다'는 수많은 감각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해왔다. 계절이 지남에 따라 맞이하는 '시립'은 그 많은 감각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입에 틀림없을 것이다.

'시리다'는 단순히 차가움에서 오는 감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이 식어갈 때 느끼는 마음의 시립, 꿈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가슴 깊은 곳의 공허함, 친구들과의 이별 뒤 남겨진 서늘한 고독. 이 모든 순간들이 '시리다'라는 단어 안에 담길 수 있다.

여태 사별한 아빠를 떠올릴 때마다 험용하기 어렵던 멍멍함과 공허함이 딱 '시리다'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아빠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시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 시립은 나를 탄탄하게 하기도 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립'을 마주한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버티내야 하는 것처럼, 삶의 여러 순간에도 우리는 그 시립을 견뎌야 한다. 그 시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따스함이 있기에, 우린 충분히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스함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두꺼운 옷 속에서 느끼지는 온기,  
뜨거운 차 한 잔의 위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한 손길. 이러한 순간들은  
'시리다'는 것에 마냥 좌절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찬 바람이 언젠가 그치듯, 삶의 시린  
순간도 어느새 끝이 있는 법이다. 시린 감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그리움은 얼음같이 차갑지만,  
그 속에는 따스한 사랑이 깃들여 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 그 시린 속에서 따스한  
미소를 느끼며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세월이  
지나도 '시리다'는 감각은 내 삶의 일부로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 11    💬 3



**2024/05/21**  
tuesday, pm 11:16 | 13원음  
김후희(사회복지학과, 20212310)

#10일차

#시리다

<사연>

길가 살짝 앞 누렁이는  
추운 날씨에 몸을 웅통그렸다.

익살이 늘 넓치던 장씨 아저씨는  
읍내 다방에서 만난 아가씨랑 헤어졌다.

고목나무 통지에서 태어난 새끼 새는  
몸이 약해 떠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이웃마을 김신이는  
급우들과 작별하고 전학을 갔다.

오랜만에 고향에 들른 우식씨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누렁이는 트럭 밑에 깔린 담요를 발견했고  
장씨 아저씨는 일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새끼 새는 집차 힘을 길렀고  
김신이는 먼저 손을 내밀어준 우찬이와  
친구가 되었으며  
우식씨는 동생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마음을  
탈렸다.

그렇게 엉거불을 것 같던 시린 마음도  
녹긴 했나보다.

😊 11    💬 2



**2024/05/21**  
tuesday, pm 11:16 | 13원음  
황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10일차  
어렸을 때 오른쪽 손목을 한번 다친 이후부터  
손목을 많이 쓰면 손목이 자주 시리고 쉽게  
피로해진다. 물론 적당히 손목을 쓰면  
괜찮기는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으로서 그리고 현대인으로서 적당히  
쓰기는 참 어렵다. 네 손목에 무리를 많이  
주는 원인은 당연히하게도 잦은 전자기기  
사용일 것이다.  
더 나아가 모순적이게도 손목도 안 좋은 놈이  
무거운 전자기기만 골라서 쓰고 있다.  
스마트폰도 무거운 켈럭시 노트 울트라라고,

아이패드는 러기드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하는 바람에 1kg가 넘는 짐들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이것들은 일상에서 이급이급 내 손목을 굽어 먹고 있다보니 손목이 안이쁘게 더 이상하긴하다. 또 학교에 다니면서 오랜 시간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손목이 정말 자주 아프고 시리다.

이걸 완화 하기 위해 손목 보호대와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 있다. 보호대의 경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버티컬 마우스는 장시간 사용 시 손목에 무리가 덜 가지만 손가락이 저리는 문제점이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젊은 나이부터 손목이 시리면 곤란한데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줄이는 데는 힘게가 있다 보니 참 난감할 따름이다.

😊 11 💬 2



**2024/05/21**  
tuesday, pm 11:19 | 15읽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901)

#10일차 #시리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으로 인하여 시린 갑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길래, 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으나, 몇 번이고 재차 생각해봐도 시린 갑절을 사랑에서 그쳤기에, 그날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남의 상태임에도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의 울렁임과 웬지 모르는 울컥임,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속상함, 그냥 모든 것이 뒤섞이다 결국 마지막엔 제 가슴에 시림으로 남았습니다.

아리고 시리웁던 그 때의 마음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형용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허나 제 주변에는 이러한 갑절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지면 느끼지 않으셨을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란 걸 잘 알지만 그렇기에 그 분들 마음엔 시리움이 아닌 따스함만이 자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늘한 밤날씨인 요즘엔 마음까지 시려워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 10 💬 2



**2024/05/21**  
tuesday, pm 11:19 | 15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0일차  
시리다.

우리는 코끝이 시리는 느낌으로 겨울을 느낀다. 찬바람에 끄끙 얼어버린 볼과 입김으로도 녹지 않는, 시린 바람에 빨개진 콧잔등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덧 겨울이 왔구나 라는 걸 실감하곤 한다.

우리는 이가 시리는 느낌으로 여름을 느낀다. 차가운 수박, 아이스크림, 머리가 땡해지는 빙수를 먹으며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하고 맛있는 간식거리를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여름이 왔구나 라는 걸 실감하곤 한다.

우리는 눈이 시리는 느낌으로 아침을 느낀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볕과 아침의 온기가 잠을 깨우면 다시 아침이 왔다는 걸 실감하곤 한다.

시리다는 표현은 모두 다르지만 다시 오는 새로움을 반갑게 맞이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다.

😊 12 💬 2



2024/05/21  
 tuesday, pm 11:23 | 13views  
 빅헤엄 (생명과학과 20227001)

#10일차

에인이 없고 그 필요를 느끼면 현재 상태를  
 외롭다고 인식하여 옆구리가 시리다는  
 표현을 씁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왜 옆구리를 시리게  
 만들까요?

먼저 옆구리란 등이나 허리, 골반 부위로  
 가슴과 등 사이 갈비대의 아랫부분이면서  
 엉덩이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복부의  
 장기들과 지방,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근육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형태를  
 이룹니다.

밥을 먹고 탈렸을 때 옆구리가 아픈 기억은  
 있었어도 마치 무릎이나 치아처럼 시린  
 기억을 없습시다.  
 왜 특정한 곳 같은데, 왜 나의 연약한  
 부위처럼 에인이 없을 때 옆구리가 시리다고  
 말할까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있었을 때, 네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내주었나요?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부재가 내  
 옆구리를 시리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유를 궁금하지 않았을  
 표현입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기 수월한  
 표현들에 대해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내게 가벼웠던 것들이 점점 커다래져  
 돌아옵니다.

사실 혼자라고 시리진 않을 텐데, 한 번  
 데워졌던 옆구리들의 소유자들이아 있다  
 없는 것에 시리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옆구리가 세워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곧 따뜻하다 못해 타워지는 계절이 옵니다. 그  
 소중한 잊지 마시고 겨울에도 옆구리가  
 따뜻하게 사립하세요.

😊 11    💬 2



2024/05/21  
 tuesday, pm 11:30 | 21views  
 이새원(미디어스쿨/20242562)

#10일차 #시리다

타들 즐겁게 축제 즐기고 케신가요,  
 크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학교 어디션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ㅎㅎ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왜 사춘기 청소년들이 성장할 때 무릎에 시린  
 느낌을 느끼면서 자라잖아요, 오늘의 저토  
 어딘가 어찌면 허리가 시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 한 번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시네요..ㅎㅎ 모두 모두 좋은  
 경험들만하시고 시린 느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느끼시길 바라요~  
 ☆네일토 재미있게 노시고 화이팅입니다.

🕒시간이 멈춰=다이내믹 듀오

😊 11    💬 2



2024/05/21  
 tuesday, pm 11:42 | 15위임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10일차 #시리다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두려워하던  
 15살 아들은, 그 대상에게 속시원한 복수도,  
 원망하며 울부짖지도 못한 채로 차갑게  
 식었다. '엄마와 화해했으니 잘 지내보자'는  
 거짓 언급까지 펼치면서 아내와 아들을 죽인  
 이유는 "큰아들과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아들은 짐작 갑작스럽게 다른 태도를 보인  
 아버지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평소에도  
 폭언을 행할 때 녹음하던 것처럼, 그날도  
 아버지가 사과를 하던 순간부터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다시 한번 빨간 버튼을  
 누르지 못한채로 아들은 원하지 않는 먼  
 여행을 떠났다.

도시를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풍경만 보인다.  
 그 풍경 속 어둠이 누군가는 생지옥에서 벌벌  
 떨며 살아왔고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다.

잠 가슴이 시리다.

<https://naver.me/GFYI3RXT>



처자식 살해하며 "왜 이렇게 안  
 죽어"라더니 "아티오스, 잘  
 가"...아들 숨지며 녹음[전국부  
 사건참고]

n.news.naver.com



2024/05/21  
 tuesday, pm 11:52 | 15위임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10일차 시리다

'손이 시러워 꿈이 밭이 시러워 꿈이 겨울바람  
 때문에~' 라는 가사가 떠오른다. 나는 어릴  
 적부터 수족냉증을 달고 살았다.  
 유독 나만 부모님께 이 수족냉증을  
 물려받았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도  
 얼굴이나 몸에서는 땀이 나는데 반대로 손과  
 발은 차가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주 펼쳐지곤 한다. 거기다가 더해서 나는 이  
 수족냉증에다가 심해진 않지만 약간의  
 다한증도 있어 땀이 나서 식으면 손 발이 더  
 차가워지곤 한다. 때론 불편함이 더 크지만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가족에게  
 잠난질 때다. 가만히 있다가 등이나 목에 손을  
 갑자기 훑 하고 대면 "앗 차가워!"하고  
 놀라는데 그게 유일한 이 수족냉증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엄마는 그런 내 손을  
 만져보고는 왜이렇게 시렵나며, 손을  
 만져주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제일 손 발이 시릴 때는 바로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그레도 시린 손 발이 겨울이 되면  
 거의 꿈꿨던 얼다시피 손이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웃긴 일화가 있는데 어느  
 겨울날 어느 때처럼 똑같이 손 발이  
 차가웠는데 인니가 그런 내 손을 만져보고는  
 겨울왕국1에 나오는 엘사 여동생인 안나가  
 엘사의 마법을 맞고 얼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손이 먼저 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 같다고 한게 생각이 난다. 진짜 무슨  
 얼음장같이 손이 엄청 차가워져서 따로  
 얼음이 필요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겨울이 제일 손이 시려서 항상 손난로를 들고  
 다니거나 손에 호호 하고 입김을 불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시리다의 경험으로는 워낙  
 아이스크림하고 얼음을 좋아하기도 했고

특히 얼음을 씹어먹는 걸 좋아했었다. 어릴 때에는 이게 괜찮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인가 이가 너무 시려서 얼음을 이제는 씹어먹지 않고 사람처럼 녹여먹는다. 이 경험 이후로 이빨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 9    💬 3



**2024/05/21**  
tuesday, pm 11:59 | 14원음  
한광성(사회학과,20182237)

#10일차 #시리다

시리다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이었다.  
왜 굳이 차갑다라는 말이 있는데 필요한 말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더불어 시리다 라는 말 제외하고도 흔히 우리나라 말에 노랑다라는 색상 하나를 두고 싯노랑다 누르스름하다 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 문학적으로는 좋다고 하나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항상 의문을 품었다. 지금 봐서는 mbti로 치면 나는 정말 t 성향이 강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시리다 라는 말을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들을 겪다보니 시리다니라난 표현을 언제 써야할지 느낀 것 같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시리다 표현 말고도 내가 중학교에서까지의 학업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의 성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의 공부를 해왔었다면 고등학교때 동아리 활동을 해나가며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며 다양한 체험들을 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단순히 글로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껴가는 학습을 해왔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뜻을 모르더라도 머리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몸으로 부딪혀 하나하나 깨닫는 삶을 살아야겠다.

😊 9    💬 2



**2024/05/22**  
wednesday, am 12:19 | 22원음  
김안선

#10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이별을 한 가슴시린 경험부터 몸의 한 부분이 시린 이야기까지, '시리다'는 감각의 T인어학적 고칠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축제 시작이라 학교에 음악과 소음과 기분좋은 웃음이 꽂친 느낌이네요. 이제는 조용해졌을 듯... 조용한 시간 즐기면서 하루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 10    💬 0



**2024/05/22**  
wednesday, am 7:49 | 38원음  
김안선

#11일차 키워드 : 놀랍다 / 놀라운  
깜짝 놀랐다, 놀라운 광경 등 '놀라운' '놀랍다'라는 형용사는 굉장하거나 훌륭한 경험을 할 때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기이한 경험을 할 때도 쓰입니다. 최근에 놀랐던 사실이나 경험이나 광경, 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놀란 일들, 어느것이든 좋습니다. 음악을 듣다 깜짝 놀라거나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서 놀랐던 일 등 아마 생각해보면 많을 겁니다. 네 주변의 일에 놀라기도 하고, 사회변화에 놀라기도 하고, 자연현상에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혹은 놀랐던 사실이나 경험에 T대해 써봅시다.

😊 13    💬 0



2024/05/22  
 wednesday, am 8:44 | 27위음  
 김재민(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1일차 #놀리다

윤슬

고요한 밤, 푸른 달빛 아래  
 은은한 빛이 내려와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네,

캡직스립 빛에 놀라

숨소리마저 멈춘 채  
 세상은 찰나의 고요 속에  
 오롯이 빛의 품에 안기네.

😊 17 💬 4



2024/05/22  
 wednesday, am 10:42 | 25위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11일차

세상의 변화는 항상 사람들을 놀랍게 만든다. 100년 전만 해도 바로 옆 나라로 가는 것도 몇 달이 걸렸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구 반대편 나라도 비행기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TV는 지금은 집 안의 필수가전처럼 취급되고 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를 들고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전화가 아닌 사진, 인터넷 같은 작업도 작은 화면 안에서 전부 해결한다. 과거보다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대결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이 10년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태화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며 심지어 작곡에 노래까지 말그대로 만능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 10년 후가 아닌 5년, 3년 뒤에도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 기대된다.

😊 17 💬 4



2024/05/22  
 wednesday, am 11:54 | 21위음  
 시준임(사회복지학과\_20192327)

#11일차

놀림다라는 말은 TV프로그램 이름에서도 종종 보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별 때 놀림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뜻밖의 상황일 때 놀림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간다고 생각할 때 달력을 슬쩍 보면 어느새 월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나 과제가 애를 들어 2장 이상 써야할 때 언제 쓰나 싶다가도 대충 쓰고 보니 3, 4장 넘어가려는 상황 등 시간과 관련해서 주로 놀리는 것 같습니다. 가깝 스포츠나 게임을 하거나 보면서 지게 되네?라는 식으로 놀릴 때도 있는데 이 때는 큰 반응보다는 어이 없다는 느낌으로 헛웃음을 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상 놀림다고 항상 리액션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놀림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종교랑 관련해서 많이 접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찬송가 중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곡이 따로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놀림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신지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각 종교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이 이상 깊은 얘기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 16 💬 3



2024/05/22  
 wednesday, pm 12:41 | 22원음  
 정현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11일차 #놀랍다

인류가 우주를 완벽히 또는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제한할 수 없는 역사 속 철학자와 세상의 비밀을 파헤친 과학자, 우주의 낭만을 노래한 예술가들조차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 즉 항성이 존재한다. 만약 그들이 수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빛은 수만 년 뒤에 지구에 닿는다. 우리는 수만 년 전 별이 보낸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별이 지금은 죽었든 더욱 밝게 발하든 직접 가서 보지 않는 한 알 방도가 없다. 신이 지어낸 진리라면 그런 것이고 우주의 섭리라면 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갑툭튀할 뿐이다. 놀랍지 않은가. 아득한 과거가 영광스러운 현재로 보이는 우주의 신비로운 시간이 말이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아득할지 모를 시간이 누군가에겐 영광처럼 보이길 바란다.

😊 15    💬 4



2024/05/22  
 wednesday, pm 1:02 | 21원음  
 박지호(식영,20213818)

#11일차  
 놀랍다

초등학교 때엔 중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는다는게 놀라웠다.  
 중학교때 친구가 유치원을 같이 나왔다는것에 놀라웠다.  
 고등학교때 내가 갈 대학교가 많다는것에

놀라웠다.  
 대학생인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일이 정말 많다는것에 놀랐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 놀라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풀렸던걸 잊어 놀라고, 미래를 기대하며 놀란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런 자극은 좋은것 같다.  
 매일 나의 성장이 더 놀라워질 수 있는 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 16    💬 4



2024/05/22  
 wednesday, pm 1:18 | 23원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1일차 #놀라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오기도 한다.  
 그게 사랑일지 아니면 시험일지  
 희비가 칼리는 놀라운 현상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졸이고 무서워지는 하루가 와

휴대폰의 알람조차 무서워져서  
 누군가 나를 안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

괜찮아, 다 괜찮아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 16    💬 2



2024/05/22

wednesday, pm 1:56 | 21위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10일차

최근에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되게 신기했고 얼굴을 못 알아본 나 자신도 신기했다. 내가 잊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보자니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느꼈다. 생각해 보면 놀라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 나 자신이 달라져야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느낀다. "내 상태는 지금 이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같은.

그래서 말인데 오늘 꿈에서 이상한 꿈을 꾸어서 정말 놀랐다.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자 최근 했던 고민의 해결책이 떠올랐다. 아무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놀라운 일이라는 건 나를 바꿀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시기다.

사람이 합상 놀라면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끔 사람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겪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좌우명은 죽고 후회하자로 결정했다. 아무리 놀라는 일을 겪더라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의 안정된 행동들보단 나의 충동적인 행동들이 내 삶을 바꾸었다. 더 놀라고 더 재밌는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즐기고 싶다. 나는 이제 귀신의 집 따위에 겁먹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 15    💬 2



2024/05/22

wednesday, pm 2:07 | 25위음  
김민빈 (미디어스쿨\_20202706)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라더니,

/

여러분은 '교통사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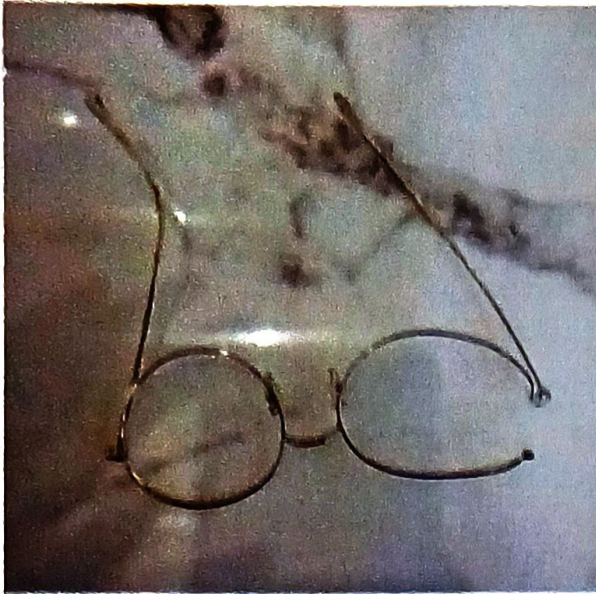
뉴스에서나 보는 일?  
아니면 나와는 멀고도 관계없는 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이 휘바뀌게 된 건 작년 여름부터입니다.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휴학생이던 저는 아르바이트 줄금을 위해 차도 사람도 거의 없는  
인적 드문 지름길로 가고 있었죠.

별안간 몸이 붕-뚱더니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똥탱이쳐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놀라움 얼굴의 차주분께서  
헬레벌떡 저를 살피러 오셨던 것 같아요.  
당시엔 안경이 날아가서 산산조각이 나는 바람에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연신 제 몸을 삼피던 차주분께서  
인근 병원까지 저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워낙 많았던 탓에  
접수하고도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연락받고 병원으로 뛰어온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무섭게 다그치시던 게  
기억나네요.  
그러게 왜 조심하지 않았나,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나,  
어디가 아픈지 빨리 말해라...

제 스스로도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보험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더더욱 무서웠어요.

그제야 실감이 점점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 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구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여러 가지 컵사는  
다행히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깨에 매고 있던 에코백이 루션 역할을

해주면서  
충격을 흡수해 준 기 같았어요.

이후로는 교통사고가 남 일 같지 않다라고요.  
원래도 좌우를 잘 살피고 다녔지만,  
더 철저히 사방을 경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후유증은 없었어요.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놀라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놀라움'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미  
이만 줄이겠습니다.  
축제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세요!

#1.1일차 #놀라운

😊 18 💬 4



2024/05/22

wednesday, pm 2:13 | 21읽음  
킴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1일차 #놀랍다

놀랍다, 네 나이 만 20살, 네가 벌써 대학  
학부생 3학년이라는 사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온지 몇그제  
같은데, 실습을 나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  
원하는 진로를 위해 관련 봉사 경험과 실습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년 정도 쉬어야겠다.  
15년을 헛름 없이 달려왔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3년.  
'직장인', '사회인'이 되기 위해 15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다. 15년 간 고생한 니를 위해 1년 휴학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마음 편히 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6개월 간 토익 공부, 6개월 간 영어회화 공부, 그리고 진로 관련 봉사 활동과 운전 연습을 1년 내내 꾸준히 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약 3~4번의 여행을 즐기려 한다. 휴식과 힐링보다 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운 나 자신에 놀란다.

내가 시험기간마다 하는 말이 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냥 한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날이 올까.  
모두가 마음 편히 인생을 즐길 수는 없을까.  
평생을 노동을 위해 허덕여야만 하는 걸까.

😊 16    💬 2



**2024/05/22**  
wednesday, pm 3:00 | 21위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11일차 #놀라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감정을 느끼는데요. 첫번째는 킥탄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신비와 기적이 가득하지 않은가요.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놀라운 사건들은 항상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발견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놀라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겠죠. 매일매일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는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어요!!^\_~☆  
오늘도 파이팅~

%목마른 파랑-김현참

😊 10    💬 2



**2024/05/22**  
wednesday, pm 3:01 | 20위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1일차 #놀랍다/놀라운

인간이 실면서 놀라운 경험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우면서 기분좋은 감정들이 생기는 순간들은 흔치 않을 것이다.

특히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반전의 내용을 접할 때.. 극적인 내용 전개가 발생할 때!

놀라운 감정이 생기는데 나는 그 놀라운 감정이 제일 기분이 좋다.

어쩌면 짜릿함일지도 모른다.

놀라운 감정과 어떠한 또 다른 감정, 기분들이 겹친다면

다양한 감정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과 기분들이 좋다.

😊 17    💬 3



2024/05/22  
 wednesday, pm 3:02 | 20원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11일차 #놀랍다

저는 잘 놀라는 편입니다. 알바를 할 때나 길을 걸어갈때 뒤에서 갑자기 부르면 정말 화들짝 놀라서 사람들이 당황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슈퍼N이어서 길을 갈 때나 가만히 있을때도 제 상상의 세계 속으로 빠집니다. 혼자 다른 세상에 있다보니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상상을 그려내고 그 속에 빠져듭니다.

혼자 상상을 할 때 비극적인 생각을 하면 상상일 뿐인데도 눈물을 활락 쏟기도 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폼 하고 웃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상상력이 높고 자주 멍때리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 친구는 분명 개복치일것입니다. 위에서보다는 앞에서 그 친구를 불러야 놀라지 않을겁니다.

😊 15    💬 2



2024/05/22  
 wednesday, pm 3:05 | 21원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1일차 #놀라다

[ 열한 번째 접시 ]

저는 놀라다, 라는 것을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거나 열린 생각 등을 마주했을 때 느낍니다. 내가 미처 해보지 않았던 것,

생각치도 못했던 생각, 나와 다른 신선하고 신박한 무언가를 접하며 깨닫고 놀랍니다. 대학교에 와서 위와 같은 경험으로 많은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얻는 놀라움으로 제 머릿속과 마음속 성장이 지속되고 발전되어 가는 게 느껴집니다. 타인에 의한 놀람들이 모여 내 생각을 발전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단순히 보여지는 것은 작지만 영향력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 뽀뽀뽀, 오늘의 몫 집시가 다했습니다. ]

😊 17    💬 2



2024/05/22  
 wednesday, pm 4:55 | 21원음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11일차 #놀라운/놀랍다

나는 정말 겁도 많고 잘 놀란다. 그다지 크지 않은 소리가 나도 놀라고 심지어 길에 있던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등 사소한 것에도 잘 놀란다. 또한 놀랄 때 리액션이 큰 편이라서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나를 많이 놀리기도 한다.

특히 남자친구가 날 그렇게 많이 놀리는데, 불과 어제 영화를 볼 때도 갑자기 팔을 툭 쳐서 놀라게 하고, 같이 게임을 하다가도 의자를 쳐서 놀라게 했다. 반응을 안 해야지 하며 마음을 먹어도 놀라게 했을 때 반응을 안 한 적은 없다. 내가 호두를 놀리고 싶은 마음과 같은 건지, 만나면 최소 하루에 세 번은 놀리는 것 같다. 어쩔 때는 오히려 놀라게 하려는 게 보여서 일부러 당해주시기도

한다. 이러한 괴절이 귀여워서 매일 놀라게 해줬으면 한다. :)

😊 16 💬 3



2024/05/22  
wednesday, pm 5:11 | 23일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918)

#11일차

#놀랍디/놀라운

<동심동덕>

오른손에 꼭 쥐어진 각지고 모난 휴대폰.

네 손가락은 뒷면을 긁싸고,  
엄지손가락으로는 화면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속속 쓸어내린다.

위잉위잉  
투 번 정도 들려오는 짙고 툭툭한 진동음.

초록색 밴드 로고와 오늘의 키워드가  
선명하게 보인다. 잇따라 해시태그와 함께  
줄줄이 올라오는 글들.

매일 다른 키워드로  
매일 다른 생각으로  
매일 다른 형태로  
매일 다른 분위기로

서로 '다른'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간다.  
놀라웠다.

희망이 차곡차곡 모아졌다.  
그리고 더 높이 쌓일 희망을 기대한다.

😊 17 💬 2



2024/05/22  
wednesday, pm 5:34 | 19일음  
김선유(컴퓨터학과/20246202)

#11일차 #놀라운 #축제

저는 어제 축제에서 신이 난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저는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또 조용하고 고즈넉한 걸 좋아해서  
감정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편인데 어제 큰  
음악소리와 환호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니  
축제라 그런지 저도 같이 신이 나더라구요.  
모두가 즐기는, 다같이 웃는 군중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었고 간만에 신나게  
뛰고서 숨이 차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고 환호하다니?"

정적인 활동, 밤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에서  
오는 행복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타인과 연결되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글을 정리하다보니 드는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또  
앞으로 즐거운 추억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학 첫 축제 비봉제,  
이번에는 화수목 모두 참여하려구요.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놀라운 감정을  
자주자주 느끼는 생활을 하는 게 1학년  
목표입니다!

😊 15 💬 3



2024/05/22  
 wednesday, pm 6:08 | 22읽음  
 희연진(입심의학통계,20233256)

#11일차 #놀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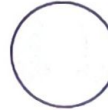
꿈신이 된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간다. 어제 도서관에서 멘토링 부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주말, 공휴일에 1시간 폰 사용 아니면 공중 전화로 전화가 오는데 그린비(공중 전화)도 아니고 폰으로 전화가 와서 '평일인데도 폰을 받았네?'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수류탄 사고가 나서 누군가 크게 다쳤다고 했다. 별일은 없겠지 싶었는데 뉴스가 뜰걸 보니 훈련병은 사망했고 소대장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훈련병이 죽었다고?' 너무 놀랐다. 그것도 남자친구랑 같은날 입소한 훈련병이 사고로 죽었다니. 남자친구가 안다쳐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죽은 훈련병과 훈련병 가족들을 생각하니 안심하고 있던 모습이 미안해졌다.

어렸을 때는 군인들을 보면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 걸 보니 군인도 나와 같은 또래라는게 실감되었다. 아직 어리고, 아직 20대일텐데 훈련 받다가 사고로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웠다. 다음 주면 수료식이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다.

같이 훈련받던 훈련병들도 모두 놀랐을 것 같고 가족들도, 훈련병들도 불안하고 슬픈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어제 오후부터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고 직접 목격한 훈련병들과 같이 생활하면 훈련병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안내되었다. 남자친구가 사고난 소대에 속해있는건 아니지만 모두 놀라고 무거운 마음일 것 같다. 이런 사고가 안생겼으면 좋겠고 한번 더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군인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16    💬 3



2024/05/22  
 wednesday, pm 6:58 | 18읽음  
 짐지른(20212564/인론방송음합전공)

#11일차 밴드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재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눈치 챈 학우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놀랐던 경험은 영어학원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내가 가르치는 반이 매일 달라지고 또 학원생도 많아서 이름은 다 못 외우지만 그래도 얼굴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또 영어학원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가깝지만 딱히 아이들이 나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거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었다.

놀랐던 경험은 이제부터이다. 평소와 똑같이 영어학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는데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와 뒷통수가 보였다. 알고보니 그 날 내가 가르쳤던 반의 학생이었고 그 아이는 바로 밑에 층에 살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며 헤어졌고 그 다음날 영어학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로 밑에 층에 학생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는 괜히 조심스러워져서 집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더욱 더 조심하게 걷곤 했다.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건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다른 동에 꽤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의 영어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돌아봤더니 학생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었다. 또 다른 일화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남자친구와 아주 친한 형분의 자녀였던 것이다. 남자친구와 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니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수업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 희식이 빈에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랐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세상이 좁구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다시 한 번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시점이었다.

😊 14    💬 2



**2024/05/22**  
wednesday, pm 10:28 | 21원음  
유명주(철릭/20202550)

#11일차

지금 밖에서 초대 가수 오반이 부르는 노래를  
동방에 앉아 듣고 있다. 젊은 심퍼라길레  
흥미가 팍 식어 기대하지 않은 채 귀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흥겹고 좋은  
노래가 많아서 지금 심담히 놀라운 상태이다.

그리고 밥급 오반을 검색해보고 다시  
놀랐다... 오반이 출몰한 모든 축제 직캠에서  
상의를 벗어제끼는 타진남이었던 건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길래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더니  
노래 제목이 <교회오빠>인 건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와중에 들려오는 축제기간 한정  
통급 해제 소식도 너무 놀란다. 어제부터  
해제해줬더라면 통급 지나고 새벽 5시 넘어  
들어온 룸메 덕에 수면을 2시간 손해볼 일도  
없었을텐데. 하지만 밤에 일찍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놀랍게 기쁘다.

푸드트럭 음식들이 만원대라는 사실도 너무  
놀란다. 세상에 축제가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기분이다" 소비를 해버릴까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어플 예약을 통해  
음식을 수령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런 건

어디서 알고들 하는 거지?

젊은이들이 모이면 놀랄 일 투성이다. 그래서  
인류가 젊음을 침송하는기보다. 대학생들이  
놀랍게 즐거워 다행이다.

😊 16    💬 4



**2024/05/22**  
wednesday, pm 10:30 | 20원음  
박힘아 (언어병리학과,20233930)

#11일차 #놀랍다/놀라운

나는 새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들을 때 놀라운  
감정이 커지는 것 같다. 배우는 것도  
흥미롭지만 특히 내가 관심있는데 모르는  
탐어가 나올 때 알게 되었을 때 놀라운 감정이  
더 극대화 되는 것 같다.  
가끔씩 한자어가 나오면서 랍자어를  
해석하면서 이 탐어가 뜻이 이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다. 한자라는 언어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수업하면서도  
한글이 정말 위태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놀라운 감정이 계속 든다.  
저번에 배우 이하늬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유명한 짤이 하나 있는데 짤의 말이 너무  
인상깊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처음인 게 있다니 너무 좋아!" 아직 배우는  
단계의 사람이라 놀라운 감정을 계속 겪을 수  
있어서 좋다!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려는 삶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바라지만 닿을 수 없는 삶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 15    💬 2



2024/05/22  
wednesday, pm 10:45 | 18위음  
밤에빈(중국학과,20201519)



#11일차 #놀랍다

고등학교는 문과, 대학교는 중국학과를 선택한 나는 놀랍게도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다.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궁금한것을 지식인에 물어도 보았다. 지난 학기동안 수학·과학 교양을 찾아 수강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면서 겨우겨우 좋은 점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과학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선사해주며, 나는 그 새로운 정보를 얻는게 즐겁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이야깃거리로 던지시 던져주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늘 글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화론 이야기를 남겨보고자 한다.

😊 16    💬 3



2024/05/22  
wednesday, pm 10:42 | 18위음  
킴쫌호 (콘텐츠IT)

#11일차  
놀라다.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지만 놀라움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순 없는 법이다.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가 가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혼란으로 가득차었다.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런짓을 했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은 "누군가에겐 정직하게 사는것도 특권이다."라는 말이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한마디는 나의 가슴을 후벼팠다.

내가 불평 불만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이,

우린 모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다. 그가 칩필함 <종의 기원>이 과학의 큰 발전을 이뤘다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종의 기원>의 내용은 배우지 못했다.

찰스 다윈은 남미를 탐사하는 선박에서 박물학자 역할로 5년간 항해했다. 긴 항해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썸, 태륙과 통떨어진 칼라파고스 섬에 도착하여 많은 관찰을 하였다. 그 섬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모습의 새들이 사실 모두 '핀치새'라는 종이었음을 알게되었고, 탐사가 끝난 후 찰스 다윈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점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서 찰스 다윈은 집필을 망설였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 기존 이해하고 있던 인간의 존재 자체를 깨뜨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탐사가 끝났던 1836년 이후 23년이 지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집필했다.

<종의 기원>의 내용은 먼저 비둘기 이야기로 시작된다. 비둘기의 다양한 종, 형태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동물의 품종개량이 만연했던 18세기, 비둘기로 동물의 품종개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다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목인데, 비둘기 이야기가 끝난 후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선택의 방법을 통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 하물며 자연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내게 놀라움을 선사할 문장이다. 찰스 다윈의 위대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우리가 품종개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듯, 자연이 그 순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지구의 생명 전체를 바꾸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우성학과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이 식민지화를 낳는 불상사가 생겼다. 그의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다. 애초에 찰스 다윈은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descent with modification', 즉,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라고 표현했다.

약 38억년 전, 어느 한 순간,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되어 지금이 되었다. 또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과학의 놀라움은 늘 나를

찌릿하게 만든다. 오늘 이 글로 놀라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 14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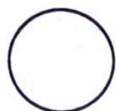
2024/05/22

wednesday, pm 11:01 | 1791음  
황보승표(리서치학과 20211733)

#11일차

요즘 제일 놀라운 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23살이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대면 수업을 주로 하며 고등학교 3학년년을 보냈다. 고3 때는 등교 일수와 온라인 수업 일수가 거의 비슷했고 고3의 빅 이벤트인 수능 또한 안 보고 지나가다 보니 기억에 남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게 나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면 비대면을 병행했고 코로나 시국의 학교는 큰 이벤트 또한 없었다 보니 대학교 1학년도 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입대를 했고 2년간의 휴학 후 이번 학기에 복학했다. 코로나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몇 년이라는 시간을 빨리 감기 하듯 건너뛴 것 같다.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23살이라는 걸 자각할 때마다 한 번씩 놀라면서 한숨이 절로 폭폭 나온다.

😊 14    💬 3



2024/05/22

wednesday, pm 11:02 | 19일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 #11일차 #놀랍다/놀라운

오늘은 참 바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가롭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2시에 팀플 과제 리허설 발표가 있어서 11시부터 조원들과 만나 마지막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아동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리허설이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교구를 준비하는 과정, 대본과 피피티를 만드는 과정, 아이들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아동 센터이다보니 어느 수준에 수업을 맞춰야할지에 대한 걱정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보니 친한 팀원들과도 마냥 하하호호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리허설이지만 실제 아동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오시라길래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과 아동센터의 원장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매우 놀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보니 두 평가자 분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리허설까지 듣고나니 거의 3시간 30분이 지난 5시 30분 즈음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중반을 탈리고 있는 날이었지만 놀랍게도 오늘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돌아와 리허설로 다 뺏긴 저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기숙사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열어 운동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햇빛을 맞으며 낮잠을 잤습니다. 놀랍게도 축제날에 친구도 만나지 않고 기숙사에서 노래만 들으며 혼자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하늘이 정말 파랬는데, 그것마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직전까지 생업에 잠못을 입은채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저에게 놀라운 스피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마라탕을 포장해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마라탕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서 계속 김탄을 하며 먹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는 팀플 때문에 정신 없고 예민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팀플이 끝나고나니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나른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요? 축제를 즐기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나요? 어떤 하루였든 여러분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래요!





2024/05/22  
 wednesday, pm 11:09 | 16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11일차

매일 터지는 사회문제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

작년에 정부가 처음 발표된 이후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한 의대증원문제부터 해외직구금지법안,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에 이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갑질과 연애인들의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롭게 갱신되어 세상에 나온다. 토대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걱정스러운 한편 상당히 답답하기도, 무섭기도하다.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나올까, 놀라움에 기댄 두려움을 하루가 멀다하고 커지는 것 같다.



2024/05/22  
 wednesday, pm 11:30 | 15읽음  
 박혜원 (생명과학과 20227081)

#11일차

무서운 영화에서 단단히 준비한 장면에도 잘 놀라지 않는 사람을 '갑심장'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공포영화는 물론, 일상의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는 사람을 '심약자', 즉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 불리며 공포를 내세우는 미디어들의 도입부에는 이들을 위해 경고의 문구가 남겨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심장은 놀라는 것과 상관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장은 놀란 다음의 이야기이다.

사람이 놀라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뇌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혹은 질먼), 갑작스러운 접촉 등의 자극을 입력받으면, 이 감각 정보는 즉시 뇌로 전달된다. 뇌는 이 정보에 대해 귀를 막거나 몸을 움찔거리는 등의 신속한 반응을 유도한다. 이때 뇌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교감 신경계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에피네프린으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빨라지게 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놀라는 것은 심장이 아닌 뇌에서 시작되는 반응이며, 교감신경계의 민감성에 따라 잘 놀라는 사람과 둔감한 사람으로 그 정도를 나눌 수 있다. 교감신경의 민감도는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의 컨디션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잘 놀라도 어떤 때는 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놀라는 정도와 심장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심장은 반응하기에 '심약자'에게 경고하는 문구는 그들에게 고마운 정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놀라든 아니든, 똑같은 자극에 대한 심장의 반응이 건강한 사람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장마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때문에 경고 문구에 '심약자'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등장했다.

나는 어렸을 때 스스로 잘 놀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차를 타고 가면 바깥 풍경에 대해 사소한 일에도 놀라며 큰소리로 놀라 가만히 있던 가족들까지 놀라게 하고는 했다. 그래서 모두의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많은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나는 교감신경이 민감해 잘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호들갑 떨기를 좋아했던 거 같다.

😊 12 💬 2



2024/05/22  
wednesday, pm 11:36 | 19위음  
최현우(미디어스튜디오/20242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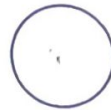
#11일차 #놀라운

별 다를 것 없었던 제 삶에 요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삼삼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큼 놀랍고 짜릿한 일이 있을까요.

전 저를 놀랍게 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운 것들에게 잘 놀라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서야 별 낱흠이 없거든요.

그렇기에 요즘이 재밌는 저입니다. 아마 이번 년도에 성인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진 않더라도, 흥미진진하며 또 잔잔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12 💬 1



2024/05/22  
wednesday, pm 11:39 | 15위음  
최현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11일차 #놀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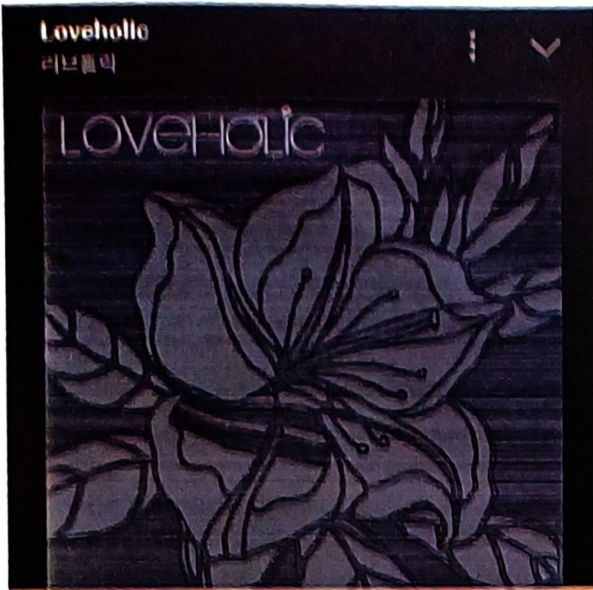
카페 일비를 하던 중의 일이다. 일한 기간이 길다보니 자주 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대강 일개 된다. 30대 침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이 텀골 손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신다. 바로 1~3분마티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시는 것이다.

카페 출입문엔 종이 달려있다. 난 손님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종소리에 저절로 반응해 인사하게 되는데, 그 분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실 때마다 다른 손님이 오신 줄 알고 인사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혼자 일하는 카페 일바생의 특권, 노래를 마음대로 선곡할 수 있다는 것. 요즘 빠진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의 OST 플레이리스트를 재생중이었다. 원래대로면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담배 여러번 피우다가시는 그분이, 갑자기 말을 걸며 무언가 네미했다. 의외의 행동이라 놀라서 쳐다보니 작은 수첩과 함께 "이 노래 제목이랑 가수 좀 적어주세요." 하셨다. 마침 나도 드라마를 통해 새로 알게 되어 최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노래라 곧바로 적어트렸다.

컬으론 평화로워보이는 카페에선 꽤 놀라운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오늘은 지붕 위에서 나무판자가 갑자기 떨어졌다.) 지켜워칠 만하면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 때문에 아직 질리지 않고 일하는가보다.

모임이 쉬워진다!



😊 10    💬 2



**2024/05/22**  
wednesday, pm 11:43 | 12위음  
한필섭(사회학과,20102237)

### #11일차 #놀라운

이 주제를 처음 받고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놀랐던 순간은 어떤 사회현상이나 주변이 너무 크게 바뀌거나 너무 변화(바뀐거)없을 때 놀라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 근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주변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20년된 문구점이 없어졌고 근처 음식점도 싹다 바뀐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그리고 최근의 예비군을 갔다왔을 때 느꼈던 것은 군대 모습이 내가 근무할 때랑 시설이나 일과 등은 전혀 바뀐것이 없어서 놀라웠지만 또 놀라웠던 것은 내가 근무했을 때보다 월급이 2배나 오른 것이었다. (뭔가 나의 군생활이 헛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무래도 사회학과다보니 이런 현상적인 놀라움을 많이 적어봤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현상도 지구의 자전과 같이 정말

천천히 움직이면 지엄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변화가 없거나 갑자기 변하면 놀라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주에 놀란 것은 내가 사회봉사하던 학생이 유튜브 실미비튼(10만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것이다.

😊 0    💬 1



**2024/05/22**  
wednesday, pm 11:51 | 14위음  
조심빈(중학학과, 20201534)

### #11일차 놀라운

내가 최근에 가장 놀랐었던 일이 히니 있었다. 너무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챗 gpt'를 사용했을 때였다. 과제를 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보가 필요해서 급하게 사용해봤는데 왜 타들 시, 인공지능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단순한 문장을 입력하면 그에 맞게 10초, 아니 5초도 안되서 바로 10줄 이상의 정보 글을 입력하여 나에게 알려주었던 그 순간의 놀라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제는 디지털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로서 살아야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게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인간미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나중에는 정말로 인공지능 료봇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혹은 길거리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있을까? 정말 이러한 광경이 올까봐 무섭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본다면 나는 또 놀랄 것 같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오늘 전공박람회에서 었었다. 코로나 학번이라 처음으로 전공박람회에 대면으로 가보았는데 정말 내가 모르고 있던 학과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놀라웠고 또 관심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더 놀랐었다. 놀 하던 것만 혹은 기던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조금이라도 현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나는 늘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맞춰가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나 또한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해나가야 하나보다. 세상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것들이 있을까? 두렵지만 설레는 이 마음도 놀랍다.

😊 10    💬 2



2024/05/22

wednesday, pm 11:53 | 14위음  
한지현 (테이타테크, 20203260)

#11일차

몰입의 순간, 순식간에 시간이 사라졌을 때 놀라운 감정이 듭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죠. 매번 이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점에서 시간의 체감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과거 영상 제작을 위해 넘어지는 연기 장면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넘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체감을 정말 느끼게 느꼈던지라, 영상 시간은 분명히 긴 시간으로 찍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들러붙 영상은 당연히 짧은 시간대였죠. 그때부터 시간을 체감하는 감각이 신기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가온 순간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지점이었는지 궁금하네요

😊 10    💬 2



2024/05/23

thursday, am 12:15 | 23위음  
김상선

#1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놀랄 만한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대학생할에서 놀랄 만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은 반대로 신나는 일이에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또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놀리움을 느끼는 것은 훗날 나의 자신이 될 겁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요즘, 기습이 뒤는 놀리움의 경험을 소중하게 가져가기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 13    💬 0



2024/05/23

thursday, am 7:59 | 31위음  
김상선

#12일차 키워드 : 발표

대학에 오니 과목마다 발표가 많아 힘들다는 친구들이 꽤 많죠. 기밀쯤이면 발표와 리포트의 연속이라 이서 밤학이 있으면 할 거예요. 여러분은 발표를 즐기나요? 아니면 두렵나요?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참, 내가 발표의 주체가 아니라 간접하게 어떤 발표를 기다림 적도 있을 거예요. 대학합격자 발표, 공모전 발표처럼요. 발표를 하든, 기다리든 그 발표는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14    💬 0



2024/05/23  
thursday, am 10:01 | 22views  
김재민(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2일차 #발표

발표

무대에 선 순간,  
거센 피도기 출렁입니다.  
수많은 눈빛 속에서  
내 목소리는 작은 피도기 된다.

숨을 고르며 시작한 한 마디에  
심장은 고동친다.

끝을 맺는 순간  
인도의 숨 내쉰다,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선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는 빛나는 것 같다.]

😊 13    💬 3



2024/05/23  
thursday, am 11:23 | 19views  
김선유(김호학과/20246202)

#12일차 #발표

실면서 크게 발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와서 사투리가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린다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말할때 종종 사투리가  
생각나 "나 사투리 썼어?"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 친구들이랑 이야기 할 때는  
사실 서로 억양 차이를 잘 인식 못하는 편인데  
결기토나 서울 친구들이 듣기에는 억양이

다르게 느껴지긴 한디더라고요. 그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사투리도 개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발표에 있어서 발표 내용 보다 말투에  
집중하게 되는 게 발표자 입장에서 비리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말투에 조금 더 신경써서  
준비하게 되는 거 같아요. 다음주부터 발표가  
어긋 있는데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 15    💬 2



2024/05/23  
thursday, am 11:30 | 18views  
유영주(철리/20202880)

#12일차

지금 듣고 있는 교양 수업은 성적을 잘  
받으려면 매 시간마다 하기 싫은 일을  
실천했던 사례를 발표해야한다. 발표라 함은  
본디 나의 생각을 청중에게 최대한 전달하는  
것일텐데 이 발표 중에 학생들의 실천을  
귀담아 듣는 인원은 약 80명 중 1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귀담아 들어도 다음 학생의  
실천을 귀담아 듣다보면 그 전의 실천은 금방  
휘발되기 마련.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도  
아니고, '내 선행을 봐 멋있지?' 하는 아무도  
듣지 않을 자람을 몇십 명의 청중에게 던지는  
방식의 발표가 갖는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점수를 위해 실천하고  
발표하다보면 스스로의 선행을 돌아보며  
자기긍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어보인다.  
발표를 위해 내가 실천했던 하기 싫은 일들을  
정리해보니 내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걸  
발표가 아닌 과제여도 가능한 일일테다.  
차라리 하기 싫었던 일을 정말로 하지 않았던  
결허를 발표했더라면 흥미롭게 들었을 것  
같다.

😊 14    💬 1



2024/05/23  
thursday, pm 12:41 | 17views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2일차 #발표

'발표'만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빛과 긴장감이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려운 과목 시험을  
보는 것보다, 발표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조별과제를 할 때 발표는 우선 피한다.  
괜히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발표에 자신이 없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지만, 발표를 잘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봐야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다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것 같다.  
불가피하게 발표해야 할 때면, 집에서 혼자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십 번  
연습해본다. 그럼에도 실제 발표 현장에서  
입을 떼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버벅이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발표를 잘하는 학우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발표를 잘할까?', '어떻게  
연습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하시는  
걸까?' 생각한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끼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무게로  
느끼는 것 같다. 다른 학우분들이 발표 중  
실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럴 수 있지',  
'긴장하셨나 보다', 쿡은 생각 없이 오히려  
속으로 열심히 응원한다.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운데 왜 나 자신이 실수하는 것에는

까다롭고 예민한 걸까.

어쩌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은 나 자신이 준  
부담감과 날카로운 눈빛 때문이 아닐까?

😊 14    💬 3



2024/05/23  
thursday, pm 12:42 | 18views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2일차 #발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고  
남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항상 조용히 싶었다.

발표를 하는 순간에는

너무 긴장되고 모두가 날 쳐다보는 그 기분은  
헛재까지도 적음이 안된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은 수업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표가 너무 무섭고 떨리고 긴장되고  
하기가 싫다.

발표를 자신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정말 멋있고 본받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토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마음으로  
자진적으로 발표도 많이 했었다.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용기를 통해 발표를 지금까지 할  
수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겐 발표는  
무서운.. 존재다.. ㅠㅠ

언제쯤 자신있게 사람들과 눈맞추며 발표를  
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표를 하는 습관을  
킬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15    💬 3



2024/05/23  
thursday, pm 12:47 | 20원음  
원혁빈(컴제학과/20195112)

### #12일차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 탓에 발표는 필수로  
시키는 것 외에는 경험이 많이 없었다. 사실  
학교 수업 외에도 무언가를 설명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발표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직전 학기에 종합설계 과목을 수강해  
조별과제가 있었다. 사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웬지 지극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해낼 것 같아서 내가 발표를 하겠다고  
지원했다. 우리 조 차례가 온 당일, 솔직히  
내가 들어도 못 한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것도 이전에 경험이 부족한 탓일거라고  
후회하고 자책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기가 끝나고 결과는 평균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서도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피력할 자리는 언제든지 생길  
것이다. 물론 아직도 내가 말습씨나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많은  
연습을 해야겠다.

😊 15    💬 3



2024/05/23  
thursday, pm 1:20 | 21원음  
집우현(철학과/20231084)

### #11일차

학창 시절엔 발표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입술이 뻣게지긴 했어도 최선을 다했다. 특히  
자신 있던 역사 과목만 되면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곤 했다.  
나이가 이렸을 땐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 같다.

최근에 힙합 동아리를 들어가 공연을 했다.  
살면서 그렇게 떨린 적이 없었다. 연습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공연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공연 날이 다가오자  
나는 맨붕상태가 왔다.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위 생각 안 하고 쓴  
힙합을 부르기엔 숨고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래도 이왕 공연 하는거 최선을 다하고 싶어  
열심히 불렀다.

연습하지 않은 내 자신이 미웠다. 이로서  
경험이 중요하구나를 몸소 깨달았다.  
발표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건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건 나 자신한테 존중받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타인의 인정을 위해 노력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외하곤 다 그랬다.  
이제부터라도 내 기운을 찾고 살아야겠다.  
하나뿐인 인생 후회하고 살기엔 너무 짧다.

😊 14    💬 2



2024/05/23  
thursday, pm 1:25 | 19원음  
정승민(융합신소재공학/20200639)

#12일차 #발표

발표란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눈만이 아닌 말로써 평가되기에 떨린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와 문장이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마다 제각각의 면모가 드러난다. 어떤 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 가 인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여길 수도 있다. 대중을 상대로 발표에서 자료를 준비한 만큼 자신의 성과를 전하기 위해선 꽤 긴 고심이 필요하다.

학생이 수행하는 발표는 정보의 전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거나 배울 것을 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고로 말하기보다 인터넷 탐색 및 정리가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자가 되기를 꺼려한다. 부담감과 책임감, 준비성 등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발표를 한다는 것을 꺼려 하지 말자, 대화를 자주 해야 말이 유창해지듯 발표도 마찬가지다. 반복적인 발표의 수행은 알게 모르게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답상 위에 오르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발음을 올바르게 쿨리고, 발성을 적당히 크게 내기를 연습해야 한다. 나 또한 이를 향상 열투에 투고 발표에 임하고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렇듯 쉬운 일은 아니다.

😊 15 🗨️ 4



2024/05/23  
thursday, pm 1:46 | 22원음  
최현진(입상의학통계,20233256)

#12일차 #발표

무대에 서서 춤을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공연하는 건 많이 떨리지않는데 왜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건 못하겠는걸까?

전공 팀 프로젝트가 기말고사 대체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않았다. 조원을 만나서 누가 ppt를 할지, 발표를 할지 나눌 때마다 나는 항상 ppt를 하겠다고 얘기한다. 발표를 하는건 나에게 아직까지 너무 큰 부담이다. 만든 결과물을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것은 더욱더 부담된다. 프로젝트 발표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질문받는 시간이 제일 싫다. 물론 예상하던 질문이나 내가 아는 질문을 받게되면 그나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정리가 안되서 황실수설 대답하게되고, 아예 대답을 못하겠는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가득차버려서 대답할 수 없어지게 된다.

발표를 해야되는 순간이 올때마다 나도 짊 하고싶은데 왜 말을 정리해서 얘기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습도 안해보고, 경험도 많이 못해봤지만 그저 자신감만 낮아진 상태인 것 같다. 물론 말을 잘 정리해서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은 큰 무대를 서면 앞에 관객들의 표정이나 시선이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긴장이 안되는데 큰 무대가 아닌 작은 발표를 해야되는 수업이 있을 땐 앞에 사람들이 너무 잘보여서 긴장하게되는 것 같다. 그럴때마다 지금 날 보고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꺼야, 내가 발표하는게 오히려 정상이지 라고 합리화하게 된다. 또 내가 발표를 듣는

입장일 텐 발표하는 사람이 떨리겠지? 하며  
오히려 내기 시선을 내리거나 화면만  
보게된다.

발표가 팀플에서 제일 쉽다는 친구도 있지만  
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잘하는건 다름데니.. 앞으로는 발표하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싶고 말도 잘하고싶고, ppt대신  
발표를 선택해서 팀플을 해보고싶어진다. 말  
잘하는 연습을 하고싶어진다.

😊 15    💬 4



**2024/05/23**  
thursday, pm 2:55 | 20위음  
킵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2일차 #발표

어렸을 때는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꽤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알고  
있을 때  
괜히 행동이 경솔해보이거나  
실수 하나로도 큰 명분이 될 까봐 언행을  
조심한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세상만사가 돈을 벌려면 학교에서 배웠던  
발표를 토대로  
나를 알려야 하는 일이 분명 올 텐데

이제는 나를 내세우는것이 무섭다. 하염없이  
숨고 싶다.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닌데 누가 나를 안

찾아주었으면... 했던  
그런 날이 있다

😊 16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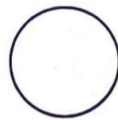
**2024/05/23**  
thursday, pm 3:05 | 20위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12일차 #발표

발표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죠. 발표를 준비하면서 긴장되고  
두려운 건 당연한 일이죠. 전 항상 떨떨  
떨면서 발표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남의  
발표를 볼 때도 떨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면, 그  
진심은 청중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길  
바라면서 말의 앞에서 있는게 발표의  
맛이겠죠. ♪ 나를 성장시키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니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발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축제의  
마지막날, 긴 밤을 즐기며 좋은 시간  
보내세요!! ^ \_ ☆

%여름아 부탁해!-인디고

😊 16    💬 4



**2024/05/23**  
thursday, pm 4:29 | 20위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12일차

저는 발표를 좋아합니다. 나만의 표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끄덕이는  
상대방들을 보면 내가 잘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발표자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비해 준비과정도 길고 떠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대학 오기 전에는 손, 다리, 발음이 다 떨리고 손을 어디에 뭍지 몰라 만지작 거리고,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별거 없어 보이던 교실마저 굉장히 커보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던 찰나에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였고 학생들의 자유주제를 통한 세미나형식의 대회였습니다. 1차로 주제를 선정해 심사를 받고 2차로 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선생님들 질문을 받고 내려오는 대회였습니다. 보고서 권함을 쌓자는 의도로 참가한 대회에 1차가 붙어 발표준비를 해야했고 이에 전교생 앞에서는 떠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저는 2주동안 대본을 외우고 타이머를 킨 뒤 예상질문과 함께 집에서 혼자 발표연습만 죽어라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누가 자는지 내 발표에 관심을 가지는지 어부와 상관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 아찔했습니다. 결과는 좋은 발표와 더불어 수상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나 2번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대학에 와서도 여전히 저는 발표를 하기 전 최소 3일은 준비를 해야 발표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 달마진 것은 발표 준비 과정이 재밌습니다. 특정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에민해지면서 캉캉들과 시아를 가득 채운 사람들로 하여금 느껴지는 아찔함까지 그때의 기억이 떨림과 관계없이 발표라는 것을 즐기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발표할 때 어느 정도 떨리시나요, 혹시 그 떨림을 나름의 방법으로 즐기시는지 많으시나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발표가 하기 싫어도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15 🗨️ 3



2024/05/23  
thursday, pm 4:38 | 19916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12일차 #발표

중학생 때부터 토론동아리를 해왔어서 발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다. 오히려 나서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거부감이 없는 것과 떨리는 것은 별개인가 보다. 대학교 입학한 후 들은 과목 중에서 세 수업이나 발표를 시키는 것이다. 준비만 잘해가면 문제없으니까 3주 전부터 준비해서 완벽하게 발표할 준비를 마쳤었다. 그러나 첫 수업의 발표를 시작했을 때, 내 목소리는 마치 엄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내 귀로 들리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발표는 마무리했다. 같이 수업을 들던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목소리를 떨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이후 나머지 두 개의 수업에서도 목소리가 떨릴까 봐 발표에 집중을 잘 못 했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인다. 나는 사람이 10명 이하일 때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것 같다. 토론을 할 때도 토론자 6명과 심판 2명이 끝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토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아닌기 추측해 본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하고 싶다.

목소리를 떨지 않고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아시는 학우님들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 15 🗨️ 3



2024/05/23

thursday, pm 4:50 | 24읽음

희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 #12일차 #발표

본래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호불호가 확실한 편이니, 이상하게 낯들 앞에 서기만하면 작아지는 나였다.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속으로 '나 저거 하는데...' 했다. 내가 생각한 답과 일치할 때는 '그냥 말할걸.' 하고 후회했지만 입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답을 틀릴까 두려웠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학기초에 자리배정으로 선생님과 가까운 앞자리에 앉게 되었다. 학급 분위기도 좋았고, 당시 담임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인 사회 문화를 담당하셔서 수업시간에 대답할 용기가 더 생겼다. 편하고 친근하게 묻고 답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동안의 대답 못한 한을 풀듯,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작은 편인데 앞자리라 선생님께서만 들리게 말할 수 있어 좋았다. 하다보니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를 얻어 진로 발표 대회에서 삼을 받는 결과까지 이루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나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게 발표는 두려운 존재다. 이젠 수업시간에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발표를 해야하는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듣는 영화 수업에서 더욱 그렇다. 조별 발표이긴 하지만 거의 한시간 반 정도 학생들이 수업 흐름 의 뉘이 되어 온전히 끌어가야한다. 영화 텍스트의 해제를 어떻게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설명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영상물을 보여주고 참고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에 이 수업이 이번 학기 나에게겐 가장 큰 숙제다.

좋은 조원들을 만나 영화 하나는 무사히 마쳤고, 다시 새로운 영화로 다음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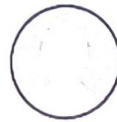
처음엔 어려웠지만 용기를 얻고 생각을 나누는 재미를 느꼈던 것처럼, 발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용의 흥미를 이끌어내 한 명에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표를 하고 싶다.



16



3



2024/05/23

thursday, pm 5:22 | 21읽음

한광성(사회학과,20182237)

### #12일차 #발표

어렸을 때는 발표수업이라는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었고 발표도 했었다.

오히려 자료조사 같이 앉아서 정리하는 걸 어려워했다.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난생 처음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낯선 장소에서 발표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곰곰히 또 발표가 왜 힘들까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평가자들이 그 팀을 평가할때 ppt로 평가하는게 아닌 발표자의 발표를

평가하는거라 팀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도 발표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4학년 정도가 되다보니 팀장을 하게되고 자연스럽게 발표까지 원치 않아도 맡게 되는 상황이 많았다.

하기 싫지만 하다보니 발표를 하는 사람의 장점도 많이 찾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최고의 발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부족할까 라고 한 번 더 스스로를 고찰도 하고 팀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능력이

생기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어떻게든 발표를 하긴 해야하니깐 남들에게 부탁할 용기도 얻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러다가도 안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해야해서 힘든것은 있다...)

그리고 발표를 위한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내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내가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배워가는데 많은 것 같다. 힘든만큼 성장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발표는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월드컵 등 토너먼트 경기를 할 때 조추첨이 제일 기다려진다.

😊 14    💬 3



**2024/05/23**  
thursday, pm 7:01 | 25읽음  
킴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인생 최악의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

고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잘 해낸 후에 받는 칭찬이 탈았기 때문일까요?

누구보다 완성도 높은 발표,  
누가 봐도 '와! 진짜 잘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발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잘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무대 위에서 덜덜 떠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 기억 속에서 최악의 발표로 남은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 수업이었는데, 시전 순서 고지 없이 불리먼 나가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야 했었어요.

급작스럽게 불린 제 이름에  
몸공도 심장도 얼마나 떨리던지...

다행히 피피티와 대본은 미리 만들어 두었지만,  
충분한 연습 없이, 그것도 모두의 이목이 쏠린 첫 번째 순서로 나가서 발표해야 한다는 게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긴장한 탓에 마른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 갔습니다.

심장과 텅탈아 떨리는 성대에 애써 힘을 주고 꾸역꾸역 발표를 이어 나갔어요.

손에 든 대본 종이는 이미 구겨진 지 오래였고 차가운 정적 속에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메가리 없는 박수가 짧게 이어지다가 끊겼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쥐구멍에 숨어버리고 싶다-였습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때의 발표가 인생 최악의 순간 TOP 5에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발표,  
충분한 연습이 없었던 발표,  
나 자신조차도 긴가민가하던 주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나에 대한 자책과 참피함에 집어삼켜졌습니다.

아마도, 지존실에 글이 갓던 거 같습니다.



2024/05/23

thursday, pm 8:34 | 17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

이전히 발표는 어렵고 힘들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겠지요,  
인생 최악의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발표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발표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싸워보려고  
합니다...!

발표 수업이 있는 학우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12일차 #발표



#12일차

#발표

<디딤>

나이를 먹어기면서도 발표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되어가는 듯 하다. 미리를 외락  
줘어뜰으면서 태본을 쓰고, 몇 시킨씩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준비해도 실전에서서는  
한 톨크 나오지 않는다.

나는 발표 질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중에서도 태본없이 자기 뜻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시킨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호감을 이끌어낸다.

물론 나토 에외는 있다. 발표 스크립트가  
준비되었을 때이다.

발표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말, 언제 호흡을  
기타들어야 할지, 어느 파트에서 눈맞춤을  
할지에 이어 마지막 마무리까지, 발표의  
처음과 끝에서 말해야 하는 모든 발화를  
원고로 작성한다.

이 스크립트 하나면 톨랑톨랑 울려퍼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른  
자세, 여유있는 표정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런 내가 처음으로 스크립트 없이 발표한  
적이 있었다.

무려 한 달 전부터 이리저리 직접 두 발로

뛰어 제작한 프로젝트였다. 멘트에 이어 직접 계획해보고 실행까지 해가면서 만든 온전히 '나만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 프로젝트는 한 달 동안 나와 한 몸이었고, 누군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냈을 때 망설임 없이 줄줄 설명할 수 있었다.

발표 당일 혹시 몰라 써 놓은 스크립트를 일부러 챙기지 않았다. '나의 말로 진정한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떨리는 건 당연했다. 화려한 인법과 말솜씨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쏟아낼 수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진짜 이렇게 할 걸. 그때의 발표는 아주 작은 진전이었지만, 나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도전해본 나를 다독여주고 칭찬해주었다.

나처럼 발표를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일단 해봐라. 해보고 생각해보자고, 생각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용기를 주고 싶다.

😊 10    💬 4

모임이 쉬워진다!



2024/05/23  
thursday, pm 9:00 | 2024년  
박지호(식영,20213010)

#12일차  
발표

오늘 발표를 했다. 학창시절 때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발표는 인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같다. 항상 떨리지만 하고나면 뿌듯함과 한층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은 너무 좋은 것 같다. 오늘도 매우 떨린 발표를 마쳤지만 오늘도 이로써 한층 성장했다. 어느 정도의 떨림과 긴장감은 인생에 있어 좋은 영향인 것 같다. 이런 자극들은 우리 인생을 좀 더 생기있게 해주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는 것 같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 긴장감은 에너지 라고 생각한다.



😊 14    💬 4



2024/05/23  
thursday, pm 9:20 | 20원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2일차 #발표

[ 열두 번째 접시 ]

저는 발표를 좋아합니다. 팀원 역할을 조정할 때도 발표를 먼저 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자료조사나 PPT 만들기보다도 발표가 훨씬 더 편하고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첫 팀풀이였는데 앞에 나가 잠깐 35분 정도를 팀원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토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발표 당일 속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발표 전 서로 맞춰보던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다며 서로 긴장된 티를 역력히 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마 대학교 첫 팀풀에 첫 발표, 교수님께서 꼼꼼하신 분이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긴장해도 잘 풀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뽀득뽀득, 오늘의 뽀 접시가 뒤였습니다. ]

😊 16 💬 4



2024/05/23  
thursday, pm 9:28 | 21원음  
방에빈(중국학과, 20201519)

#12일차 #발표

고등학교 때 600명 앞에서 홀로 외국어발표대회를 하고 대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독후감발표대회, 과학 연극, 소논문 발표 등 발표와 관련된 대회가 있다 하면 모두 도전하고 입상했다. 다양한 경험 덕분에

대학교에서의 발표도 줄곧 잘 할 수 있던 것 같다.

발표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의 학창시절 때에도 긴장은 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무리 내용을 잘 숙지해왔더라도 긴장한 탓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적도 많았다. 더듬거리고, 말실수를 하고, 말길을 잃어 헤메기도 했다. 발표를 많이 해보고, 잘 해왔더라도 '긴장' 앞에서는 모두 같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발표 전 긴장할 때, 루틴을 만들었다. 별것 아닌, 목을 푸는 큼큼소리이다. 발표 전에 큼큼소리를 내면 비로소 내 몸이 발표할 시킨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몸의 긴장을 살짝 풀어준다.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운동수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루틴이 있듯이, 발표 전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루틴을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긴장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이다.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긴장은 배가 된다. 이번달 말 중국학과 졸업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어질 나의 발표를 긴장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연습해야겠다.

😊 16 💬 4



2024/05/23  
thursday, pm 9:56 | 21원음  
장지은(20212564/인문방송융합전공)

#12일차 대학생활을 하며 과목마다 요구되는 발표도 있기는 하지만 발표가 항상 주체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큰 긴장감과 기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나 각종 공모전의 결과 발표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불안,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최근에 기다린 발표는 지난학기 학점 결과였습니다.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이 성적을 입력하셔야 하는 날짜까지 하루에 20번 이상은 한림대학교 공식앱에 들어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학기 수업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전혀 예상되지 않고 그 때문에 성적 평균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아 더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A+의 성적을 받으면 그 날 하루는 세상을 다 가진듯이 기뻐고 그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그 날 하루가 우울하고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학습 방법과 성과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전략을 적용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동기 부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학우분들 역시 공식앱에 들어가서 성적이 나왔나 확인했던 경험은 한번쯤 해봤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학기가 막학기인만큼 학점을 확인할 때 떨리는 감정보다는 자신감 있게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14 💬 3



**2024/05/23**  
thursday, pm 10:31 | 18위음  
박현아 (언어병리학과, 20233030)

#12일차 #발표

고등학생 때 까지만해도 발표는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생각을 그냥 순서대로 조리있게 있는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대학에 오며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는 많은 시선들을 보며 긴장하고, 두려움도 열고, 조별과제에서는 너무 실수하고 내가 그 발표를 맡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발표만은 피하고 싶어요!'하는 발표공포증 학생이 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표와 다름 보는 시선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공포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결책이 있다면 당장 구매해서 읽을텐데... 악물이 있다면 100개라도 살텐데... 이제 대학생이 된 나와 발표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진 것 같다.

😊 14 💬 4



**2024/05/23**  
thursday, pm 11:07 | 18위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12일차

발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저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며 그로 인해 저를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예요.

그렇기에 발표는 영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내가 잘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들에게 나에 대해 알려주는 의미 깊은 행동인만큼,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대외활동에 있어서 더욱 발표에 대해 신중깊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 14 💬 2



2024/05/23  
thursday, pm 11:10 | 19위음  
박혜현 (생명과학과 20227081)

#12일차

내가 생각하는 <발표 질하는 방법>  
시험은 족기 전까지 몇 번의 발표를 하게  
될까?

과제로 발표할 수도,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할 수도, 혹은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불가피한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 뻘뻘해질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겠지만,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 자신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뻘뻘한 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발표는 나를 위해 무조건  
잘 해야 한다.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ppt로 준비하는 정석적인  
발표의 경우 이 뻘뻘함이 더욱 빛을 발휘한다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므로 온전히  
활용해야 하는데, 내가 이 발표를 위해 많은  
과정을 겪었다면 나는 이 강의실  
안에서만만큼 발표 주제의 가장  
전문가이다(교수님보다는 아닐 수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평가받는다는  
마음보다 이들에게 지식을 공유해준다. 즉  
가르쳐준다는 마음으로 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뻘뻘해진다면 발표에 대한 부담이  
줄어 걱정보다 더 귀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뻘뻘함, 그 순간의 자신감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제에 관해 공부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발성이나 발음 등을 연습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발표 시 긴장한 나의 표정, 나의 몸짓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습관적인 언어(에를 들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빈복적인 연습으로 나의 발표를 다듣고 그  
준비를 힘입어 더욱 뻘뻘해진 태도를 갖출 수  
있다.

😊 14    💬 3



2024/05/23  
thursday, pm 11:16 | 18위음  
한지현 (메이커테크, 20203200)

#12일차 #발표

나는 발표를 토마토쇼라고 부른다. 어릴 적,  
합창단 무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중 홀로  
얼굴이 빨개져 친구가 날 토마토라 칭한  
기억이 선명하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나서서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 오늘 토마토쇼 했다  
칭하면서 발표 이야기를 한다.

목소리의 떨림과 열오름은 아직 어쩔 수  
없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질의응답을 잘  
해냈을 때, 박수 소리가 유독 컸을 때, 칭찬  
한마디를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하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니까 진행  
하지만—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좀 더 즐길  
수 있는 자세로 새로운 발표를 많이  
해보고싶다.

😊 14    💬 5



2024/05/23

thursday, pm 11:23 | 18위  
황보승표(비시아학과 20211733)

## #12일차

나는 내향적인 내 성격 특성상 발표를 씩 좋아하지는 않는다. 가깝게는 자발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발표는 타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발표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 동안 심장이 툭툭툭툭 뛰며 가뜩이나 긴장한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 그리고 앞에 나서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눈동자를 보게 된다. 나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는 나를 정말 부담스럽게 하며 이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다. 네 기준에서는 이때가 제일 고비인 것 같다. 커 오면서 수많은 발표를 해왔고 하면 할수록 발표 실력이 늘었지만, 발표 시작 전 긴장감은 해도 해도 안 없어진다. 아직 대학에 와서는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어떨지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13 3



2024/05/23

thursday, pm 11:24 | 18위  
김준호 (콘텐츠IT)#12일차  
발표.

다른 사람은 다 속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 나는 네가 스스로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발표에서의 자신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타입이다.

내가 발표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발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표할 때 질거나 버벅이게 된다. 하지만 내가 발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발표 내용에 확신이 있다면 그 발표가 어떤 것이든 자신있게 진행하게 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나는 모든 발표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금방 티가나는 발표 자신감이 결국 너 스스로를 대비하게 만드는 좋은 기법이 된 것 같다.

14 4



2024/05/23

thursday, pm 11:40 | 17위  
김나연(미학신소재,20226606)

## #12일차

지금까지 많은 발표를 했는데도 발표는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다.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번 시간에 맞춰 대본도 읽었는데도 사람들의 앞에만 서면 입박감이 드는 것이다.

사실 나는 떨림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발표할 때 목소리가 문제다. 평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면 중간부터 눈에 띄게 소리가 떨린다. 이를 고치기 위해 목구멍을 열고 소리내는 방법 등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발표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스피치 학원이 갠히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pr시대이니 만큼 발표를 더 확장된 범위에서 생각하고 발표라는 수단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13 3



2024/05/23  
thursday, pm 11:47 | 15월음  
조성빈(중국어과, 20201534)

### #12일차 발표

발표는 언제니 니에겐 매번 넘어도 매번 큰  
신처럼 다가오는 하나의 집에 물이 자 넘어이  
하는 관문같이 느껴졌다. 어릴 때에는  
나이감춤 더 먹으면 발표를 유창하게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웬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도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떨리고 머뭇고 대학교에 올라와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떨렸다.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대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든 것에 능통해있거나 발표나 과제,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4학년이 되어보니 전혀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말하는 겁자였고,  
조금 더 심잡한 거라고는 발표 준비를  
떨지않고 조금은 텅텅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낯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프레젠테이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어떻게 저들은 떨지 않고,  
대본도 안보고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거지? 분명 많이 노력했겠지? 나토  
노력하면 저들처럼 탕탕하고 자신감 넘치게  
발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발표를 잘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있어하는 분야의 발표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게 많지만 더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면서 발표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떨지도 않고 대본을 안봐도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다음주 금요일이면 내 일생 일대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발표이자 가장  
어려운 발표가 될 것 같은 그런 졸업 발표가  
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나만 잘 못워우는  
것 같아 위축되어서 사실 지금도 많이  
후회되고 솔직히 말해서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경이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발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란 걸 잘  
알고있기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걱정할  
시김도 니에게는 없다. 이걸 오로지 내가  
해내야 할 몫이며 나를 위해, 내 졸업을 위해  
하는 일이니 울고싶어도 해내야한다.  
발표라는 큰 신을 넘으면 또 다른 장소에서의  
발표가 오겠지? 그래도 지난 과거에도 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기를 간절히 부디  
절실히 빌어본다. 이렇게 한 고비, 두 고비  
넘기면 니토 스티븐잡스가 했던 애플  
발표처럼 그의 발끝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 12    💬 2



2024/05/23  
thursday, pm 11:55 | 13월음  
차유미(심리학과 20232139)

### #12일차 #발표

저에게 가장 떨렸던 발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반장발표였습니다.  
코로나시기였어서 반 친구들과도 친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고있어서 제 표정과 말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반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친구들을 도왔고,  
반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공약으로 걸어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 속에  
감춰져 어떤 표정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앞에  
서서 떨떨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한표 한표가 열렸고  
반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담연히 제가 될 것 같다고 튀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아까운 표  
차이로 반장이 되지 못 했습니다. 평소같으면  
집에 가서 울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좌절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힘해 또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장은 되지 못 했지만 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 10 💬 2



2024/05/23

thursday, pm 11:59 | 14읽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 #12일차 #발표

대학교 과제 중에서 발표만큼 떨리는 과제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피피티를 보여주면서 하는 발표에는 정말 쩌병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에 들어와서 한 모든 발표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식은땀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제 인생 모든 종류의 발표를 싫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의 음악발표회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633'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633은 각 학교를 졸업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음악 발표회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음악 발표회는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저희는 총 3곡을 골라 편집하여 발표했는데, 솟자송, champlon, 고등어였습니다. Champlon은 그렇다해도, 저 솟자송과 고등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 받은 애초에 인기상을 노리며 저 곡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을 만들고, 율동을 만들고, 화음을 쌓아올리는 연습은 꽤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망의 발표회날, 저희는 바라고 바리던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제일 좋기도 했고, 솟자송 때 쓴 머리띠와 고등어를 부를 때 급식실에서 빌린 앞치마가 평가자분들의 몰입도를 집중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했기에 이 음악 발표회가 정말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싫어하는 대학에서의 발표처럼 정말 힘들어했던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제게는 너무 가치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10 💬 2



2024/05/24

friday, am 12:20 | 22읽음

김향선

#12일차 클쓰기 마감합니다. 학기 후반이 되니 수업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지, 발표공포증과 해결 방법, 발표 잘하는 팁, 발표를 망친 경험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금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이번 장에도 잘 넘어서 한뼘 더 성장하기 바랍니다.

😊 13 💬 0



2024/05/24

friday, am 8:02 | 25일음  
김말선

#13일자 키워드 : 탐나다/탐내다

'탐나다'는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탐내다'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은 사춘기에, 지금 어떤 것을 간절히 탐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가진 탁월한 재능을, 좋은 성격을, 아름다운 모습을 탐내 본 적은 없나요? 오늘은 탐나는, 탐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14    💬 0



2024/05/24

friday, am 9:27 | 18일음  
합제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3일자 #탐나다/탐내다

집착

겁은 실로 찌여진 마음의 그물  
너를 가둔 채로  
나의 밤은 길어만 간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생각은 너로 흩어진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면  
나는 네가 없는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시간을 마주한다.

끝없는 갈망 속에  
내 영혼은 한 조각씩 부서져  
젖빛 꿈 속을 헤매인다.

그리움의 무게에 짓눌려  
너의 흔적을 쫓는다.

😊 12    💬 2



2024/05/24

friday, am 9:53 | 20일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13일자 #탐나다/탐내다

애정결핍, 다들 들어보셨나요?

애정결핍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유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한 정서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주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애정을 탐냈습니다.

저한테는 2살 차이가 나는 한 명의 언니가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언니가 받는 부모님의 사랑을 특히 탐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놀라하며 칭찬을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다. 바로 언니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다른 관심 받을 행동을 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쓰다 보니 참 유치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상기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기 힘들어 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언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싶고, 언니가 안 한다고 하면 자기도 안 하면 어린 아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언니에 대한 질투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독점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몰래 안 가리고 저의 행동을 표출했다면 이제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가끔씩 부모님께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언니는 그렇게 했어?" "언니는 하겠대?" 같이 물어보기는 하지만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질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절친한 친구 같습니다. 저는 춘천 기숙사에 살고 언니는 서울 본가에서 지내는데 줌을 켜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같이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철없던 동생의 욕심으로 충분히 마음 상하고 저를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랑 잘 놀아주는 저희 언니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 12    💬 4



**2024/05/24**  
friday, am 10:00 | 17읽음  
박지호(식영,20213818)

#13일차

탐내다.  
전 항상 오빠의 것을 탐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ㅎ 오빠는 항상 제 간식을 몰래 먹고 그럴 전 부모님께 이르고,,의 반복이 저와 오빠의 성장 과정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전 식탐이 많아졌고 오빠의 것이 항상 좋아보였습니다. 물론 다 어릴때 이야기이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투닥거리고 매일 싸웠어도 나이가 들고보니 남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족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둘이상은 낳아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너무나 든든하고 항상 내편인 존재가 있다는것이

언제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절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항상 느끼곤 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이 다같이 앉아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ㅎㅎ

😊 11    💬 4



**2024/05/24**  
friday, pm 12:27 | 19읽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13일차 #탐내다

저는 저희 친오빠의 기?, 운?이 항상 탐났습니다. 오빠를 보면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오빠가 살아온 방향을 보면 항상 은 우주가 도와주는 거대한 복이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도 동의하시더라구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일단 저희 오빠는 장손이라 조부모님의 막대한 사랑을 받구요. 생일도 추석 뒤라서 매번 모든 친척의 축하를 받습니다. 풋놀이 같이 윤이 작용하는 게임을 하면 매번 오빠가 이기고, 대학도 상향으로 원하면 과에 붙어서 정말 후회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취방을 구할 때도 그렇고, 군대 보직도 그렇고, 항상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에 그때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할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항상 부러웠어요.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전혀 없는, 매번 맞는 길을 골라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일들이기에 노력을 넘어선 한 톨을 바꿔주는 복이라고 해야 하나. 매번 좋은 운이 따라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본인의 노력도 분명히 있는 것은 인정하나 저는 노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 온 우주가 도와주는 오빠의 복이 함상 탐이 납니다. 아주 많이. 저는 함상 노력에 비해 그 이상의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았던 거 같아서 후회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많이 부럽더라구요.

😊 14    💬 3



2024/05/24  
friday, pm 12:58 | 17원음  
정중민(융합신소재공학/202006039)

#13일차 #탐내다

반짝이는 황금과 보석이 산 아래 잠들어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드래곤을 처치하고 난쟁이 왕국을 수복할 수 있다. 이에 복수를 다짐하고 권세를 회복하여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난쟁이와 호빗, 그리고 마법사가 모험을 떠난다. 이것이 툰킨이 집필한 '호빗'의 주요 토대이다. 난쟁이는 악에 물들지 않는 굳센 의지와 튼튼한 신체를 지녔다. 아무리 강고한 종족이라 한들 약점이 있었다. 황금과 같이 귀급속에 강한 탐욕을 가진 종족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통굴과 토굴을 파며 여러 광석을 채석하고, 뛰어난 세공 기술로 가공하여 다른 종족과 교류했다. 보물을 탐내는 드래곤은 난쟁이를 슬격해 감탈했고 왕국은 순식간에 몰락한다.

무언가에 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옛말에 금을 들보듯 하라는 말이 있다지만 현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겐 그저 '옛말'일뿐이게 되었다.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성장의 강한 원동력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주제넘고, 너무 많은 탐욕은 트래곤을 부른다.

😊 13    💬 2



2024/05/24  
friday, pm 1:13 | 16원18  
김민민 (미디어스쿨\_20202700)

등지를 떠나려면, 돈에 미친 세가 되자.

/

여러분은 돈 좋아하시나요?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저는 특히 더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말이죠 ...  
열여덟, 열아홉, 입시 하던 시절을 제외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의뢰를 받고  
개개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죠.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커미션입니다.

공모전이나 라이팅 챌린지처럼  
상급이 걸린 활동들의 동기는, -스펙도  
스펙이지만-  
'돈'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캐릭터로  
쿵즈 사업을 소소하게 벌인 적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a.k.a. 돈미세) 돈에 미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립>에 대한 열망.

자취방 얻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하는  
<독립>을  
질실히, 그리고 열렬하게 욕망했습니다.

요즘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신은 어떻게  
사는지  
다들 못 보여줘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립을 이룬 삶을 더더욱 미치도록 탐냅니다.

언젠가는 동지를 떠날 수 있겠지-하는 꿈을  
안고  
오늘도 날개짓을 해봅니다.



#13일차 #탐나다

😊 13    💬 6



2024/05/24  
friday, pm 1:16 | 19118  
희연진(일상의학통계,20233256)

#13일차 #탐나다

종종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탐나다', '갖고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터넷 속에서  
많은 탐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우선 예쁜 옷이나 물건들에 대해 탐나는게  
많다. 소셜 미디어 속에는 예쁘고 멋진 패션을  
뽐내는 사람들이나 트렌디한 소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옷을 입어보고 싶다,  
저런 물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관심갖고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물건이나, 사진 속  
물건들은 더욱 탐나는 것 같다.

또,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탐날 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경력, 멋진 직업,  
탁월한 재능과 좋은 성격, 예쁜 외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뤄낸 성취와 그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은 내가 카질 수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탐내게 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탐내는 마음은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어찌면  
거짓일수도 있는 사진들만 보며,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바라보기만 하지말고 내가 정말 어떤걸  
원하고 있는지, 열기 위해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생각하고싶다.

😊 15    💬 3



2024/05/24  
 friday, pm 2:09 | 16읽음  
 힙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3일차 #탐내다

저에게는 두 실 터울 언니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언니의 물건들을 탐냈어요,  
 주변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시면은  
 합살 똑같은 것을 주지 않고

다른것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같은 제품인데 색이 다르고, 무늬가 다른  
 제품들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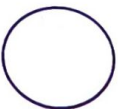
하필 언니와 저는 취향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합살 결정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무조건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했죠.  
 저는 합살은 아니지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거의 졌었던 기억이 있네요.

탐을 냈었던 마음에 속상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오네요..

😊 14 💬 3



2024/05/24  
 friday, pm 2:23 | 17읽음  
 서준열(사회복지학과\_20102927)

#13일차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내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전부터 탐내다는  
 표현을 들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좋은  
 표현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꼽자면 7대 죄악을 컨셉으로 다룬 캐릭터나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서 안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누군가 멋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존경도 있겠지만 나토 저런 능력을 갖거나  
 자리에 서보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다면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당한 수준의 탐욕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스스로 판단하여  
 얻어내려야 나중에 소유한 것을 놓아줘야할  
 때 건강하게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나는건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욕심이라는  
 감정을 놓을 수 있는 자세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 14 💬 3



2024/05/24  
 friday, pm 4:58 | 1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3주차 #탐내다

사람을 탐냈다.  
 그제 사람이 부족해서, 그제 사람이  
 필요해서.

7살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특히 부모님이 사주신 귀걸이에 대한 집착이  
 컸다. 유치원 등곳길에 부모님이 사주신

귀걸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께 다시 집에 다녀오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떼를 썼다. 결국 그 어린아이를 감당하지 못한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했다. 결국 유치원으로 엄마가 귀걸이 상자를 들고 왔고, 귀걸이를 착용하자 울음을 그치고 마음이 편안해진 듯, 표정이 풀어졌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사주신 그 귀걸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작은 나비 모양의 금 귀걸이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늦은 밤, 귀를 뚫으러 갔었다. 아픈 건 딱 질색이었던 나이였지만, 귀를 뚫을 때만큼은 그 나이 어느 친구보다 용감했다. 부모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것이 그 귀걸이인 것 마냥, 귀걸이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부모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해서, 선생님께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 애써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 노력했고, 조금 더 챙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쌍한 아이라는 걸 어필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고 똑똑보다 성숙했던 어린아이는 선생님을 모든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어른이 필요했다.

어느 순간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사라진 아이는 자신 물건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져만 갔다.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탐내는 것보다 물건을 탐내는 것이 더 쉬웠던 것이다.

😊 12    💬 3



2024/05/24

Friday, pm 5:29 | 187명

희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3일사 #탐니다

[ 일세 번째 접시 ]

저는 그림 그리기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활동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다른 사람들의 그림들도 보며 기술들을 익혔는데 더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 노력해서 그렇게 잘 그리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히어 나의 추구미에 들어맞는 잘 그린 그림들을 탐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리고, 다시 우울해지는 나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다 보니 저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라해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 하나를 첨부할 테니 한번 구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 쓱쓱쓱, 오늘의 뭉 접시가 튀었습니다. ]

우리끼리, Band!



😊 14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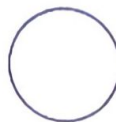
**2024/05/24**  
friday, pm 5:50 | 16읽음  
정우현(철학과/20231004)

### #12일차

난 무엇이든 잘 탐내는 편이다. 냉장고에 있는 여동생의 아이스크림이나 먹고있는 라면을 많이 탐냈다. 나이가 들면서 탐내는 것도 취향이 변한다. 여동생이 좋아하는 과자는 다 좋아했는데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는 것 같다. 패션 취향도 그렇다. 어렸을 땐 탄정하게만 입었다가 요즘엔 힙한 옷도 많이 입는다.

어른이 되고 많은 것들을 탐냈다. 그렇게 많이 탐내고 보니 소유욕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배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순 없으니 나 자신이라도 온전히 가져야겠다. 제일 소중한 건 탐내는 무엇이 아니라 나였다.

😊 12    💬 2



**2024/05/24**  
friday, pm 7:50 | 19읽음  
정지은(20212564/인문방송융합전공)

### #13일차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 그 중에서도 '탐내다'는 감정만 유독 우리를 사로잡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탐내는 마음은 탄순한 욕구를 넘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탐내는 감정은 어릴 적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은 친구의 장난감을 탐내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멋진 차를 원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기인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탐내는 마음은 탄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타인의 재능, 성취, 혹은 인기를 탐내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자신감 부족이나 비교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탐내는 감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부여로 작용할 때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탐내는 감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다.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 하락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나친 탐욕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탐내다의 감정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그것이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자멸의 길로 이끌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탐내다의 감정을 건장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과도한 욕망을 제어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탐내다의 감정은 인간 본성의 일부다.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탐내는 마음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12    💬 1



**2024/05/24**  
friday, pm 8:13 | 19원음  
립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3일차 #탐나다

탐나다의 끝 부러움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이가 제일 부러웠다.

나는 심적으로 힘든데 웃고 있는 이를 보면 힘내서 미소를 지어볼 만큼 크게 부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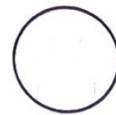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나는 모태솔로이다보니 손 잡고 연애하는 이들이 참 부러웠다 너무 애매보였다.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꺾어보지 못한, 갖지 못한 것을 느껴보고 싶다.

지금은 무척 힘들고 짐을 못 지고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기를 바라며

나도 이제는 행복하고 싶어졌다.

😊 14    💬 3



**2024/05/24**  
friday, pm 8:40 | 16원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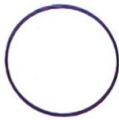
#13일차  
나는 간절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실아보니 공부가가장 쉬웠더라'.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난 무언가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내 진로를 정할 때도, 그리고 시험이 탐장 내일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도 잠깐이고 여차피 탐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푹푹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면서 복잡해진다. 저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펜을 휘날릴까,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이지 뒤쳐지지 않을까, 내기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할 때가 많다.

내가 힘삼 바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되니 무엇인가에 빠져서 온 힘을 다해보고 싶다' 이다. 내가 간절함에 빠지고 들어올 때까지 고대하며 탐낸다. 탐낸다는 것은 기지고 삼고 뺏고 삼으면서 동시에 내 곁에 두고 싶은 소유욕을 표현하는 독한 단어인 것 같다.

😊 14    💬 2



2024/05/24  
friday, pm 9:27 | 16읽음  
유영주(침각/20202550)

### #13일차

지금 동아리 맴티에 참석해 라이팅 챌린지 달력에 뺑꾸가 찢리지 않도록 메모장에 글을 쓰고있다. 지금 제일 탐나는 건 물 좋고 경치 좋고 공기좋은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장 같은 거? 여유있는 사람들이 왜 별장을 두고 분기별로 놀러가 여유를 즐기는 지 이제야 깨달는 중이다.

평소에는 벽 없고 지붕 없는 야외가 힘들다가도 할 일 없이 놀아도 되는 한량 입장이 되면 그렇게 실패할 수가 없다.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고기 한 짚 던져주는 여유가 생긴다. 기숙사에서 자려고 누웠을 때 들리는 고양이의 울음은 괴롭기만 했음에도, 하루하루 알반이랍시고 꼬박꼬박 밥상 발아먹으며 공부나 하던 조선시대 한량 선비의 삶이 탐나는 중이다.

😊 13    💬 2



2024/05/24  
friday, pm 9:35 | 17읽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 #13일차

지만 무언가를 탐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욕심은 저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지금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시샘과 질투,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문제 되기 시간낭비겠죠. 하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볼까요?  
약에 차있는 것 같은 탐내다 라는 단어가 아닌 갖고싶다, 욕심 난다 등과 같은 단어들로요,

그 대상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당신은 그를 좇고 것처럼 되고 싶기에 안달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말로 간절하고 바라오던 사람들이라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그것들을 탐내고 바라보다 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나 결과물을 찾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탐내다' 반갑게 들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탐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탐신을 탐내게 만드는 그 대상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말이죠.

😊 13    💬 2



2024/05/24  
friday, pm 10:01 | 16읽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 #13일차 #탐내다

'탐내다'라는 단어에는 은밀한 길망이 담겨 있는거 같아요. 대학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친구들의 빛나는 재능과 성취를 보며 마음속 깊이 탐내곤 했는데요. 그 순간들은 저에게 자극이 되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탐내는 마음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놀라운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탐내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구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보세요!! ☆쫄밤

%에열-이희상



12



2



2024/05/24  
friday, pm 10:01 | 17읽음  
박혜원 (생명과학과 20227081)

### #13일차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진다.  
통화책 속 나쁜 계모나 마귀할멈에 대한 인물 소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진다.  
예쁜 옷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갖고야 한다.

대개 내가 탐내는 것들은 운명처럼 꽃핀다.  
볼수록 예뻐 보이고 갈수록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렬한 느낌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느낌으로 선택한 것들은 물건이든, 상황이든 전부 실패하지 않는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도 마귀할멈 이야기 같긴 한데, 갖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물건으로 예를 들자면, 원하는 가방이 생기면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우리 동네에 매물이 없다면 몇 시간 이동하는 기쁨이야 두렵지 않다.

해외 직구도 서슴지 않는다. 고맙게도 물건들은 내게 자주 꽃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찾아오는 운명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또 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심혈을 탐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벤트부 공업으로 이 쪽은 꼭 하고 싶다 하며 스스로 갖고 싶은 심혈을 만들어낸다.

이 경우에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한다.  
우선 벤트부에 들어가야 하니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스스로 퀘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며 성취감을 가진다. 정말 재밌는 일이다.

지금 나는 나의 평생을 탐낸 것을 갖기 위한 과정 위에 있다.

언제 어떻게 꽃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나의 운명, 나의 꿈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갖고야 말겠다.

나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진다.



12



1



2024/05/24  
 friday, pm 10:07 | 16읽음  
 박현아 (언어병리학과, 20233030)

#13일차 #탐나다/탐내다

남 남의 물건은 물론이며, 남의 재능이나 남의 신체 부분, 또는 그 사람의 머릿속을 탐낸 적이 참 많다.

남이 어떤 부분에서 삼을 뒀을 때, 혹은 그 일로 돈을 뒀을 때, 즐기며 하는 그 일을 나도 즐기며 하고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분명 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재능을 탐낸 적이 있다.

얼굴은 살아가며 바뀐다고 하지만 화장을 해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눈이 예뻐지고 싶다는 한 적이 있다. 아니면 가요 무대에서 누구누구가 한 폼이나 컷트가 예뻐서 탐나서 따라했다는 '손민수'를 한 적도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하면서 타인의 머릿속을 탐낸 적이 많다. 오랜 시간동안 꿩꿩 싸웬 내 고민을 한번 상담해줄 때 솔로몬처럼 해준 친구의 머릿속을 탐낸 적도 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고 갖고싶은 마음을 멈춰야하는데 참 쉽지 않다.

😊 12    💬 1



2024/05/24  
 friday, pm 10:18 | 18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13일차

#탐나다/탐내다

<빛>

오전 8시 50분

헬레벌떡 교실로 들어왔지만, 아직 수업이 시작하려면 10분이나 남았다. 지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료한 하루가 시작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득 문을 때리다가 지수의 시선이 향한 건 다름 아닌 민지의 모습이었다.

가름한 게란형 얼굴

쁘드르르 윤기 있는 머릿결

오뎅한 코와 천장으로 솟을 것만 같은 짙은 속눈썹

공주같은 얼굴에 성격도 토도해서 남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에잇.. 심지어 공부까지 잘하는  
 부반장이라고? 말도 안돼'

지수는 그런 민지의 모습이 탐났다.

이른 아침부터 우탕탕탕 소리와 함께 교실 뒷문이 열렸다. 민지의 눈에 보이는 지수와 남자 아이들.

"아 애들아 아슬아슬했다. 맞지?"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꽤나 다정해보이는 그들이 부러운 민지였다.

통글한 얼굴에 큰 눈

타고난 패션 센스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는 타고난 만능재주꾼

지수는 털털하고 재미난 성격으로 반에서 인기가 제법이다.

민지는 그런 지수가 탐났다.

다들 한 번쯤 누군가의 능력, 외모, 성격 이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즉 타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열망한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나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일 때는 마음 한 켠에서 삐뚤어진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면 누군가가 열망하는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장절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가진 고유의 재능과 매력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가 된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가치있는 존재이며, 소중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 12    💬 1



**2024/05/24**  
friday, pm 10:57 | 16원음  
킴제전(생명과학과 20223508)

#13일차 #탑나다/탑내다

탑내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어릴 때, 사촌언니가 갖고 있는 인형이 귀여워 갖고 싶다고 어른들한테 떼를 써서 얻었던 경험이 있다. 이때의 일 때문에 잠깐은 사촌언니랑 사이가 서먹해졌었다. 그러나 무작정 탑내는 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만 받진 않았다. 한 번은 좋아하던 오빠랑 친해지기 위해 운동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 오빠랑 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탑내는 걸 마냥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어떤 것을 탑내는 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배고프면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가 겪은 경험처럼 어떤 것을 탑내면서 가져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탑내는 것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뚜렷한 목표를 만들어주고, 이를 목표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 10    💬 1



**2024/05/24**  
friday, pm 10:57 | 17원음  
남에빈(중국어과, 20201310)

#13일차 #탑내다

탑내는 마음은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든다. 돈, 집, 보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 지위, 자신감과 같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탑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탐욕이라는 죄의 무게를 느껴야만 할 것이다.

탑내는 마음은 종종 철학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탑내게 만드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일까, 아니면 사회적 비교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그 행복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탑내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탑내는 마음은 종종 인간을 비극으로 이끌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작가들은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자주 묘사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소비와 소유욕이 생긴다.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탐내도록 부추기며,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그 끝없는 욕망의 쳄바퀴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결국 탐내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탐내는 마음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탐내는 마음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만약 인류가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탐내는 마음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탐내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탐내다'는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된 주제다. 탐내는 마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탐내는 마음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탐내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06 | 15위음  
필보습표(리시아학과 20211733)

#13일차

인간이라면 무언가를 탐내는건 당연한것 같다. 나도 인간인지라 탐나는 물건들이 많다. 보통의 탐나는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 몇일 뒤 내 마음이 사그라들면 장바구니에서 지우곤 한다. 하지만 이걸 못참고 사버린 물건이 하나 있다. 바로 아이패드다.

대학입학하면서 8인치 저가 태블릿을 샀지만 성능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새로운 태블릿을 사고 싶었지만 그렇저럭 쓸만해 참고 쓰고있었다. 어느날 가성비가 좋게 나온 아이패드 9세대를 보자마자 나는 아이패드병에 걸려버렸다. 그렇게 2주를 끄끙거리며 앓다가 아이패드를 구입하였고 바로 여의도로 달려가 픽업해 오면서 병을 완치하게 된다.

1학년 2학기때 학습목적으로 산 아이패드는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입대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용도를 전환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면서 시간을 살살 녹였고 그 아이패드는 구입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야 본래의 용도로 돈 값 하며 쓰이고 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사고싶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30 | 17위음  
김나연(의학신소재,20226606)

#13일차

"탐내다"라는 단어는 욕망하다, 갈망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는 무언가를 탐내며 실이킨다. 그런 재능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타인의 재능을 보며 감탄하고 때로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싶어한다. 이러한 탐내는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탐내는 마음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재능을 보며 그것을 탐내게 될 때, 우리는 그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탁월한 음악가의 연주를 듣고 감명받아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탐내는 마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탐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탐내는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로 삼는다면, 탐내는 마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31 | 17위음  
김준호 (콘텐츠IT)

#13일차  
탐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끊임없이 낱과 비교하고 낱의 것을 탐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정당히 늘리지 못하고 탐하려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마저 지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탐내다의 한자인 "탐낼 탐"이 "가난할 빈"과 그 형태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한 "탐낼 탐"이라는 한자는 중국에서 전해지는 괴물을 뜻하는 한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설회에서 탐은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멸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낱의 것을 탐하는 사람의 최후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 13    💬 3



**2024/05/24**  
friday, pm 11:44 | 17위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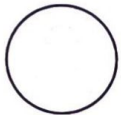
#13일차 탐나다/탐내다

어릴 적의 내가 탐났던 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라는 재능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언니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도 작품처럼 보이고, 내가 그려달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도 똑딱 그리는 그런 언니의 재능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탐이 났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나랑 언니랑 서로 비교하면서 탐연하게도 나에게 없는 재능인데도 나를 계속해서 까내리면서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열등감만 생겨났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림 그리기의 재능은 나에게 없는 것임을 인정했었다. 내가 탐내는 것은 공예품과 공예가들의 손재주이다.

도자기나 유리로 된 아기자기하면서도 전통적이면서 빈티지한 그런 컵을 좋아하고, 벽걸이형 우드선반이라든지 우드받침대 등 짙은 색의 체리나무로 된 가구나 제품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것을 만드는 공예가들의 손재주도 탐내어 나도 이런 손재주를 가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만의 스타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실제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서 더욱 이런 공예제품을 만드는 공예가들처럼 되고 싶어하기도 하고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어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탐내고 있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공예가는 돈을 꾸준히 혹은 많이 벌지는 못하는 직종이고, 나는 내가 탐내고는 있지만 쉽사리 이걸 진짜 현실화하기 위한 도전을 할 만큼의 배짱이나 용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꾸민 나만의 공방에서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공예품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면서 판매하는 그런 삶을 상상하기만 하고 있었고 그러는 중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면 지나간 시간이 후회될까봐서인지 혹은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때문인지는 몰라도...나는 쉽사리 내가 탐내고 있는 공예에 대해 도전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를 대체할 공예제품이라도 구매하여 소유하려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45 | 15읽음  
차유미 (심리학과 20232139)

#13일차 #탐나다/탐내다

탐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탐내었는지 생각해보니 저는 식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어보이는 먹거리를 들고있으면 너무나 탐나고 먹고 싶어집니다.

어릴 때는 순진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먹어도 다들 귀엽게 봐주셨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배가 부를 때에도 누군가 먹을 것을 들고있으면 괜히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탐낸다는 것은 현재 저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과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탐내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이나 반대로 제 능력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탐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45 | 16읽음  
한지현 (데이터테크, 20203260)

#1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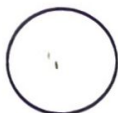
나는 지적인 사람이 부럽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멋있으니까. 나도 그들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적 호기심이 조금이나마 존재했기에, 그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책을 구매하면, 읽다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주 간단한 계획이다. 단지 책을 구매한 시점에서 매번 무너졌을 뿐. 책이 내 것이 된 순간 읽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즉 책을 가진 소유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이상의 목표를 진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사실 간절히 탐났던 게 아니었나? 가지고 싶지만 노력 하기 싫은 건가? 탐나다의 의미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가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탐나지 않는 마음 또한 당연하다. 세상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 나는 탐나는 걸 얻었을 때 그 이상을 탐할 수 있을까? 기꺼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소유가 아닌 존재를 탐하고 싶다. 책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싶다.

너무니도 어려운 마음이지만 어떻게  
사릴지 고민해보아겠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56 | 19위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01)

#13일차 #탑내다

<탑나는 사람>

- 갑사할 줄 아는 사람
-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
- 쉽게 우울해지지 않는 사람
-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

그 여유롭고 넓은 마음이 탑낸다

😊 11    💬 2



**2024/05/24**  
friday, pm 11:59 | 18위음  
한광성(사회학과,20102237)

#13일차 #탑내다

보통 사람이 탑낸다는 표현을 쓸 때는 역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탑을 낸다.  
나도 어떤 것을 탑냈는지 돌아보니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 말을  
잘하는 언변능력, 뛰어난 신체능력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가장 탑나는 것은 자카용 차량이다.  
20살부터 군생활을 제외하고는 출천에  
살아왔는데 서울에서 20년간 살다가 출천에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는 정말  
사람을 지치게했고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택시도 참 많이 탔다. 그러다보니 택시를 엄청  
많이 타게되며 이럴까면 돈을 모아 차를  
사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치만 워낙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자가용은  
나에게 임투로 안 났고 기겁 부모님 차를  
운전해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너무니도  
부러웠다.

또한 출천에는 외곽에 밋집이나 카페 등  
자카용이 있으면 출천의 새로운 비전을  
체험하는 것 같아 그 부분도 너무 부러웠다.  
과연... 나는 자카용을 언제 살까 탑내는  
마음뿐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 집에간다.

😊 10    💬 2



**2024/05/25**  
saturday, am 12:20 | 23위음  
김양선

#13일차 클쓰기 마감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언제나 갈망합니다.  
그것은 물건, 돈, 지성, 성격, 재능 등  
다양하죠. 올린 글들을 읽다보니 우리는  
'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온 것 같네요.  
욕심을 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탑합은 삶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것, 탑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꼭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밀린 일 하면서 편히  
보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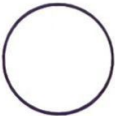
😊 11    💬 0



2024/05/27  
monday, am 7:45 | 28읽음  
김말선

#14일차 키워드 : 신선하다  
새롭고 신뜻한 느낌이나 인상을 받을 때 우리는 신선하다고 합니다. 웬지 새벽배송도 떠오르고 신선식품도 떠오르네요. 우리는 남이 하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 결과물을 접했을 때도 신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글이나 영화를 보고 왜 신선하구나 라고 감탄한 적이 있나요? 신선한 감각이나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비가 온 후 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선하다' '신선한' 것에 대해 써봅시다.

😊 13    💬 0



2024/05/27  
monday, am 9:02 | 24읽음  
합채팅(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4일차 #신선하다

-신뜻한 하루

새로운 아침의 빛이  
창가에 살며시 내려앉으면  
따뜻한 햇살의 입맞춤으로 눈을 뜬다.

바람은 나무 사이를  
살포시 지나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풀 위에 이슬방울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또 하나의 선물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나  
모든 것이 빛나니  
이 순간을 즐기자.

😊 15    💬 5



2024/05/27  
monday, am 11:31 | 25읽음  
함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14일차  
신선한것들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것 같다.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마치 입 안에서 자진모리 장타를 치는것 같이 맛있으며 기분도 좋아진다. 하지만 정 반대로 그러지 못한것을 먹으면 입맛도 푹 떨어지고 기분도 다운 되는것은 물론 심한 경우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

공기도 똑같다. 상쾌한 공기는머리를 맑게해주며 두뇌회전도 좀 빨라진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하지만 정 반대의 경우 속도 웬지 모르게 답답하고 눈도 매우 뻑뻑해진다. 매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지만 한국에 태어난 이상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에 사는 이상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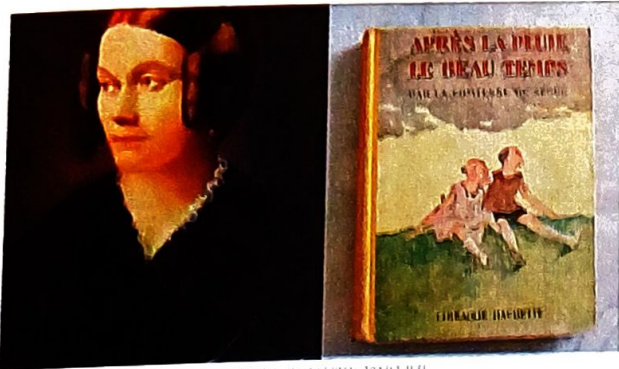
살고 싶다.

😊 17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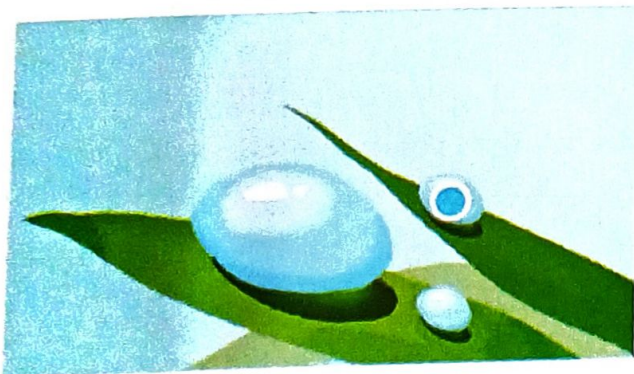


**2024/05/27**  
 monday, pm 12:27 | 21위음  
 강선유(간호학과/20246202)

#14일차 #신선하다 #아침



출처: https://www.pinterest.com/pin/101631119/



비 온 다음날 아침 공기는 정말 신선한 거 같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싫어해도 그 다음날의 아침공기가 정말 상쾌하다는 걸 알죠. 기분 탓인지 몰라도 아침에 새소리도 더

질 들리더라고요. 공기가 상쾌할 수 있는 원리 자체는 비가 내려 대기 중 먼지와 기타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평소의 아침공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거 같습니다.

비와 신선한 아침이라고 하니 생각나는 격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비 온 뒤 맑음'이라는 문구를 아시나요? 고비를 넘기면 성숙한 내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세움지마 또는 쥐구멍에도 벌 들 날 있다.' 영어 격언으로는 'The darkest hour is just before dawn.(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바로 전이다)'가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세귀르의 소설 <비 온 뒤 맑음>로 알려졌는데 주인공 소녀 주느비에브를 어릴 적부터 집요하게 괴롭히던 이들이 결국 벌을 받으며 끝나는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 모두 나쁜 고비를 겪으며 비가 오는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결국 맑음이 올 거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아침공기를 꼭 한 번 말아보세요!!

😊 15    💬 6

우리끼리, Band!



2024/05/27  
 monday, pm 1:04 | 24위음  
 박지호(식명,20213818)

#14일차

신선하다

오늘도 시끌벅적 너무 예쁜 아이들과함께  
 교생실습을 했다.

시골이라 그런지 바람도 날씨도 너무  
 신선하다.

월요일 이라 조금 피곤하지만 아이들의  
 에너지와 사람들의 밝은 인사들이 나를  
 힘차게 만든다.

학교라는 곳은 신선하다 라는 이름을 부여 할  
 수 있는 장소인것 같다. 순수한 아이들이 그  
 말을 증명해 줄 수 있을것 같다.



😊 17    💬 6



2024/05/27  
 monday, pm 1:06 | 21위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4일차 #신선하다

[ 열네 번째 접시 ]

신선함, 다들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신선한  
 바람, 신선한 과일 등 신선하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선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신선한,  
 독특한, 이상한, 창의적인, 열려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바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평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날들과는 다른, 나만의  
 무언가가 있는 특별함.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에 저는 평소에도 날들과는 다른 생각,  
 행동을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엉뚱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요. 날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하나뿐인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저런 평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신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 보이네요. 사실  
 창의적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회 때문도  
 있는데요. 기계들을 많이 쓰는 현대사회 속  
 신선한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인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 제가 좋아하는 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 생각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뽀뽀뽀, 오늘의 몫 접시가 뒤였습니다. ]

😊 17    💬 3



2024/05/27

monday, pm 1:15 | 22원음

정중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14일차 #신선하다

소금기 가득한 바닷가 근처에는 어부와 함께 수산시장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물고기의 은빛 비늘로 뒤덮이며 어획을 마친 어부들이 새벽에 시장에 물건을 들인다. 바구니에 담긴 신선한 생선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시작된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주라며 투덜거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트럭에 바구니를 잔뜩 채운 이도 있었다.

생선을 파는 사람들에게겐 신선한 삶이라곤 몇 년 전 일에 불과했다. 언젠가부터 인적이 끊겨 활기를 잃어 죽은 생선과 비교하여 다름 바가 없었다. 아직까진 생동감 있게 눈을 감고 뜰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나타난 젊은 요리사가 생선을 기가 막히게 요리하기 시작했다. 새롭고 산뜻한 그의 식당을 찾기 위해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 들었고 시장은 재차 큰 목소리가 많아졌다. 상인들이 요리사를 찾아가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모든 변화는 신선한 재료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제가 이곳을 고른 것도 단지 그 이유입니다. 만약 신선한 생선도 없고, 어부가 없고, 상인이 없더라면 저 또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 17    💬 5



2024/05/27

monday, pm 2:04 | 22원음

권혁민(경제학과/20195112)

#14일차

요즘 날씨는 나를 지치게 만든다. 한껏 태양이 내리쬐며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가 싶다가도, 얼마 못 가 구름이 드리워 비가 내려 아직은 봄의 끝자락임을 알린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 않은 것은 더위, 추위에 모두 민감한 나에겐 다행이다. 하지만 그에 대응해 번덕이 심한 날씨는 나를 힘들게 한다. 저번주에 한껏 후덥지근하며 다시 달아올랐던 대지는 일요일에 내린 비로 인해 다시 내려앉았다. 오늘 아침에 학교 가러 나오는 길에 느낀 바람은 근래 들어서 가장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중천에 뜨기 전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바람, 온도까지. 잠시였지만 지금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오늘 아침의 날씨는 굉장히 신선하고 상쾌했다. 신선함은 나를 새롭게 깨워주고 북돋아주는 응원이다.

😊 17    💬 5



2024/05/27

monday, pm 2:28 | 20원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14일차

저는 영화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반전 스토리, 보다 높은 퀄리티의 cg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는 식스센스였던거 같습니다. 한 번은 꼭 보고 싶었던 영화로 간간히 유튜브 리뷰영상으로만 보다가 풀영상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결말과 연출 내용을 알면서도 영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연출 효과는 정말 감탄스러웠으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생각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봤던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본 것은 아니지만 과거 봤던 영화들이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연출과 스토리의 신선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는 말은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신선식품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채소킨에 갔을 때 차가운 언기 속에 있는 삼추와 같은 푸른색의 채소들을 삼삼하면 가족끼리 마트에 갔던 기억들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할 것도 없는데 둘러보면 장난감부터 채소 가르시면 괜히 손 잡고 짙레짙레 고개를 저어내던 것까지 지금 다시 생각하면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마트를 가게 되어도, 다시 영화를 보더라도 내가 추억하는만큼의 경험은 다시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오래 기억하고 추억하는데는 항상 그 나름의 신선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16    💬 4



**2024/05/27**  
monday, pm 3:15 | 23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4일차 #신선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든지 신선하다라는 표현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음식의 상태를 표현할때 도 신선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저는 아이디어 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이디어를 내고 받은 칭찬 중에 신선하다라는 칭찬이 그렇게나 좋더라고요.

기존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발상을 만들어냈을 때 신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외료 특이하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있네요 ㅎㅎ

😊 10    💬 5



**2024/05/27**  
monday, pm 5:01 | 20읽음  
최진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14일차 #신선하다

평소에 ost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ost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들도 노래가 너무 좋다고 느껴진다. 내가 지금까지 본 작품 중 '고백부부'와 '너의 이름은' ost는 듣기만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한다.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는 현실과 과거를 넘나들며 부부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작품으로, 공감 가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이다. 특히 드라마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곡들은 매 회차마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주인공 마진주가 과거로 돌아가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만나 과거에 엄마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작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소항이 부른 '바람의 노래' 라는

곡이 나오며 더욱 감동을 준다. 노래와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보기만해도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것 같다. 이 외에도 'Dream', '우리라는 세상' 등 좋은 노래가 많다.

영화 '너의 이름은'을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과 노래와 스토리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였다. 나 역시도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음악이었는데 특히 전전전세와 스파클 같은 곡들은 영화를 볼 때 소름돋게 만들었다. 노래 자체로도 좋지만 영화의 장면들과 어우러졌을 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다. 영화는 다시 자주 못보지만 노래가 좋아서 노래만이라도 찾아 듣게 되는 것 같다.

역시 ost, 브금 등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은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의 ost를 통해 신선한 충격을 느끼고 싶다.

😊 16    💬 4



**2024/05/27**  
monday, pm 5:40 | 23읽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4일차 #신선하다

마트를 갔다가 야채코너를 스친다면 내뿜어오는 시원한 연기에 이내 신선함을 느꼈다

가장 내가 신선함을 느꼈을 때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낸 이를 보았을 때, 오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하지? 싶어 곧 배움으로 찾아왔다.

누군가의 창의력과 샘솟는 표현들 어찌면 우리 모두 신선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 채

😊 16    💬 5



**2024/05/27**  
monday, pm 5:58 | 21읽음  
김예진(생명과학과 20223508)

#14일차 #신선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아체를 씻어서 생으로 먹을 때, 가로수가 많이 있는 길을 걸을 때,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맞는 공기 등 일상생활 중 쉽게 신선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중 비가 온 다음날 아침의 공기가 제일 좋다.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보통은 늦게 일어난다. 그러나 화요일과 목요일에 1교시 수업이 있어서 이때만큼은 아침 일찍 나와 강의실로 간다. 약 2~3주 전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난 다음날 아침, 강의실 가는 길은 신선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을 만큼의 약간 습한 공기가 너무 좋았다. 아침 수업을 가기 싫을 때도 많지만, 이때의 느낌을 상기시키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선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신선한 아체는 입을 시원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해 주고, 신선한 공기는 머리를 맑게 해 준다. 이런 영향은 곧 기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 온 다음의 시원 축축한 공기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다.

😊 15    💬 3



2024/05/27  
 monday, pm 6:14 | 19위층  
 치류미 (심리학과 20232139)

#14일차 #신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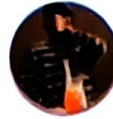
저는 숲 속의 공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초록이 우거진 숲 속 안에서 나무와 풀잎을 스친 바람의 향기는 어떤 것보다 신선합니다. 뱃속 깊은 곳부터 꼭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오르막길을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은 산의 둘레길을 걸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산의 한바퀴를 쭉 두르고 있는 둘레길은 오르막길을 걷는 것도 아니어서 별로 힘들지 않고, 지치면 중간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이후에는 축축한 흙의 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더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푸른 하늘 아래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 의자에 앉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잠시 멈추고 숲의 향기를 느낍니다. 황홀한 이 감정을 꼭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14    💬 4

모임이 쉬워진다!



2024/05/27  
 monday, pm 8:24 | 20위층  
 정우현(철학과/20231084)

#13일차

인문학적인 것에서 신선함을 느끼는 것은 드물다. 나는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내가 배우는 학문들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배운 내용이다. 그렇게까지 신선하다고 생각 든 적은 없다. 하지만 한 영화를 보면서 신선함을 감렬하게 느꼈다. 내가 본 700개의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보이즈 어프 레이드"라는 영화였다. 주인공 "보"는 편집증을 앓고 있다. 그의 관점으로 영화는 흘러가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과 스토리로 흘러간다.

영화를 듣고 10분 만에 나는 편집증 환자의 망상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쫓아온다거나 가장 친한 사람이 죽으면서 오는 고통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상한 사건들로 내 정신까지 피폐해졌다. 두시간 동안 어찌저찌 끝까지 다 본 나는 이것이 편집증 환자 주인공 보의 일상이었겠다는 걸 깨달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나 구성 방식뿐만 아니라 편집증 환자의 망상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어 정말 신선했다. 내가 언제 갑자기 그런 망상에 갇혀 이상한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 인문학적인 신선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들로 인해 흥미가 생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영화를 통해서 신선하다, 개성 있다 같은 말들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되짚게 되더라. 어떤 이들은 최고의 영화라 나처럼 극찬한다. 하지만 포스터만 봐도 이상할 거 같다고 안 보는 사람도 허다하다. 결국 취향에 따라 신선할지 최악일지가 나뉜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에게는 독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 행복에

가깝다면 무엇이든지 해봐야겠다. 보가 어떻게든 망상에서 최선을 다해 도망쳤던 것이 아닌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겠다. 모든 신선한 것들은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 영화도 나에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해준 신선한 영화이다. 충격적이고 공포스럽지만 신선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보이즈 어프레이드" 강력하게 추천한다! 강력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상 ★4.0 평균 ★3.5 (21만명)

내 코멘트  
평점



+ 보고싶어요    ✎ 코멘트    👁 보는중    ... 더보기

😊 14    💬 6



**2024/05/27**  
monday, pm 9:17 | 24읽음  
장지은(20212564/인론방송음합전공)

#14일차

'신선하다'는 키워드를 보고 단번에 '신선놀음'이 생각났다. 내 머릿속의 '신선'은 푸르른 나무들과 시원한 폭포수를 듣지도 명상을 하거나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는 '신선'은 고통이나 질병도 없으며 죽지도 않는 상상의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내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고 하루동안 신선놀음을 하며 지내도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걸 하며 지낼 지 생각해보았다.

일단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고 같이 있으면 든든한 사람인 남자친구와 함께 아무도 없는 캠핑장에 갈 것이다. 중요한 점은 텐트를 쳐야 하는 캠핑장이 아니라 글램핑 형식이어야 하며 넓은 수영장이 위치해있어야 한다. 점심으로는 같이 감자와 당근, 양파, 고기 등을 썰어넣고 키레를 만들어 먹을 것이다. 키레와 곁들여 먹을 깍두기 또한 필수이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수영장에 뛰어들어 튜뷰도 타고 수영 내기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또 물속에서 누가 오래 버틸지 내기를 하고 진 사람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놀이를 해야 한다. 해가 산 뒤로 슬쩍 들어갈 때 쯤, 대망의 바베큐 준비를 할 것이다. 캠핑장에 오기 전 미리 마트에 달려 구매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두부를 가득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칼칼한 라면도 보글보글 끓일 것이다. 그렇게 허겁지겁 저녁을 먹은 후에는 빠질 수 없는 코스인 마시멜로우를 구워먹으며 불멍을 즐길 것이다. 사실 나는 마시멜로우를 싫어하지만 불에다가 구워먹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먹는 마시멜로우는 무언가 특별한 맛이라 이례적으로 좋아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잠작이 타타타타 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 짓고 싶다.

신선놀음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긴 했지만 다 작성된 글을 보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다!) 여유가 생긴다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남자친구와 신선놀음을 하러 가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춘천에 좋은 글램핑 명소가 있는지 폭풍 검색을 해봐야겠다. 이 글을 읽는 학우분들은 어떤 신선놀음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 14    💬 3



2024/05/27  
 monday, pm 9:56 | 18위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14일차

#신선하다

<마음가집>

일 년 내내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음악을 듣는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 있어 오늘은 '신선한' 하루였다.

그는 설탕이나 꿀은 물론이고, 조각낸  
 과일조차도 넣지 않은 무가당 오트밀을 꿀꺽  
 삼켰다.  
 크림처럼 부드러웠고, 단내가 코와 입을  
 휘감았다.

버건디 색깔의 주름진 커튼을 양 손으로  
 젖히니, 뽀얀 먼지가 주위로 뿔어나갔다.  
 목이 칼칼할 지경으로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는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쉬며 말했다.  
 "상쾌한 아침이군."

오늘은 밖에서 비가 후둑후둑 내려왔고, 곧  
 부서질듯한 창문은 매섭게 삐걱거리며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심지어 오늘따라 빗소리도 고요하고  
 좋구만." 그가 끝이어서 말했다.

수천 번 들었던 베토벤 교향곡 9번은 음표

하나하나가 새로웠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림을 받았다. 도로의 소음조차도  
 그 단조로운 선율보다 흥미로웠던 어제는  
 기억나지 않았다.

똑같은 파스텔 톤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였다.  
 "좋은 아침이요."

그렇다.  
 오늘은 그가 진담받을 불치병을 완치하고  
 새 삶을 선물받은 첫날이다.

.

.

이 글에서의 '그'는 불치병을 완치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첫날을 나아가고자 다짐한  
 순간부터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이 그에게는  
 일종의 특별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매일 아침 우리는 모두 똑같은 질문을  
 맞이한다. "오늘의 하루는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료한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 하루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가집을 바꾸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마음가집을 달리한다면 조금은 더 신선하고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 16    💬 2



2024/05/27

monday, pm 10:42 | 17읽음  
박현이 (언어법리학과, 20233930)

#14일차 #신선하다

저녁에 아무도 없는 신책하면 혼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 좋다. 좋아하는 노래를 에어팟을 꽂고 들으면서 혼자 영양가와 쓸모없는 생각을 한다. '주말에 혼자 서울이나 다녀올까?', '아 근데 주말에 알바 있다. 그럼 다다음주 평일에 다녀올까?', '근데 혼자 백화점가는 거 좀 그런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음 여름에는 혼자 강릉이나 갈까.' 등등의 생각을 반복한다. 자정이 넘어 텅 빈 농구장을 보면서, 퐁퐁 얼어버린 강을 볼 때 생각이 정리되면서 답변을 얻는 거 같아 좋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혼자 산책하고 내 코가 빨개진 것에 겨울을 보며 엄청 웃었다. '혼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걸었다니! 하지만 마음에 환기는 됐잖아?' 하면서 말이다. 여름에는 선풍기 밑에서, 겨울에는 겨울바람 맞으면서 영양가 없는 생각을 한다. 춥고 신선한 공기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와주는 데에 한몫했다.

😊 15    💬 1



2024/05/27

monday, pm 10:55 | 15읽음  
방에빈(중국학과, 20201519)

#14일차 #신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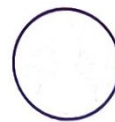
우리집 마당에는 꽤 넓은 텃밭이 있다. 상추, 고추, 감자, 파 등 여러 채소들의 생명력이 함께 모이는 장소다. 봄가에 내려갈 때, 엄마는 늘 밭에서 난 채소들로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신다. 정말 마트의 채소와는 차원이 다른 감칠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신선함'이 아닐까 싶다.

우리집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맛 보여주셨다. 편식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도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산과 들에서 쑥, 냉이, 민들레와 같은 나물을 캐러 갔다. 호미로 살짝 쭈을 굵고, 자그만 나물을 뽑는 것이 나에게도 재미있는 놀이와도 같았고, 엄마가 해주는 칭찬에 신이 나서, 나물을 캐러 가는 건 내게 좋은 일이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 엄마와 함께 술 한잔 할 때, 엄마는 내게 어릴적 밥일을 시키고, 나물 캐러가고, 놀이동산보다 계곡을 더 데려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중학생 때 깨달긴 했지만, 엄마 입으로 직접 내게 과거의 어려웠던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미묘한 감정이 생겼던 것 같다. 나는 엄마에게 바로 대답했다. 밥일이든, 나물이든, 나에게 그 모든일이 즐겁고 행복했고, 엄마와 함께인 일들이라 힘들지 않았다고.

자연이 주는 신선함은 참 고마운 것이다. 농사란 것이 마냥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 신선함을 얻는 과정에서 함께한 누군가와 끈끈한 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 13    💬 1



2024/05/27

monday, pm 11:01 | 19읽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14일차 #신선하다

신선함이란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맞이하는 맑은 공기처럼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의 그 기분이 신선함인 것 같다. 때로는

익숙한 길을 걷다가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길은 풍경도  
다르게 다가오고, 길은 사람도 새로운 면을  
보여줄 때가 있겠지. 신선한 사고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만남은 우리의  
세계를 넓혀줄 것이다. 신선한 자극은 우리를  
다시 꿈꾸게 만들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하니 오늘도 너는 신선함을 찾으며, 내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볼 예정이다. ☆

%대나무숲-너드커넥션

😊 18 💬 1



2024/05/27  
monday, pm 11:06 | 19읽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14일자

신선함은 우리의 일상에 작지 않은 기쁨을  
 선사한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맺힌  
 잔디, 바다 내음 가득한 해변의 바람, 방금  
수확한 과일의 달콤한 향기. 이러한 신선함은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순간의 행복을  
느끼게 만든다. 또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토전의 가능성, 희망을 느낀다.

이 신선함은 단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역시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만든다. 삶의 매 순간에서  
신선함을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쉬운 길 아닐까.

오늘도 신선한 것들을 떠올려본다.

😊 15 💬 2



2024/05/27  
monday, pm 11:21 | 19읽음  
박혜림 (생명과학과 20227081)

#14일자

신선한 것을 떠올린다.  
초록색의 채소들, 치킵고 물방울이 맺혀  
있지만 절대 축축하지 않다. 거둔지 '얼마  
되지 않은' 자연의 산물들을 흐르는 물에  
씻었을 때의 상태가 가장 신선하다고  
느껴진다. 세상에 제 역할을 부여받은 후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  
그타지 배는 고프지 않지만, 밥을 먹어야  
한다면 나는 이러한 상태의 것들을 먹고 싶다.

그러나 창작의 경우에는 다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세상에 등장한 인간의  
경과만이 신선함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창작에 대해 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해 왔다. 특히  
예술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획기적일  
것'을 요구했을지 모른다. 진정 좋았을지  
모르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작품들은 매우 실험적이다. 이것이 실패하면  
나에게는 기괴하게 다가온다. 그림이나  
조각들은 물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까지  
그러한 추세이다. 나는 이 기괴함을 즐긴다.  
대부분의 사람이 꺼리는 작품들에 대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에 따른 혼란까지 나는  
흠뻑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나에게도 거부감을 주는 작품들이 있다.  
'새롭다'만이 '신선하다'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선하다는 분명 긍정적인  
서술어였는데, 새롭기만 한 것들이 이  
'신선하다'를 망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것들의 익숙함과 인정감, 그 뻔함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는 패션이나 음악, 건축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이디어 즉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참고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한다.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클리셰가 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당연한' 한 말씀이, 표지판의 '뻔한' 문구가 알고 보니 사실 결말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는 스토리이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는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이 매력이 되레 새로운 에 지친 우리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

😊 15    💬 1



**2024/05/27**  
monday, pm 11:25 | 18위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14일차

신선함을 느끼고 싶은 요즘입니다.

찌뿌둥함과 피로감에 찌들어 절여질 대로 절여진 제 자신에게 신선함을 선물해주고픈 요즘입니다.

모랫알갱이 한 움큼 집어 삼키는 화할 파도와

비에 젖어 싹새름한 나뭇잎 냄새 왕창 풍기며

맑은 땀방울 흘리고 나이트 사이로 건너 건너 가고싶다.

내 마음 활하게 신선함이 찾아오면  
두 마음 넓게 주어 네게도 신선함을 선물하리

😊 15    💬 2



**2024/05/27**  
monday, pm 11:27 | 18위음  
한지현(데이터테크/20203260)

#14일차

태양이 온 풍경에 마중 나온 시각입니다. 굳센 햇빛 온도가 느껴질 무렵, 신선한 공기가 머리카락을 치고 갑니다. 저는 곧 높은 체도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쟁한 옷들이 화려하게 요동치고, 솜사탕을 찢은 듯한 구름들은 조용히 걷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든 싱그러움이 자꾸 눈길을 끕니다.

버스 창문 밖, 나무에 살고 있는 잎들이 팔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앞에 앉은 사람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뽕뽕, 버스가 언덕을 지나갈 때마다 움직입니다. 퇴근 시간에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저는 지각이지만 (결론은 지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에너지가 가득 있기에, 자연의 싱그러움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잘 먹고 잘 잤던 날, 여유가 가득한 날, 스마트폰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 늘 신선한 하루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좋아요.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나 보내고, 다시 에너지가 가득한 내일의 해를 기대해봅니다.

😊 14    💬 1



**2024/05/27**  
monday, pm 11:29 | 20위음  
유영주(침략/20202550)

#14일차

술병 나서 이틀 쫄쫄 뉘게 된 내 알콜과다 포도탕 부족 뇌는 전혀 신선하지 않다.

좀 억울한 건 호두나 이몬드 리큐르 등을 어디서 마셔보지 못했던 신선한 느낌의 술을 마셔보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점이다. 대용량으로 살 수 없어 이주 소량으로 리큐르를 파는 베이킹 쇼핌몰에서 어렵게 골수까지 했더니 노첼로 나에게 구역감을 줬어. 있는 그대로 마시라고 믿은 게 아니라 제뽀용으로 내놓은 리큐르라서 이렇게 골로 갔나 싶어 구글링해 봤더니 또 그건 아니고 잘만 씬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더라. 어디에다가 술병 나서 골골텐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정말 쩍찐려서 아무 데도 말 못 하다가 이제야 바르대로 털어 내놓는다. 지금 내 솔직한 마음은 좀 신선할 수도 있겠다.

😊 15 💬 1



2024/05/27  
monday, pm 11:35 | 21원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14일차 #신선하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나아가는 게 낫다고들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써의 신선함은 유행과 흐름을 선도한다. 신선함은 항상 필요하다. 반복되며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도. 참 쉽지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면서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15 💬 2



2024/05/27  
monday, pm 11:42 | 26원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전직 버거킹 알바생이 알려주는 신선한 버거 먹는 방법

/

여러분 혹시 버거킹 좋아하시나요?  
저는 버거킹에서 1년 반정도 근무했었는데 덕분에 버거 제조부터 카운터까지 다 마스터 했었습니다

전직 버거킹 알바 마스터로써  
버거킹 버거 신선하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먼저, 세트 주문하실 때 꿀팁입니다. 널리 알려져있는 방법이긴 한데, 갑자튀김을 노솔트(소금없이)로 달라고 하시면 새로 튀겨야하기 때문에 갓튀긴 뜨거운 갑튀를 먹어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갑튀를 건지자마자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잘사가 안되는 타입에는 몇 분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상하거나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튀긴지 시간이 좀 지나서 녹녹한 갑튀가 되긴 합니다.

버거킹은 위생에 굉장히 엄격해서 제가 근무했을 당시엔 2-30분 정도만 지나도 갑튀를 전량 폐기했었어요. 본인이 받은 갑튀가 갓 튀긴게 아니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도 낫 튀긴 감튀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노슬트> 꼭 기억하시고 써먹으세요!!

다음은 빵입니다. 어떤 햄버거를 먹느냐에 따라 빵도 달라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몬스터X 와퍼의 버터향 가득한 빵을 좋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깨 올라간 빵은 와퍼, 와퍼주니어 등에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특수(?)한 빵이 쓰이는 경우는 몬스터X와퍼, 기네스 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네스는 보통 빵과 큰 차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축축하게 느꼈습니다!

요즘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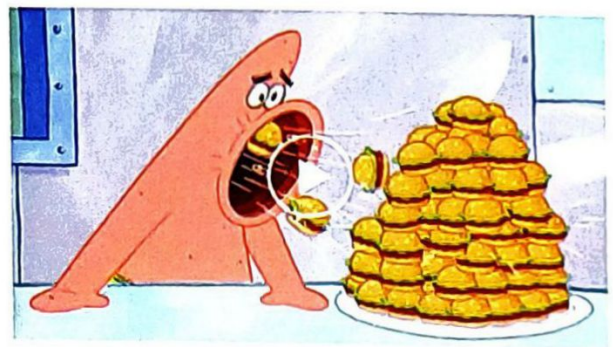
또, 버거킹의 앙상추는 사르르 흘러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뚱뚱뚱뚱 썰린 톰직한 앙상추를 넣습니다. 햄버거 뚜껑이 잘 안닫히는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일할 때는 앙상추를 살짝 분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접바짐, 알바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튀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료들은 특정 시간을 넘어가면 전량 폐기하고 알바생들 손도 뽀뽀 씻기고 장갑 갈아끼우면, 위생에 철저하던 곳이라 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치즈스틱> 입니다... 이 놈이 알바다니는 동안 절 살찌운 주범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버거킹 최애 메뉴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야식으로 버거가 땡기는 밤입니다



#14일차 #신선하다

😊 20    💬 7



2024/05/27  
monday, pm 11:43 | 20원음  
김준호 (콘텐츠IT)

#14일차  
신선하다.  
신선하다, 주로 누군가 제안한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이면서 마음에 드는 경우,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좋은 방법인 경우 쓰는 표현이다.

나는 보통 기발한 방법이나 접근을 생각해냈을 때 주로 쓰곤한다. 가장 최근의

신선했던 방법을 생각하노라면 이마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리 팀은 게임을 제작했는데 게임을 제작하다보면 기술이나 시간, 효율을 위해 사용자를 속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 팀의 경우 프로토타입을 만들던 때에 3인칭 조준 후 사격 시스템을 만들 때 난항을 겪었다.

실제 조준한 곳 보다 왼쪽에 맞는 것이 문제였는데 문제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조준 점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옮기는 것으로 임시로 해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조준점이 치우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고 다행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간단하지만 기발했던, 신선했던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되었던 사건이다.

😊 16    💬 3



2024/05/27

monday, pm 11:55 | 18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4일차 #신선하다

낮선 곳에서 눈 뜬 아침은, 몇 번이고 신선했다.

2024년 1월, 6박 7일간 일본 오사카와 도쿄 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본 택시 기사님의 공손함이 어색했다. 1분이 아닌 1초마다 100엔씩 급액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탈 때는 수동문, 내릴 때는 자동문인 것도 어색했다.

눈을 뜨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해가 쬐는지 창문 압막 커튼을 열어 확인했다.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일본의 아침 공기가 잘 느껴졌다. 창문 밖에 보이는 골목길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보였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항상 상상만 했던 상쾌하고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포근한 이불 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책도 읽고, 따뜻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하루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숙소는 일본의 전통이 묻어있는 료칸이었다. 바닥은 다다미로 이루어져, 화면으로만 봤던 다다미 바닥을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은 매우 달랐다. 생각보다 폭신했고 방 분위기가 따뜻했다. 테이블에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작은 과자를 함께 준비해두었다.

이전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한 신선함을 느끼고 오는 것이 다음 일본 여행 목표이다. 6박 7일간 일본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은 바쁜 여행이었다. 다음 여행은 일본 전통과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여행을 즐겨야겠다.

모임이 쉬워진다!



😊 12    💬 5



**2024/05/27**  
 monday, pm 11:56 | 20원음  
 한광성(사회학과, 20182237)

#14일차 #신선하다

신선하다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뭔가 놀랍다 라는 글을 적었을 때와 겹치는게 많았다. 뭔가 놀라운 거랑 신선한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두 개의 차이를 꼼꼼히 생각해봤을 때 뭐라고 설명을 잘 하긴 어렵지만.. 느낌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신선한건 뇌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놀라는건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기가 신선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공지천을 종종 걷거나 뿔 때가 있는데 밤공기도 나름 상쾌하면서 신선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또 신선한 것은 16년간의 학교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대외활동이나 인턴의 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해 1개 2개씩 경험을 하는데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해보는 모든 것들이 신선하다.

물론 내가 하는 업무 특성상 사무업무보다 행사나 이벤트를 열다보니 다양한 곳도 기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다보니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렇게 단순한 업무보다는 신선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기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감사하다.

😊 15    💬 4



**2024/05/27**  
 monday, pm 11:59 | 20원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14일차 신선하다

신선하다라는 문장을 보니 바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어릴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할아버지가 특별히 오토바이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그때도 잠이 많은 나였는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언니랑 같이 할아버지 등 뒤에 앉아 할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었다. 그때 그 공기가 서울과 같은 도심 속 공기와는 다르게 엄청 시원하면서도 자연의 날것의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일렁였다. 그것만큼 신선한 공기는 아직까지도 못 맡아봤을 정도로 매우 신선하고 신선하다못해 약간의 상쾌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그 공기가 그림고 그때의 순간이 그리워진다.

😊 15    💬 3



2024/05/28  
tuesday, am 12:04 | 19읽음  
손지민(김효학과\_20236255)

#14일차 #신선하다

봄에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는  
바지락 딸기 두릅 더덕 쭈꾸미 장어  
가 있습니다

여름에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는  
옥수수 토마토 전복 감자 고구마 블루베리가  
가 있습니다

가을에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는  
쿨 게 훙합 배추 고등어 꾀치 갑자  
가 있습니다

겨울에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는  
우렁 배추 삼치 쿨 석류 가리비 광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의 어떤 제철 음식이 제일  
좋으신가요?  
절절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철 음식을 드셨나요?

😊 14    💬 3



2024/05/28  
tuesday, am 12:21 | 17읽음  
김양선

#1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유독 아침  
공기가 선선하고 신선했죠? 아침이나 밤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하는 산책, 신선한  
식재료와 음식,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소설과 영화, 신선한 프로젝트 등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를 낯선 눈으로  
관찰하면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  
신선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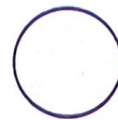
😊 11    💬 0



2024/05/28  
tuesday, am 8:01 | 32읽음  
김양선

#15일차 키워드 : 끝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5월  
7일에 시작한 라이팅 챌린지도 오늘로  
드디어 '끝'납니다. 아마 완주한 친구들은 이  
'끝'에서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끼겠죠?  
살아가면서 영화나 드라마의 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적이 있나요? 좀더 깊이  
들어간다면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삶의  
끝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챌린지  
활동의 마지막날 기분 좋게 '끝'맺는 글을  
써봅시다.

😊 14    💬 0



2024/05/28  
tuesday, am 9:40 | 21읽음  
함채린(데이터사이언스학부/20243260)

#15일차 #끝

끝 그리고 시작

너와 나, 서로의 그림자 속에 머물다  
조용히 멀어져 가는 발걸음.

기억은 바람에 날려 한낱 흩날림이 되고  
눈물이 시들어 가듯,  
우리의 추억도 조용히 색이 바래는 중.

봄날의 꽃이 지고, 여름의 햇살이 사라지듯  
우리의 시간도 흐름 속에 스며든다.

그리움은 추억 속에 잠기고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피어난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며  
이별은 곧 새로운 만남의 예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간다.

😊 14    💬 5



2024/05/28  
tuesday, am 9:40 | 21원음  
박지호(식영,20213818)

#15일차  
끝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앞두고 돌아보면, 수많은 도전과  
성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강의실에서의 시간, 동아리와  
봉사활동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그 뒤를 따른다.  
이제 졸업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한다.

끝맺음의 순간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단지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끝없는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각자의 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결국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나 또한 매일 도전하고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다짐한다

😊 16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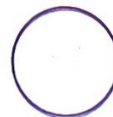


2024/05/28  
tuesday, am 11:07 | 20원음  
김선유(간호학과/20246202)

#15일차 #끝 #마무리  
오늘로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가 끝이  
난다. 매일 성실하게 내 이야기를 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답변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같은 주제의  
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글들을  
보는 것도 보람있었던 시간이었다. 끝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지만 처음에 목표했던  
'매일' 쓰기를 지키기도 했고,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하나 하게 된 거 같아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 같다.

큰 몇 년 간 글을 쓸 일 자체가 거의 없었고,  
특히 본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쓰는 거  
자체가 매우 오랜만이었었는데 주제가  
대체로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어서 라이팅챌린지를 하면서  
과거의 기억들도 많이 떠올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볼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힘을 많이 얻어서 만족스럽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16    💬 3



2024/05/28  
tuesday, am 11:23 | 19원음  
차유미(심리학과 20232130)

#15일차 #끝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 가장 끝이  
기억나는 영화는 '천공의 성 라퐁텐'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학생 때 새벽에 방에서 조용히  
봤던 영화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나서 뭔지

모를 몽글몽글한 마음과 설설한 마음이 뒤섞여 머리가 멍해져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뒤로도 몇주간 후유증이 심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멍한 기분과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 찬 여운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긴 후유증으로 한동안 마음이 이상하고 허전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또다른 시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얻은 뿌듯함 혹은 아쉬움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에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많은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15 💬 3



**2024/05/28**  
tuesday, pm 12:33 | 22읽음  
권혁빈(경제학과/20195112)

#15일차

시작은 힘들지만, 끝이 보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처음 게시글을 보았을 뎨 고민이 많았다. 이번 글쓰기 챌린지 외에도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다 놓친 적이 많다. 귀찮을 수도, 힘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다.  
끝은 시작을 동반하고, 시작은 끝을 동반한다. 즉 시작을 했다면 언젠가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시작은 부정적 의미로써 끝인 경우가 많았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흐지부지 마무리된 계획, 내가 시작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이 끝난 기회. 하지만 다행이다. 이번엔 그 끝이

배드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이니까. 끝=시작이며 시작=끝이다. 이번 끝맺음은 나에게 새로운 연결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3주, 글쓰기로 따지면 15일을 지나면서 나에게겐 새로운 싹이 자라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추가로 이 챌린지를 무사히 완주한 나 스스로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16 💬 4



**2024/05/28**  
tuesday, pm 1:05 | 20읽음  
한주연(미디어스쿨,20242586)

#15일차 #끝

끝이 보여야 달려갈 힘이 있다.

이렇게 라이팅 챌린지의 여정도 끝이 났다.

인생에 끝은 아무도 모르고 끝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끝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간 적이 있었는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숨고싶어진다.

왜 끝이 있고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에 도달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16    💬 6



**2024/05/28**  
tuesday, pm 1:21 | 19위음  
유영주(청각/20202550)

#15일차

끝을 싫어한다. 온 세상 다양한 끝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들 내가 질려 학을 떼고 나서야  
끝나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 너무 아쉽게  
가버리고 어떤 건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정말 다행인 건 라이팅 챌린지는  
박수칠 때 떠나준다는 것 정도?  
유치원 졸업할 땐 평생 유치원생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땐 평생 초딩으로, 중졸 땐  
평생 중딩으로, 고졸 땐 평생 고딩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진학하고 보니 평생  
대학생으로 살고 싶은 요즘이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려는 무지막지한 선택을 하려는  
중이다.  
끝 내기 싫었지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에 딱 들어맞게 끝 이후 오는 시작들도 다  
좋았으니 또 끝내기 싫었던 것이겠다. 나를 끝  
이후가 기대된다.

😊 15    💬 5



**2024/05/28**  
tuesday, pm 1:22 | 21위음  
서준영(사회복지학과\_20192327)

#15일차

아침에 학교를 가며 처음으로 했던게  
키워드가 어떻게 나왔나  
확인하는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을 쓰며

이제 키워드를 확인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글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글  
종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험, 시, 단편  
소설같은 글의 구성들을 보면서 키워드에  
대한 내용 그 너머의 설명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 신청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글쓰는 방법을  
배우고자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을 마주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꾸준히  
내 몸이 익히기 위해 들었던 노력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던게 끝나면 모든게  
괜찮아질거 같을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이며 골치아픈  
일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숙제는 무엇인지 생각해야합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열심히  
달려왔고 마무리했다는 만족감만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간종간 휴일부터 축제까지 꾸준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 재밌는 글, 좋은 글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 15    💬 4



**2024/05/28**  
tuesday, pm 1:27 | 19위음  
조성빈(중국학과, 20201534)

#15일차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법,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어렵고, 과정은 힘들며, 끝은  
이상하게도 시원섭섭하면서도 아쉬워지는것  
같다.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끝은 이번  
1학기이다. 그 이유는 마지막 학년이면서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1학기 대면수업이기도

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번학기에는  
 실습 과제가 많은 수업이 많았고, 졸업 발표와  
 오디세이 과목도 있어서 면담도 해야했었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생애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이대의 타인과  
 함께 4개월동안 생활해야한다는 점이었다.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중도  
 퇴사도 하고 싶었지만 꼭참고 버티면서도  
 언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종잡까지 약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빨리 종잡이 왔으면  
 이번학기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또 다른 '끝'으로는 자주는 아니고 문득문득  
 삶에 대한 고찰을 할 때 인간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곤 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나는 "인간의 그 끝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인간이 죽고나서는 정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한 줌의  
 재가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삶의 끝은 무섭고 두렵고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다.  
 예전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을 새겨들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며 나  
 자신에게도 후회없는 그런 삶을  
 보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죽기전에  
 이 나라에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는 것인데,  
 그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좋은 인물이 되고  
 싶은게 나의 바람이다.

끝으로, 모두에게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듯  
 너무 아쉬워하지말고  
 새 시작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14    💬 5



2024/05/28  
 tuesday, pm 1:28 | 22원금  
 정종민(융합신소재공학/20206639)

#15일차 #끝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다.  
 칠랑이는 파토 위로 돛탄배가 천천히 나아가  
 해수면의 끝자락에 닿았다. 비유가 아닌 정말  
 끝에 빗머리가 벽에 꽂혔다가 한차례 튕겼다.  
 손을 뺐자 하늘과 해수면이 손에 느껴졌다.  
 (이건 벽이야, 저기 계단도 있다니.)  
 떨리는 다리로 배에서 내려 벽을 따라 늘어진  
 좁은 길목을 걸었다. 좌측엔 하늘과 바다를  
 완벽히 묘사한 배경이 서있었고, 우측에는  
 진짜 바다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진짜라는 것은 "트루먼"만이 믿고 있지만  
 말이다. 푸른 계단을 따라 걸어 올라 문을  
 발견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인간들이  
 통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그렇지만 어딘가에 있을 카메라를  
 응시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중에 못 볼지 모르니 미리 말해 두죠. 굿  
 에프터눈, 굿 이브닝, 굿나이트.]  
 모두 안녕히 있기를, 허리 숙여 인사한다.

우리끼리, Band!



😊 17    💬 4



**2024/05/28**  
 tuesday, pm 2:46 | 19원음  
 김나연(의약신소재,20226606)

#15일차

나에게 끝을 맺는다는 건 슬픈 뜻이다. 끝이라는 단어는 이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람과의 관계이든, 학기의 끝이든, 그 무엇이든간에 끝이 난다는 점은 다시 하기 힘들다는 부분에서 더욱 슬프게 만드는 듯 하다.

이번의 끝은 라이팅 챌린지가 되었다. 초반에는 꽤 자신감있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늘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끝을 마주할 때는 늘 부족했던 것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 아쉽다.

2024년도 라이팅 챌린지를 끝내며 많은 생각이 든다. 새로운 주제에 관해 하루하루 색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이들의 글을 읽으며 얻어가는 것이 많았다. 무엇보다 챌린지 첫번째 목적이던 끝까지 쓰기를 지켜

부족함은 있었지만 만족하는 상태로 끝났다.

이번 끝은 아쉬움과 후련함, 만족감으로 채워졌다.

😊 15    💬 5



**2024/05/28**  
 tuesday, pm 4:40 | 19원음  
 김에진(생명과학과 20223508)

#15일차 #끝

나에게 있어서 끝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끝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 이 일이라는 것이 과제나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하나의 일이 끝나야 다른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할 때에도 하나 끝을 내면 다른 하나를 시작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싸워서 냉전인 상태를 끝내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끝은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준다. 그러나 엄두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끝이 깔끔해야 시작도 깔끔하다는 점이다. 이매하게 끝을 내버리면 끝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신경 쓰여서 새로운 시작은커녕, 아무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내 경험을 한 번 풀어보자면 작년 이맘때쯤에 친한 친구와 싸웠었는데, 제대로 화해를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됐다. 이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2주 동안은 하려는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 그 후에 잘 풀었지만 말이다. 이처럼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 따라서 깔끔한 끝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

😊 15    💬 5



2024/05/28  
tuesday, pm 5:00 | 21읽음  
최지윤(사회복지학부 20242357)

#15일차 #끝

[ 열다섯 번째 접시 ]

마침내 라이팅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게 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와 함께 대학교에서 생긴 재밌는 경험이 또 하나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뭔가 신기하고 동질감이 느껴져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라이팅 챌린지는 열여섯 번째 접시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 때 네잎클로버를 함께 달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운이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는 의미로 댓글 문장 앞뒤로 붙였습니다. 아마 제가 라이팅 챌린지 속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조금이나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서 기쁩니다. 모두들 열심히 활동해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무사히 아름다운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 17    💬 3

2024/05/28  
tuesday, pm 5:55 | 23읽음  
한광성(사회학과, 20182237)

#15일차 #끝

2주차정도부터 거의 글쓰기를 23시 이후해서 급한 마음으로 적었던 마음이 있어 오늘은

그래도 미리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어느덧 마지막날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다.

무언가 시작이 있다면 당연하게 끝이 있기 마련.. 함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중도 꺾이는 순간들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아쉬운 감정이 드는 것이 매번 반복된다. 뭔가 이번 라이팅챌린지도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매번 도전을 할 수록 조금씩 잘해나가고 있는 기분이 든다.

단순히 결과가 잘 나와서 상을 받아서 그런 기분이 든다기보다는 전보다는 업무를 하는 시간이 적게들거나 힘이 덜 드는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무엇 1개 하면 지쳐서 휴식을 취했다면 지금은 2개는 할 수 있는 기분이 든다.

나라는 사람 또한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무언가가 끝나면 나 자신에 대한 스펙이 하나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언가가 다 끝났을 때 나는 끝났다는 표현보다 완료나 완수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끝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도 있지만 완료나 완수는 내가 해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 성취감이 있어 좋아한다.

😊 15    💬 6



2024/05/28  
tuesday, pm 7:35 | 19읽음  
장지은(20212564/언론방송융합전공)

#15일차

'끝'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바로 졸업식 노래로도 유명한 015B의 '이젠 안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대강당에 모여앉았을 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멜로디가 나오면 바로 눈물이 나왔다. 심지어 내

졸업식이 아니라 다른 학년, 즉 언니 오빠들의 졸업식인데도 눈물이 나왔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이 우는 나를 보고 황당해하면서도 당황해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선하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온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가사가 너무 슬퍼서라고 추측해본다. 처음 만나 어색했던 그 표정, 지내 온 수많은 나날들, 아직은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 등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또 '서로 가야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가사도 각자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 또 그 길을 찾아서 나 혼자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혼자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시끌벅적하고 서로를 축하해주던 졸업식과는 달리,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반에서만 조용히 졸업식을 치루었다.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커녕 옆반 친구와도 서로 졸업 축하한다는 얘기를 나누지 못 했다. 또 그동안 감사했던 선생님들께도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 했다. 약 3년이 흐른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아쉽게 남아있다.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인지 대학교 졸업식은 그 누구보다 성대하고 거창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다. 벌써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내 졸업식에 꼭 와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남자친구에게는 그 날 어떤 꽃을 받고 싶은지까지 얘기해놓았다. >\_<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이 인생의 마지막 졸업일 것 같은데, 큰 여파없이 예정대로 다들 학사모를 쓰고 예쁜 사진을 찍길 바란다.

😊 12    💬 2



2024/05/28  
tuesday, pm 7:45 | 16원음  
황보승표(러시아학과 20211733)

#15일차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길 마련이다. 끝을 생각하면 후련한 감정이 들면서도 아쉬운 감정이 든다.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판으로도 볼 수 있다. 난 항상 무언가 끝을 맺을 때 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뒤돌아본다. 뒤돌아보면 웬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쁨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다.

이번 라이팅 프로젝트를 뒤돌아보면 평일마다 글을 몇주동안 써본게 처음이었고 완주에 성공한 점도 마음에 든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날에 따라 나쁘지 않은 글과 마음에 안드는 똥글이 오락가락하는 글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못한 점과 대부분의 글을 내 경험에 기반한 글만 썼고 소설 시와 같은 창작의 영역에는 도전을 해보지 않은점은 아쉬우면서 후회가된다.

2024년 1학기 라이팅 프로젝트 The End

😊 14    💬 3



2024/05/28  
tuesday, pm 8:08 | 18원음  
정우현(철학과/20231084)

#14일차  
라이팅 챌린지가 끝이 난다니 내심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든다. 저번 학기에 라이팅 챌린지를 끝내고 이 챌린지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걸 배웠다. 이번 챌린지 역시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뿐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나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이 확실하다.

오늘의 주제인 끝을 떠올려 보았다. 이별과 끝은 나에게 고마움을 준다. 끝이라는 건 절대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자 희망을 주는 지표다.

끝이나서 아쉽지만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된다. 끝이나면 매번 배우고 성장하는 내가 뿌듯하다. 이번을 기회로 더 발전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려고 한다. 다음 라이팅 챌린지는 더 발전해서 온 내가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항상 고마움과 배움을 주는 라이팅 챌린지는 사랑이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바치며 마지막 글을 끝내겠다.

😊 15    💬 3



2024/05/28  
tuesday, pm 8:44 | 19읽음  
최연진(임상의학통계,20233256)

#15일차 #끝

벌써 3주가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버린 느낌이 든다. 난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짧게라도 정든 사람들이 먼저 떠오른다. 글 쓰는것도, 같이 글쓰는 사람들과도 익숙해질 무렵 끝난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하지만, 끝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껴진다.

라이팅 챌린지를 도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에는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이 벅차 보였지만, 점점 나만의 글쓰기 리듬을 찾게 되면서 글을 재미있게 정리하고 쓴 것 같다. 처음 쓴 글과 비교해보면 스스로 글 쓰는 방법도 바뀐 것 같아 신기하다. 함께 챌린지에 도전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글쓰는 법도 알게되고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과 글쓰는 방법들, 개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들도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3주 글쓰기 프로젝트를 신청했던 이유가 직접 글을 쓰면서 글 쓰는 기술을 올려보고, 연습 하고 싶었고 같이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며 몰랐던 표현이나 생각들을 배워보고 싶었다. 스스로의 목표와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며 성장하는 3주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모든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더 뿌듯하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도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끝이라는 말이 주는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어떤일이든 지금처럼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4    💬 8



2024/05/28  
tuesday, pm 8:58 | 20읽음  
김명빈 (미디어스쿨\_20202706)

제목 생각하는 것도 이제 끝이다

/

오늘은 포트폴리오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붓지 못한 점, 제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 점,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 정성 들이지 않은 느낌이라 발표 전부터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잘하고 싶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필 순서도 마지막이라,

앞에서 본 다른 학우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제 것보다 훨씬 잘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차례가 다가오니  
교수님께서 제 포트폴리오를 너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순서를 기다리며 호들갑 떨던 게 무색하게  
극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끝을 보고 나니,  
큰 산 하나 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으로 온몸이 채워졌습니다.

라이팅 챌린지도 그런 거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땐, 잘 쓰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서  
다른 분들의 글을 탐내고, 흉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어쩔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덕분에 좋은 자극 받고 마무리합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라이팅 챌린지 밴드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시고 학기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15일차 #끝

😊 15    💬 6



2024/05/28  
tuesday, pm 9:09 | 18위음  
김수림(사회복지학, 20212316)

#15일차 #끝

끝의 또다른 말은 시작이다.  
무언가를 새로이 하기 위해 비워냄은 필수다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신의학 치료를 받고 있었다  
계속되는 외상은 매번 잠을 못 이루게 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날

신이 계시다면  
수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감인함과

갑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언제쯤 괜찮아지려 그러나  
아직도 하얗없이 눈물이 흐르고는 한다

기적이 있다면 내 차례이길 바라며  
이제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

😊 15    💬 4



2024/05/28  
 tuesday, pm 10:00 | 16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0222306)

#15일차 #끝

나의 대학 생활의 끝은 어떨까?

대부분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에 한 번쯤 밖으로 꺼냈을 것이다.

“휴학하고 싶다”, “졸업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본인은 이러한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 격해서 극단적인 말을 내뱉는다. 과제와 시험, 인간관계에 치여 사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과정이 있기에 대학생이고, 이러한 시기가 있기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

어떤 것에 대한 끝을 상상하는 것은 복잡한 감정이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끝을 상상하는 것은 걱정 반 설렘 반인 것 같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순간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기대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혹은 되어가고 있을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라도 이루었는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등.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몇십 년이 지난 후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미소 지으며 그림게 회상할 수 있길 바란다. 인간으로서 더 성숙하고, 지적 능력이 향상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 13    💬 1



2024/05/28  
 tuesday, pm 10:19 | 18읽음  
 최영우(미디어스쿨/20242581)

#15일차

끝이네요,

매번 키워드가 올라오면 메모장을 켜 그 순간만큼은 그 단어에 대해 수도없이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때때로 글을 즐겨 썼던 저에게는 이 챌린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떻게든 글을 써야한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쓰다보니 모이고 쌓인 저와 여러분의 글들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끝맺음이 아쉽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챌린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에 입하는 저 자신까지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3주동안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써주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스레 읽어주신 분들께도요.

꽤나 찝찝했던 제 대학생활에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조금의 여유를 선물해주었고, 이로 인해 또 하루를 잔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 14    💬 1



2024/05/28  
tuesday, pm 10:20 | 17읽음  
이채원(미디어스쿨/20242562)

#15일차 #끝

평소 '끝'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다. 끝이라는 건 마지막이고 이별이며 헤어짐을 불러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치만 모든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끝이 없이 영원하다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익숙함에 무뎌지겠지.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천천히 모든 순간들을 음미하고 몸 속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을 더욱이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유한한 것이 주는 즐거움 같다. 스쳐 지나갔던, 또 지나가는 것들을 보내주는 것에 익숙해지자. 새로운 것이 올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끝이 온다고 마냥 슬퍼하지말기☆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Warrlor-오월요일

😊 13    💬 1



2024/05/28  
tuesday, pm 10:25 | 16읽음  
박현아 (언어병리학과,20233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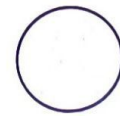
#15일차 #끝

중요한 일들을 끝마칠 때는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서 기분은 조금 찝찝할 때나, '드디어 이 대장정에 마칩표를 찍는구나!!' 하면서 삼패하고 몸이 가벼워질 때가 있다. 전자는 내가 아무 준비를 못했는데 중요한 일을 빨리 해야할 때 '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잘 끝낼 수 있는거야?' 싶을 때고, 후자는 '내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보내려니 아쉽고 섭섭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 편이다. 둘 다 나중

봤을 땐 정말 좋은 추억이었지~ 싶지만 끝난 직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끝난 것을 믿고 싶지 않아진다.

모든 일에 끝맺음이 있으면 후련하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내줘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걸 알려주는 학원은 없을까!?

😊 14    💬 2



2024/05/28  
tuesday, pm 11:01 | 16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5일차

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5일간의 글쓰기도 어느덧 그 끝에 다다랐다. 아쉬움도 많고 즐거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기에 결코 부족함 없는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작은 마지막의 시작이고 마지막은 시작의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누군가는 마지막을 시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작을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어느 누가 맞고 틀리기를 결정하기 보단 두 관점이 나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되는지를 달달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번에는 워낙 컵치는 일이 많았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이 내심 많이 아쉽지만 그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결과이기에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저물어가야 할 것 같다.

😊 13    💬 2



2024/05/28  
 tuesday, pm 11:15 | 17일음  
 빅헤원 (셀명과학과 20227081)

#15일차

그럼에도 내일은 오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지구가 둥근 것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꽃이 지고 떨어지면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오래 같이 있자

나는 이기적이어서 잊히기보다는 먼저 잊는  
 게 좋고  
 남겨지기보다는 떠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아도 그  
 무게가 달라서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겠지만,

너는 내세를 믿어?  
 사랑받을 때는 내세에 바람이 된대  
 그래서 나의 메일을 몇 번이고 쓰다듬는데,  
 그대가 오면 나는 바람을 사랑하게 될 거야  
 12월의 바람도 포근하게 느껴질 거야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너와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궁금해  
 우리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을까?  
 반대로 네가 인간이고 내가 강아지였을 지도  
 몰라  
 네 슬픔이 깊고  
 내 기다림이 너무 길었어서  
 이번엔 반대로 태어난 걸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  
 이번 일생의 끝을 생각하는 일은 슬퍼

네게 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그날이 오면 조금만 슬퍼할 수 있기를!

😊 12    💬 3



2024/05/28  
 tuesday, pm 11:29 | 19일음  
 희엽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212581)

#15일차 #끝

끝은 언제나 아쉬우면서 후련하다. 꾸준히  
 달려온 그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인생에서의 시작이 내맘대로는 아니었지만  
 그 끝까지의 이야기는 그대의 손에 달렸다.  
 힘차게 달리다가 잠시 쉰다. 다시 달릴 힘이  
 생기면 일어나 달린다. 달리기하다 쉬는 것이  
 당연하듯, 잠시 힘이 빠졌다고 해서 좌절 말고  
 그냥 마음 놓고 쉬어보자.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챙겨보던 드라마도 마침 오늘 마지막화를  
 맞이했다. 드라마의 끝처럼 그대의 인생  
 영화가 해피엔딩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12    💬 6



2024/05/28

tuesday, pm 11:38 | 17읽음  
손지민(간호학과\_20236255)

#15일차 #끝

끝이었다

라이팅챌린지가 끝이었다

오늘의 동아리 연습도 끝이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드디어 대망의

팀풀도 끝이난다

끝이라는건,

어떨 때는 후련하고

어떨 때는 슬프며

어떨 때는 기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 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던 일이

종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마치 내 삶의 자극제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

끝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끝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

진정한 인간이 되기에는 먼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진심을 다했던 일에 조금은 미련을 갖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



11



5



2024/05/28

tuesday, pm 11:38 | 18읽음  
김주희(사회복지학과, 20212318)

#15일차

#끝

&lt;라이팅챌린지&gt;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가 보입니다.

라이팅 챌린지를 하는 동안

글의 양적인 목표에 급급했던 적도 있고, 어떤

하루는 글이 맘처럼 잘 써지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각각 다른 매력들이 담긴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글의 전달력이 높아지는구나.'

'참신한 글이네.' 이외에도 수만가지 감정과

느낌이 머리를 이리저리 관통하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생생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표현도 이리저리 바뀌가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달아주는 좋아요와 댓글들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다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는 모임이 생겼다는 것에 마음이

수차례 간질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챌린지는 저에게 있어  
'끝'님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2024/05/28  
tuesday, pm 11:44 | 16원음  
밤에빈(중국학과,20201519)

오늘은 #끝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라이팅  
챌린지에 대한 글들을 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 “끝”이라는  
단어에 대한 복잡미묘한 감정, 아쉬우면서  
뿌듯한 감정을 담은 글들. 저도 차차 올라오고  
있는 글들을 보다 보니 어느덧 챌린지가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감정,  
생각 등 다양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독 쉬우면서 어려운 단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단순한 종결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비록 라이팅 챌린지가  
끝났지만, 여러분들께는 이 ‘끝’이 또 다른  
여정으로 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

😊 14    💬 4

### #15일차 #끝

매일 하루의 끝을 기록한 라이팅 챌린지도  
어느덧 열 다섯장이 되었다. 오늘 그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회상하며 다시금 내  
글을 읽어보았는데, 매일 밤 사소하게 글을  
고직이던 것이 마냥 챌린지라는 의무감에  
했던것만은 아니었음을 느꼈다. 매일 새로운  
주제는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고, 단어를  
다채롭게 쓰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글 속에  
담겨 있는것 같아 뿌듯했다.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습관을 잃어버려 갈 때쯤 시작한  
이 챌린지가 끝에 다다를 때, 도서관을 매일  
찾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고마운 마음이 큰 15일이었다.

챌린지를 함께한 여러 학우님의 글을 보는  
것도 고착화된 나의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글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 감탄했다. 그리고 또  
배웠다. 역시 이 사회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될 수 있는것은 없으며 아이디어는  
저마다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글들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감정에 젖으며 읽을 수 있었다.

여느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오늘 챌린지를 마침으로써  
다시 또 라이팅 챌린지는 시작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 내일의 시작을 맞이하자.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의 끝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의 끝과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

15일간의 노력, 그리고 고생한 오늘, 우리는  
참 잘 끝마쳤다. 그럼으로써 나와 당신,  
모두는 멋진 삶을 쓰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다시 시작해보자!



2024/05/28

tuesday, pm 11:55 | 16원음

한지현 (데이터테크,20203260)

#15일차 #끝

[완주]

'끝' 키워드를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오늘 챌린지 마지막 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쩐지 키워드가 기대되고 평소보다 더 궁금한 이유가 있더라니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라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글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 더 이상 같은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단 사실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드는 글을 쓰기 위해 골똘히 집중하느라 많은 댓글을 달지 못한 점도 아쉽네요. 집중한다해도 글쓰기는 아직 미숙하지만요 확실한 건 쓰면 쓸수록 어딘가 정돈되고 글로 표현을 꺼내는 일이 익숙해져서 뿌듯함도 큰 수확입니다.

가장 처음 당혹스러운 감정에서 피어난 생각입니다. 만약 끝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끝이 마냥 새로운 시작이라며 긍정할 자신이 없습니다. 삶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인생도 끝이 있기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의 무게는 온전히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챌린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